중편소설

전사들

석 윤 기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

중편소설 《전사들》은 주체49(1960)년 8월에 창작된 작품이다.

소설에는 한개 보병중대력량인 박대우중대 전사들이 적의 증강된 두개 련대무력의 발악적인 파장식 공격을 완강히 격퇴하고 두무령을 지켜내는 영웅적위훈이 그려져있다.

무슨 힘으로 이겼는가? 이에 대한 해답속에 소설의 종자가 지닌 무게가 있다.

소설은 전사들이 간직한 사랑의 힘에 전쟁의 운명이 달렸다는 생활철학, 투쟁철리를 주로 결사전에 나선 박대우중대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통하여 밝히고있다. 그리고 두무령방어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련대장 강표와 참모장 구본수의 견해상 대립을 통하여서도 보충적으로 밝히고있다.

주인공 박대우는 한개의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면서도 조국의 운명을 생각한다.

그가 두무령사수임무를 스스로 맡아나서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였으며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어떻게 시련의 낮과 밤을 이겨냈으며 부대의 승리를 보장하는 과정에는 어떤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였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상정신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소설은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할것이다.

편집부

주 요 인 물

박 대 우	주인공, 보병중대장
김 의 식	정치부중대장
한 성 호	소대장(상사)
곽 홍 규	대원
강 표	보병련대장
구 본 수	련대 신임참모장
구 혜 경	련대 상급준의, 주인공의 애인

죤 웨더마이어 미군 련대장

1. 꼬아리

1

전투가 지나간후이면 군의소는 의례히 바쁘기마련이였다.

시간을 다투는 부상병들이 얼마든지 밀려들었다. 밤낮없이 들것을 멘 위생병과 간호병들이 불이 일듯이 달려들고 달려나가고 하였다.

사흘전, 월하봉 탈취전이 끝나자마자 아직도 일부 릉선에서 수색전투가 진행되고있을 때 총총히 이동하여온 군의소 성원들은 미처 이사짐을 정리할사이도 없이 우선 치료사업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전방치료대 성원들을 데리고 먼저 월하봉으로 옮겨온 상급준의 구혜경은 가렬한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처참한 전장을 돌아다니며 부상병들을 찾아내였고 림시로 쳐놓은 행군천막속에서 꼬바기 밤을 밝히며 수술을 하였다.

월하봉으로 이동하여온 첫날 혜경은 변변히 손도 써보지 못한채 련대 참모장 리경구소좌의 최후를 목도하였다.

용감한 군인이며 지휘관이였던 리경구참모장은 월하봉의 적 지탱점을 공격하다가 세차례나 물러선 아군 주공대대를 손수 이끌고 마지막돌격전에 나섰던것이다.

마침내 적은 패주하고 련대는 어려운 전투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나 참모장자신은 치명적인 중상을 당하였다. 군의소까지 들것에 실려왔을 때 그의 생명은 이미 경각에 달려있었다.

혜경은 전우들에게 에워싸여 웃으며 련대의 승리를 축

하하고 숨을 지우는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의 무력함에 대하여 뼈아픈 생각을 금할수 없었으며 원쑤들에 대한 다함없는 증오와 함께 무엇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꾸만 뉘우쳐지는것을 어찌 할수 없었다.

참모장의 전사는 련대로서도 가장 가슴아픈 희생이였다. 련대의 전사들은 락동강계선과 적후활동시기부터 련대의 친숙한 상관이였던 리경구소좌를 기억하고있었다.

참모장의 전사가 전 련대에 알려지자 전사들은 원쑤들에게 천백배 보복할것을 맹세하면서 높이 540메터의 이월하봉을 《참모장고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혜경은 밤을 밝히고 또 밝혀도 정성이 모자랄것만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부상병들을 치료하였다. 참모장의 최후는 군의일군으로서의 책임감을 새삼스럽게 느끼도록 하였을뿐아니라 경황없이 바쁜가운데서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오빠 구본수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켜놓았다. 구본수 역시 어느 련대에선가 참모장공작을 하고있었기때문인지도 몰랐지만 리경구소좌의 최후는 자기의 모든 친근한 사람들의 신변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이 있기도 하였다.

긴장된 치료사업의 나날에 어느덧 부드럽던 두볼의 선은 깎이고 희고 맑던 얼굴은 석고상처럼 푸른기가 돌았으며 쌍까풀진 두눈은 가는 피줄이 서서 눈에 알리게 꺼져들어갔으나 균형이 잡힌 몸에서는 여전히 성숙한 처녀의 탄력이 넘쳐흘렀고 검은 동자는 빛이 돌아서 엄하게 보이기까지 하였다. 흰 위생모밑으로 치렁치렁 땋아늘인 굵직한 두갈래의 머리태는 언제나 량어깨우에서 바삐게 흔들거렸다.

생명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헌신적인 치료사업과 함께 한편으로는 부상병들에 대한 엄격한 요구성으로도 표현되였다.

흔히 용감한 병사들은 군의소일군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그들은 조심하라든가 삼가하라든가 하는 살뜰한 말에 걸직한 롱담으로 대했으며 친절과 배려가 극진하면 반발하다못해 화를 내군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전선병사들의 벗으로, 지어는 전쟁을 겪는 인민들의 응당한 도덕으로 생각하는것이였다. 다 자란 사람들의 그런 철없는 생각은 혜경이의 가슴을 몹시도 타게 하였으며 그때문에 뜻아닌 말다툼까지 하게 되는 때도 없지 않았다.

마침 오늘도 그러한 말다툼을 하게 되였다.

아래턱에 관통상을 입은 부상병의 복잡한 수술을 끝마친 혜경은 다음 부상병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돌리고 서있었다.

미국놈들의 허물어진 화점을 손질한 처치실 겸 수술장의 통풍구를 통하여 따뜻한 바람이 솔솔 불어들었다. 벌써 5월이라고는 하나 고산지대의 봄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였다.

삐꺽하고 백포로 가리운 출입문이 열리더니 참나무지팽이를 짚은 젊은 상위가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타입은지 얼마 안된듯 아직 색이 날지 않은 여름군복은 벌써 피자국과 흙검댕이로 매닥질이 되고 그우에 바지가랭이는 넙적다리께서부터 무르팍까지 쭉 찢어진것을 서투른 솜씨로 숭숭 호아서 보기가 어색하였다. 목달개만은 깨끗한것을 갈아대여서 더 유표하게 두드러졌다.

엉망이된 군복이였으나 그래도 당자는 괜찮은 외출복이라도 입은듯이 넓은 군관혁띠밑으로 손을 넣어 주름을 바로잡으며 혜경의 눈치를 슬슬 살피는것이였다.

보매 자기를 치료해줄 사람이 아직도 손때가 말랑말랑한 처녀라는데서 얼마간 당황한 눈치였다.

《이리 오세요.》

혜경은 간호병이 가지고 온 접수문건을 뒤적거리며 부

드럽고 은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그속에는 자기 사업에 대한 숙련과 정통에서 오는 자신심과 권위가 위엄있게 울려나오고있었다.

혜경은 어설핀 동작으로 다가오는 부상병을 직업적인 예리한 눈초리로 찬찬히 뜯어보았다.

키가 크고 근육이 발달한 든든한 몸집에 비해서는 얼굴색이 너무 곱살하고 흰편이라고 생각되였다. 굵고 진한 눈섭과 열정적으로 빛나는 좀 작은 눈이 만만치 않은 인상을 주었으나 그것도 얼핏 보기에는 지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갔다. 하얀 덧이를 드러내며 히죽이 웃기부터 하는데서 더욱 그러한 생각이 가는지도 몰랐다.

혜경은 접수대장에서 언뜻 박대우라는 이름과 그가 이번 전투에서 주공을 담당한 3대대의 중대장이라는것을 알수 있었으나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는 않았다.

군의소에 들어오는 날이면 그가 장령이든 전사이든 혹은 이름있는 병사이든 알려지지 않은 병사이든 누구나 할것없이 일매지게 한사람의 부상병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말다툼은 뜻밖에도 이번 전투에서 부상당한 허벅다리의 상처를 다 처치하고 간호병이 붕대를 감기 시작했을 때부터 벌어졌다.

붕대를 감노라고 간호병이 우연히 박대우의 넙적다리께를 짚었는데 불시에 이 장대한 부상병이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마살을 찌프렸던것이다.

《왜 그러세요?》

눈이 둥그래진 간호병을 밀치고 대신 붕대끝을 잡은 혜경은 그 역시 이마살을 찌프리며 대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건드려놔서…》

대우는 히죽이 웃으며 외면하였으나 아직도 진한 두

눈섭은 한곳에 몰려 푸들푸들 떨고있었다.

《대퇴에도 부상당했군요?》

혜경은 감던 붕대를 얼른 마저 감아버리고 물었다.

《네,벌써 옛날겁니다. 뭐 이젠 일없습니다.》

부상병은 웬일인지 우물쩍해서 넘기자는 눈치다.

혜경은 제잡담 부상병의 군복바지를 걷어올렸다. 그리고는 아연해서 한참이나 대우의 얼굴을 말똥말똥 올려다보았다.

부상병은 슬그머니 목덜미를 붉히더니 열적은 웃음을 띠우며 중얼거렸다.

《후퇴시기에 맞았으니까 이젠 반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봐주시오. 난 사실 속탈도 좀 있습니다.》

왼쪽 넙적다리는 손바닥만큼이나 불그죽죽하게 독이 올랐는데 한가운데는 붉다못해 거멓게 살이 죽어들고 있었다. 파편이 박혀있다는 상처는 신통히도 겉으로는 아물었으나 속으로 곪아나는것이 분명하였다.

대우자신도 그 무시무시하게 된 상처를 들여다보고는 마치 처음 그것을 본 사람처럼 눈이 둥그래졌다.

혜경은 처치대우에서 핀세트를 찾아들고 상처의 겉가죽을 집었다.

《아프지 않으세요?》

《일없는데요. 망할거!》

《참 어쩌면… 간호병동무,곧 수술준비를 해요.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었나요?》

혜경은 한편 간호병에게 지시를 주고 한편 부상병을 책망하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약냄새가 질색입니다. 대체로 상처란 제절로 낫게 마련이 아닙니까? 더구나 요즘이야 어쩔 겨를이 없었지요. 전쟁인걸요.》

부상병은 혜경의 책망을 듣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

해지는지 웃으며 받아넘겼다. 세모진 작은 눈이 장난군처럼 지꿎게 반짝거리고 송곳끝같이 날카로운 덧이가 자꾸 드러났다.
혜경은 부상병의 말투며 그 눈이며 덧이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쟁은 마치 동무 혼자하는것 같군요. 그렇게 미련을 부리다가는 다리를 아주 잘라버리게 될거예요.》
《너무 위협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언제 제대로 치료받을 조건이 있었나요? 적후에서 제2전선을 펴놓지 않았습니까? 동무들도 아마 그때 내가 찾아왔더면 별로 환영하지 않았을겁니다. 약도 없고 집도 없고 또 련대를 따라다니느라 동무들자신이 숨을 헐떡거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렴치가 있으니까 상처가 제절로 아물어주기를 기다리기로 했지요. 사정이란 그런겁니다.》
혜경은 다시 낯을 찌프리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보매 곱살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입이 다사하고 능청을 떠는게 여간 비위에 거슬리지 않았다.
수술은 한시간 가까이나 걸렸다.
대우는 번쩍번쩍하는 의료기구들이 주런이 놓인 수술대앞에 나서자 저으기 당황한 표정으로 《꼭 수술을 해야 합니까? 난 아픈것은 질색인데요.…》하고 수다를 떠는지 겁이 나서 그러는지 알수 없는 소리를 여러번 하였으나 막상 고무씨트를 깐 수술대우에 올라누워서는 모든것을 단념한듯 찍소리 없어졌다.
마취가 불완전하여 간호병이 상처를 건드렸을 때 요란스레 소리를 지르던 품으로 봐서는 어지간히 고아댈것으로 짐작했는데 뜻밖에도 잘 견디여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이 끝나고 혜경이가 코등에 맺힌 땀을 씻으며 부상병을 입원실토굴로 보내려고 했을 때 이번에는 본격적인 말다툼이 벌어졌다.
대우는 방금 두군데나 절개한 다리를 끌고 그대로 자

기 중대로 돌아가려고 했던것이다.
절뚝절뚝하며 지팽이를 찾으러 가는 그를 보자 혜경은 놀랐으나 그래도 설마해서 조용히 주의를 주었다.
《동무, 수술을 하고 인차 움직이면 못써요.》
대우 역시 서둘지 않고 지팽이를 찾아들더니
《수고했습니다. 상급준의동무, 천천히 가지요.》하고 돌아섰다.
《아니 동무, 가긴 어딜 가요? 이제 들것이 와요.》
《네?》
대우의 눈은 금시 휘둥그래졌다.
《아니 나를 입원시킬 작정입니까?》
혜경은 한두번만 아니게 부상병의 그런 능청을 대해왔으며 그것을 내심으로까지 불쾌하게 생각한적은 없었으나 이번만은 약이 올랐다. 저도 뜻밖이리만큼 야무진 목소리로 쏘아주었다.
《난 바쁜 사람이예요. 동무하구 롱말할 시간이 없어요. 간호병동무, 이 군관동무를 얼른 토굴에 보내요.》
《아니 나를 정말 입원시킬 작정이란말이지요?》
대우는 어이없다는듯이 혜경의 오똑한 코를 바라보다가 지팽이를 겨드랑이에 끼더니 무슨 일을 낼 사람처럼 급히 다가오면서 소리쳤다. 진한 눈섭이 미간으로 몰려들고보니 지꿎다는 인상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사뭇 만만치 않게만 보였다.
《동무, 정신이 있소? 나를 입원시키다니… 지금 전선형편이 어떤지 알기나 하오? 흥, 청하지도 않은걸 수술하러 드는게 처음부터 께름직하다 했지.》
《듣기 싫어요. 난 군의예요, 그리고 동무는 부상병이고. 알만해요? 전선형편은 동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예요.》
대우는 상급준의의 야무지고 차거운 말소리를 듣자 갑자기 풀이 죽어 가련한 표정이 되였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번에는 어설핀 웃음까지 띠우고 빌붙

는 어조로 사정을 늘어놓았다.

《상급준의동무,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시오. 글쎄 동무야 군의니까 입원시킬 권한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서로 권한을 시위하는게 군대생활이 될수야 없지 않소. 지금 나의 중대는 두무령에 있소. 두무령이 어떤곳인지 동무도 알지 않소? 중대는 련대의 최전초에서 하루에도 몇차례씩 적의 반돌격을 겪고있는데 중대장이 군의소에 누워있을 렴치가 어디 있소? 이렇게 될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묵은 상처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단말이요.》

《중대장동무, 책임감이나 렴치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수는 없어요. 중대에는 또 중대를 지휘할 대리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러니 어서 가십시오. 자 간호병동무, 어서…》

《자 이런 벽창호라구 어디 있소? 여보, 동무도 견장을 달았구 말투로 보니 군대밥을 좀 먹었겠구려? 그래 이렇게 사정을 몰라주기요? 꼭 기계라니까… 유감스럽지만 난 돌아가야겠소.》

혜경은 바싹 약이 올랐다. 끝까지 사람을 깔보고 드는 부상병의 태도를 그냥 참을수는 없었다.

두사람의 론쟁은 뜻밖에도 격렬해지기 시작하였다.

2

신록이 우거지기 시작한 전선의 산속길로 잔뜩 위장한 련대장의 윌리스가 사단지휘부로부터 월하봉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꽁무니를 분주히 내두르는 《발바리》는 몹시도 들추었다. 잘못 하다가는 허양 차밖으로 굴러떨어질 위험도 없지 않았다. 워낙 길아닌 길인데다 사흘전까지

만 해도 아군의 집중적인 포화를 들쓴곳이라 길이 험하지 않을수 없었다.

운전사의 이마에서는 땀이 철철 흘러내렸다. 군모를 삐딱하게 제껴 쓴 그는 가끔 차가 꽁무니를 내저으면 핸들을 힘껏 돌려꺾으며 《젠장!》하고 누구에게라없이 두덜거렸다.

그 옆자리에 련대장의 비옷을 깔고앉은 애숭이 련락병이 잔뜩 긴장되여 올롱한 눈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였다. 혹시 적기가 뜨지 않을가 해서 그러는것이지만 이런 산속길을 철저히 위장을 하고 달리는데야 적기가 나타난대도 대수로울것이 없었다.

앞자리를 련락병에게 양보하고 신임참모장과 함께 뒤자리에 앉은 강표상좌는 차가 들추는것쯤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사단작전회의에서 돌아오는 그는 오늘 몹시 기분이 좋았다.

이번 전 전선의 작전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월하봉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마친데 대해 오늘 군단장으로부터 직접 감사를 받았던것이다. 게다가 이번 전투에서 가장 아픈 희생인 참모장의 후임이 뜻밖에도 빨리 해결되였다.

강표는 전 참모장 리경구와 같은 좋은 방조자를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을 참모장없이 싸워야 하리라고 생각했던것이다.

《…현리엔 지금 강대한 타격집단이 형성되였습니다. 벌써 포위를 압축하기 시작했지요. 문등리쪽에서는 지원군들이 조이고있습니다. 이 주타격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타격을 월하봉에다 가한셈이지요.》

강표는 자동차가 덜 흔들리는 틈을 리용하여 좀 빠른 어조로 설명하였다.

20대의 청년시절부터 전투속에서 성장하고 단련된 그

의 체구는 후리후리하면서도 마치 강철로 빚어낸듯한 묵중한 인상을 주었다.

거기에 비하면 다소 메마른편인 구본수중좌는 처음 만난 상관의 말을 신중하게 들었고 역시 신중한 어조로 침착하게 응대하였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전투는 앞으로 있는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월하봉전투는 겨우 꼭지를 뗀거나 같지요. 잘 익은 수박꼭지말입니다. 현리부근에 압축된 놈들이 빠져나가려고 발광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려고 삼두봉과 월하봉 언저리에 있는 놈들이 삼두봉으로 밀려갔으니 거기엔 지금 두개 련대가 집결된셈입니다. 그놈을 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내밀것이 아니라 몽땅 잡아야 합니다.》

강표는 큼직한 손으로 움켜쥐는 시늉을 해보이며 이렇게 말하고는 두터운 입술을 꾹 다물었다.

《두개 련대라니 대단하군요. 그런데 월하봉에서 삼두봉까지는 개활지대라지요?》

《이 월하리전체가 큼직한 함지박밑창같은데지요. 거기에 무둑무둑 낟알무지를 몫을 지어놓은것 같이 산봉우리들이 솟아있습니다. 만만치 않은놈들입니다. 미 10군단산하에서는 제일 쫄쫄하게 꾸린 련대라니까요. 련대장이라는자가 웨더마이어의 조카벌되는자랍니다.》

《웨더마이어라니, 언젠가 전쟁전에 남조선에 기여들어서 전쟁도발계획을 짰다는놈말입니까?》

《옳습니다. 강연제강에 자주 나타나는놈이지요. 그놈의 조카아이때문에 월하봉에서도 앨 먹었습니다. 허허. 그놈의 감시소가 날아날 때까지 포탄으로 답새왔는데도 기를 쓰고 뻗친단말이요. 제때에 두무령을 배후에서 들이치지 않았더면 아마 더 앨 먹었을수도 있었지요. 그 동무들이 잘 싸웠습니다. 두무령이 그놈들

의 가장 중요한 지탱점이였는데 그걸 빼겼으니 꼼짝 못하게 됐지요. 이번에 그 동무들 표창을 받게 될것입니다.》

《그 박대우중대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참모장이… 참, 그전 리경구동무말입니다. 그 참모장이 주공대대를 끌고 올라갔을 때 1중대 동무들이 우회해서 두무령을 먼저 먹어치웠으니 잔뜩 뻗대고있는놈의 발꿈치밑에 홈채기를 파고 주저앉힌셈이 됐지요.》

참모장은 잠자코 흔들리는 자동차 좌석에 몸을 내맡기고 들을만해 있었다.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하고 수면부족으로 눈병난 사람처럼 진물이 내배인 눈시울은 가늘게 쪼프려지고 그속에서 황갈색의 동자가 총명스럽게 반짝이고있었다. 얼핏 보면 피로에 지친듯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에 잠겼을 때의 버릇이였다.

구본수는 아까부터 자주 련대장의 입에 오르는 박대우라는 이름이 귀에 익다고 생각되였다. 혹 락동강계선이나 예비부대편성때 같은 부대에 있던 동무는 아닌가 하였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렇지도 않았다.

구본수는 원래 기억력이 비상한 사람이였다. 광복직후부터 안전기관에서 사업하다가 38경비대로 들어간 그는 오랜 기간에 걸친 안전사업과정에 그 비상한 기억력으로써 한두번만 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박대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딱히 잡히지를 않았다. 이번에 새로운 임명을 받고 전에없이 흥분하고있었기때문인지도 몰랐다.

시골선비의 장남으로 태여나서 전문학교도 다녔고 젊은 혈기에 신사상에 물이 들어 집일을 돌아보지도 않고 일본으로, 만주로 떠돌아다니던 젊은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진중한 참모일군으로 틀이 꽉 잡힌 그였다. 그러한 그가 흥분한다는것은 드문 일이였다.

그에게는 혈육이 없었다. 부모와 동생들은 그가 타관으로 떠돌아다니던 광복전에 다 죽고 지금은 누이동생 혜경이 하나가 당그랗게 남아있을뿐이였다. 광복되던 해 뒤늦게사 결혼한 안해도 병약하여 줄곧 누워있더니 재작년에 아이 하나 낳아주지 못한채 황천객이 되였다. 그리고보면 그에게 남은것은 광복직후부터 탑을 쌓듯이 공들여온 사업밖에 없었다. 세상 쓴맛을 다 보아온 그는 일체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는 법이 없었다. 흥분하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의 철색이 돌고 군데군데 검버섯이 박힌 얼굴은 항상 엄하였고 든든한 포장지처럼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실상 구본수는 속이 깊고 정에 헤픈 사람이였다. 더구나 의대 재학중에 전선으로 탄원해나간 누이동생 혜경이에 대한 사랑만은 겉으로 드러내는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살뜰한 정을 주어보지도 못한채 다 떼워버린 가족들에게 못다한 정이 혜경이 한사람에게로 쏠린듯하였다.

이번에 새 임명을 받았을 때 그 련대가 바로 혜경이가 속해있는 련대라는것을 알고 가슴에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흥분한것은 그것때문이 아니였다.

련대장의 설명을 듣지 않고도 지금 이 련대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것을 넉넉히 짐작할수 있는 그였고 또 전참모장 리경구소좌의 명성도 미리부터 듣고있는 그였다.

전 전선적으로 되는 이번 작전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련대에다가 더구나 리경구소좌와 같은 우수한 참모장의 후임으로 자기를 배치한 상급 참모부의 신임과 기대를 생각할 때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어깨가 무거워지는 생각을 금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잠시 순조롭게 달리던 차가 갑자기 더 야단스레 들추기 시작하였다. 월하봉으로 올라가는 릉선에 잡아든

것이다.
길은 포탄에 파헤쳐져서 군데군데 끊어져있었고 길 좌우로 격전의 흔적이 아직도 어수선하게 남아있었다.
무한궤도가 뭉텅 끊어져나간 적 땅크의 잔해, 반나마 땅속에 처박힌 박격포신,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흩어져있는 각종 포탄과 탄피들, 불타다남은 나무그루들, 뒤집힌 참호와 화점들, 숭숭한 포탄구뎅이, 미국제 철갑모, 허리부러진 보총, 어디선가 아직도 푸실푸실 피여오르는 매캐한 연기, 산들바람에도 흩날리는 재가루—
좀더 올라가니 포진지를 굴설하는 포병들의 땀이 질펀한 내의등과 위장한 자동차와 포마들이 얼씬얼씬하였다.
이윽고 자동차는 월하봉 북쪽릉선 중턱에 가 멎었다.
차에서 내린 강표와 구본수는 우연히도 거의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말없는가운데 서로 무엇인가 묻는 표정이 되여 그렇게 잠시 서있었다.
강표가 어깨가 들썩하도록 호탕하게 웃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허허허, 우선 돌아보잡니까?》
《네.》
구본수는 처음으로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이며 짧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싸움판을 미리 봐두는게 필요하지요.》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말한 강표는 련락병에게 눈짓을 해서 먼저 지휘부로 돌려보낸 다음 참모장과 나란히 섰다.
그는 자기가 만일 새로운 부대로 임명을 받았다면 우선 서슴없이 구분대의 전연을 돌아보았을것이였다. 그러나 새로 온 참모장이 그것을 바라겠는지 어떤지는 알수 없었다. 매개 지휘관들의 생각이 똑같을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구본수 역시 우선 무엇보다도 삼두봉과 대치된 련대의 방어전연을 돌아보고싶었다.
생각이 서로 합치된것을 알자 두사람은 흡족한 마음으로 천천히 월하봉 정점을 넘어섰다.
순간 쿵—하는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요란하게 포탄이 터졌다. 포탄은 련속적으로 날아왔다.
《또 갈개기 시작하는군. 달립시다.》
련대장은 날쌔게 지형지물에 의지해가면서 릉선을 내리달렸다. 참모장도 뒤따라 달렸는데 뼈마디가 꿋꿋해보이는 외형과는 달리 여간 민첩하지 않았다.
번번한 남쪽릉선은 사흘전만해도 적의 포진지가 있던곳이였다. 오늘은 바로 거기서 끌고간 적들의 포탄으로 불세례를 받고있었다. 전쟁에서는 대지의 운명조차 며칠사이에 그처럼 심한 변동을 겪게 마련이다.
포사격구역을 다 지났을 때 강표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참모장을 돌아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는 구본수가 무표정한가운데도 자기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용감한 사람이라는것을 간파하고 마음속으로 몹시 흡족하였던것이다.
사실은 포사격구역을 달릴 때 강표의 마음속에는 신임참모장의 용감성을 시험해보려는 엉뚱하고 얄궂은 심사가 한 귀퉁이에서 옴지락거렸는지도 모른다.
구본수는 강표의 그런 생각은 알바없다는듯이 여전히 변함없는 그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팔자걸음이였다. 달릴 때는 눈에 띄지 않았으나 천천히 걸으니 팔자걸음이 완연히 두드러졌는데 이것은 그를 나이보다 훨씬 늙어보이게 하였다.
《교통호를 수리해야겠습니다.》
참모장은 사무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수리해야지요. 래왕이 빈번한데 여간 위험하지 않습니다.》

련대장은 쾌히 동감을 표시하면서 천천히 앞섰다.
두사람은 머리우로 날아지나는 포탄소리를 들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월하봉의 밋밋한 남쪽릉선이 끝나는곳에 잘룩한 골짜기가 있고 거기서부터 두무령이 시작되였다.
표고 200을 겨우 넘는 두무령은 큰 산줄기가 뭉턱 잘리여진 월하분지에 주먹처럼 불쑥 내민 돌바위고지였다. 그 정점에 거대한 현무암이 시꺼멓게 솟아난것이 서북쪽에서 보면 신통히 매부리 비슷해서 그쪽켠 사람들은 응두봉이라고도 하였다.
오랜 옛날에는 이 월하리 일대로 여러 산줄기에서 흘러내린 산골물들이 합쳐서 큰 강을 이루었던것이나 지금은 모래만 덮이고 그우에 또 온갖 잡초가 모전처럼 한벌 쫙 덮여있었다.
강표와 구본수는 두무령의 정수리밑을 돌아서 련대의 최전연인 두무령의 남쪽비탈에 섰다.
시계가 탁 틔였다. 2키로남짓한 개활지대가 한눈에 안겨왔다.
잡초가 무성한 분지를 지나서 서남쪽으로 정면에 우뚝 솟아있는것이 월하산줄기의 주봉인 높이 1,062메터의 삼두봉이였다. 그 우익으로 좀 낮은 봉우리—820메터의 가재봉이 천천히 월하분지의 왼편 변두리를 이루면서 두무령과 월하봉을 량옆으로 끼고 뻗어나갔다.
세개의 봉우리는 마치 한데 가마를 걸기 위해 펀펀한 곳에 주어다놓은 세개의 돌멩이와 비슷했다. 그중 삼두봉이 제일 크고 월하봉이 제일 작은데 그대신 월하봉에는 두무령이 덧붙여놓은 돌처럼 달려있는셈이였다. 가재봉과 월하봉뒤로는 높지는 않으나 큰산의 줄기가 뻗어있었다. 지도상으로 보면 삼두봉남쪽으로는 월하분지보다 훨씬 넓은 개활지대가 계속되였다.
이 부근 산들은 야산이나 다름이 없어 큰 나무는 드

물고 잡목림만 빽빽한데 다만 가재봉에는 소나무숲이 제법 울창하였다. 두무령은 그나마 잡목들마저 홀랑 벗기우고말았다.

치여다보면 아슬하게 높은 삼두봉후면 적포진지에서 쉴새없이 날아오는 포탄은 월하봉과 두무령을 면바로 두들겨댔다.

《방어하기엔 불리한 지형이군요.》

참모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공격도 헐치 않습니다. 저놈들이 여기를 빼앗기고 독이 올랐지요. 어떻게 하든지 도루 빼앗아보겠다고 발광입니다.》

《그럴테지요. 현리쪽으로 진출하자면 이리로 빠지지 않군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무령이 문제입니다. 덩치는 보잘것이 없어도 이걸 내준다는것은 월하봉을 내주나 다름이 없고 월하봉을 내주면 곧장 현리계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삼두봉뒤로는 4키로이상의 개활지대가 계속됩니다. 아무데도 배겨낼 지탱점이 없지요. 그러니 더욱 불안해서 한시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강표는 참모장의 기색을 살피면서 상을 찌프리고 골치가 아프다는 시늉을 해보이였다.

랭랭하리만큼 무표정한 신임참모장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지 중떠보자는것이였으나 본수는 의연히 입을 다문채 속심을 내비치지 않았다.

×

1951년 신년벽두부터 200키로에 달하는 조선전선의 전전선에 걸쳐 소위 《직선전술》로써 돌출부를 형성하지 않고 한걸음한걸음 북조선을 침공하면서 조중인민군부대들을 대량 소멸한다고 떠들어대던 맥아더는 한

걸음한걸음 자기의 무덤에로 진공하여 마침내 4월 2일날 파면당하고 말았다.

《유엔》군 총사령관 및 미극동군 총사령관의 후임으로 리치웨이가 임명되였다.

개똥망태가 돼버린 《대아메리카의 위신》을 회복할 《중책》을 떠메고나선 이자는 조중인민군부대에게 완전히 빼앗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계속 전쟁을 확대하며 미국본토로부터 새로운 사단들을 끌어들여 일본에서 제16군단을 편성하는 한편 에티오피아니 꼴롬비아니하는따위 어중이떠중이 추종국가들의 부스레기 려단들과 련대들을 조선전선에 끌어들였다.

리치웨이는 이렇게 늑거리를 긁어모은 유색고용병들을 탄알받이로 삼고 전선에서 발광적인 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간 크게도 우리 후방의 종심깊이 상륙작전을 기도하였다.

선손을 써야 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천재적인 결심에 의하여 5차전역기간에 두개의 반타격전이 준비되였다.

1951년 4월 22일 최고사령부의 작전계획에 기초하여 개성북쪽과 구화리,련천북쪽과 철원 남쪽 및 금화남쪽등 지대에 형성된 세개의 강력한 타격집단들은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적들은 전선에서 서울, 북한강과 소양강 남안계선에까지 쫓겨갔다.

조중인민군부대들은 재빨리 배비변경과 부대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타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작전에 유리한 계선까지 철수하였다.

발광지경에 이른 리치웨이는 다시 패잔한 사단들을 공격에로 내몰았다.

이리하여 현리일대에 적의 돌출부가 형성되였다.

최고사령부는 새로운 반타격전을 준비하였다.

현리지역에서의 주타격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조타격

집단들이 전투에 투입되였다.

설악산 북쪽에서 휴식하고있던 강표상좌의 련대가 월하리계선으로 진출하게 된것도 그때문이였다.

월하봉과 삼두봉에 둥지를 튼 미10군단산하 169련대와 37련대의 현리계선으로의 진출을 불허할 임무가 부과되였다.

한편 죤 웨더마이어가 지휘하는 미 169련대는 37련대와 배합하여 월하봉을 도로 탈취하고 현리에로 진출하기 위하여 계속 집요한 반돌격전을 감행하고있었다.

적은 수량상 우세할뿐아니라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있었다. 직선거리로 2키로가 채 차지 않는 1062고지는 높이 540의 월하봉을 우선 그 지형부터 압도하는 형상이였다.

더구나 골치거리는 분지 한가운데로 쐐기처럼 뻗어나간 두무령이였다. 적이 무시로 반돌격을 감행하고있는 이때 이 협소한 고지는 방어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하였다. 우선 덩치가 작다보니 방어전연이 극도로 좁아서 력량을 투입할래야 할곳이 없었다. 그렇다고 내주면 직접 월하봉이 위협을 받을것이였다. 사실상 월하봉의 운명은 이 두무령의 방어여하에 크게 달려있었던것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형편이였다.

강표는 되도록이면 이런 어려운 정황을 빨리 신임참모장에게 리해시키고싶었다.

보매 신임참모장은 나이도 지숙하였지만 혈기에 날뛰거나 군공에 끌려 모험을 일삼을 위인은 아니였다. 전참모장 리경구가 그 많은 우점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다면 구본수는 어느모로보나 그점은 안심할수 있다는것이 첫눈에 알려졌다.

그러나 군인으로서는 지나치리만큼 무표정한 그 랭담성이 마음에 걸렸다.

강표는 신중하게 신임참모장을 관찰하였다.

삼두봉과 주위 지형을 쭉 훑어보고난 본수의 메마르면서도 구멍새가 큼직큼직한 얼굴에는 언뜻 긴장의 빛이 지나갔다.

강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그 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는 알수 없었다.

어쨌든 침착하고 진중한것은 참모일군으로서 더할나위없이 필요한 품성이다. 그에게 뜨거운 심장과 칼날같은 두뇌만 있다면— 강표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3

두사람은 두무령의 방어전연으로 나갔다.

미국놈들의 박격포진지가 있었다는 이 릉선에는 지금도 그들이 버리고간 박격포탄상자가 수없이 나딩굴고있었다.

포사격은 잠시 즘즛해졌다.

돌바위로 된 강파로운 벼랑턱에서 전사들이 전호작업을 하다가 휴식하는 모양 떠들썩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저쪽에서는 《나오시오, 나오시오, 안나오면 발싸개!》하는 합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요란하였다.

두 상관이 교통호에 들어서자 《차렷!》하는 구령소리와 함께 상사의 견장을 단 하사관이 련대장앞으로 와서 보고하였다.

《련대장동무, 제3대대 제1중대 2소대는 현재 휴식중에 있습니다. 소대장 한성호.》

《좋소. 휴식하시오.》

련대장은 너그럽게 보고를 받고나서 본수에게 낮은 소

리로 속삭이듯이 말하였다.

《소대장이 전사했지요. 저 동문 부소대장이였는데 지금 소대를 지휘하고있습니다.》

본수는 고개만 끄덕거렸다.

《쉬엿!》

대원들을 휴식시키고난 성호는 다시 상관들 앞으로 왔다.

전호작업을 하느라고 군데군데 흙검댕이가 묻었으나 초연에 그슬린 사람답지 않게 얼굴색도 희고 몸매도 단정한편이였다. 좀 갸름한 얼굴이며 채 여물지 못한 후리후리한 체구며가 다 어디라없이 학생티를 풍겼다.

《그래 성호동무는 요즘도 평로강의를 하오?》

강표는 젊은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진담인지 롱담인지 모를 소리로 물었다.

성호는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지더니 겉보기와는 딴판으로 굵고 야무진 소리로 말하였다.

《강의라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입대전의 생활을 몇마디 한것을 강의라고 하면 곤난합니다.》

《허허허, 내가 모를줄 알구? 그러나 평로강의도 해야지. 내 동무 말을 들었소. 군대내 상학에 군사기술뿐아니라 평화적인 건설에 대한 기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것은 확실히 괜찮은 생각이요. 허지만 동무는 무쇠라는것은 평로에서 녹이는건데 전쟁포화로 녹여내는것은 인류가 뒤걸음치자는 놀음이라고 했다면서? 동무는 전쟁을 무슨 과학실험같은걸로 생각하는게 아니요?》

《난 그런 말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양키들이 무수한 인민들의 로력을 전쟁에 끌어내다가 불사르고 파괴하는걸보니 너무 기분이 나빠서 간단히 욕을 좀 했을뿐입니다.》

《좋소. 노여워 마오. 내가 실없는 소리 한거요. 그러나 소대장동무, 우리가 평로에서 무쇠를 마음놓고 녹이기 위해서는 거기서 녹인 무쇠를 이런 산마루에다 끌

어내놓고 녹여야 할 형편에 우리 조국이 처해있다는것을 잊지 마오. 평화야 좋지. 그렇지만 평화롭게 살자면 지금은 전쟁의 한복판에 뛰여들어야 한단말이요. 알겠소? 허허허.》

강표는 젊은이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삑 돌아섰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며 아까처럼 낮은 목소리로 구본수에게 말하였다.

《공대졸업반에서 나온 동무입니다. 다감한 시절이라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도 싸움을 곧잘 합니다. 아마 머지않아 학교로 도루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동무 말대로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도 평화적건설을 잊지 말아야 하니까요. 사단에서 명단을 만들어갔으니 쉬 조치가 있을것입니다.》

구본수는 역시 들을만해서 수걱수걱 걸음만 옮겨놓았다. 사실 그에게는 할말이 없었다. 군인으로서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더없이 엄격한 그는 방금 련대장과 한 하사관사이에 진행된 이야기가 이 최전방의 전호속에서 진행됐다는것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뜻밖이였다. 그런 비현실적인 담화가 가렬처절한 전쟁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단말인가? 준엄한 시절에는 그에 상응하게 사람들의 사고도 행동도 모두가 준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본수는 련대장의 관용성에 공감을 느낄수 없었고 오히려 가슴이 무거워지는것을 느꼈던것이다.

강표와 구본수는 아직도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교통호를 따라 두무령의 정점, 멀리서 보면 천연 매부리같이 생긴 거대한 현무암으로 올라갔다.

바위에 가리운 바로 그뒤에서 5명의 전사들이 말없이 자그마한 구뎅이를 파고있었다.

여기저기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오는 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엄숙한 분위기가 떠돌고있었다.

그들은 련대장과 참모장이 가까이 가는것도 모르고 일

에 열중해있었다.
제일먼저 상관을 발견한것은 키가 여섯자나 되는 황소와 같이 장대한 전사였다. 그는 몸집과는 딴판으로 아직 변성기를 넘기지 못한 소년의 목소리처럼 애된 목소리로
《차렷!》하고 구령을 쳤다.
《좋소. 쉬엿하시오.》
강표는 재빨리 한손을 들었다놓으며 성큼성큼 그리로 다가갔다.
전사들은 그 굳은 돌바위우에다가 무엇을 옮겨심을 작정인지 슬사호만한 깊이의 구뎅이를 널직하게 파놓았다. 취사장에서 쓰는 초롱과 야전밥통에다 가득가득 물도 떠다놓았고 가랑잎 썩은 거밋거밋한 흙도 수북이 날라다 놓았다.
《무엇들을 하오?》
련대장은 긴장된 전사들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리봉선동무, 말해보오.》
《들었습니다.》
아까 구령을 치던 그 황소와 같은 전사가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봉선이라는 서정적인 이름이며 그 애된 목소리는 장대한 체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여서 구본수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쓴웃음과 같은 미소가 지나갔다.
봉선이는 책망을 들을가 해서 련대장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더니 결심한듯 고개를 쳐들고 대답하였다.
《꼬아리를 심자고 합니다.》
우물거리던 품과는 달리 목소리는 또박또박하였으나 역시 애된 목소리였다.
《꼬아리?》
강표는 뜻밖의 대답에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문해놓고 의아한 표정으로 본수를 한번 돌아보았다. 본수도 멍청해서 미간을 찌프리고 서있었다.

《그건 심어서 어찌자는거요?》
련대장의 거듭되는 물음에 봉선이는 그만 눈물이 글썽해지더니 정말 황소목덜미같은 실한 목을 드러내놓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강표는 점점 영문을 알수없어 다른 전사들을 돌아보았으나 그들도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발끝으로 애꿎은 땅만 후비고있었다.
(자 이런… 설마 내가 두려워서 이런단말인가?)
이때 골짜기쪽에서 중대 특무장 김인철이와 정치부중대장 김의식중위가 올라왔다.
특무장은 이런 고산지대에서는 드물게 보는 꼬아리 한포기를 뿌리채 떠서 두손으로 받들고 왔다. 그뒤로 김의식이가 공병삽을 들고 따라왔다.
두사람은 강표를 보자 그자리에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강표는 웬일인지 긴장돼있는 전사들의 기분을 눅쳐줄셈으로 빙그레 웃으며 롱을 걸었다.
《여보 특무장동무, 동무가 좀 설명하오. 산꼭대기에다 터밭을 가꿀 작정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철이도 대답은 힘있게 했으나 역시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정치부중대장을 뒤돌아보는것이였다.
《련대장동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마르기전에 우선 옮겨심게 해주십시오.》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에 주근깨가 닥지닥지한 김의식이가 한걸음 나서며 말하였다. 너부죽한 입과 뭉툭한 코가 얼굴전체를 독점한듯한 의식은 얼른 보매는 외형이 초라하였으나 그 소박하고 수더분한 사람됨됨이 누구에게나 친숙감을 주는 사람이였다.
강표가 의식의 제의를 승낙하자 전사들은 말없이 꼬아리를 옮겨심기 시작하였다. 특무장이 상관들앞이라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간단없이 뿌리를 바로놓으라는등,

부식토를 골고루 펴라는둥 잔소리를 하였다.
그것을 자주 돌아보면서 김의식중위는 두 상관앞에서 꼬아리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저 꼬아리로 말하면 전우를 잊지 말자는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우의 유물인셈이지요.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긴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중대에…》
김의식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였다. 그래서 본인도 말하는것을 몹시 힘들어하지만 듣는 사람도 답답하였다. 아무데나 《말하자면》이 끼여드는 그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중대에 최두령이라는 전사가 있었다. 그는 고중을 졸업하고 농사시험장에서 1년나마 시험수로 일하다가 전쟁과 함께 군대에 나온 사람이였다. 고중때부터 식물소조에 속해있던 그는 하나의 《식물광》과도 같은 사람이여서 간고한 전선길을 다니면서도 내내 식물표본을 만들었다.
그러나 식물에 대한 그의 지식은 의심스러운것이 많았다. 보통 집오래에 흔히 있는 잡초들도 괴상한 학명으로 불러대는가 하면 좀 희귀하거나 지대 기후상조건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변모된 식물에는 자기류의 해석을 붙이다가 동무들에게 놀림을 받군하였다.
부대가 설악산부근에서 휴식하던 지난 3월에 최두령전사는 어느 양지바른 산기슭에서 비죽이 싹을 내민 꼬아리를 발견하였다. 그때도 그는 그것이 꼬아리가 아니라 아직 식물학계에도 알려지지 않은 고산지대에 야생하는 특수한 종의 식물이라고 왕청같은 판단을 내렸던것이다. 같은 가지과에 속하기는 해도 꼬아리는 아니고 고추에 보다 가까운 종인데 인공적으로 재배하면 훌륭한 식용장과를 딸수 있으리라는 그의 견해는 중대전우들의 놀림감이 되고말았다. 그래도 그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떠다가 중대 병실앞에 심어

놓고는 정성스럽게 가꾸었다.
  중대에는 식물학은 몰라도 이런저런 산채며 푸성귀며 나무며 잡초들에 대해서는 광범한 견문을 가진 사람이 허다하였다.
  그중에도 량강도 밀림속에서 태여나 산판에서 군대에 나올 때까지 벌목부로 일한 리봉선이나 경상도 두메가 고향인 곽풍수라는 별명이 있는 곽홍규전사는 최두령전사의 고상한 학문을 하나의 웃음거리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가장 《범속한자》들이였다. 식물학의 공개적인 적수로 등장한 그들은 그것이 울밑이나 들판에 나는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기는 해도 영낙없는 꼬아리라는것을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최두령전사와 그들 두 사람사이에는 때로 격렬한 론쟁이 붙군하였는데 최두령전사의 조리있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에 말이 막히면 가련한 식물학의 적수들은 생활에서 얻어낸 산만한 자료들을 마구 주어대여 머리에서부터 눌러버렸다. 자기 집뒤 울안에 꼬아리가 한마지기나 자랐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는가느니, 장마철에 하두 성하기에 뽑아던졌더니 그 검질긴놈이 두엄우리에서 피여나더라느니, 가을에 그것을 또 찍어버렸더니 녀편네가 꼬아리를 못불게 한다고 입을 씰룩거려서 쥐여박아줬다느니, 그래 꼬아리때문에 대들이판으로 내외싸움까지 한 내가 그걸 모르겠는가 하는따위 론거와 함께
  《임자 꼬아리를 보기나 하구 그런 소리 하오?》 하고 번갈아대며 퉁명을 부렸다.
  최두령전사가 놀림감이 된것은 꼬아리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한때문만이 아니였다. 그는 그 꼬아리를 떠다가 무섭게 정성들여 가꾸었을뿐아니라 전쟁이 끝나면 농사시험장에다 옮겨심고 재배해서 꼭 훌륭한 식용장과를 따겠다는것이였다. 때로 중대가 이동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기미를 알아가지고 미리 파두었다가 비

상소집신호가 울리기 바쁘게 들고나섰다.
전사의 행장에는 꾀아리가 어울리지 않았다. 중대의 벗들은 《채마장사》, 《원두막쟁이》하고 놀려주었으며 필경은 그가 싸움도 신통히 못할 위인이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러다가 이번 월하봉전투가 벌어졌던것이다. 최두령전사는 그 꾀아리를 월하봉 공격전을 위한 출발진지까지는 기어코 끌고왔으나 더는 어쩌지 못하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중대가 월하봉을 우회하여 두무령을 기습하려고 은밀히 산기슭을 타고 돌 때까지도 아수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그는 리봉선의 옆구리를 쿡 찌르고 속삭였다.
《봉선동무, 내 말 들어요. 오늘아침에 이파리가 활짝 펴졌는데 꾀아리잎보다는 아무래도 작고 끝이 뾰족한게 고추와 훨씬 더 비슷해요.》
봉선은 때아닌 꾀아리이야기에 슬그머니 약이 올라 한마디 하였다.
《거기서 임자가 고추사촌이라도 따기만 하면 내 임자 매부라도 돼주지 않으리.》
목소리는 애되지만 입은 여간 걸지 않았다. 사실 최두령전사에게는 손우의 누이가 있었던것이다.
그러자 기다렸다는듯이 곽풍수가 또 끼여들었다.
《아따, 이사람은 색시가 눈이 등잔같애서 기다리는기 무슨 소리 하노. 최두령동무, 념려 말고 고치나 따게. 그러면 내라도 매부가 돼줄라네.》
곽홍규는 산속에서 자란 사람인데다 먼 친척에 지관노릇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서 산세를 곧잘 풀었다. 그가 아무 산이고 먼데서 척 보고 저 산은 줄기가 어디로 뻗었으며 어디에 물곬이 있고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으며 따라서 적의 지휘부는 어디쯤에 있고 포진지는 어느 모퉁이에 있을거라고 하면 대체로 정찰결과

와 맞아떨어졌다. 어느사이에 그를 곽풍수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지금은 본명인지 별명인지조차 모르게 되였는데 언젠가 새로 온 중대서기는 잘못 알고 명단에까지 곽풍수라고 써넣었다.

《임자 뭘 그러나? 그래도 내 총각이 임자총각보다는 백배나 더 진짜야. 젠장, 저도 가짜인 주제에 처녀이야기만 나오면 코코이 말썽이라니까. …》

봉선이는 슬그머니 볼이 부어 대들었다. 그도 한때 총각이라고 극력 우겨대다가 《귀남이 아버지에게》하고 허두를 쓴 안해의 편지때문에 종내는 탄로가 되고말았지만 곽홍규의 《총각》도 그 나이로 보나 년대기와 같은 구레나룻으로 보나 증거가 없달뿐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것이였다.

그들 두사람은 꼬아리문제를 가지고 최두령전사와 승강이할 때는 언제나 한편이지만 녀자 이야기가 나오면 늘 맞섰다.

최두령전사는 꼬아리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자기 누이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들을 보자 무안하고 성이 나서 입을 다물고말았다.

그날밤 자정이 지나서 월하봉쪽에서 아군의 돌격이 시작되였을 때 중대는 두무령을 불의에 공격하였다.

가파로운 돌바위를 피로 물들이면서 고지를 올리 기였다. 적의 방어는 완강하였다. 유리한 지형에다 수량상으로 우세한 적을 공격하다보니 전투는 처음부터 가렬하였다. 중대의 공격은 고지중턱에서 붙은듯 저지당하고말았다.

이때 두무령정점 매부리같은 바위우에 어떻게 올랐는지 최두령전사가 단신 기관단총을 휘두르며 뛰여올랐다. 그는 공화국기발을 밤하늘에 휘날리면서 목청껏 웨쳤다.

《동무들, 앞으로! 양캐들은 떨고있다. 앞으로!》

적탄이 최두령전사에게 집중되였다. 그는 무수한 적탄을 맞고 마침내 쓰러졌으나 끝까지 전우들을 돌격에로 불렀다.

《동무들, 앞으로! 앞으로!》

최두령전사의 웨침소리는 전체 중대전투원들을 복수전에로 불러일으켰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앞으로!》

《만세!》

돌격의 웨침소리가 두무령을 진감시켰다. 거인전사 리봉선이는 배속된 중기를 방순채 둘러멨다. 봉선이가 중기를 메고 벼랑을 톺아오르자 그뒤로 사수가 압철을 누르며 따라올랐다. 가파로운 고지로 불을 토하며 돌격하는 중기의 위력이란 대단한것이였다.

마침내 중대는 두무령의 지탱점을 장악하였고 뒤미처 월하봉을 배후에서 공격하였다.

최두령전사는 그가 전우들을 돌격에로 부르던 고지정점에 쓰러져있었다. 용감하게 전사한 전우를 바로 그자리에 묻었다. 곽풍수의 말에 의하면 남으로 광대무변한 조국산천이 굽어보이고 북으로 조종의 산줄기가 뻗어내려 갈데없는 명당이라는것이였다.

그후 봉선이며 풍수를 비롯한 전우들은 최두령전사를 놀려준것으로 하여 못내 괴로와하였다. 곽홍규는 자기가 최두령전사의 주장을 우습게 취급하고 면박을 준것을 후회하던 나머지 《에ㅡ 빌어먹을거, 꼬아리는 와 하필 거게서 만났노…》하고 한탄하였다. 그럴라치면 봉선이는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꼬아리가 무슨 죄가 있나. 꼬아리에서 고추사촌같은게 열린다고 말한 사람이 잘못이지. 놀려준것도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될줄 뉘가 알구 놀려줬나 체, 망신살이 뻗쳤어.》

두사람은 원쑤진 사람들처럼 말없이 부르터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얼마후에는 약속이나 한것처럼 최두령

전사의 무덤앞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찾아가는것이였다.
오늘아침 중대장 박대우는 군의소로 가면서 특무장에게 그전 진지에 가서 꼬아리를 떠다가 최두령전사의 무덤앞에 심으라고 일렀던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다 꼬아리를 옮겨심어놓고 말하자면 거기서 꼬아리가 아니라 고추 비슷한것이 열렸으면 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저거야 꼬아리지 어디 고추같은것이 열리게 생겼습니까?》
김의식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끝마쳤다.
그사이 꼬아리는 완전히 심어졌다. 그제사 보니 바로 그앞에 최두령전사의 자그마한 묘비가 있었다.
두무령의 정점을 이룬 거대한 현무암은 마치 적탄으로부터 전사의 무덤과 꼬아리를 막아주는 방패처럼 남을 향하여 위력한 부리를 쳐들고 서있었다. 그밑에서 전사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꼬아리에 대한 이야기는 강표의 눈굽을 뜨끈하게 만들었다.
《꼬아리에서 고추가 열리기를 기다린단말이지. 허허허…》
강표는 속 궁글은 목소리로 허구프게 웃었다.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라 차라리 가슴에 차고넘치는 격정의 분출이였다. 전사들의 머리는 더욱 깊이 수그러졌다.
이때 쿵— 쉭쉭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금 적의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김의식의 장황한 이야기에 지치고 통털어 이 감상적인 분위기가 언짢아서 자주 적진을 살피며 초조하게 서있던 구본수참모장은 적탄이 날아오기 시작하자 더는 참을수 없어 홱 몸을 돌리고 누구에게라 없이 엄격한 투로 말하였다.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것은 희생이 아니라 신경쇠약에 걸리는것이요. 전호의 깊이가 아직 부족하오. 정

신들을 바싹 채려야 하겠소.》
구본수의 말은 강표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필경 그것은 김의식이나 혹은 거기있는 전사들에게 한 말이겠는데 보매 그가 갓 배치돼온 처지만 아니였더면 더 좀 엄격한 질책을 했으리라는것은 넉넉히 짐작할수 있었다.
과연 구본수의 말대로 전호들이 아직도 얕으며 엄폐호도 화점작업도 끝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련대나 중대가 처해있는 환경을 두고 볼 때 꼬아리를 옮겨심는 전사들의 행동을 그 어떤 나약성의 표현으로 볼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강표는 심장을 속일수 없었다. 40줄에 들어선 자기의 가슴이 이렇게 얼얼해오는데 적의 포탄세례를 받으며 직접 꼬아리를 옮겨심는 저들의 가슴은 어떻겠는가?
전사들의 그러한 심정이야말로, 그러한 뼈아픔과 가슴속깊이에 고이는 눈물이야말로 어떤 신경쇠약이나 값싼 감상이 아니라 반대로 원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성이 되고 용감성이 되고 불타는 증오심이 되는것이 아닌가?
그러한 심정의 밑바닥에는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가 깔려있다.
전우에 대한, 전우의 념원과 희생에 대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혁명의 위업과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큰 의의를 부여할줄 아는 조국과 조국산천에 대한 소박한 전사들의 사랑이 맥박치고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원쑤들의 피묻은 손톱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는 강대한 힘이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강표는 마음속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되풀이하면서 묵묵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러다가 삑 돌아서서
《중대장동무는 군의소에 갔소?》하고 김의식에게 물

었다.
참모장의 말에 다소 풀이 죽어있던 김의식은 번쩍 고개를 들더니 한숨을 내쉬듯이 《네. ―》하고 길게 뽑으며 대답하였다.
엉덩짝에까지 내려오게 걸친 그의 야전가방 한옆에는 먹을 갈아넣은 페니실린병이 매달려있었다.
말주변이 없고 대체로 선동적인 이야기를 할줄 모르는 그는 전사들과 허물없이 사담을 하는데는 능수였지만 공식적인 말을 하는것은 몹시 힘들어하였다. 그래서 그 페니실린병에서 먹즙을 찍어 쉼없이 제강을 짜고 발언원고를 만들고 하였다.
면농맹위원장으로 있다가 군대에 나온 그는 농사일이나 직접 총을 들고 적들과 싸우라면 남의 두몫,세몫 해낼 자신이 있었지만 정치사업은 자신이 없어하였다. 이 엄숙한 시기에 정치사업을 한다는것이 얼마나 책임적인 일인가? 아무렴,간단한 일이 아니지. 사람들은 하루에도 열두번 마음의 동요를 맛볼수 있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의 기둥이 되고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돼야 한다. 아차 잘못해서 어느 한사람이 사소한 실수를 한다해도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정치부중대장이라는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과연 누가 실수할수 없겠는가? 그러기에 그들에게 당이 필요한것이다. 당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앉은자리에서 주저앉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것인가?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책임을 감당해낼수 있단말인가? 과연 수많은 사람들의 량심이 항상 진주알처럼 반짝거리게 할수 있단말인가?
의식은 언제나 이런 생각으로 자기자신을 채찍질했고 자기의 책임감을 통감했다. 당이 준 영예로운 임무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결코 마음이 가벼워지는것은 아니였다.

련대장은 그러한 김의식을 잘 알고있었다. 동시에 련대에서도 가장 정치사업이 잘되는 중대는 다름아닌 바로 이 박대우중대이며 련대에서 가장 우수한 정치부중대장은 다름아닌 바로 이 소박한 김의식중위라는것도 잘 알고있었다. 꼬아리를 옮겨심는것— 이와 같은것이 김의식이가 하는 하나의 정치사업이였다. 어쨌든 그는 자기 중대의 전투원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소박하나마 절절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랑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묶어세울줄 알았다.

그는 비록 재간이 없고 말주변은 없어도 영예롭게 자기 사업을 감당해나갈것이다.

강표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였다.

김의식의 두툼한 입술과 주근깨가 닥지닥지한 너부죽한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보던 그는 《좋소. 잘했소！》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김의식은 그것이 꼬아리를 옮겨심은데 대한 이야긴지 혹은 중대장이 군의소로 갔다는데 대한 이야긴지 잘 알수 없었다. 그러나 의식은 한가지만은—즉 련대장이 자기들의 심정을 리해해준다는 한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느낄수 있었다.

강표는 걸음을 옮겨놓다가 다시 돌아서더니 전사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동무들！ 이제 꼬아리가 빨갛게 익을것이요. 전쟁이 끝나면 꼬아리를 농사시험장으로 갖다줍시다. 그리고 거기서 고추를 따도록 요구합시다. 전사들의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말이요. 알겠소？》

《들었습니다.》

전사들은 일제히 힘차게 대답하였다.

《좋소. 농사시험장으로 가는 길은 삼두봉을 넘어 남해끝으로 통해있소. 거기까지 밀고 갑시다.》

강표는 뚜벅뚜벅 두무령을 내렸다.

그뒤를 입을 꾹 다문 구본수가 팔자걸음으로 따랐다.

4

《련대장동무는 련대의 모든 전사들을 그렇게 다 잘 아십니까?》

두무령골짜기에 내려섰을 때 구본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이렇게 물었다.

강표는 강표대로 생각에 잠겨있었는데 참모장의 질문을 받자 갑자기 쾌활한 표정이 되여 웃었다.

《허허허, 그 말씀이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그 많은 전사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강표는 우습다는듯이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구본수는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 계속 물었다.

《그래도 거기서 만난 동무들은 다 아시는 모양이더군요?》

《그렇지요. 그 중대 동무들은 많이 압니다. 로병들의 중대니까요. 나는 박대우중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싸움을 잘하기때문인가요?》

《물론 싸움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야 아니지요. 싸움을 잘하는 중대는 많으니까요. 뭔가 생각케 하는 중대입니다. 이제 내가 그 동무들을 만나던 이야기를 하지요. 어디 좀 앉을가요?》

강표는 먼저 가까이 있는 바위우에 아무렇게나 털썩 걸터앉아서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한모금 깊숙이 들이빨더니 후―하고 내뿜으며 뒤로 팔을 벌려 몸을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만일 그가 군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앉아있다면 가까운 마을에서 나무하러 온 농사군과 구별하기 어려울것이다.

본수는 련대장의 그런 소박한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문득 그가 1935년부터 항일유격대에서 싸워온 사람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망할놈들,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군.…》

강표는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은은히 울려오는 포소리뿐 이런 골짜기에서 응당 있어야 할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그 모든것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데 대하여 울화가 뻗쳐올라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구본수가 맞은편 돌바위우에 앉자

《참,내 박대우중대이야기를 하자고 했지.…》하면서 급히 담배를 또 한모금 빨았다.

《그게 언제더라,아마 작년 12월이였을게요. 우리 련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천재적인 구상에 의해 적후에서 제2전선을 펴고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사 일시적전략적후퇴대렬 하나가 오더란말이요. 모두 적후를 빠져나오느라고 무던히 고생들을 했습디다. 사람의 수자는 한개 중대가 착실한데 근본 그 중대성원은 세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오다가 두루 모이고모인 사람들이였소. 그중에는 사민도 있고… 허허허.》

강표는 고난에 찬 후퇴의 길을 뚫고오느라고 지치고 엉망이 되였으나 마침내 영광스러운 군기앞에 서고야만 강의하고 자랑스러운 그 전사들이 눈앞에 있기나 한듯이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

《그 동무들은 왜 그렇게 후퇴가 늦었답니까?》

본수의 의아쩍어하는 말소리가 울려서야 강표는 뒤를 이었다.

《리유도 다 각각이지요. 박대우동무와 본래 그 중대 성원이였다는 리봉선이,특무장 김인철이 이 세사람

은 금호강에서 련대 주력의 후퇴를 보장하느라고 교두보를 지켰답니다. 명령을 완수했을 때는 세사람밖에 살아남지 못했는데 그 교두보를 지키던 중기를, 탄알도 없는놈을 메고 왔습니다.》

《빈 중기를요?》

《그렇습니다. 리봉선이라는 동무가 워낙 힘이 장사이기도 하지만 그 중기에다 다시 탄알을 공급받아서 원쑤들을 쓸어눕히며 전우들이 묻힌 그 락동강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지 않았다면 그들이 뭣하러 그 무겁기만 했지 당장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거치장스러운놈을 끌고 왔겠습니까? 후퇴과정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그 중대는 튼튼히 단련되였습니다. 내가 찾아갔을 때 전사들은 모두 홑것을 입고 짚세기를 신었는데 그래도 생살을 드러내논 사람은 없었습니다. 견장을 제대로 달고 옷도 꿰매입었더군요. 중대장은 면도까지 깨끗이 했습디다. 한마디로 인민군대의 면모를 갖추고있었지요. 만일 그렇게 모인 패들이 강철같은 규률로 뭉치고 한가지 목적으로 단합되지 않았다면 오합지졸이 된지 오랬을것이고 그 간고한 적후길을 뚫고 나오지도 못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쉬운 일입니까? 더구나 적후에 락오된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집단에서말입니다. 나는 비록 초라하게는 되였고 훈련을 아직 못받은 사람도 많아서 동작이 서툴기는 해도 기가 꺾이지 않은 그들을 보았을 때 어찌나 기뻤던지 서슴없이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전사에게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빠져나왔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곽홍규라고 그때는 아직 정식 입대도 못한 동문데 그 동무 말이 〈최고사령관님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중대장동무가 말씀했습니다.〉 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겠소. 지금 같으면 그리 대단할것도 없는 그 말이 그때는 어찌나 가슴을 치는지 하마트면 전

사들앞에서 실수할번했다니까요. 허허허.》
강표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당시의 유쾌한 추억에 잠긴듯 히죽이 웃더니 담배를 깊숙이 들이빨았다.
참모장은 한쪽 손바닥으로 메마른 볼과 턱을 싸쥐고 한쪽손으로는 파랗게 돋아난 애쑥잎을 뜯어 냄새를 맡아보며 묵묵히 듣고있었다. 자신이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 후퇴를 하게 되였던 구본수는 후퇴때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이 그랬던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고비에 처하여 온갖 인내력과 견인력을 발휘한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기때문에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그것으로 해서 칭찬받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한참만에 강표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당돌한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련대에 편입되라고 했더니 자기네도 적과 싸우는것이 목적인만큼 편입되는데 반대가 없는데 조건이 있다는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마치 자기도 무슨 부대장이나 된듯한 말투입니다. 그래 조건을 물어보았더니 자기네를 해산시키지 말고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달라는것입니다. 요구조건을 들어주었지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면 다른데로 달아날 잡도린걸요. 허허허. 그게 지금의 박대우중댑니다. 적후활동을 할 때도 내내 잘 싸웠지요. 뭔가 생각케 한다는것이 별게 아니라 그 동무들이 왜 잘 싸우는가 하는것입니다. 락동강으로부터 여기까지 그들은 사선을 같이 헤치면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감정을 알게 되였습니다. 싸움속에서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것이지만 이것은 귀중한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런 사랑을 가지기만 하면 큰힘을 쓸수 있습니다. 어려운 적후의 산속길을 빠져나올 때 그들에게는 명령을 줄 참모부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직접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마음속으로 들었던것입니다. 참모장동무도 체험해보았겠지만 조국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은 조국의 신성한 명령을 들을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것입니다. 중대는 강력한 집단으로 됐지요. 나는 그들이 후퇴하면서 겪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만주벌판 생각을 하군했습니다. 정황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비슷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장군님과 관련되지 않은것이 없었기때문에 더구나 그랬을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야기를 비롯해서 허기가 지고 적의 추격이 뒤꽁무니를 바싹 죄일 때 그 동무들은 장군님께서 싸운 이야기를 회상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 그 어려운 길을 빠져나왔던것입니다.》

두사람사이에는 잠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잠잠하던 포성이 다시 울리기 시작하였다.

강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몹시 갈개는군. …》

하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박대우중대에는 모든것이 말하자면 정신적위력을 발휘할수 있는 온갖 조건이 갖추어져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련대에서도 가장 우수한 중대라고 볼수 있지요.》

본수는 자신이 중대에서 받은 그리 썩 좋지 못한 첫인상에 비추어볼 때 련대장의 평가가 너무 지나친듯하여 무심결에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치를 알아챈듯이 강표는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며 말하였다.

《아닙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휘관까지 훌륭하다고 볼수 있지요. 박대우란 동무는 좋은 지휘관입니다. 사실 그 중대가 누구의 손에 의해 그렇게 단련됐겠습니까? 물론 그 동무에게도 좀 나쁜 버릇이 있긴 하지만…》

《당돌하다는 이야기말인가요?》

《그거야 하나의 건멋이지요.

문제는 너무 날뛰는데 있습니다. 좀 덤비지요. 한번은 금화 남쪽계선에 집결된 적을 치려고 박대우중대를 선견대로 파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가다가 적의 옹근 한개대대와 맞다들었는데 부대가 도착하는것을 기다리지 않고 중대 력량으로 그놈들을 답새겼습니다. 결국 내몰긴 했는데 일이야 잘못됐지요. 사실은 그놈들을 포위섬멸할 계획이였는데 선불질을 해놔서 게도 구럭도 다 놓친셈이 되고말았습니다. 후에 불러다놓고 톡톡히 닦아세웠습니다. 나도 그땐 결이 나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눈물이 글썽해 앉아있더니 내앞에 종이쪽지를 하나 내놓고 련대장동무는 이걸 보고 참을수 있겠느냐고 되묻는것입니다. 적정을 탐지하려고 〈혀〉를 잡아왔는데 그놈의 주머니에서 〈유엔군〉병사들에게 보내는 제8군사령관이란자의 호소문이 나왔답니다. 그 종이쪽지가 그 친구들의 리성을 아주 불태워버렸던것입니다. 허허허, 참모장동무는 그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나도 보았습니다. 악랄한 놈들이지요.》

구본수는 지금도 그 호소문의 구절들을 휭하니 따로 외우고있었다. 그것은 단지 그가 기억력이 좋은때문만은 아니였다.

《유엔군병사들에게!…

…전쟁은 가렬하다.

때문에 그대들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될수있는 한 많이 죽여야 한다.…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애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하는것이며 또 유엔군병사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다.…》

이러한 구절들을 읽었을 때 구본수는 몸서리를 치며

이를 갈았었다. 그리고 적강점지구에서의 사람의 머리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는 원쑤들의 갖가지 만행을 듣고 보았을 때마다 자기들의 병사들에게 잔악무도한 귀축이 되기를 강요하는 그 인간증오의 사상으로 일관된 죄악의 《문건》을 상기하군하였던것이다.

바로 그 문건에 근거하여 미군중위 헤리슨은 신천에서 400여명의 무고한 어머니와 200여명의 순진한 어린이들을 창고에 감금하고 불을 지르고 기관총사격을 퍼붓고 생매장을 하였으며 다른 《문명한》 귀축은 조선사람들의 머리가죽을 벗겨 《기념품》으로 가져갔던것이다.

그러나 구본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와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자기를 결코 혼동할수 없었다. 인간인 자기를 두고 말할 때 그러한 문건을 처음 보았다면 그자신도 어떤 행동을 했을는지 장담하기 곤난한 일이였다. 그러나 군사지휘관인 자기를 두고 말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런 실수를 할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동시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만 했다면 자신이나 남이나간에 용서하지 않을것이였다. 흥분때문에 련대의 작전을 파탄에로 이끌다니… 사실은 그런 지휘관에게 선견대를 맡긴것부터가 잘못이다. …

본수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면서 입을 열었다.

《이야기를 듣고보니 확실히 박대우라는 동무에게는 심중한 결함이 있군요. 그런 종류의 결함은 지휘관으로서 단독적인 임무를 주기 곤난한 결함입니다.》

강표는 잠시 의아스러운 눈매로 엄격한 표정이 된 구본수를 바라보더니 말하였다.

《결함이 있지요. 사실은 그 동무 심정도 리해할만한것입니다. 그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참을수 없다고… 그러나 나는 참을수 없는 그만큼 더 좀 랭정하게, 더 좀 철저하게 그놈들을 섬멸했을거라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조금은 자기 잘못이 느껴지는지 말이 없더군요.》

여기서 잠시 말을 끊은 강표는 다 타들어간 담배를 깊숙이 빨고는 꽁초를 휙 던졌다.

그리고는 결론을 짓듯이 굵고 매듭이 지게 말하였다.

《지금도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하며 증오는 얼음장 같아야 한다구요. 그런데 그 친구는 둘다 불같지요. 이제 좀있으면 하나는 싸늘해질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을 벼려내는 야장간 비슷하지요. 사랑은 활활 불타오르게 하고 증오는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고 그래서 이 뜨겁고 싸늘한것이 잘 벼려낸 칼날같이 한사람의 몸안에 의좋게 같이 살도록 만들어주지요.》

강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본수는 어딘가 거쿨지고 세련되지 못한 박대우의 거칠은 형상을 눈앞에 그려보려고 애를 썼으나 종내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막연하나마 련대장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것을 느꼈다.

이것은 아까 한 하사관과 련대장과의 담화과정이나 꾀아리를 옮겨심는데 대해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던것이다.

동시에 그는 박대우와 박대우중대 그리고 이 생소한 련대에 대해서도 하나의 인상이 형성되였다.

이 련대가 어쩐지 군사적으로 빈구석이 있고 규률면에서도 덜 째인것 같은 느낌이였다.

구본수는 우선 이 부면에서 자기의 첫째가는 사업을 발견한것 같았다.

련대장이라는 사람은 보매 지나치게 대범하고 대원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련대의 구석구석에까지 주의가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련대의 살림살이군인 참모장이 그것을 보충하고 받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두사람은 자리를 일었다.

월하봉 릉선에 잡아들었을 때 구본수는 불쑥 강표에게 물었다.

《련대장동무는 혹 군의소의 구혜경이라는 상급준의를 아시는지요?》
《알지요. 일을 잘합니다. 겉보기는 아련한데 전쟁을 하기 위해 태여난것처럼 침착하고 용감한 처녀지요. 참 같은 성씬데 어떻게 되는가요?》
《동생입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네… 거참, 반갑게 됐군요. 이제 가는 길에 들립시다. 이리로 오신것을 알고있는가요?》
《웬걸요. 나자신 뜻밖인데요.》
《그거 참, 재미있게 됐습니다. 아주 혼이 나가도록 놀라게 해줍시다요. 내가 슬쩍 먼저 들어가서말입니다. 허허허.》
나이며 묵중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강표의 장난기 섞인 천진한 말에 본수는 자기가 오히려 무안스러움을 느꼈으나 그래도 마음속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따뜻하고 온화한 그 무엇이 향수처럼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다.

5

군의소 직일관의 구령소리가 울려와서야 혜경과 대우는 말다툼을 그쳤다.
련대장이 왔다는것을 알자 대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입맛을 쩝쩝 다셨다.
그러나 혜경은 어디 보자는듯이 그 깔끔한 눈매로 다시한번 흘겨보았다.
이윽고 련대장이 처치실에 들어섰다.
두사람이 차렷자세를 취하는것을 보고 련대장은 미소를 지었으나 인차 방안의 공기를 눈치채고 그들의 얼굴을 조롱하듯 들여다보았다.

《왜 몹시 기분들이 좋지 않은 모양이군. 응?》
련대장이 놀림 절반으로 웃자 두사람은 당황해하였다.
서로 할말이 있으면 해보라는듯이 마주보다가 눈길을 떨구어버렸다.
《왜? 다투었소, 젊은이들?》
련대장의 거듭되는 롱 절반의 질문에 혜경은 새침해서 고개를 떨군채 입술을 감빨고 대우는 멋적게 뒤통수를 긁적거렸다.
《여보 참모장동무, 들어오시오. 〈작전〉이 다 틀렸소. 여기서 지금 뜻밖의 〈조우전〉이 붙었소. 허허허…》
강표는 혼자 웃으며 바깥에다 대고 소리쳤다.
구본수가 슬쩍 들어섰다. 그의 출현은 방안의 분위기를 삽시에 뒤집어놓았다.
너무나 뜻밖의 일에 당황해서
《오빠!》
하고 한마디 하고는 어쩔줄을 모르는 혜경이.
그를 얼싸안을듯, 그러면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신임참모장— 그리고 이 뜻밖의 상봉에 어리둥절해서 나가야 할지 들어가야 할지 엉거주춤해있는 대우…
강표는 이들의 기쁨과 놀람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웃고있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방안은 본래의 그 엄격하고 랭철한 분위기를 회복하였다.
석탄산과 알콜냄새가 풍겼으며 의료기구들이 번쩍번쩍 빛을 내였다.
강표가 박대우더러 신임참모장에게 인사하라고 일렀다.
구본수는 자기 앞에 다가서서 경례를 붙이는, 어디라없이 거칠거칠하게 보이는 청년이 박대우라는것을 알자 이때까지 막연하게 가지고온 인상이 확정되는듯한 느낌이였으나 그가 전혀 처음보는 사람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보면 혹 전선신문 같은데서 읽은 기억이 남아 있어서 구면인듯한 생각이 간것이라고 짐작되였다.
구본수는 일체 자기 인상을 겉으로 내비치지 않는 그 담담하고 무표정한 태도로 박대우의 인사를 받으며 상관다운 근엄한 태도로 악수를 하였다.
대우와 혜경의 말다툼은 련대장의 중재로 간단히 해결되였다.
부상병은 군의소일군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며 한편 두 무령은 중대장 없이는 싸울수 없는만큼 그 점을 군의소에서도 응당 고려해야 하리라는것이였다.
결국 혜경이가 고집을 세워 입원시키기로 락착이 되였다.
대우가 간호병에게 부축되여 입원실로 나가자 그와 엇바뀌여 한 군관이 성큼 들어서더니 활발하게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러다가 치료실안에 서있는 련대장을 발견하자 깜짝 놀라 장화 발뒤꿈치에 소리가 나도록 황급히 부동자세를 취하였다.
《작전참모 현종국 치료받을만 합니까?》
《좋소. 그런데 동무도 부상당했던가?》
《아닙니다. 저 뾰따지가 나서…》
번쩍번쩍하는 장화에 맵시있는 곤색 모직승마복을 입은 군관은 어색한 동작으로 목덜미에 손을 가지고 가며 몹시 아프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곧은목처럼 삐딱하게 뽑아보였다.
《하— 그거 위험한거요. 어서 치료받으시오.》
강표는 작전참모가 군의소에 자주 드나드는 눈치를 모르지 않았다.
련대의 바쁜 생활속에서도 병사들, 특히 자기 수족과 같은 참모들의 생활이며 동태는 많은 관심을 끄는 문제였다.
더구나 종국이로 말하면 그 기계와 같은 정확성과 분

석력, 규정과 교범에 대한 광범한 지식으로써 련대장에게 일상적인 방조를 주는 가장 가까운 방조자였던것이다.

그는 가끔 하치않은 상처나 볼일을 만들어가지고 자주 군의소에 드나들었는데 강표는 만일 아름다운 상급준의가 군의소에 있지 않고 혹 통신중대나 후방부에 있다 해도 이 령리한 작전참모는 반드시 그럴듯한 볼일을 만들어낼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한편 구본수는 작전참모라는 말에 앞으로 자기와 가장 긴밀히 사업하게 될 젊은 대위를 세밀히 관찰하였다.

몸에 딱 맞게 맞춰입은 모직군관복과 오랜 군관임을 말해주는 검은빛 대우가 난 군관혁띠, 권총집에 비죽이 내민 붉은 비단천, 칠피처럼 잘 닦여진 검은 장화— 우선 이런것이 첫인상에 안겨왔다.

전선군관들 가운데서는 드물게 보는 종국이의 단정한 몸차림이 군인으로서 엄격한 구본수의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종국이의 넓고 흰 이마며 큰 눈이며가 다 작전일군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명석한 지력을 말해주는듯하였다.

혜경이는 공교로운 판에 뛰여든 종국이가 내심 민망스러워 얼굴을 붉혔으나 시치미를 떼고 목덜미에 난 큼직한 뾰따지를 소독면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옥도정기를 발랐다.

《참모장동무, 갑시다. 치료사업에는 련대장이나 참모장이나 방해가 될뿐이요. 작전참모동무는 치료를 받은후 참모부에서 만나보기로 하고…》

시종 웃고있던 련대장이 능청스레 눈을 끔쩍하더니 먼저 출입문쪽으로 걸어나갔다.

참모장이라는 말에 종국이는 다시한번 흠칠하였다.

찬찬히 자기를 뜯어보고있는 구본수의 날카로운 황갈색 눈과 마주쳤다.

그는 얼른 자세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혜경이가 그

의 목덜미를 단단히 틀어쥐고있었기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또 련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수고들 하오. 참 혜경동무, 저녁에 오빠를 방문할수 있도록 내 특별히 군의소장동무에게 부탁하지.》

강표는 이러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뒤로 구본수도 말없이 따라나갔다.

…두사람이 월하봉산턱에 자리잡은 련대장감시소에 들어섰을 때 엄페호안은 조용하였다. 련대장 감시소래야 얼마전까지 웨더마이어의 포 관측소였던 토굴을 두루 고치고 수리한것인데 그러다보니 조잡한대신 꽤 넓었다.

모포로 간을 막은 통신실에서 단발을 한 무선수처녀가 편지를 읽다가 벌떡 일어났다.

이마와 코 밑에 솜털이 보르르한 무선수의 얼굴은 홍당무와 같이 새빨개졌다.

《하하하. 정숙동무, 어째 그리 놀라오? 또 어머니가 걱정을 써보낸 모양이군…》

강표는 스물이 채 못됐을 무선수처녀의 얼굴을 더 빨갛게 만들어놓고 클클한 웃음소리를 끌며 엄페호안으로 사라졌다.

6

밤이 되자 전선은 조용해졌다.

쉴새없이 조명탄이 월하봉꼭대기에 창백한 빛을 뿌리며 매달려있고 이따금 야간폭격기가 우르릉거리며 지나다가는 아무데나 함부로 폭탄을 담아붓군하였다.

적들은 가끔 무엇에 소스라친듯 포사격을 해대기도 하였다.

련대장 지휘감시소에서는 강표와 신임참모장 구본수, 군사부련대장 그리고 작전참모 이렇게 네사람이서 책상우에 군단급의 작전지대가 다 반영되도록 새로 큼직하게 붙인 지도를 펼쳐놓고 전술문제를 토의하고있었다.

포탄이 가까이에서 터질 때면 귀틀막처럼 통나무로 쌓아올린 엄페호벽에서 주르르 흙이 무너져내리고 탄피등잔이 신경질적으로 흔들거렸다.

론의의 초점은 두무령에 있었다.

작전참모 현종국대위가 련대의 전투임무와 결부하여 두무령의 방어체계에 대한 의견을 말하였다.

《제… 개인의 의견으로 말하면 조성된 정황은 련대로 하여금 선행한 전투에서의 승리에 지나치게 큰 의의를 부여하기보다는 더 좀 신중한 고려하에 결심을 채택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월하봉에서 다소 희생을 입었다고는 하나 적은 거의 완전한 두개 련대나 되며 지난 3월에 비로소 배비변경을 한 이른바 〈정예〉련대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뿔리 공격을 서둔다면 오히려 현리계선으로 진출하려고 기도하는 적들의 돌파구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교범의 일반적요구를 봐도 이런 경우에 방어중심을 깊이하고 형성된 돌출부, 즉 두무령에 더욱 화력을 집중하며 반전차대책과 공병적대책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수는 작전참모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고있었다.

종국이의 이야기는 련대장이 삼두봉을 공격할 문제를 제기한데서 시작된것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강표가 입을 열었다.

《그래 교범의 일반적요구는 그런데 지금 바로 우리 련대의 형편에서는 어떻소? 나는 이 불리한 방어계선

을 유지하는데 력량을 소모하는것보다는 최고사령부의 이번 작전기도와 관련해서 제꺽 1062고지를 내친다면 적을 이 룡화리계선까지 내몰수 있을것 같은데… 이어간의…》

강표는 지도우에 자와 콤파스가 놓여있었지만 두손가락을 뻗쳐 거리를 가늠해보고 말을 이었다.

《한 10리 될가?… 이 어방은 모두 벌판이라 놈들이 의지할 지탱점이 없지 않소?》

종국이는 강표의 소박한 말투에 비죽이 웃더니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하였다.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공격을 하느냐, 방어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조성된 정황과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한 토대우에서 결정돼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력량관계의 현저한 변경을 위한 예비대들이 있기전에는…》

《하하하, 좋소 알만하오. 항상 조성된 정황과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한 조건하에서만 뭔가 할수 있단말이지… 옳소, 지휘관들이 아마 이러루한것을 명심하는게 좋을것 같구만. 그러나 작전참모동무, 같은 정황과 같은 력량관계를 두고도 지휘관의 배짱에 따라서 공격을 할수도 있고 방어를 하다가 얻어맞을수도 있다는것을 또한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강표는 무엇인가 크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으스레한 탄피 등잔불에 비치인 련대장의 거쿨진 체구는 마치 그자신의 배짱을 형상적으로 그린듯한 인상을 주었다.

종국이는 련대장의 말이 딱히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었지만 어쩐지 무안을 느끼며 입을 다물고말았다.

바깥에서 포탄깍지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항공! 항공!》하는 감시병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엄폐호안의 사람들은 잠시 비행기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강표는 통풍구에 친 방공막의 귀를 여미고나서 지도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구본수가 조용히 침묵을 깨뜨렸다.
《두무령의 방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본수가 낮에 두무령에서 돌아올 때부터 생각해오던 문제였다.
《참모장동무는 현재 두무령의 방어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강표는 구본수의 얼굴을 주의깊게 살피며 물었다.
그의 눈길은 어찌나 심중하던지 무심결에 자기가 하자는 말이 과연 필요한 말이겠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재여보게 하였다.
그러나 본수는 자기의 생각하는바를 어떻게 하든지 련대장에게 설득시켜야 한다고 확신하고있었으므로 련대장의 시선을 맞받아보며 말하였다.
《우선 두무령은 련대의 임무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것만큼 모든 점에서 심중해야 할것입니다. 전투에서 피로한 중대를 그냥 둬둔다는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편제인원의 빈자리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제 보기에는 그 중대의 사기문제도 어느 정도 제기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도 련대장은 계속 참모장의 심중한 표정에서 시선을 움직이지 않다가 이윽고 몸을 돌리더니 입을 열었다.
《알만합니다. 참모장동무의 의견은 우선 지휘관들에 대한 문제인것 같은데 후에 다시 토의해봅시다. 그리고 참모장동무, 새로 오셨기때문에 내 미리 말해둡니

다만 우리에게 편제인원을 다 채운 생생한 중대도 별반 없지만 특별히 피로한 중대도 따로 없습니다. 특히 사기면에서말입니다. 그리고 혹 생생한 중대가 있다면 에—하기는 그런게 왜 하나도 없겠습니까. 헌데 그런게 있다면 있는족족 내 주머니에 깊숙이 걷어넣겠단말입니다. 앞으로 한바탕 조겨대자면 그런 생생한 예비대를 좀 가지고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참모장동무.》

본수는 련대장의 예리한 통찰력에 놀랐다.

낮에 박대우의 과오에 대해 한마디 한것으로 자기의 심중을 그렇게 꿰뚫어볼줄은 정말 뜻밖이였다. 그렇기때문에 그가 일부러 어수룩한체하면서 은근히 새로 온 자기에게 신발을 신기려 한다는것을 느꼈지만 별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뿐아니라 상관으로서, 그를 대함에 있어서 더욱 허물이 없어지는것을 스스로 느꼈다.

×

엄폐호밖에는 물비린내와 같은 청신하고 눅눅한 5월의 밤이 펼쳐져있었다.

상현의 달이 벌써 삼두봉우에서 아물거리고있었으며 별빛이 온 하늘에 여물어가고있었다.

이따금 적탄이 어지러진 휘파람소리를 지르며 날아와서는 왕청같은데서 불길을 뿜어올리기도 하였다. 예광탄이 진한 탄도로 어둠의 장막을 째놓기도 하였다.

밤나무향기가 코를 찌르도록 그윽하게 풍겨왔다. 그것은 평화시기에 맡던것처럼 역하지 않고 류황내를 가셔내서 그런지 시원한 느낌까지 주었다.

방금 직일을 인계하고 밖으로 나온 무선수 심정숙은 풀밭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있다.

그의 가슴은 오늘 한성호에게서 받은 편지때문에 지

금도 진정을 못하고있었다.
 련대장이 자기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필시 무슨 눈치를 챈것만 같아서 끝없이 근심스럽기도 하였다.
 그는 한성호에게서 오늘 두번째 편지를 받았다.
 첫번째 편지는 설악산 북쪽에서 휴식하고있을 때 받았다.
 그때 통신중대와 성호네 중대와는 린접해있어서 취사장에 땔나무요, 빨래요 하는 일들때문에 은근히 래왕이 잦았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몇마디 말을 건네다가 서로 같은군 출신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들은 별안간 친한 사이가 되였다.
 그런데 하루는 매일 만나는 사람이 뚱딴지같이 인편에 쪽지편지를 보내여왔다.
 편지내용으로 말하면 좀 시시한것이였다.
 한부대에서 동향사람을 만나서 반갑다는둥, 고향소식을 어느 정도 아느냐는둥, 힘들지 않는가, 군대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는 자기네 중대 자랑이 적혀있었고 마감에 꼭 편지로 회답을 보내달라는 부탁이 적혀있었다. 그러한 질문과 대답은 이미 만나서 몇차례나 교제된것이였다.
 정숙이는 매일 만나는 형편에 별로 편지질을 하는 꼴이 수상하여 답장을 쓸 궁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편지가 또 왔다.
 그 중대의 위생지도원이 갖다주는 편지에는 두무령의 방어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는것, 자기는 지금 소대장대리공작을 하고있다는것, 만나고싶다는것, 자기네 중대장이 부상을 당하여 군의소에 입원했다는것, 그래서 그편에 편지를 보내니 제발 회답을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적혀있었다.
 정숙이는 성호의 편지가 확실히 단순치 않다는것을 깨

닫게 되자 저도 몰래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뛰였으나 역시 회답을 쓸 궁리는 하지부터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히려 박대우중대장이 입원했다는 사실에 더 쏠리고있었다.
지난 3월 설악산 북쪽에서 부대가 휴식할 때 정숙이는 바로 린접해있던 박대우중대와 그 중대장을 처음보았다.
언제부턴가 열아홉살 처녀의 가슴에는 련대에서도 용감하기로 이름이 자자한 박대우중대장에 대한 환상과 관심이 있었다.
정숙이 견해에 의하면 전선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단순하였다.
고중을 졸업하기 바쁘게 전선으로 탄원해나온 정숙이의 머리속에는 훈련을 받던 당시만 해도 굉장한 꿈이 자라고있었다.
조국광복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항일유격대원의 딸답게 위훈을 세울 각오를 단단히 하였다.
남편을 일제와의 싸움에서 여읜 어머니는 외딸 정숙이를 어떻게나 자기곁에 잡아두려고 무진애를 썼으나 외곬으로만 틔린 정숙이의 마음을 꺾을수는 없었다.
정숙이는 마침내 전선에 나왔다.
그러나 말이 전선이지 그가 처음 배치받은곳은 화선이 아니라 사령부였고 더구나 차례진 무기는 총이 아니라 무선기였다.
처음 얼마동안 정숙이는 어리둥절하였다.
그는 군복을 입고 통계를 내거나 량식을 취급하거나 우편물을 나르거나 하는따위 일들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놀랐으며 자기도 그런 사람들중의 하나이라는데 대해 모욕당한것 같은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안달해보아야 별수 없는 일이였다.
점차 정숙이도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도 필요불가결

하다는것을 깨닫게 되였고 또 녀성전투원들은 그나마 련대에까지 나가기도 여간 힘들지 않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가 꿈꾸어오던 정찰병이나 중기사수가 되기는 아예 코집이 글러먹은것이였다.

그러던중 어떻게 하다가 사단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우연히도 아버지의 옛 전우인 강표련대장을 만난것이였다.

련대장은 《아저씨》가 아니라 《련대장동무》였고 자기는 《정숙이》가 아니라 《무선수동무》였다.

그것이 전선에 나온 표적이였다.

정숙이는 그전부터 강표아저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정을 다하여 아버지의 친구에게 매달렸다.

정숙이의 계책은 성공하였다.

응석과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청에 못이겨 그를 자기 련대로 데려온 강표는 지금도 정숙이가 화선으로 나가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있었다.

그의 눈에 비치인 정숙이는 아직도 장난꾸러기총각애같이 갈개기를 좋아하는 말괄량이에 불과하였던것이다.

사실 많은 점에 있어서 정숙이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할만한 사람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의 이런 견해는 전쟁과 함께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였다.

그래서 박대우중대장을 마음속으로 더없이 존경하는 터이지만 그러나 정숙이가 요즘 특별히 박대우중대장에게 흥미를 느끼는것은 비단 그때문만은 아니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바로 박대우중대가 련대의 최전방에 나가있다는 그 점이였다.

어떻게나 그 중대에 나갈수는 없을가?

그러면 미국놈들을 볼수도 있고 운수가 좋으면 내 손으로 쏘아눕힐수도 있을텐데… 이건 답답해서 정말 못견디겠어. 이게 무슨 싸움이람… 아무래도 그놈들 상판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더러운놈들 눈알을 쏘아주어야지…

정숙이는 벙어리 랭가슴앓듯 혼자속으로 매일 이 생각이다.

그런가하면 아직 남에게 터놓지 못할 비밀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만일 자기 소원이 이룩되여 박대우중대에 나간다면 거기서 또 그 못난이를 만나게 될텐데 그를 어째 하는 생각이다.

치근치근하게 굴면 … 창피하게…

한편으로는 켕기면서도 또 야릇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타까와지는 생각이기도 했다.

정숙이는 저도 몰래 다감한 한숨을 내쉬고 풀밭에 드러누웠다.

때마침 별찌가 탄도처럼 길게 꼬리를 뽑으며 남쪽으로 흘러갔다.

《아이 아름다와…》

정숙이는 저도 몰래 두손을 가슴우에 모두고 속삭였다.

향긋한 풀냄새와 꼭꼭 살을 찌르는 새싹들의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무한히 넓게 펼쳐진 밤하늘에 모래를 뒤여뿌린듯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또다시 별찌가 흘렀다.

2. 사랑에 대한 이야기

1

대우가 군의소에 입원한지 일주일이 되였다.

첫 사흘동안 그는 말없이 치료를 받았으며 푹 잠을 잤다. 이것은 《참모장고지》전투가 시작되면서부터 줄곧 싸움에 지쳐있던 그에게 큰 행운이 아닐수 없었다. 강제로 입원시킨데 대한 불평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자 성급한 그는 벌써 군의소의 따분한 분위기에 싫증이 날대로 났다. 혜경이와의 관계는 의연히 날카로왔다.

대우는 혜경이가 자기에게 앙심을 먹고 특별히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옆의 부상병들을 볼 때는 그 《벽창호》가 얼마나 상냥스레 대하는가? 그런데 유독 자기에게만은 입을 꽉 다물고 지어 이마살을 찌프리기까지 하면서 치료에 필요한 말조차도 극도로 절약해서 하지 않는가?

심사가 뒤끄여난 대우는 심지를 갈아대거나 붕대들을 풀 때는 소리를 지르며 요란하게 엄살을 피우군하였다.

그러면 간호병들이 웃음을 참노라고 입술을 앙다물었고 혜경이조차도 때로는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붉히기까지 하였다.

자기의 과장된 엄살이 드러난것을 알자 대우는 더욱 심사가 꿰져서 오만상을 찌프렸다.

벌써 그들의 험악한 관계는 부상병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자못 흥미있는 화제거리가 되였다.

《둘 다 생김새부터 고집이 있게 생겼거든. 그 상급준의동무 코를 보라구.》
《중대장은 어떻구… 아무래도 그 눈이 일을 칠 화상이야.》
《누가 먼저 꺾어질가? 아마 영원히 화해하지 못할걸… 수학에서는 이런걸 평행선이라고 한다네.》
《흥, 포병냄새 피우지 말라구. 그거 다 모르는 소리야. 그렇게 겉으로 연막을 쳐놓고 뒤로 슬쩍 묘한게 오고가는지 누가 알어?》
《하긴 그것도 그럴듯한 말이야. 시체 젊은 사람들은 속에 령감이 몇개씩 들어앉아있단말야. 전쟁이 사람들을 엉큼하게 만들어놓았거든.》
《말하잘것 같으면 그런게 〈전선식련애〉라는거지. 오—철저히 위장하라. 나의 사랑아—》
부상병들사이에는 이러한 말들이 오고갔다. 그들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길이 없었다. 다만 그들이 남의 사랑에 대해 그처럼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것은 그 어떤 야비한 호기심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사랑이 소중히 간직되여있기때문이였다.
초연에 그슬려 무쇠와 같이 굳어진 전사들의 가슴속에는 누구에게나 어떠한 전쟁의 포화로써도 말리울수 없는 사랑의 옹달샘이 찰랑찰랑 고여있고 땅밑을 흐르는 샘줄기와 같이 온몸을 굽이치며 마음을 덥혀주고있는것이였다.
대우의 상처는 순조롭게 아물어갔다. 이제는 지팽이 없이도 산보를 나다니게 되였다.
처치시간이 지나기를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자 곧 토굴밖으로 나온 대우는 무료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옆토굴로 갔다.
《여— 기계화부대들, 산보가자구—》

채광이 잘 안되는 토굴안은 으스레하였는데 대우가 들어서는 참 이렇게 소리치자 안에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났다.
역시 다리를 부상당하여 토굴초입에 누워있던 3대대 상급부관이 가장 엄격한 목소리로
《동무 조용하라구. 아직 치료중이야.》
하고 주의를 주고는 피씩 웃었다.
그제사 자세히 보니 흰 위생복을 입은 혜경이가 구석에서 어떤 부상병의 부목을 갈아대고있었다.
《또 잘못 걸렸군…》
대우는 잔뜩 이마살을 찌프리고 혼자 중얼거리며 침대끌에 걸터앉았다.
《좀 기다리게. 기계화부대란 원래 장비가 거치장한것이니까…》
상급부관은 침대옆에 세워둔 쌍지팽이를 매만지며 어딘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하였다. 들리는 소리에는 그를 기어이 후송하리라는것이였다.
혜경이가 가까이 왔다.
대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치뜨며 눈치를 슬금슬금 살폈다. 또 한마디 꾸중이 떨어지리라고 각오하였다.
그러나 혜경이는 대우따위는 본체도 않고 그옆에 누운 부상병의 상처를 처치하기 시작하였다. 코를 콕— 찌르는 알콜냄새와 함께 쌀쌀한 바람이 이는듯하였다.
혜경이의 랭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는 바싹 대우의 약을 올렸다. 겉으로 무표정한체하면서도 은근히 그 녀자의 거동에 신경이 바늘끝처럼 예민해있던 대우는 그의 그런 무관심으로 해서 여지없이 자존심에 타격을 받았던것이다.
《틀렸어. 난 먼저 가겠네.》
심사가 비틀어진 대우는 벌떡 일어나서 휭하니 밖으로 나갔다.

그뒤로 혜경이가 간호병에게 속삭였다.
《따라 나가봐요. 어디로 가는가… 폭격이 심한데 왜 저리 속을 썩일가?…》
그 소리를 듣자 3대대 상급부관이 한마디 하였다.
《상급준의동무, 그러지 말고 내쫓으시오.》
《그건 왜요?》
혜경이는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았다. 상급부관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다.
《난 상급준의동무가 딱해서 그럽니다. 그 친구 휘여잡을 사람은 없어요. 강제퇴원시키시오. 뭐랍니까?》
《아이, 그럼 오죽 좋아할라구요.》
《하하하, 그래도 지금 내보내야지 그러지않다간 내보내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품행이 좋지 못합니다.》
《듣기 싫어요.》
무심히 응대를 하다가 어느사이 자기가 놀리우고있다는것을 깨달은 혜경은 새침해서 사람좋은 상급부관을 흘겨보았다.
《하하하…》
여기저기에서 부상병들의 너그럽고 선량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삽시에 혜경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대우는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쪽빛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이고 사지가 나른해지도록 화창한 날씨였다. 산새가 울었다.
소소리나무며 떡갈나무의 신록이 무성하여 골짜기는 울창한 어둠에 잠겨있다. 억새며 달뿌리며 청미래덩굴이 모전처럼 골짜기에 한벌 덮였다. 연록색의 그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모전에는 무늬처럼 앉은뱅이, 사라구, 엉겅퀴, 골무꽃들이 혹은 보라빛으로, 혹은 노랑빛으로, 혹은 흰빛으로 피여나고있었다.
자그마한 종같이 생긴 하얀 애기나리가 다소곳이 고

개를 숙이고있었다.

산꼭대기의 돌바위언저리에는 아직도 진달래가 싱싱하여 월하봉은 연분홍저고리를 입은듯 아름답고 현란하였다. 훈훈한 바람에 풀향기가 뭉클 풍겨오고 산벌떼들이 윙윙 울어댔다.

그러나 월하봉의 옛모습을 다소라도 간직하고있는곳은 군의소가 자리잡은 이 깊숙한 골짜기 한뙈기뿐이였다. 한발자국만 밖으로 벗어져도 벌써 폭탄에 뒤집혀진 시꺼먼 페허가 입을 벌리고 몸서리치게 상처입은 자연이 누워있었다. 아니 전쟁의 검은 그림자는 이 깊은 골짜기속에도 이미 뻗쳐들었다. 군데군데 뭉텅 허리부러지거나 기총알이 숭숭박힌 아름드리나무가 보였고 불탄 풀밭이며 미군비행기의 보조연유탕크가 처박혀있었다. 전쟁은 이 한뙈기 되나마나한 골짜기에서도 아름다움을 빼앗으려고 점점 조여들고있었다. 그러나 자연은 완강하게 계절의 법칙을, 아름다움을 지키려 하였으며 오히려 상처받은 대지의 피와 뒤집힌 산하의 정기를 어디서나 보존하고 어떻게나 싸워나가려는 그 처절한 기상으로써 더욱 아름다와지는듯하였다.

대우는 이 자연의 피어린 아름다움에 감동되여 그러안고 몸부림치고싶도록 걷잡을수 없는 격정에 사로잡히며 넘어지는듯이 풀밭에 드러누웠다.

문득 올려다보니 아카시아같이 두줄로 자그마한 잎들이 주런이 달린 느삼나무가 이마우에 드리워있었다. 완두꽃같은 노란 망울이 비죽이 삐여져나왔다.

대우는 벌떡 일어났다.

느삼나무는 전사한 최두령전사가 끄아리와 함께 무척도 사랑하던 나무였다.

느삼나무는 조선에밖에 없는 진귀한 나무로서 조선에서도 흔치 않는 나문데 이 부근에서 발견한것이 신기하다고 하면서 표본을 만들며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

하던것이 어제일만 같았다.

《참, 사람두, 이게 뭐 곱기나 한가…》

대우는 느삼나무이파리를 쓸어보며 소리내여 중얼거렸다.

사실 그것은 겉보기에 별로 곱지도 않고 진귀해보이지도 않았다. 식물학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초라해보이기도 하였다.

조선에 고유한 나무—최두령전사는 바로 그때문에 이 나무를 그토록 사랑했던것이다.

대우는 느삼나무이파리를 점이라도 치듯이 한잎한잎 입으로 물어뜯으며 생각에 잠겼다.

두무령이 떠올랐고 그 거대한 바위밑에 있는 최두령전사의 소박한 무덤이 떠올랐다. 끄아리를 옮겨다 심었는지, 포탄에 맞지나 않았는지…

전우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밟혔다. 의식이, 인철이, 성호 그리고 봉선이, 풍수… 같이 있을 때는 다정한 말보다는 서로 소리치고 주먹을 내흔들고 눈을 부라린 일밖에 없었던것 같은데 이렇게 며칠 못보니 도무지 보고싶어 견딜수 없다. 그의 마음은 그리운 중대로 화살같이 달렸다. 문득 그 생각앞에 오똑한 코와 호수같은 눈을 가진 상급준의가 막아섰다.

대우는 웬일인지 혜경이앞에 나서면 공연히 마음이 초조해지고 야릇한 반발심에 이끌리여 허세를 부리는 자기를 발견하였다. 사실 처음 만나던날 말다툼을 한것만해도 부질없는 일이라는것이 명백하였다. 묵은 상처까지 수술할줄은 몰랐다 해도 그렇게 옥신각신할 필요는 하나도 없었던것이다. 련대장이 그처럼 강하게 요구했고 또 자신이 그런 다리로는 어려운 싸움을 치러내기 곤난하다고 생각돼서 찾아온것이였는데 첫 대면부터 대우는 아름답고 깐깐한 상급준의에게서 어떤 위압을 받았던것이다. 그후의 모든 충돌은 바로 그 위압

에 대한 반발심에서 일어난것이였다.

《젠장！》

대우는 혼자 입맛이 쓰거워 느삼나무이파리를 내밸으며 중얼거렸다.

(역시 군의소라는데는 사람을 안일하게 만드는데야. 빨리도 물이 들었지. 글쎄 문설주를 넘어서자마자 이 모양이니. 참 한심하다구야…)

사실 군의소에 들어오지 않았던들 언제 그런 한가한 생각을 좇을 겨를이 있었겠는가싶었다. 원쑤들을 눈앞에 두고 내 아버지,내 누이를 목을 비틀어 죽이고 내 고향을 불사른 그놈들을 눈앞에 두고 한가하게 어떤 상급준의의 눈치를 살피는따위 못난이행동을 할수 있단 말인가？ 따지고보면 이것은 다 용서받을수 없는 죄스러운 생각이다. 그놈들의 손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며 누이 수남이가 어떻게 생각할것이며 밤낮으로 원쑤 갚을 날만 생각하고있을 어머니며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쫓을 때 대우는 절로 얼굴이 더워올랐으며 이마살이 찌프러졌다.

그의 아버지 박권수는 전략적후퇴시기 공장에 남았다가 미국놈들 손에 죽었다. 이웃 마을 세포위원장에게로 시집갔던 손우의 누이 수남이도 학살되였다. 그들을 끌어다 미국놈에게 섬겨바친놈은 다름아닌 한고장출신의 지주의 아들 김희연이였다.

희연이는 토지개혁이 있은직후 제강소의 변전소를 폭파하려다가 못하고 그 길로 월남도주하였는데 《국군》 장교가 되여 고향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대우의 아버지는 원래 농사군으로 지주 김준도의 소작인이였다.

1940년에 억울하게 소작을 떼우고 그우에 빚값으로 솥가마까지 들리운 그들 일가는 하루밤사이 알거지가 되

여 제강소마을로 굴러났다. 그후 날품팔이로부터 시작하여 줄곧 제강소에서 로동하였다.

준도의 첩의 아들인 김희연이와 박대우는 소학교 동창생이였다. 그들은 둘다 공부를 잘해서 첫자리를 다투었지만 성미는 그때부터도 수리개와 배암처럼 서로 판이하였다.

대우는 소학교때부터 지꿎게 장난이 심하고 우둘거리기를 잘하며 그대신 남의 꾀임수에 속아넘어가기를 잘하는 아이였다.

첩의 배에서 나서 본처의 거치른 아귀에서 자란 김희연이는 물을 못먹은 숙주나물처럼 약골이고 침울한 아이였다.

그는 가끔 색다른 음식이나 물건을 가져와서 아이들의 애를 말리는것을 유일한 락으로 삼고있었다.

그때문에 아이들에게 돌리고 매도 맞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의례 대우의 주먹이 선코를 떼게 마련이였다.

한번은 희연이가 본처의 손에 걸려 호되게 경을 치르는것을 보았다. 그러자 웬일인지 어린 대우의 가슴은 언짢아졌다. 그래서 희연이에게 손찌검을 하는것을 손이 건질건질해도 꾹 참았다. 알고보니 희연이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깊은 원한을 가지고있었다.

대우는 그러한 희연이를 동정하던나머지 그와 가까와졌으며 동무들의 아귀찬 주먹질로부터 희연이를 막아주기도 하였다.

하루는 장거리에 갔다가 술에 만취해서 돌아오는 김준도를 보고 희연이를 자기집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마침 대우네 초가마가리는 큰길가에 있었던것이다.

대우는 고무총에다 큼직한 돌을 재여 건덜건덜하는 준도의 갓을 겨누었다.

고주망태가 된 김준도는 풀을 세게 먹인 모시두루마기에서 칼바람이 일도록 활개를 저으며 동구길에 들어

섰다. 담배대를 휘두르며 온 동네에 대고 고래고래 호령을 하면서 앞길을 지나가는 김준도의 갓끈은 턱에 걸리고 뒤통수에 걸린 갓은 위태롭게 건들거렸다.
대우네 집 재간모퉁이를 지나칠 때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왔다. 그의 갓은 뎅궁 떨어져서 갓끈이 들썩하고 목에 걸렸다.
준도는 졸지에 술이 깨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눈이 사발만해서 사방을 분주히 휘둘러보았으나 인적이라곤 없었다. 그는 기겁을 해서 꽁지가 빳빳하도록 집으로 내뺐다.
대우가 지붕에서 배를 그러쥐고 웃으며 돌아갈 때 희연이가 파랗게 질려서 대들었다.
《너 왜 우리 아버지 쏘았니?》
《그깐놈의 아버지 쏘아서 잘못된게 뭐이가?》
《이새끼, 남의 아버지 누가 쏘라든?》
《야, 이새끼 봐라. 절 생각해서 했는데두… 맞서볼테냐?》
두 아이는 지붕 꼭대기에서 대들이판으로 싸웠다. 이것이 그들사이에 있었던 첫 싸움이였다.
다행히 그 싸움은 인차 끝났는데 대우도 희연이도 서로 남이 알고 소문이 퍼지면 경을 칠것이기때문에 씩씩거리며 지붕우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들의 우정은 끝났다.
대우는 소학교를 마치자 인차 제강소에 들어가서 소년공으로 살가죽을 벗기우며 강철로동을 시작했고 희연이는 평양사범학교에 갔다.
광복이 되였다.
대우는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먹는것도 자는것도 잊어버리고 돌아다녔다. 공청에 들었고 자위대완장을 끼고 공장을 왜놈들의 파괴로부터 지켜냈다. 《공산당선언》이며 《청년들에게 호소한다》하는따위들이 우후

죽순처럼 쓸어져나오던 소책자들을 손에 잡히는대로 하루밤사이에 읽어치우군하였다. 어떤 걷잡을수 없는 열정이 온몸에서 소용돌이쳤다.

토지개혁때는 로동자지원대로 이웃 농촌에 나가 지주청산에 참가하였다. 3.7제 투쟁과 토지개혁 당시에 공로를 세운 그는 당에 들었고 그 길로 민청사업에 동원되여 전쟁 직전에는 군민청선전부장으로 되였다.

광복직후의 그의 사업은 과격하고 무자비하여서 자칫하면 좌경에 흐르기 쉬웠다.

물불을 모르는 스물두살의 청년에게는 그렇게 하는것이 혁명과 자기계급에 가장 충실한것으로 생각되였던것이다.

토지개혁 당시 고향마을에 들린 그는 지주 김준도의 토지를 무자비하게 몰수하도록 농촌위원회동무들을 방조하였다. 그때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눌러 훈도질을 하고있던 희연이도 광복이 되자 마을로 내려왔었다. 그는 겉으로는 토지개혁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자기네 토지를 떼우는데 대해서는 큰 충동을 받고있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서기만하면 토지개혁이 다 무슨 효력이 있을줄 아는가?》하고 뒤말을 돌리며 동요하는 층들을 꼬드겼다. 격문을 만들어낼 꿍꿍이를 하였다. 이 눈치를 챈 대우는 희연이를 잡아가두려고 달려갔으나 이미 희연이는 음모가 발각된 기미를 채고 남으로 줄행랑을 쳐버렸다. 달아나면서도 곱게 달아난것이 아니라 변전소에 불을 질러 독을 뿜어놓고 갔다.

그놈을 아예 평양에서 내려오는 참 요정을 내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두고두고 가슴이 떨려날지경 분하였다.

간고한 적후 활동시기가 지나가고 집과의 편지련락이 이어지면서 그지간의 집형편을 알게 된 대우는 워낙 불같은 성미가 더 성해져서 저로서도 걷잡을수 없

을 정도로 사나와졌다. 적들과 마주서면 저도 모르는 사이 김희연이의 얼굴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자기를 발견하군하였다. 그때마다 도리를 흔들며 자기 생각을 억누르려 하였으나 솟구치는 격정은 좀체로 가라앉아주지 않았다. 이 싸움이 어떤 한사람한사람의 원쑤를 갚거나 어떤 개별적인 인간들의 행복을 위한것이 아니라 보다 큰 조선인민의 대가정— 조국을 위한 싸움이며 더구나 원쑤는 희연이따위 알량한 한놈의 반동이 아니라 우리 조국땅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이며 그들의 모든 졸개들이라는것을 대우 자신이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급동지들의 여러가지 권을 다 물리치고 전선으로 나온것도 그렇고 간고한 전략적일시적 후퇴의 길을 누구의 지시를 듣지 않고도 우리 인민의 힘이 될수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들을 업고 지고 이끌고 헤아릴수 없는 간난을 물리치며 신고를 마다하지 않는것도 오로지 조국을 지키는 길이 곧 나와 나의 모든 귀중한것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이였다.

광복후 5년나마되는 동안의 사업과 생활과 그의 온 사상감정은 어느덧 조국과 자기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게 만들었으며 자기와 자기 생활을 생각한다는 말은 곧 조국을 생각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들리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와 누이가 바로 희연의 손에 죽었다고 생각할 때 원쑤라는 생각은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타났다. 그는 희연이를 찾아서 자기 중대를 돌격에로 불렀고 희연이를 겨누듯이 방아쇠를 당겼다. 치렬한 싸움의 나날에 아버지나 누이 못지않게 귀중한 많은 전우들이 그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조국의 땅덩어리를 그러안고 새파란 청춘과 함께 죽어갔다. 그자신의 몸에도 이미 많은 상처가 났으며 많은 피를 흘렸다. 그 모든 원쑤를 갚아야 하였다. 백배천배로 갚고 백

배, 천배로 받아내야 하였다.
대우가 몸을 뒤척이며 하염없는 생각에 잠겨있을 때 저앞에서 버스럭버스럭 조심스럽게 풀밭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우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발자국소리도 주춤하고 멎었다.
찬찬히 보니 한성호상사였다. 저쪽에서 먼저 대우를 발견하고 반가와라 소리를 지르며 껑충껑충 달려왔다.
《중대장동무！》
두사람은 풀밭에 앉았다. 서로 못본지가 불과 며칠밖에 안되였으나 몇년만에 만난듯 서로 얼굴을 뜯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하였다.
《그래 어떻게 왔나？》
《오늘 련대 정치부에서 불러서 왔어요. 갔다오는 길에 중대장동무 만나보구 오라는 위임을 맡게 됐지요.》
성호는 특무장이 들고다니던 누런 광목천으로 만든 책보를 천천히 끌렀다.
그것을 지켜보며 대우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래 요즘 전투는 어떤가？ 그 새끼들이 그냥 접어들지？》
《아무리 접어들면 뭘해요？ 그건 절대 념려 마십시오. 내가 첫째로 위임맡은게 그 문젭니다. 전투이야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끄떡없습니다.》
《전호는 다 팠나？ 그 돌멩이판을… 엄페호 유개도 씌우고…》
《글쎄 그건 념려 말래두요. 중대장동무 지시한대로 가전호도 파고 교통호도 다 됐습니다. 이젠 월동준비만 하면 겨울이라도 날것 같아요. 참 최두령동무 꼬아리도 옮겨심었구요. 멋이있게 살아납니다.》
대우의 궁금증은 한이 없었으나 성호는 그저 말끝마다 념려 말라는 말로써 대우의 질문을 받아넘겼다. 중

대격정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부탁을 단단히 받고온 모양이였다.
사실 제 눈으로 보기전에야 대우의 궁금증이 풀릴수는 도저히 없는것이였다. 대우는 슬그머니 입을 다물고말았다.
성호는 말대답을 하면서 슬슬 책보를 다 끌러놓더니 연방 대우의 눈치를 살폈다. 그속에는 신문지로 올망졸망하게 싼것들이 들어있었다.
《그건 뭐요?》
대우는 성호가 말을 떼기 몹시 거북해하는 눈치를 채고 절반은 호기심에 끌려 절반은 무엇을 가져왔나 하는 지레 미안한 생각을 감추기 위해 우정 우선우선한 태도로 책보속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특무장동무가 특별히 공작해 만든겁니다. 출혈이 심할 때는 특히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고 합디다.》
《아니 이건 떡이 아니요?》
신문지를 헤쳐보던 대우는 그만 어이가 없어 멍청한 얼굴로 성호를 지켜보았다.
《떡인지 뭔지… 미리 중대에서 합평회를 했는데 아주 형편없이 평가됐습니다. 팥보숭이를 해야 될데 포도탕을 마구 버무려놔서 어디 떡꼴이 됐습니까? 그래도 특무장동무는 량식관리장하구 얼마나 싸워서 구한 찹쌀이게 그따위 소리 하느냐구 펄펄 뜁디다.》
《음— 사람들두…》
대우는 그만 입을 다물고말았다.
이 떡을 앞에 놓고 한바탕 야단을 치며 떠들어댔을 중대 친구들의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떠올랐고 거기서 한초에도 몇십번씩 죽을수 있는 탄우속을 함께 뚫고 지나온 혈육보다도 더 굳게 맺아진 참다운 전우애를 느꼈을 때 벌써부터 그의 가슴은 하나 가득 차올라오는 것이였다.

《이건 풍수가 보내는 담배입니다. 그 동무 역시 살림군이지요?》

성호는 대우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며 어떻게 하면 입이 쩍 벌어지게 그를 기쁘게 해줄것인가 속궁리를 하면서 전선에서는 귀한 권연 두통을 꺼내놓고 말을 이었다.

《이게 어느때겁니까, 우리가 휴식하고있던 년초에 받은것인데 아직도 가지고있었거든요. … 그런데 저―중대장동무. 여기서 저, 좀 할수 있습니까?》

《뭘말이요?》

《저 그것말입니다. 저 카―하는거…》

《술말이요? 술은 해서 어떻게 하자구? 아예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오. 이 군의소라는데 알고보니 지독한데요.》

《글쎄 그렇다는데두… 그런걸 자꾸 고집들이지. 참…》

《아니 뭘 그러우?》

《이걸 글쎄 자꾸 갖다드리라구 해서… 그 특무장동무 보통 엉터리가 아닙니다.》

성호는 연방 특무장에게 지청구를 대며 군복옆차기에서 소주 한병을 꺼내놓았다.

《하하하…》

대우는 마침내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여보, 동무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모양이요? 내가 중병에 걸리기나 했소, 어딜 떠나길 하오? 왜 이리 요란스럽게 야단이요?》

《네?》

성호는 멍해서 중대장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그만 울상이 되여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사실은 뭐, 그런게 아니지요. 사실은 후방부 운전사에게 부탁해서 국영식당에서 겨우…》

이렇게 얼없이 더듬거리는 성호를 보자 대우는 그만

코허리가 찡해졌다. 실은 그자신도 전우들의 너무나 살뜰한 정에 별안간 눈굽이 뜨끈해오는바람에 일부러 대범한척하노라고 별생각없이 해본 말인데 그 말이 성호의 순진한 가슴을 아프게 한것만 같아 참을수 없이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는 와락 성호를 그러안으며 웃는지 우는지 저로도 모를 소리로 웨쳤다.

《야, 이 못난이야. 내가 왜 동무들의 심정을 모르겠어. 이제 한 소리는 다 괜한 소리야. 성호, 중대에 가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구 전하라구, 응, 그리구 곧 나간다구. 이제 다음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두 나간다구…》

삽시에 성호의 얼굴은 달아올랐다. 그는 기뻐 어쩌지를 못하며 대우의 손을 틀어쥐였다.

《정말이지요? 중대장동무, 다음 주일에는 꼭 나오십시오. 모두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 알만해. 꼭 나갈테니 념려 말게.》

두사람은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한참이나 마주보다가 나중에는 등을 사정없이 두들겨대며 껄껄거리며 웃었다.

하늘에서는 매지구름이 뭉게뭉게 피여오르고있었다.

2

재빛 초연은 서쪽으로 밀려가고 귀가 멍멍하던 포성은 먼 우뢰와 같은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다.

종일 달무리처럼 흐려있던 태양은 어느덧 서쪽산줄기우에 빨갛게 걸려있었다.

포연도 구름도 락조에 물들어 피빛으로 불탈 때 적의 마지막 공격은 격퇴되였다.

거인의 모습으로 마구 갈아엎은것처럼 뒤집혀진 두

무령과 앞벌에는 머지않아 까마귀밥이 될 호마만큼한 양키들의 징그러운 시체가 너저분하게 널려있다.
두무령의 돌바위는 재가루처럼 흩어져날리고 참호들은 무너졌다. 바위짬에 뿌리를 박았던 다박솔이며 자작나무들은 송두리채 뽑히우고 불탔다.
거멓게 그슬린 탄피가 파헤쳐진 흙무더기속에 함부로 나딩굴고 포탄 파편이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채 아무데나 박혀있다.
전사들은 무너진 참호에서 일어났다.
곽홍규가 흙을 털며 일어나자 옆에서 봉선이가 늘어진 소리로 놀려댔다.
《땅속에는 어째 들어가?》
《두더지 잡으러 갔댔다.》
홍규는 원래 입심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지만 겁이 좀 많은편이였다. 적후에서 기습을 당하거나 비행기를 만나면 제일 덤벼치군하였다. 이에 대해서 홍규자신이 제일 괴로와하였다. 전우들은 그 지독한 입심에 걸려 무안을 당하면서도 그의 이런 약점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홍규자신이 뼈아프게 느끼고있는것을 잘 알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봉선이만은 각별히 친한 사이가 돼서 그런지 사정이 없었다. 홍규도 봉선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나무람을 타지 않았다.
봉선이는 허물어진 참호 흉장을 척척 손질하면서 다시 말을 걸었다.
《그래 놓쳤는가?》
《놓쳤네.》 홍규는 볼부은 소리로 대꾸하였다.
《놓쳤기 다행이지 그놈 따라 땅속으로 들어갔음 어쩔번했나? 조심하게.》
《아따 남보구 조심조심 하지 말고 임자나 조심해라. 우리 제수님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야지…》
홍규는 볼이 불룩해서 봉선이의 지꿎은 롱담을 받아

넘겼다.
《에끼 고약한것！》
《하ㅡ이 말버릇 좀 보게.》
두사람은 껄껄 웃고말았다.
곽홍규의 전호는 형편없이 마사졌다. 정말 두더지꼴이 돼가지고도 목숨을 부지한것이 다행이라할밖에 없었다. 자기 전호 손질을 끝마친 봉선이도 곽홍규의 손을 거들어주었다. 떡떡 맞서는 청석판을 몽드라진 보병삽으로 쪼아대고 전호턱에다 떡돌같은 바위돌을 날라다 쌓았다.
《개새끼들, 매일 일감을 만들어주는셈이군…》
옆 전호에서 누군가가 두덜거렸다.
한성호가 감시병들을 데리고 전투경계를 세우러 나갔다.
전사들이 전호수리를 끝마쳤을 때 특무장이 화식병을 데리고 식사를 날라왔다.
《야ㅡ생선찜이로군. 우리 특무장이 제일이거든.》
시장하던김에 전사들은 환성을 질렀다.
《너무 추기지 말라구. 국이 없어서 안됐는데…》
초생달이 떴다. 달빛을 받으며 주먹밥과 소금에 절근 고등어토막으로 식사를 하였다.
《만일 말이야…》
밥을 받아들자 어느새 기분이 가벼워진 홍규가 입이 불룩하게 주먹밥을 베여넣고 우물거리면서 말하였다. 그는 포성이 멎고 이렇게 달빛이 고지를 고즈넉이 비쳐줄 때면 구수한 이야기판을 벌려놓기를 좋아하였다. 그의 이야기주머니는 끝이 없어서 매밤 새라새로운 이야기가 풀려나오군하였다. 이야기도 갖가지였다. 아마도 동서고금에 곽홍규가 모르는 이야기는 없는상싶었다. 봉선이같은 축들이 가끔 퉁명을 부리며 쐐기를 박군하였지만 그래도 모두 그의 이야기에 끌려들었다.

홍규는 입에 하나 들어찬 밥때문에 눈을 껌뻑거리면서도 말을 이었다.

《만일에 황천이라 하는것이 있고 염라부의 사자라는것이 있다고 하면말이지…》

《자 이사람 밥맛 없게 황천이야기는 왜 꺼내？》

봉선이가 눈을 흘겼다.

《가만 있으라구. 자네 같은 촌사람들은 황천이요, 사자요 하면 그저 재수가 없닥하지만 우리같이 공산주의사상에 통달한 사람은 그런것쯤 아무치도 않다.》

《젠장 겁은 혼자 내면서 큰소리 치는 꼴 보지.》

《이사람아, 성내지 말고 내 말 들어보게. 사실은 나도 죽음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서 하는 소리야. 이번에 전쟁을 하는김에 아야 황천까지 소멸해버리면 어떨가, 의？ 하하하, 포로 집중사격을 해서 황천이고 뭐고 다 마사버리고 염라부의 사자라고 하는놈을 생포를 해서 온단말이다. 그라면 이 땅에 불행이라는것이 아주 없어진단말이다.》

《걷어치우게. 난 리승만이와 트루맨같은놈은 내 손으로 목을 따고야말겠네.》

《자 이사람 남의 말을 어떻게 듣구 이러나？ 그놈들이야 아야 다 없애치워야지. 우리가 제주도까지 다 밀고 간 다음에사 황천으로 진공한단말이다.》

《밥이나 먹어, 보병삽이 똑똑한게 있어야 황천에두 쳐들어가지…》

《이 사람아, 그렇게 우거지상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그때는 물론 보급도 좋아질거란말이야. 보병삽도 새것으로 바꾸어줄것이고… 황천으로 쳐들어간다— 얼마나 멋이 있나？ 하하하.》

홍규는 혼자 좋아서 아직 절반도 못먹은 밥덩어리를 쥐고 그냥 히죽히죽하였다.

《홍규동무가 용한 소리 하는군.》

언제 왔는지 정치부중대장이 채 련결되지 않은 저쪽 교통호구석에서 이야기에 껴들었다.

《네? 하하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홍규는 승기가 나서 바싹 무릎을 끌었다.

《황천으로 진공하는거말이요? 그 좋은 의견같소. 그런데 내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종일 그놈들의 반돌격에 볶이고 두더지처럼 땅속에 묻히고 그러면서 그 개돼지같은놈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는게 다 말하자면 결국은 황천에로의 진공이란말이요. 미국놈들은 우리 조국을 통채로 집어삼키고 나아가서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지만 우리는 그놈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황천으로 진공하는 다리를 만든단말이요. 우리 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것을 말하자면 목숨을 뺏고 집과 살림을 불사르고 또 말하자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더럽히는 저놈들을 잡는게 다 황천을 때려부시는것이나 같은게 아니겠소? 말하자면 저 인간백정놈들이 다 염라대왕의 졸개들인셈이지요.》

《옳습니다. 나도 바로 그것을 말할락고 했습니다.》

홍규는 어느새 쥐고있던 주먹밥을 게눈 감추듯해버리고 이야기에 끌려들었다.

김의식중위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염라부사자가 별게 아니라 미국의 백악관에 득실거리는놈들이라는 사상이 다 나와있소. 금년 2월에 주신 명령 0097호 생각들 나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소.》

의식은 제꺽 전투가방을 열고 노트를 끄집어냈다.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글씨가 보일리 없었지만 그는 태연하게 펴들었다.

《이런 구절이 있소. 〈…조선에서 물러가기를 싫어하는 미군침략자들은 우리 조국 강토에서 마지막 한놈까지 포위섬멸당할 운명에 빠졌다.…〉 좀더 가서는

〈…미군 강도놈들의 손에서는 조선인민의 선혈이 흐르고있다. 우리들은 강도놈들에게 학살된 인민들의 원한을 잊을수 없으며 우리의 인민들이 받은 고통의 몇백배로써 놈들을 보복할것이다.…〉 이 말씀속에는 미국놈들이 바로 염라부의 졸개라는 뜻이 들어있지요. 그러니 말하자면 그놈들을 족치는것이 황천에로의 진공이요. 정말 세상에 제국주의자들만 싹 쓸어버린다면 세상사람들의 불행이 거의 다 없어질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말하자면 세계에서 제국주의 괴수노릇을 하는 미제와 가슴을 맞대고 싸우는 우리의 전쟁이 얼마나 정의의 전쟁이요?》

의식이가 말을 맺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봉선이가 큼직한 몸을 전호벽에 기대고앉아 눈을 껌벅거리며 불쑥 입을 열었다.

《정치부중대장동무, 그러니 우리 풍수도 꽤 유식한 편이오다?》

봉선이 목소리가 어찌나 심중하던지 갑자기 전호안에 웃음판이 터졌다.

《유식하구말구. 우리 인민군대처럼 유식한 군대가 어디 있겠소? 항일빨찌산의 전통을 받은 군대가 아니요. 모두가 군대이자 선전원이구 그러니 모두가 정치가구 예술가구… 하하하.》

그러자 갑자기 봉선이가 정색을 하며 입을 열었다.

《정치부중대장동무, 모두가 공상가이기도 하지오다. 례를 들면 최두령동무말이오다. 나로 말해도… 난 뭐 별신통한 공상은 없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면 직업을 바꾸겠소다. 나무를 찍는 벌목부는 그만두고 이 벌거숭이가 된 산에다 나무를 심겠소다. 벌거숭이 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수야 없지오다.》

《그렇지, 공상가지. 그것도 첨부해야 돼…》

누군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 말이 무슨 신

호이기나 한듯 전호속은 잠잠해졌다. 모두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각기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지 그것을 서로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삶에 대해 생각하였다. 끝이 없고 아름다운 삶, 세상 어느곳에서나 바라보이는 메부리처럼 그렇게 높고 값지고 빛나는 삶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 한량없는 삶에 대한 지향과 념원은 그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였다.
봉선이가 지적한것처럼 죽음이 사시로 따라다니는 전선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것은 새삼스럽고 부질없는 일일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은 좋건싫건 무시로 죽음과 삶에 대해 생각할것을 강요하는것이다.
봉선이나 홍규나 누구나간에 아무도 전쟁이 아니라면 삶이요,죽음이요 하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그리고 아무리 밤을 밝히고 생각해봐야 막연하기만 할 엄청난 생각을 하고있을 나이가 아니다.
그러나 전쟁시기 삶과 동시에 죽음에 대하여 생각한다는것은 불가피하다.
전사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란 지극히 단순하고 명백하였다. 막부득하여 죽게 되는 경우라면 자기의 최후가 영웅까지는 못돼도 전사다운 죽음이기를 바랄뿐이였다.
한성호가 감시병을 배치하고 돌아왔다. 뒤미처 식사를 다 날라다준 특무장 김인철이도 전호옆에 엉덩이를 놓고 앉았다.
《2소대장동무도 괜찮은 공상가지?》
성호가 밥덩어리를 들고앉자 김의식중위가 시물시물 웃으며 말을 걸었다.
《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성호가 눈을 디룩거리는바람에 전호속에는 또 웃음판이 터졌다. 성호도 덩달아 웃어댔다.

《참 특무장동무, 오늘 중대장동무 만나보았소다?》

잠시후 봉선이가 묻는 말이였다. 오늘 인철이가 탄약공급을 받으러 대대에 올라갔던것이다. 그러지않아도 일전에 한성호가 군의소를 다녀와서 이번주일에는 꼭 나온다고 말을 했기때문에 모두 중대장소식이 여간 궁금하지 않던차라 인철이에게로 시선을 집중하였다. 그런데 인철이는 사뭇 우울한 표정으로 쓰거운듯이 말하였다.

《만나봤는데 아주 시시하게 됐어. 군의소처녀들에게 녹은 모양이야.》

전사들의 얼굴은 긴장되였다. 오직 정치부중대장만이 씨물씨물 웃고있었다.

《녹다니? 중대장동무가말이오다?》

봉선이가 뚝뚝해진 목소리로 따지듯이 물었다.

《아마 그런것 같애. 내가 슬쩍 도주해나오라구 그러면 우리가 더 잘 간호해드린다구 그렇게 권했는데 듣지 않거든. 그랬다간 혼난대… 거기 상급준의가 대단하대…》

《자, 그러니 군의소처녀들한테 〈포로〉가 된셈 아니가.》

곽홍규가 기분 나쁘다는듯이 돌아앉더니 담배주머니를 꺼내여 두툼하게 마라초를 말기 시작하였다. 자주빛비단으로 정성스레 만든 담배주머니를 소중하게 간직하고난 그는 성이 나서 성냥을 켜댔는데 그바람에 여러 가치를 허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봉선이가 참을수 없다는듯이 또 입을 열었다.

《아니, 특무장동무, 그 정 시시하지 않소다? 그래 다나은 우리 중대장을 그렇게 걔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게

내버려둔단말이오다?》
《그러니 어찌겠소?》
《체, 전선총각들의 본때를 보여야지 그건 뒀다 발싸개 하겠소? 다짜고짜 메고올판이지. 래일 나하구 같이 가오다. 중대장을 그지경에 둬두다니… 잘못하다가 우리 중대장동무가 책벌이라도 받으면 어찌겠소다?》
《아니 이사람아, 가만 있게. 총각본때를 보이자문 내가 가야지 자네야 무슨 총각인가?》
홍규가 급히 담배연기를 삼키며 봉선이 말에 쐐기를 박았다.
《체, 이건 왜 또 나서며 야단이야. 겉으로 보긴 내가 훨씬 총각비슷할걸…》
성호가 밥을 다 먹고나서 홍규에게 담배를 청하면서 말하였다.
《가짜총각들은 다 가만 있소. 그래 낫긴 다 했던가?》
그제야 인철이가 시무룩해지면서 뜨직뜨직 말하였다.
《뭐 아직 절뚝거리긴 해.》
《원 저런…》
전사들은 그만 어이가 없어 멀뚱멀뚱 침울한 인철이의 능청스러운 얼굴을 지켜보다가 한꺼번에 웃음통을 터뜨렸다.
《아하하하…》
《허허허…》
《특무장동무한테 또 속았군. 하하하.》
《아무렴 우리 중대장이 군의소 처녀들한테 녹을라구, 상기 못나았으니 안나오는게지. 허허허.》
전사들의 웃음소리는 괴괴한 전선을 뒤흔들어놓았다.

3

조만간 대우의 퇴원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게 된 혜경이는 웬일인지 자꾸 마음이 초조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화도 나고 알수 없는 안타까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다리는 아직 절뚝거리면서도 공연히 우둘거리며 돌아가고 무엇인가 트집을 잡고 하다가도 군의장에게까지 찾아가서 말썽을 일으키고 하는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지없이 안타깝고 초조한 일이기도 하였다.

처음 만나자부터 옥신각신한것이 빌미가 되여 그후 내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말 한마디 건네여보지 못했으나 실상 혜경이의 가슴속에는 지꿎고 우둘거리기를 잘하는 부상병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자꾸만 머리를 쳐드는것을 감출수가 없었다. 치료사업은 전이나 다름없이 바빴으나 그런 경황없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자그마한 짬에도 늘 그 지꿎은 눈과 약간 이지러진 입 그리고 남성적인 힘과 매력으로 충만된 그 완강한 체구에 마음이 끌리는것을 속일수 없었고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 그가 누워있는 토굴로 찾아가는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어 행망없는 계집애라고 자신을 꾸짖기도 하였으나 어쩔수가 없었다. 마음은 마치 거대한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그 푸접없이 구는 무례한 부상병에게로 끌려들기만 하였다.

오늘 마지막 처치를 끝마치고 이제는 간단히 붕대만 감으면 되는 그 짧은 치료시간을 혜경은 전에없이 힘들게 보냈다. 이제는 자기 손으로 처치를 하는것도 마

지막이구나 생각하니 그 재빠르던 솜씨가 웬일인지 자꾸만 굼떠지고 더듬어지는것이였다. 오늘 따라 대우는 심중한 태도로 앉아있었다. 여느날처럼 트집을 잡을 궁리도 하지 않았다. 무심코 고개를 쳐들었을 때 그의 불타는것 같은 눈길이 자기의 목덜미를 주시하고있었다는것을 깨달은 혜경은 삽시에 얼굴이 숯불을 담아 부은듯 화끈거렸다. 그 눈치를 챘는지 대우도 어색해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한동안 처치실안에는 서먹서먹한 침묵이 깃들었다. 무슨 말이 오고감직한 분위기였으나 종내 아무 말도 터져나오지 않았다.

실상 혜경이가 안타깝게 가슴을 조이며 그러면서도 은근한 공포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말은 대우의 성격으로 봐도 그렇고 또 전쟁이라는 이 준엄한 정황이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건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것 같기도 했다.

대우가 처치실에서 나간지 얼마 아니하여 갑자기 항공경보가 요란스레 울려퍼졌다.

혜경이는 총총히 토굴쪽으로 달려나갔다. 산보시간이라 많은 부상병들이 밖에 나와있을것이기때문에 얼른 대피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벌써 간호병들과 위생병들이 부상병들을 부축하여 분주히 군의소 안팎을 뛰여다니고있었다. 경환자들은 제발로 껑충껑충 뛰달아왔다.

한참 그렇게 부산을 피우고 겨우 부상병들의 대피를 끝마쳤을 때 앵—하고 쌕쌔기편대가 월하봉을 스칠듯이 넘어왔다. 적기들은 동체를 까불며 련대지휘부일대와 포진지 상공을 선회하더니 물레바퀴처럼 꼬리를 맞물고 마구 내리꽂히기 시작하였다.

로케트포탄이 요란하게 터졌다. 여기저기 휘발유통이 떨어져서 삼단같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올랐다. 불길이 하늘에 퍼졌다.

따르륵, 뚜루룩, 뚜루루룩—

기총소사소리, 로케트포탄 터지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미친듯이 쏘아대는 놈들의 각종 구경 지상포소리가 한데 뒤범벅이 되여 천지는 삽시에 흉흉한 음향과 불길에 휩싸여버렸다.

이때 한 간호병이 토굴입구에 서있는 혜경이에게로 달려왔다.

《상급준의동무, 저 중대장동무가 보이지 않아요.》

혜경은 갑자기 긴장되였다. 뻔히 알면서도 되묻지 않을수 없었다.

《중대장이라니, 누구말이예요?》

《박대우중대장동무말이예요. 글쎄 산보시간에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안돌아왔어요.》

혜경은 입을 다물었다. 설마 이제는 퇴원하게 된 사람이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자기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가슴은 자꾸만 불안에 후둑거렸다.

이때 쌕쌔기들은 잠시 중공에서 맴돌더니 이번에는 개별적인 목표를 노리는지 갑자기 급강하하군하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따라 아군대공지상화력들은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적기들은 더구나 갈개며 돌아가는것 같았다.

혜경이 눈앞에는 흰 환자복을 펄럭거리며 어딘가 우둘거리며 돌아치고있는 대우의 모습이 밟혔다. 꼭 그런 철딱서니없는짓을 할것만 같았다.

앙— 하고 눈앞에서 다시금 내리꼰지는 적기를 보았을 때 혜경은 무엇에 내질린 사람처럼 달려나갔다. 대우가 평소 잘 다니던 뒤숲으로 향하였다. 지금 적기들은 한창 그쪽으로 급강하하고있었다.

혜경이는 적기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 나무그루, 풀숲사이를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사방을 분주히 살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지척에서 대우의 목소리가 들

려왔다. 혜경은 반갑던나머지 앞뒤 돌볼새없이 소리나는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것은 고사기관총좌지였다. 대우는 흰 환자복은 벗어서 발아래 뭉그려놓고 고사기관총소대의 하사관과 또 무엇을 따지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성이 나서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엄엄한 기상을 하고있었다.

《아니 중대장동무, 폭격이 이리 심한데 왜 여기와 계세요?》

혜경은 애써 반가운 표정은 감추고 마구 끌고갈것처럼 바투 다가서며 야무지게 말하였다.

《잠간, 이제 곧 가겠소. 이 동무들한테 한마디만 더 하고…》 대우는 피뜩 혜경을 돌아보더니 귀찮다는듯이 한마디 하고는 인차 그 하사관에게로 돌아섰다.

《아니 그래, 동무들은 저놈들 노는 꼴이 밉지도 않단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상부의 명령인걸요.》

중사의 견장을 단 동무가 위장망에 잔뜩 꽂힌 오리나무잎사귀를 어깨너머로 꾸깃꾸깃하며 한숨섞인 소리로 대답하였다.

《체, 대체 누구 명령이요?》

《참모장동무 명령입니다. 그저께 갑자기 지휘부일대에 방어시설이 완비되기전에는 대응사격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진지가 발견되면 더 많은 피해를 입을수 있다구요.》

앵—하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나더니 군의소부근에서 뚜루룩하고 고막을 째듯이 모진 기총소사소리가 울렸다. 뒤미처 쌕쌔기 한대가 배때기를 환히 드러내놓고 기관총좌지우를 지나갔다.

《흥, 동무들 팔자가 괜찮게 됐군…》

대우는 입을 이기죽거렸다.

《음달에 개팔자지요.》

자욱이 위장한 고사기관총을 매만지고있던 나이지긋한 전사가 대우의 흉내라도 내듯이 입귀를 씰룩거리며 내뱉았다. 중사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희들도 화가 납니다. 어제는 저 동무가 너무 결이 나서 한탄창 갈겨놓았는데 나중에 소대장동무가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

《젠장, 무슨 판인지 모르겠군. 이건 싸움이 아니라 무슨 눈치놀음을 하자는겐가… 동무들, 난 가오. 적기는 지랄을 하는데 동무들은 낮잠이나 푹 자오.》

대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씩씩거리더니 벌떡 일어났다.

《갑시다.》

대우가 일어서자 좌지에 엎드려있던 전사가 고개를 들고 인사하였다.

《잘 가십시오. 덕분에 잠봉창은 잘하게 됐습니다.》

혜경은 그들의 대화가 딱히 무슨 소린지 처음에는 알수 없어 멍청해있었는데 갑자기 가자고 일어서는바람에 엉겁결에 대우의 손목을 부여잡고 급히 주저앉히며 말하였다.

《지금 가면 안돼요. 적기들이 계속 날치는데요.》

《젠장, 또 적기타령이군.》

대우는 앉아서도 계속 우둘거렸다. 혜경은 한참후에야 방금 오고간 말들이 모두 오빠가 고사기관총들의 사격을 금지시킨데 대한 이야기였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어조에서 풍기는 비양조도 똑똑히 느끼였다. 그는 참을수 없는 모욕감에 살이 떨려왔다.

혜경은 그대로 입을 앙다물고 앉아 그냥 갈개며 돌아가는 적기들을 쏘아떨굴듯이 노려보았다.

4

련대장지휘감시소는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끊임없이 상급참모부며 각 구분대들에서 통신련락이 오고 참모들이 중요한 보고를 가지고 드나들었다.

강표는 급하고 다사한 이 모든 일들을 조금도 덤비지 않고 하나하나 처리해나가면서 차곡차곡 새로운 전투계획을 준비하고있었다.

때로 그는 마치 련대의 힘겨운 전투정황을 잊어버린듯도 하였다.

오늘도 3대대에서는 벌써 다섯번째로 더욱 치렬한 적의 공격을 보고해왔다.

《좋소, 적정을 계속 잘 살피란말이요. 그리고 전호수리를 인차하게 하고… 탄약 공급은 잘되오?》

《네, 그런데 적의 포사격이 점점 심해집니다. 지금 두무령은 대단히 곤난합니다. 련대포의 지원을 받을수 없다면 저희들의 박격포라도 전투에 인입시키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대대장의 애원하듯하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울렸다.

《안되오. 참으시오. 그냥 견디여내라니까. 두무령의 전사들에게 내가 그들을 믿는다고 전해주시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만하오. 힘에 겨운것을 나도 아오. 그러나 참아야 해. 대대장동무, 알겠소? 우리는 거치장스러운 포들을 치장거리로 끌고다니는것은 아니요. 우리의 포마들은 살이 찌고 포신은 번들거리오. 이제 그 거만스런 죤 웨더마이어의 면상에 지스뜨리의 명중탄을 퍼부을 때가 있다니까. 그때를 위해 참으시오. 알겠소?》

《들었습니다.》

《참, 박대우동무가 중대에 돌아왔다지?》

《그렇습니다. 어저께부터 중대를 지휘하고있습니다.》

《잘됐소. 내가 다시 부상을 당하면 책벌을 주겠다더라고 전하오.》

《들었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은 련대장은 천천히 감시창으로 가서 포연에 자욱히 흐린 두무령상공을 내다보았다.

동이 훤해지면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오기 시작한 포격소리는 점점 극성스러워졌다.

꽈르릉, 꽈르릉— 산발을 물어뜯으며 터지는 적탄에 감시소 엄폐호까지 들었다놓듯이 마구 흔들거렸다.

어느덧 강표의 머리에는 초연에 뒤덮여 피가 맺히도록 방아쇠를 당기고 수류탄고리를 뽑는 전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전호에 파고드는 적탄이 제 가슴에 박히는듯한 아픔이 엄습해왔다. 일순 강표의 넓은 이마에는 굵은 주름살이 새겨졌다.

이때 지도앞에 서있던 참모장이 가까이로 오며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반포투쟁을 전개할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적의 포화력을 제압하지 않고는 이 방어선을 견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강표는 다만 고개를 끄덕거릴뿐 말이 없더니 자기자리에 가앉았다.

그가 포탄상자우에 펼쳐놓은 지도를 들여다보자 현종국이가 제꺽 쳐들린 지도의 한쪽귀를 묵중한 포탄파편으로 지질러놓았다.

《참모장동무 말이 옳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암만해도 이 방어선을 견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다음 방어선은 어딥니까? 이 소두리계선?… 그러나 거기서도 오래 견디지는 못할것 같은데… 그럼 그다음은?…》

련대장이 지도를 짚으며 이렇게 말하자 종국이가 허리를 세우고 바로섰다.

《아닙니다. 련대장동무, 제 개인의 의견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반포투쟁을 전개한다면 일정한 기간은 견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단이나 군단에서 딴 대책이…》

《허허허, 그 일정한 기간이 문제란말이요. 사단이나 군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우겠지. 우리보다 월등한 머리들이 거기엔 수두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넘게 사단이나 군단에서 뭘 어떻게 하겠지 하고 지레짐작할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되지. 나도 전에는 깨지를 못해서 더러 그런 타산을 하고 전투를 했다가 매번 골탕만 먹었다니까. 더구나 지금이야 우리가 사단이나 군단, 나가서는 최고사령부의 도움을 받자고 할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제를 세워야 할 때란말이요.》

강표는 엄한 어조로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이번에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일정한 기간이라… 작전참모동무, 내 생각에는말이요. 우리 전사들이 포없이도 그 일정한 기간은 견딜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렇지만…》

구본수가 안타깝다는듯이 련대장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것을 제지하면서 강표가 자기 말을 이었다.

《알만하오. 포를 두고야 무엇에 쓰겠느냐는 말이겠지요. 참모장동무, 나도 그렇소. 포를 써야지요. 그런데 어디다 무슨 목적에 쓰겠소? 반포투쟁을 전개하면 다소 형편이 호전될수도 있을것이요.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곤난하오. 적이 가장 아파할데를 때려야 하오. 참, 참모장동무, 정찰이 돌아왔소?》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찰참모동무는 정찰소대에 나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고를 받으면 곧 돌아올것입니다.》
《좋습니다. 정찰병들이 오거든 곧 나에게 알려주시오.》
여기까지 말한 강표는 팔을 깍지끼고 눈을 감더니 천천히 몸을 흔들며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적이 어디를 제일 아파하는가? 적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아직 똑똑히 잡아쥐지 못했소. 적의 포진지와 지휘부, 전호, 화점들의 위치나 알고 원형과 꼭같은 사판을 우리가 만들어놓았다는것으로 마음을 놓을수 없소. 제일 요진통은 그놈들의 머리속을 꿰뚫어보는것인데 그건 아리숭하거든. 그것을 똑똑히 알기전에는 단 한문의 포도 로출시킬수 없소. 그 웨더마이어란놈이 현리로 게바라나가기 위해서 무슨 꿍꿍이를 대는가 그것을 알아내야 하오. 그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안타깝더라도 기다려야지. 이제 정찰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올것이요.》
강표는 잠시 감시소벽을 쿵쿵 울리는 포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담배를 붙여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내 이야기나 하나 할가?…》
빙그레 웃음을 띠우며 강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구본수와 종국이는 련대장의 입만 지켜보았다. 그들은 련대장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어떤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으나 설마 한담을 꺼내놓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강표는 정말 한담을 시작하였다.
《내가 스무나문살 났을 때 두만강을 끼고도는 철도공사가 한창이였소. 경기가 좋다는 소문이 짜한데다가 공사장에 센 조직이 있어서 나도 일을 하러 다녔소. 그때 거접해있던 함바주인놈이 미야께라는 일본놈인데 아주 못된놈이였지요. 우리는 밤에 삐라를 써서는 공사

구간에다 몰래 붙이군했는데 이놈이 그 냄새를 맡고 순찰을 다니기 시작했소.》
강표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엄페호 출입문이 열리더니 몸이 육중한 정치부련대장이 들어섰다.
《마침 저기 또 이야기군이 오는군. 어서 오시오. 지금 옛이야기를 하는 참이요.》
《그거 좋습니다. 옛이야기란 사랑방에서 듣는것만 좋은줄 알았더니 이런 전쟁판에서 듣는게 더 구수하더군요. 어서 하십시오. 참, 군사부련대장동무는 오늘 1대대에서 묵겠답디다.》
《1대대에서 헤여졌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어디 정치적으로 잘못되지나 않는지 잘 들어주시오. 하하하.》
련대장의 때아닌 옛이야기에 감시소안의 사람들은 모두 련대장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하였다. 전화수도 무선수도 젊은 부관도 참모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다.
《…그 함바주인이라는놈은 키가 작달막하고 눈이 노란게 꼭 도독괭이같이 생긴놈인데 이놈이 검도가 3단이라나… 뭐 일본에서 살인을 치고 도망을 쳐서 구석진 공사판에 숨어산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밥장사를 하면서도 출세를 해보겠다고 부단히 아득바득하는놈이였소. 그래서 밤마다 격검채를 차고 자정이 되면 게다짝을 딸딸 끌고 우리들이 자는 방앞을 지나가지요. 그땐 모두 자는체 해야지 그렇지 않다간 졸경을 치는 판이요. 그런데 이 앙큼한놈이 처음에 그렇게 게다짝을 끌고 한바퀴 돈다음에는 이번에는 게다짝을 벗어들고 도독괭이처럼 살살 벽밑에 붙어서 방안의 동정을 살피며 순시를 한단말이요.》
《하하, 그게 진짜 순시로군요. 그 왜놈다운데…》
정치부련대장이 자못 감탄하여 이야기에 반죽을 쳤다.
련대장은 담배를 한모금 길숙이 빨더니 말을 이었다.

《옳습니다. 그게 진짜 순십니다. 우리도 인차 그놈의 꾀를 알아차리고 그놈이 두번째 지나갈 때까지 움쩍 안하고있다가 다 돌아간 다음에 등사판도 밀고 모임도 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방에 잠꼬대 잘하는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우중충한 날이였지요. 함바주인녀석이 마침 한쪽손에 게다짝을 벗어들고 한쪽손에는 격검채를 잔뜩 틀어쥐고 살살 집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잠꼬대를 하지 않았겠소.》

《저런…》

《뭐라구요?》

사람들의 시선은 긴장되였다. 강표는 이야기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렇게 애를 말리게 해놓고는 또 담배를 빨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허허허, 그 친구 낮에 발파할 때 혼난 일이 있었지요. 그래 잠꼬대를 한다는것이 〈어이 위험해. 어서 피해. 어서!〉 자, 이래노니 그 미야께상이 혼비백산해서 제꺽 격검채를 뽑아들고는 〈도꼬다, 도꼬다〉하고 한바탕 연극을 놀지 않았겠소.》

《하하하.》

《허허허.》

감시소안에는 갑자기 웃음통이 터졌다. 구본수도 쓴미소를 띠웠다.

《그 구경할만했겠는데요.》

정치부련대장이 눈물을 닦으며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것이 유감스럽다는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 말투가 어찌나 심각했던지 또 와그르르 웃어댔다. 강표는 그렇게 웃겨놓고 자신은 그저 씨물씨물하면서 말을 이었다.

《구경할만하다마다, 함바가 떠나갈듯이 웃어댔지요. 그 웃음통에 더욱 질겁했는지 다시는 그 못된짓을 못합디다. 아주 버릇이 뚝 떨어졌지요.》

련대장이 말을 마치자 감시소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정숙이나 전화수는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키득키득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잠시 시간이 지나자 련대장이 이 가렬한 전투환경에서 그런 한담을 꺼낸 까닭을 비슷이 짐작들을 했던것이다.
잠시후 정치부련대장이 껄껄 웃더니 입을 열었다.
《함바의 교훈이라― 그 교훈이 귀중합니다. 적이 지금 하루에도 여섯차례,일곱차례 돌격을 해올라오는데 그 파상형공격중에서 어느 파도가 진짜파도인가를 가려내는것이 중요하지요.》
그러자 강표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옳소. 진짜파도를 가려내는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오. 그런데 내 보기에는 아직은 진짜파도가 없었소. 이것은 말하자면 중을 떠보는건데 작전참모동무가 자주 말하는 그 소모전이며 정찰전이며 신경전이란말이요. 정찰을 강화해야겠소. 그리고 아픈 희생을 참으면서 우리의 포위력을 든든히 감추어두었다가 그 진짜에다 대고 답새겨야 하오. 웨더마이어의 매부리코가 납작해지게시리 본때있게 두들겨주어야 하오.》
강표는 말을 끝마치자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생각탓인지 어깨가 약간 처져내린듯하였다.
겉으로 한번도 괴로운 상을 지어본 일이 없는 그는 이렇게 어깨를 처뜨리고 거닐게 될 때마다 40고개를 겨우 넘어선 그 나이에 벌써 한오리,두오리 흰머리가 늘어가는것이였다.
강표의 버릇을 잘 아는 정치부련대장은 자신이 참을수 없는 고통을 당하듯 눈을 감고 량미간에 깊은 주름을 새겼다.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듯 눈을 한번 부릅뜨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련대장동무,련대장동무가 옛이야기를 하셨으니 나에게도 옛이야기를 한마디 할것을 허락해주십시오.》

방안을 거닐던 강표는 정치부련대장의 살집이 좋은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좋지요. 훌륭한 이야기란 변변치 못한 안주에 술 마시는것보다도 낫더군… 클클한판에 어디 이야기에나 한번 취해봅시다.》

련대장은 자리에 와앉고 그대신 정치부련대장이 거닐기 시작하였다.

작전참모며 통신병이며 부관은 가렬한 싸움판에 한가한 이야기판을 벌려놓는 련대의 존경하는 두 상관의 얼굴을 의아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이야기에 끌려들었다.

사실 이런 바쁜 지휘감시소에서 옛이야기를 듣는다는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이겠는가.

《이건 진짜 옛이야기지요. 옛날에 한 선비가 밤낮없이 글을 읽다가 하루는 머리가 무거워서 소풍삼아 들로 나갔습니다. 때마침 모내기철인데 자기네 논앞을 지나며 보니까 물고가 터져서 논물이 남의 집 논으로 흘러들고있단말입니다. 이 선비량반님께서도 논물이 귀하다는것은 아는지라 엉거주춤 앉아서 흙덩어리를 집어다가 논두렁에 대구 붙이는데 아무리 갖다붙여도 물살에 떠내려가고 붙어있지를 않는단말이지요. 한식경이나 그렇게 신고를 하다가 종내 단념을 하고 돌아와서 머슴을 내보냈지요.》

《그 량반 찰선비로군.》

강표가 다시 담배불을 켜들고는 흥미진진하다는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바람에 성냥이 다 타버려서 다시 성냥을 그었다.

《그만하면 선비로서도 괜찮은 편이지요. 헌데 그 머슴이 나가더니 한참이 못되여 아뢰기를 벌써 다 막고 왔노라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선비 생각에 필경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게다,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신고를 해

도 못막았는데 제까짓 천자도 못읽은 상놈이 그렇게 빨리 막을수가 있을가보냐… 해서 몰래 들로 다시 나가보았단말입니다. 했더니 과연 물고가 용수없이 막혔는데 보아하니 별게 아니라 흙을 한삽 떠서 논두렁 안쪽에다 척 붙여놓질 않았겠습니까. 이 선비량반은 두렁 바깥쪽에다 흙을 자꾸 갖다붙였댔지요. …》

《하하하, 저런…》

보매 이 이야기에 그중 흥미를 느끼는것은 강표였고 나머지사람들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였다.

《그제야 선비가 무릎을 철썩 치고 하는 말이 〈방기원이로구나!〉 했다는것입니다.》

《흠— 〈방기원〉이라… 그 근본을 막았다는 말이지…》

강표가 심중해지며 중얼거렸다.

이야기가 끝나자 피씩피씩 웃는 사람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좀 싱겁다는 표정이였다.

흥분한것은 강표 한사람이였다. 그는 자못 만족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역시 정치부련대장동무가 이야기군이군. 내 손들었소. 그렇소. 불리한 방어계선에서 애를 쓴다는것은 그 량반선비나 할 작전이요. 련대의 방어선을 삼두봉으로—이것은 련합부대 참모부가 처음부터 가지고있던 의견이였소.》

강표의 말을 시작으로 감시소안은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에 빠져들어갔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불꽃을 튕기며 맞부딪치고있는것이였다.

아까부터 얼굴을 찌프리고있던 구본수가 참을수 없다는듯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옛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르고 준엄합니다. 수많은 귀중한 전사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치렬한 싸움입니다. 더구나 현대전의 조건하에서

지휘관들은 아무도 환상에 사로잡혀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삼두봉에로 방어선을 끌고가는것이 유리하다는것을 몰라서 이렇게 두들겨맞고있단말입니까?》

구본수가 이렇게 말하자 방안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돌아갈줄은 아무도 몰랐던것이다.

강표만은 웃음을 잃지 않고있었다.

《그렇소. 참모장동무 말이 옳소. 그래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앉아서 벼락을 들쓰고있단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정치부련대장동무.》

강표는 지꿏게 눈을 쪼프리며 정치부련대장의 육중한 몸매를 조롱하듯 훑어보았다.

정치부련대장은 껄껄 웃더니 련대장의 담배갑에서 권연 한대를 뽑아들고서 말하였다.

《하하하, 내가 공연한 소리 했나보군요. 방어선을 어떻게 설정할것인가? 적을 어떻게 공격할것인가? 이것은 군사지휘관들이 할 일이지요. 나야 사람들이 량심적으로 생각하고 량심적으로 싸우도록 방조를 주면 그만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왕 말이 났으니 참모장동무가 노엽더라도 한마디만 더 합시다. 그 선비량반으로 말하면 4서5경에 통달하고 6도3략을 암송하고있었습니다. 허지만 역시 논두렁은 못막았지요. 내 이야기는 이것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말을 끝마친 정치부련대장은 속이 편안한듯이 담배를 붙여물고는 창구멍으로 가서 후-하고 연기를 내뿜었다. 참모장은 살이 피둥피둥한 그 목덜미를 흘겨보며 입맛을 다셨다.

이때 강표가 갑작스레 웃어댔다.

《하하하, 그렇소. 정치부련대장동무 말이 옳소. 꽤 맵짠걸. 그렇소, 암만 책권을 많이 읽고 명제를 암송한다

고 해서 진리를 체득하지는 못하오. 비록 무식은 하지만 그 머슴— 말하자면 인민이겠지. 그 사람은 실천으로써 진리를 체득하고있단말이요. 진리라는것은 가만보니 책장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속에 있소. 정치부련대장동무, 방조를 주어 고맙소.》

그러더니 강표는 벌떡 일어났다.

《부관동무, 나하구 같이 가기요. 나 3대대에 나가보겠소. 그리고 참모장동무, 정찰참모가 오거든 3대대로 련락해주시오. 그러면 내 곧 돌아오겠소.》

5

대우가 군의소에서 나오던 날부터 두무령의 전투는 더욱 가렬해졌다.

웨더마이어는 조그마한 두무령에다 두개 련대의 포화력을 몽땅 집중시켰으며 경폭격기들과 추격기들을 동원하여 줄폭탄을 쏟아부었다.

고지가 불바다속에 잠겼을 때 기관총을 앞세운 보병대대들이 물레바퀴처럼 밀려들었다.

전호는 아무리 파고 손질해도 어느새 또다시 무너지고 화점들은 자꾸 불탔다.

중대장감시소도 허물어졌다.

엄폐호입구의 동발목이 넘어지고 천장에서 연목이 부러져서 흙과 돌부스레기가 주르르 쏟아졌다.

《개새끼들, 감시소를 맞히다니. 존엄성없이…》

대우는 아무데나 함부로 포탄을 갈겨대는 적진을 노려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특무장동무, 탄약함을 빨리 끌어내오. 다 묻히겠소. 저런…》

그는 얼른 전화통을 옮겨놓으며 소리를 질렀다.
《자 이런, 미대도 간곳이 없군. 쌍놈의 새끼들! 손해배상을 단단히 물려야지…》
특무장 김인철이는 연방 무엇인가 두덜거리고있었다.
《옳소, 다 적어놓소. 이담에 계산을 톡톡히 봅시다.》
《젠장, 이런것까지 다 회계를 대자면 그놈들 몇대를 갚아도 못다 갚을걸… 그래도 받아내야지. 개자식들!》
인철이는 그냥 두덜거리며 흙속에 묻힌 탄약함과 수류탄상자를 꺼내놓았다.
이때 전화신호가 울렸다.
《진달랩니다. 박대우가 받습니다.》
《중대장동무요? 나 대대장이요. 적정이 어떻소?》
《요란합니다. 오늘 벌써 네번째입니다.》
《견딜만하오?》
《아직은 두무령에 전사들이 살아있습니다. 념려 마십시오.》
《좋소, 좀더 견디오. 애로는 없소?》
《애로말입니까? 다 애로가 돼서 지금은 없으나같습니다. 탄약을 더 보내주십시오.》
《알겠소. 곧 보내겠소. 그리고 중기도 몇문 더 내보내겠소.》
《감사합니다. 그것만 보내주면 두무령은 마음 푹 놓으십시오.》
…두무령에 다섯번째 공격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련대장 강표가 아직도 허물어진채로 있는 중대장감시소앞에 나타났다.
쌍안경으로 적의 공격서렬을 지켜보고있던 대우는 련대장이 들어서는것도 모르고 소리쳤다.
《련락병, 또 소대장들에게 가오. 한놈도 고지에 접근시키지 말고 둔덕계선에서 공격서렬을 헤쳐버리라고 하오. 그리고 적이 꽁무니를 빼더라도 절대로 따라서

지 말것. 단단히 이르오!》
《들었습니다. 적을 고지에 접근시키지 말고 둔덕계선에서 공격서렬을 헤쳐버릴것. 적이 꽁무니를 빼더라도 추격하지 말것! 갔다오겠습니다.》
련락병이 복창하고 뛰여나갔을 때
《그건 어째서 그러오?》하고 슬그머니 강표가 들어섰다.
제마끔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련대장은 야전전화통을 잡고 어디다 전화를 걸려는지 송수화기를 매만지면서 대답을 독촉하듯이 대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대우는 쌍안경을 탁자우에 놓으며 침착하게 말하였다.
《지금 웨더마이어란놈이 포대경으로 이 고지를 바라보고있을것입니다. 우리가 전호밖에 나서기만하면 그놈은 곧 포병들에게 일제사격명령을 줄것입니다.》
《그러면 제놈들도 죽게?…》
《보십시오. 모두 깜둥이들만 공격에 내몰았습니다. 웨더마이어가 깜둥이들 죽는데 눈살이나 찌프릴것 같습니까? 그놈에게는 〈국방군〉이나 깜둥이나 다 미국놈들의 탄알받이에 불과합니다.》
《흠—그렇지만 전호안에서만 싸워서야 어디 전쟁에 이기겠소?》
《련대장동무가 결심하기에 달렸습니다. 공격명령만 주시면 저 개활지대를 정보로라도 나갈수 있습니다.》
《흠—련대장을 바보로 만들 작정이군. 그런데 감시소가 이렇게 초라해서야 어디 됐소? 동무 또 군의소에 가고싶은게로군, 응? 대대장동무가 내 말 전하지 않습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디 두고보기오.》

강표는 차렷자세를 하고 섰는 대우의 후리후리하면서도 든든해보이는 몸매를 흡족하게 바라보면서도 입으로는 무엇인가 자꾸 불만을 말하다가 이윽고 수화기를 들었다.

《나 련대장이요. 참모장동무한테 대오. … 나 강표입니다. 지금 두무령에 와있습니다. 정찰병들이 돌아왔소? 아직 안돌아왔다… 좋소. 아마 밤이 되여야 돌아올모양이요. 그런데 공병들에게 나무를 더 찍게 하오. 두무령에는 나무가 없소. 그런데 엄페호와 화점들이 다 마사졌소. 이제 곧 보내도록 조직해주시오. 부관동무는 대대에 떨궈두었소. 내 이제 그리로 가겠소. 그것뿐이요.》

전화를 걸고난 강표는 고지 턱밑까지 밀려온 적들을 바라보더니 중대장의 쌍안경을 들고 삼두봉을 바라보았다.

아군 중기화점들에서 불을 뿜어댔다. 보총과 경기도 한꺼번에 불을 토하였다. 고지는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선두에 선 놈들이 비실비실 뒤걸음질을 치자 뒤에 선 놈들이 와르르 밀려들었다.

미친듯이 고지를 향해 돌격해오던놈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넘어지고 어떤놈은 그 불벼락속에서도 살아보겠다고 얼굴을 싸쥐고 디굴디굴 굴렀다.

적아의 총소리가 엇갈려 귀청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저놈들이 송장 뒤거두매나 하오?》

강표가 침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웬걸요. 그렇기때문에 더구나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저걸 다 어떻게 처치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아니군…》

적의 공격서렬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적의 포진지에서 불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적탄은 적

아 가릴것없이 두무령일대에 마구 떨어졌다. 이 독전사격에 황급해난 흑인고용병들은 발악적으로 고지를 향해 바라올랐다.

《동무 말이 맞았군. 고약한놈들…》

강표가 격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개같은놈들입니다. … 저런, 중기가 왜 멍청해있는거야. 저 사람들 정신나갔군. 여보 특무장동무, 1소대에 나가보오. 중기가 잘못됐나 보오. 아예 탄알을 지고 가오. 빨리 고지에 붙은놈들을 내쫓으라고 하오. 어서!》

《들었습니다.》

특무장이 탄약함을 메고 교통호로 달려나갔다.

강표는 대우의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전투지휘가 마음에 들었으나 시치미를 떼고 여전히 엄격한투로 입을 열었다.

《중대장동무, 나는 대체로 동무의 지휘가 마음에 안드오. 동무는 너무 희생을 두려워하는것 같소. 전쟁에서 대담성이 부족한 지휘관을 어디다 쓰겠소?》

대우는 적정을 계속 살피면서 빙긋이 웃었다. 그가 무어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감시소주변으로 휙― 휙― 하고 적탄이 들이박혔다. 1소대 방어구역쪽에서 녹아난 놈들이 비교적 화력이 약한 감시소가 있는 고지 중앙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것이였다.

《개새끼들! 련대장동무, 조심하십시오.》

대우는 강표를 막아서듯이 감시소입구쪽으로 나서더니 자동총을 휘둘러댔다. 그옆에서 방금 돌아온 련락병도 사격을 시작하였다.

강표는 묵묵히 전장을 살폈다. 적은 인차 공격기세가 수그러들었으나 그래도 발악적으로 기여오르고있었다. 2소대쪽으로 몰렸던놈들도 고지중앙으로 점차 공격방향을 돌리고있었다. 그 눈치를 재빨리 챈 대우는 급히 소리쳤다.

《련락병, 2소대에 가오. 중기와 경기 화력을 고지중앙돌출부로 돌리라고 하오. 1소대와의 린접을 잘 보장하면서…》

《들었습니다.》

련락병이 달려나갔을 때 대우는 사격자세를 그냥 가진채로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던 이야기의 실머리를 이었다.

《대담성이 부족하다니. 어떻게 하는 말씀인지요? 만일 우리가 희생을 내는데 대담하다면 웨더마이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우의 대답은 강표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다. 그는 적탄이 날아오는 방향을 주의깊이 살피며 말하였다.

《허허허, 동무는 선전일군이라더니 입이 고약하군. 련대장의 말을 그렇게 푸접없이 깎아버릴수가 있소?》

《버릇이 없어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말을 마치기 바쁘게 대우는 돌출부 코숭이에다 대고 뚜루룩뚜루룩 한참 기관단총의 탄창을 풀었다.

잠시후 적정이 좀 가라앉은 틈을 타서 강표가 또다시 입을 열었다.

《어떻소. 꽤 물리침즉하오?》

《보십시오. 곧 쫓겨갈것입니다.》

《요즘 전투가 마음에 드오?》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련대의 기동이 이렇게 굼뜬것은 지휘부에 우유부단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순간 강표의 눈살이 찌프러졌다.

2소대쪽에서 중기소리와 경기소리가 교차되여 자지러지게 울렸다. 그바람에 강표는 목구멍까지 넘어온 말을 삼키지 않을수 없었다.

아군화력이 고지 중앙 돌출부에 집중되자 적의 공격서렬은 산산이 헤쳐지고말았다. 벌써 시체를 질질 끌고 그것을 의지삼아 내빼는놈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전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였다고 생각한 강표는 방금 하려던 말을 다시 끄집어냈다.

《동무는 무엇을 잘못 생각한게 아니요? 기동이라니 어디로 기동한단말이요?》

대우는 갑자기 멍청한 얼굴로 강표를 바라보더니 벌떡 일어나 기관단총의 탄창을 갈아대여 탄약상자우에 놓았다. 그리고는 시무룩이 웃으며 말하였다.

《군사비밀이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사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싸움을 하는데도 포들이 움찍도 하지 않는데 그걸 짐작하지 못하겠습니까?》

《흥, 그게야 동무 말한대로 지휘부가 우유부단한때문인지 어떻게 아오. 그래 동무들은 련대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고있소?》

강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두무령코숭이의 격전은 잊어버린듯 대우의 얼굴을 주시하고있었다.

《저희들 생각이야 단순하지요. 놈들의 의도도 뻔하니까요. 저놈들이 매일 저렇게 여섯번, 일곱번 밀려오는건 다 전투정찰입니다. 저러다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밀려올것입니다. 그때 련대주력은 삼두봉 우익으로 진출해있다가 벌판에 밀려나온놈들을 때리고 단숨에 삼두봉을 들이칠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중대병력으로 포 한문없이 저놈들과 맞서있겠습니까? 조만간 돌파당하고말것입니다.》

강표는 대우의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고개가 수그러지는것을 느꼈다.

과연 좋은 전사들을 가졌다는 생각이 사무치게 가슴을 채웠으며 그 생각은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게 하였다.

좋은 전사—강표에게는 지금 자기의 심정을 표현할 다른 적당한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한개 중대의 병력으로 두개 련대의 파상형공격을 맞받아서서 그래도 오히

려 련대의 작전에 관심을 가진다는 그자체가 강표로서는 더없이 감동적인 사실로 느껴졌다.

《그래 힘들지 않소?》

강표는 그러한 질문이 어리석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괴로운것은 련대의 작전계획은 뻔한데 아직도 기동하는 구분대가 보이지 않는것입니다. 만일 두무령이 념려된다면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련대의 작전수행에 두무령이 말썽거리로 되고있다는것을 우리 동무들은 여간 기분 나쁘게 생각지 않습니다.》

강표는 여기서 다시한번 코허리가 찡해졌다. 이러한 전사들에게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명령을 주지 못한다면 그는 벌써 이러한 영웅적인 전사들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였다.

《그러나 동무들은 지금 단순한 정찰전을 막아내는데도 힘겨워하고있지 않소?》

《힘에 겹습니다. 그러니 더 힘겹게 될 때는 련대에서도 생각이 있겠지요. 그러나 명령에 따라서는 힘이라는것도 제절로 생겨날수 있습니다.》

《하하하, 안됐소. 동무는 대체로 버릇이 없소. 련대지휘부가 우유부단하다고 함부로 헐구하지 않나, 그러니 전사들이 맥을 못추는것도 련대의 명령이 시시하기때문이겠구만? 그렇다면 결국 동무는 뭐요? 그래 동무는 지휘관이 아니란말요. 응?》

강표는 대우와의 대화가 왜 그런지 흥이 나고 가슴에서 기쁨이 솟구쳐올라 우선우선하며 이렇게 물었다.

대우는 련대장의 기분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것을 알아채고 히죽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중대만큼 책임지고 련대장은 련대만큼 책임집니다.》

《거짓말 마오. 동무의 말투는 사단장의 말투와 같소. 련대에서도 생각이 있겠지요 하는 말이 그게 중대만큼 책임진 사람의 말이요?》

여기서 강표는 정말 성이 난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대우도 성이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련대장동지, 감히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조국은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련대장동지와 마찬가지로 보총을 잡은 한사람의 전사도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련대의 작전에 무관심할수 있겠습니까?》

강표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전사들의 붉은 심장을 눈앞에 보는듯하였다. 보총과 함께 조국의 운명을 두어깨에 메고 전사들은 고지에 서있다.

지도를 펴고 그속에서 조국의 땅 한치한치의 귀중함과 그속에 스민 수많은 애국선렬들의 피와 재난을 겪는 인민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보고들을줄 모른다면 한알의 수류탄을 던지고 방아쇠 한번을 당기면서도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는 전사들을 어떻게 지휘할수 있으랴 싶은 생각이 가슴을 쥐여흔들었다.

사실에 있어서는 조국의 일목일초를 위하여 목숨을 서슴없이 내던지는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들, 전사들이야말로 금을 주고도 못바꿀 조국의 으뜸가는 보배가 아닌가…

총기소리,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한결 세차게 들려왔다. 적들이 전면적으로 패주하기 시작한것이다. 무질서하게 내빼는놈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신나는 보복탄을 퍼붓고있었다. 중대장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도 전호흉장에 올라서서 기관단총을 휘두르는 전사도 있었다.

격전의 모습을 무거운 표정으로 바라보고있던 강표

는 웅글은 목소리로 껄껄 웃고는 말하였다.

《좋소, 알만하오. 젊은 친구, 성내지 마오. 내가 괜히 해본 소리요. 그렇소. 매개 전사들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운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오. 우리가 무너진 전호를 수리하고 피맺히도록 수류탄고리를 뽑을 때 언제나, 말하자면 방어를 할 때나 공격을 할 때나 전사는 항상 조국의 운명에 대한 커다란 책임감을 느껴야 하오. 그래서 우리를 전사라고 하는게 아니요.》

강표의 말마디는 여느때없이 떨리였다. 대우는 련대장의 깊은 심중을 헤아릴듯하여 스스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전화신호가 울렸다. 련대장에게 온 전화였다.

참모장으로부터 정찰이 돌아왔다는 련락을 받은 강표는 급히 감시소를 나가며 말하였다.

《중대장동무, 곧 엄폐호들을 수리하도록 하오. 이제 공병들이 나무를 날라올것이요. 유개를 든든히 씌우고… 그리고 이제 동무들에게 훌륭한 명령을 주겠소. 힘이 절로 솟구치는 명령말이요.》

강표는 차렷자세를 한 대우의 어깨를 툭툭 두들기더니 날쌔게 교통호로 빠져나갔다.

적들은 벌써 분지 저쪽으로 빳빳이 꽁무니를 빼고있었다. 우리 중기가 그 뒤통수에다 대고 맹렬한 사격을 퍼붓고있었다.

3. 조국의 지도우에서

1

이튿날새벽, 갑자기 련대장의 부름을 받은 대우는 떨떨해서 련대장지휘감시소에 들어섰다.

그가 련대장앞에 가서 보고를 하자 강표는 곧 작전지도를 펼쳤다.

《어제 정찰이 보고하는데 의하면 웨더마이어는 지금 한개 련대의 예비대를 축적하고있고 또 더 그러모으는중이라오. 그리고 18일날, 그러니까 닷새후에 총공격을 들이댈 작정이라오.》

강표는 아무 허두도 없이 불쑥 이렇게 말을 꺼냈다.

《정찰자료는 정확하다는것이 확인되였소. 새벽에 딴 정찰조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왔고 〈혀〉까지 잡아왔소. 그런즉 련대는 이 공격에 대처하여 무엇을 해야겠소? 나는 우선 두무령의 방어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가, 거기에 대한 동무의 의견을 듣고싶소.》

대우는 어리둥절하여 련대장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구본수와 현종국이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는데 다시금 련대장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말해보시오. 기탄없이… 그래 최소한 한개 련대의 총공격앞에서 두무령이 꽤 견디여냄즉 하오? 나는 두무령을 이때까지 견지해온 동무의 의견을 듣고싶소.》

강표는 오늘따라 심각한 표정이 되여 다우쳐 묻는것이였다.

대우는 어쩐지 감시소안의 무거운 분위기며 상관들

의 긴장된 태도에 압력을 느끼면서 자세를 바로잡았다.
(총공격!)
미리 예견하고있었다고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부닥치고보니 일순 대우의 골은 뗑해지는것이였다. 지난 보름동안의 힘에 겹던 전투들이 회상되였고 그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뼈아픈 희생을 당할 때마다 안전한 엄폐호속에서 제때에 식사를 하면서 잠도 푹 자고있을 다른 중대 생각이 펀뜩펀뜩 일어나던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하필 우리 동무들만이 이렇게 간고하란 법이 어디 있는가? 부상을 당하여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는 전우들의 처절한 모습… 밤잠은 아예 잊어버리고 보병삽이 반달같이 몽드라지도록 굳은 바위돌을 파내고있는, 지칠대로 지친 부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뿌리쳐도 뿌리쳐도 그의 덜미를 잡아누르는것이였다. 그런데 또 총공격을 겪어야 하는가?
배비변경을 요구하자! 어제는 전투정황이라 흥분한 김에 련대장에게 장한 소리를 했지만 실상 그 대원들을 어떻게 또 총공격앞에 내보낸단말인가? 희생을 덜낸 중대를 배치하고 화력을 증강해주면 될게 아닌가? 아니 혹 대대를 배치해야 되지 않을가?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그 작은 고지에 대대력량을 배치한다는것은 벌써 겁쟁이들의 어리석은짓이다. 하여간 나의 중대는 더 거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사실 우리만큼 고생한 중대가 있는가? 배비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말해보오. 기탄없이 의견을 내놓소.》
그의 생각을 부추겨주기라도 하듯 련대장이 또다시 입을 열었다.
대우는 단단히 마음을 다지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나 입을 벌렸을 때 그는 방금 생각하던것과는 전혀 딴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란 별게 없습니다. 만일 두무령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면 한개 련대가 아니라 두개 련대라도 견지해야지요.》

말을 마쳤을 때 대우는 쓰거운, 자기 조소와 비슷한 것이 목구멍을 넘어오는것을 느꼈다. 입술을 앙다물고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 자기로서도 마음대로 주체할수 없는 이 순간에 대우는 중대 전우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들은 나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우울해질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가?

대우는 주먹을 틀어쥐고 힘차게 고개를 쳐들었다. 아니다! 아무도 우울해지지 않을것이다. 나는 그들의 의사를 대변했을뿐이다. 그렇다. 련대장의 질문에 대답한것은 중대장인 자기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조국의 질문에 대답하는 바로 그들 전체 중대전투원들의 의사를 대변한것이였다.

그것은 단순히 혀가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것이 아니였다. 원쑤들이 조선사람들을 죽이려고 쏘아대는 포연탄우속에서, 바로 그 포연탄우의 몸서리치는 공포와 위협과 전률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한 조국방위자라는 영예로운 자각이 그의 감정을 눌러버린것이였다. 전쟁은— 조국의 수난은 어떤 《나》도 《나의것》도 조국의 운명의 앞장에 내세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우는 거듭 힘을 주어 자기 말을 강조하였다.

《련대장동지, 견지할수 있습니다. 견지하겠습니다.》

그러자 구본수가 못마땅한듯이 뒤짐을 지고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그와 거의 동시에 지도앞 걸상에 앉아있던 종국이가 체모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조급증을 이기지 못하여 벌떡 일어났다. 그는 되도록 자기 말에 무게를 기하려고 좀 위압적인투로 말하였다.

《한개 중대로말이요? 동무네 중대가 견지할수 있

단말이요? 동무, 이건 무슨 용감성에 대한 시험이 아니요. 잘 생각해서 대답하오. 련대장동지는 예견되는 적의 총공격에 대처하여 련대가 어떤 방어대책을 세울것인가를 묻는것이요.》
종국이의 위압적인 태도에 대우는 그만 멍청해졌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무엇때문에 저 사람이 내 생각을 대신 말하고 내가 그것을 반박해야 하는가? 공교로운 립장에 놓이게 된 자신을 깨닫자 처음에는 쓴웃음이 떠올랐고 다음순간에는 화가 치밀었다. 보매 작전참모의 말을 못이긴체 접수하여 지금이라도 앞서 한 자기 말을 취소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말해버리면 모든 일은 다 편안해질것 같았다.
그러나 이 엄숙한 순간에 어떤 사소한것이라도 리기적인 생각이 머리를 쳐드는것은 용납할수 없었다. 아무리 그럴듯한 유혹앞에서도 조국에 대한 충성의 량심만은 흐려질수 없으며 그것은 어떤 리유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었다. 동시에 조국을 위한 전사들의 자기희생적인 생각을 모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대우는 입을 열었다. 상관들앞인것만큼 되도록 자기 격정을 누르려고 애썼지만 저도 모르는사이 말소리는 불손하게 들리리만큼 높게 울려나왔다.
《적의 공격은 뭐 새삼스러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딜수 있단말이요, 중대만으로? 이때까지의 공격과는 다르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적어도 한개 련대가 밀려든다고 하지 않소.》
대우는 작전참모가 강조하려고 애쓰는것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 중대건 남의 중대건 어쨌든 못견디겠다고 말하면 시원해할것 같은 눈치가 아닌가?
대우는 놀랍고 의아스러운 눈매로 방안을 다시한번 살펴보았다. 결상에 앉은 련대장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몸을 흔들며 생각에 잠겨있었고 참모장은 초조한 동작으

로 방안을 거닐고있었다. 메마르고 혈색이 나쁜 참모장의 얼굴은 준엄해보였다.

대우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래도 련대장이 묻는것만큼 전사들의 영예를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그대로 말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나는 무엇때문에 작전참모동무가 그것을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도 놈들은 그렇게 밀려올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대는 단독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포의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아니라 두무령에는 지금 더 방어력량을 배치할래야 할데도 없습니다. 협소한 지대에 그이상 방어밀도를 강화한다는것은 방어종심을 깊이할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무령이 돌파당할것을 전제로 한 제2방어선으로 될것입니다. 그것보다 나는 놈들의 총공격이 예견될 때 포병들의 지원사격만 받을수 있다면 현재의 방어체계를 기본상 변경하지 않고도 두무령에서 견디여낼 자신이 있습니다.》

대우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종국이는 몇번이나 이야기를 가로막으려고 손을 쳐들었으나 대우는 끝까지 단숨에 말하고말았다.

대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구본수가 다시 자리에 와 앉으며 엄격한 눈길로 대우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중대장동무, 동무는 적을 과소평가하는게 아니요? 적의 10군단 산하에서도 〈상승〉련대로 이름이 쟁쟁한 련대요.》

《알고있습니다. 나는 웨더마이어란놈의 족보까지 캐보았습니다. 다른놈들하구 다른점이란 더 짐승에 가깝다는것뿐입니다.》

《허허허, 좋소, 좋소…》

대우의 이야기를 주의깊이 듣고있던 련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래 만일에 동무 말대로 적의 총공격을 중대의 력량으로 견딜수 있다면 련대의 대부분 병력은 예비대가 될것이요. 그런데 이 예비대는 무엇을 할것인가? 중대가 두무령에서 피어린 격전을 치르고있을 때 련대는 뒤꽁무니에서 두무령이 터지기를 기다려야 하겠소? 어디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해보시오.》

강표는 한결 어조를 부드럽게 하여 대우의 말을 유도하였다.

그는 어제 두무령에 나갔다가 대우의 이야기를 듣고 첫째로는 두무령의 전사들이 그 치렬한 전투를 겪으면서도 전 련대의 작전을 걱정하고있으며 특히 매개 전사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을 한결같이 느끼고있다는데 대해 감격하였던것이다.

수확은 그것뿐이 아니였다. 대우의 말에서 머리속에 구상은 떠오르면서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던 련대의 새로운 전술적반타격전에 대한 전사들의 지지를 느낄수 있었고 새로운 자신심을 얻게 되였던것이다. 강표가 련대의 새로운 전술적공격에 대한 구상을 가지기 시작한것은 지난번 사단작전회의에 참가한후부터였다. 그때 사단장으로부터 새로운 전략적단계의 시작에 대한 일종의 암시를 받은 강표는 지난 1년간의 전쟁과정을 스스로 총화해보았다. 전략적후퇴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 드높이 1950년 10월 25일 조선전선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과의 긴밀한 협동작전하에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반공격으로 넘어가 압록강연안까지 기여들어온 적을 38선 이남으로 구축함으로써 일방으로는 전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 력량의 재정리와 새로운 준비를 진행하며 타방으로는 부단한 소모전으로써 적을 약화시키고 종국적승리를 쟁취할 모든 준비를 다할데 대한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은 기본적으로 수행

된셈이였다. 전쟁 제3계단에서 조중 인민군의 빛나는 승리는 《속전속결》로써 전조선을 강점하려던 적의 타산을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그들자체 내부의 혼란과 모순,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고 고용병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락시켰다. 적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수자에 의하여도 미제무력침공자들의 전쟁 첫 1년간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의 손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가 입은 손실의 절반을 초과하였다. 미제는 정치도덕적으로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미제의 《강대성》에 관한 신화는 여지없이 깨여지고 위선적인 가면을 썼던 침략자의 본질은 세계인민들앞에 낱낱이 폭로되였다. 그놈들은 자기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하던 38계선에 주저앉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격에 밀고나가고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러한 유리한 형편을 보면서도 강표는 로련한 지휘관만이 가질수 있는 예민한 감수력과 판단으로써 전쟁의 장기화를 예감하였다.

우리 부대들도 련속적인 작전의 결과 적지 않게 피로하였으며 전선과 장대하여진 동서해안의 방어는 아직 강화되지 못하였으며 적의 일시적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역에서 아직도 혹심한 상처를 완전히 가시지 못하고있었다. 그런즉 차지한 계선을 완강히 유지하면서 일방으로는 시간을 쟁취하여 우리의 후방과 군대의 전투적기능과 기술적장비를 더욱 개선강화하며 타방으로는 적의 유생력량과 기술기재에 대량적인 손실을 주어 적아의 력량대비를 우리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킴으로써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공격으로 이전할 모든 조건을 마련할 새로운 전략적단계가 설정될수 있다. 이 전략적단계의 특성은 두말할것도 없이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일것이다. 그렇다면 월하봉과 두무령에서 진지방어로 넘어간다는것은 결정적으

로 불리하다. 도대체 장기간을 도저히 배겨낼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사단으로부터 받은 전투과업의 성과적인 수행에 있어서나 앞으로 새로운 전투로 이전하는데 있어서나 삼두봉을 빼앗아내야 된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작전상원칙일것 같았다. 사단장에게 그런 의사를 표시했더니 사단장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였다. 다만 현재 련대의 력량으로 삼두봉공격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여 서로 더 연구해보자는 정도로 이야기를 끊었었다.

엄중한 군사기밀이기때문에 아무와도 상론을 못하고 늘 혼자 삼두봉을 빼앗아낼 생각으로 아침저녁 골을 짰으며 여러가지 자료들을 준비해오던 강표는 어제 정찰병들의 보고를 받고났을 때 많은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밤새도록 지도를 마주하고 몸부림치도록 연구를 거듭하였으며 타산해보았다.

새벽녘에 그의 머리속에는 삼두봉 우익으로 뻗어나가는 련대의 굵직한 공격화살표가 떠올랐다.

그러나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토의해보자.

그러면서 강표는 혼자 빙그레 미소를 띠웠었다.

(그녀석 또 우유부단하다고 하겠군…)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아침식사를 마치기가 바쁘게 강표는 박대우에게 전화를 걸고 참모장과 작전참모를 불렀다.

그러나 강표는 자기가 먼저 이야기의 본줄거리를 끄집어내고싶지는 않았다. 이것은 이때까지 그가 모든 전투계획을 수립하면서 일관하게 견지해온 하나의 원칙이였다.

정황을 분석하고 상급참모부의 의도와 제기된 전투과업을 몇번이고 되풀이해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어느 부직간부나 참모들이 의견을 제기하게끔 유도해나가는것이 강표의 상례였다.

오늘도 적의 공격기도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방어대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강표는 점점 공격에로 이야기를 유도해갔다.
련대장의 그런 내속을 모르는 대우는 저도 모르는사이 끌려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략적단계에 대처하여 준비하려는 강표의 깊은 타산을 모르는 구본수나 현종국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무의식중에 강표가 요구하는 전술계획이며 련대의 병력과 전사들의 사기, 탄약과 식량의 예비, 기동력 등 온갖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하는것이였고 그 전투에 림하는 그들자신의 정신상태까지도 드러내는것이였다. 거기서 나쁜 의견이란 없었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 강표가 미처 고려에 넣지 못한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주의를 돌리도록 자극해주고 부족한 생각을 보충해주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욕심스러운 강표는 되도록 많은 이야기가 나오도록 부추기고 되도록 그 이야기가 선명하고 모가 지도록 부채질을 하였다. 그는 이런 때 상하격식없이 마음대로 의견을 내놓고 론쟁을 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를 썼다.
《중대는 두무령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련대는 뒤에서 박수나 치고있으라오? 훈장은 동무네만 타고…》
강표는 지꿎게 다우쳤다.
대우는 다시금 어리둥절해졌다.
련대장의 조롱섞인, 그러면서도 친근한 눈매, 참모장의 랭담하고 랭철한 표정, 종국이의 어딘가 어처구니 없다는듯한 살웃음 띤 입귀—이런 서로 다른 표정들이 사뭇 머리를 산란하게 만들었다.
대우는 성이 났다. 대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것은 무엇인가?
그는 반발적으로 고개를 쳐들고 자기도 뜻밖이리만

큼 높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두무령은 견지하기 곤난할것입니다.》
《뭐요?》
대우의 뜻밖의 말에 세사람은 거의 동시에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같은 질문에도 또 서로 다른 음영이 깃들어있다는것을 대우는 놓칠수 없었다.
《그래 그렇다면 아까 한 말은 다 허튼소리요?》
구본수가 무엇때문인지 흥분한 목소리로 덧붙여 물었다.
《내 말이 잘못되였다면 시정해주십시오. 뒤에서 박수나 치고있는 련대를 위해서는 전사들이 자기 피를 아끼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련대가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임무를 준다면 전사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을것이며 사단이라도 막아낼것입니다. 나는 련대앞에 제기된 전투과업을 알고있습니다. 적의 진출을 불허하기 위해서는 견지할것이 아니라 놈들을 포위섬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구체적으로 말해보오.》
강표는 짐짓 눈을 조프리고 대우의 말을 계속 재촉하였다.
대우는 그의 얼굴을 의아스럽게 바라보다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하고 되물었다.
《일없소, 또 말해보오. 난 다 잊어버렸소.》
대우는 어쩐지 무슨 꾀임수에 넘어가는듯한 위구심을 느끼며 주저주저하다가 다시한번 결기가 치받쳐 고개를 쳐들었다.
《나는 어제 이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의 련대가 두무령으로 계속 밀려들고있을 때 만일 련대 주력이 삼두봉 우익으로 은밀히 진출한다면 놈들을 월하분지에 끌어내여 포위섬멸할수 있고 일격에 적의 방어선을 4키로이상 남으로 밀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는 단숨에 여기까지 말하였다. 말해놓고보니 힘겨운 일을 하고난 뒤끝처럼 숨이 가쁘고 얼굴이 상기되였다. 어제 련대장과 둘이 이야기할 때는 같은 말이면서도 그렇게 힘들지 않던것이 오늘따라 그처럼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는것은 방안의 공기가 긴장되고 지금 여기서 련대의 중요한 전술문제가 토의되고있다는 책임감 그리고 자기 중대의 운명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것인지도 몰랐다.

대우의 말이 끝나자 현종국이가 벌떡 일어섰다.

《중대장동무,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것이 좋겠소. 우리가 무슨 도박을 하는줄 아오? 전술이란 투기가 아니라 과학이란말요. 과학!》

종국이의 신경질적인 론박은 대우에게 있어 뜻밖의 일이였다. 그는 한참이나 작전참모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못마땅한듯이 낯을 찌프리고있는 참모장의 표정을 살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이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리해되지 않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는 종국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하였다.

《작전참모동무의 말은 리해할수 없습니다. 물론 내 의견은 전술적견지에서 볼 때 유치한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투기적인것이 있습니까?》

종국이는 작전지도가 놓인 책상을 항상 쥐고있는 색연필로 두드리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였다.

《첫째로, 동무는 아까부터 적의 력량을 과소평가하고있소. 적은 적어도 한개 련대이상의 병력으로 강력한 포화력의 지원하에 공격해올것이 예견되오. 그런데 동무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현재의 방어체계에는 응당한 반포투쟁이 예견되여있지 않으며 공병적대책도 거의 없소. 더구나 그런 가느다란 방어선은 일격에 중둥이 허물어질수 있는것이요. 그러니 동무의 말대로 련

대의 주력을 공격을 위하여 기동시킨다면 이 월하봉을 탈취당할뿐아니라 적이 현리로 진출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것은 명백한것이요. 둘째로, 동무는 아군공격력량에 대한 타산도 정확하지 못하오. 동무는 두개 련대이상의 병력이 집결된 삼두봉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내 보기엔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함정에 찾아드는것이요. 왜냐 하면 적의 증강병력이 삼두봉으로 계속 밀려오고있는 이때 한개 련대이상의 병력을 두무령에 유인해놓고 련대가 거의 요새화되다싶이한 삼두봉으로 진출한다면 이것은 증강되는 적과 두무령에 진출한 적과의 중간 즉 협공에 빠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요. 도대체 현대전이란 그런 빨찌산식 전술로는 수행해나갈수가 없는것이요. 엄격히 규정과 교범에 립각해야 하는것이요.》

종국이는 자기 말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약간 신경질적인 투와는 달리 상관으로서의 위신과 전술문제에 대한 충분한 자신심을 갖춘 위엄있는 목소리와 몸짓으로 끝맺았다.

그런 과장된 위엄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종국이의 말은 대우를 몹시 분개하게 만들었다. 이건 완전히 문제를 거꾸로 보고 뒤집어놓는것이 아닌가?

이때 련대장은 묵묵히 턱을 쓸고있을뿐이였고 참모장은 작전참모의 말에 동감이라는듯이 고개를 끄떡거리고있었다.

울컥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치밀었다. 대우는 앞뒤 돌볼새없이 다소 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작전참모동무는 처음부터 이상한 전제를 두고있는것 같습니다. 참모동무가 말하는 그 숱한 전제들을 나는 상상할수 없습니다. 만일 두무령이 돌파당한다면 하는 전제를 두는데 그때는 두무령의 모든 전사들이 목숨을 바쳤을 때일것입니다. 련대지휘부가 그것을 기다

리고 여기다 제2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고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런 〈만일〉은 절대로 없을것입니다.》
《동무 뭐요? 말이면 다 하는줄 아오?》
종국이가 날카롭게 오금을 박았다. 거기에 또 구본수가 점잖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중대장동무, 여기가 어딘줄 아오? 련대장동지앞에서 무슨 태도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한 공격계획은 물론 불충분하고 유치한것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의 함정에 빠지는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은 천편일률로 정면공격이나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이 과학이라면 그따위는 대담하게 무시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야 이 동무 봐라. 동무, 건방진 소리 작작하오. 동무는 규정과 교범을 무엇으로 알고있소? 도대체 한개 련대로 두개 련대의 방어종심에 기여든다는것이 그게 포위속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뭐란말이요!》
종국이가 다시 목덜미를 누르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이미 침착성을 회복한 대우는 조용히 그 말을 받았다.
《아무도 방어종심에 들어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놈들을 개활지대에 끌어내다가 치자고 했을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방법이야말로 비과학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작전참모동무 말대로 계산한다면 우리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을 어떻게 승리할수 있겠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단의 수자로써 미국을 포함한 열여섯개 나라의 무력침공자들을 타승할수 있단말입니까?》
《뭐요? 아니 이 동무가 정치상학을 하는거요, 뭐요?》
종국이가 어처구니없다는듯이 소리쳤다. 그는 숫제 상

대가 안된다는듯이 입가에 살웃음을 띠우고 대우를 훑어보았다.
(흥, 별 친구가 다 있군. 현실은 볼줄 모르고 공중뜬 웅변이란말이야. 요즘은 어디서나 저런 열병에 들뜬 사람들이 많아졌어. 하긴 전쟁의 무서운 파괴력이 사람의 중추라고 건드리지 않을리가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하자 종국이는 이때까지 자기가 다소 흥분한것이 부질없는것으로 생각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련대장을 돌아보며 속으로 (보시오, 당신이 불러온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 전술가요?)하고 묻는듯한 표정을 지어보이였다. …
구본수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대우와 마주섰다. 그는 송곳끝처럼 파고드는 그 황갈색의 날카로운 눈으로 대우를 찬찬히 바라보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중대장동무, 동무는 련대의 전투임무를 안다고 했지? 만일에 두무령을 돌파당하고 그뒤에 아무 방어력량도 없다면 사태는 어떻게 되겠소? 작전참모동무의 우려가 과연 쓸데없는 기우라고 말할수 있겠소? 적이 만일 현리계선으로 진출한다면 련합부대의 작전은 큰 위협을 받을것이요.》
구본수가 이런 말을 하는데는 리유가 없지 않았다. 그는 작전참모의 말이 부분적으로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되였다. 련대가 지고있는, 현리계선으로의 적의 진출을 불허할데 대한 임무를 자나깨나 잊을수 없었으며 그것때문에 머리가 셀지경인 그는 가능하다면 이 월하봉과 두무령에다 영구화점이라도 구축하고 사단에다 포련대나 하다못해 포대대라도 증강해줄것을 청하고싶었다.
돌파만 당하는 날이면… 그런데 사실은 돌파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 않는가!
이러한 심뇌가 사시로 그의 머리를 지배하였다. 그

령기때문에 방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대해서는 진정으로 화가 났다.
대우가 당돌한 의견을 내놓았을 때 본수의 머리속에는 그가 처음 부임하던 날 박대우중대에서 받은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인상과 함께 무엇때문인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중대장에게 조잡한 지휘관이라는 선입견이 들어가던 기억이 떠올랐다.
동시에 그전 부대에서 공작하던 경험도 피뜩 회상되였다. 그때 우수한 중대장이란 어떤 사람들이였던가? 그들은 한사람같이 용감하고 대담하였지만 동시에 대체로는 자기 중대를 끔찍이 아끼고 조금이라도 련대로부터 증강무력을 더 많이 떼내려고 애쓰던 《욕심꾸러기》들이 아니였던가? 그러한것이 자기 중대를 사랑하며 진정한 사업의욕과 전투의욕을 가진 참다운 지휘관의 태도이다.
그런데 이건 심중한 전술문제를 그저 마구다지로 술덤벙물덤벙해대니 이런 우둔한것이 어디 있단말인가?
본수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러면 그럴수록 겉으로는 더욱 침착하고 랭정해지는 그였다.
본수는 여전히 그 무표정한 얼굴로 대우를 바라보며 거듭 물었다.
《동무는 어째서 두무령의 힘겨운 방어에 대해서는 주목을 돌리지 않소? 누구보다도 힘에 겨워해야 할 동무가 말이요? 동무는 적의 포사격이 그처럼 가렬한데도 한마디도 대응사격을 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지 않소. 적의 집중적인 포사격이 계속되는데도 아군은 비정상적이리만큼 반포투쟁을 전개하지 않았소. 물론 포병들의 전투는 참모부가 조직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전혀 의견이 없을수 있겠소? 그것때문에 제일 애를 먹는 동무가말이요? 그런데 동무는 지금 방어의 종심을

헐어서 다른데로 돌리는것이 좋다고 하오. 나는 동무의 생각을 리해할수 없소. 동무는 자기 중대보다는 련대의 작전에 대해 훨씬 관심이 많단말이요.》

순간 대우는 번쩍 고개를 쳐들고 참모장의 랭철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흥분이 싸늘하게 식어들었다. 과연 참모장의 말이 옳지 않는가? 련대를 떠나보내고 중대를 어떻게 하자는건가?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진저리나게 선뜩하는 그 감각에 몸을 움츠리며 대우는 고개를 깊이 수그리고 생각하였다.

내가 너무 열에 들뜬것이다. 그놈들 잡을 궁리만 앞세우다나니 언젠가 금화부근에서처럼 그놈들을 얕잡아보며 덤벼치는것인지도 모른다. 응당 련대에다 화력과 전투원을 증강해달라고 요구해야 할것이며 가능하다면 배비변경을 요구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만일에 모든 지휘관이 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간고한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나갈것인가? 저마끔 자기앞에 더 많은 원쑤가 차례지기를, 자기가 더 힘든 모퉁이에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조국앞에 닥친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그것이 과연 자기 중대를 사랑하는것이겠는가?…

다시금 중대 전우들을 생각해보았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의식이는? 인철이는? 성호는? 봉선이는?… 아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겁많은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있는 곽홍규조차도 나의 태도를 오히려 반가와할것이며 중대가 되도록 힘에 겹고 중요한 과업을 맡아나서기를 바랄것이다. 그들자신은 나와 같은 립장에 서면 더 당돌하고 엄청난 자신심을 보였을것이다. 그들은 그런 전사들이다.…

《참모장동지, 용서하십시오. 제가 주제넘은소리 했습니다. 련대의 작전은 응당 련대참모부가 수립할것이며 저는 중대장으로서 명령을 충실히 집행할뿐입니다.

그러나 참모장동지, 만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 의견을 물어주신다면 저는 전전선적인 범위에서도 제 의견을 말할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조국방위에 나선 매개 전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의 말은 구본수에게 불쾌한 인상을 보태주었을뿐이였다.

《동무, 내가 묻는것은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요. 동무는 어째 두무령의 방어를 강화할 대책을 토의하자는 이 마당에 오히려 약화하자는 의견만 고집하는가말이요? 적들의 대대적인 총공격이 예견되는 이때에…》

대우는 말이 막히고말았다. 그는 구원이라도 청하듯이 련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것을 감촉하기라도 하듯 강표가 번쩍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노기가 확연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을 애써 감추려고 눈을 슴벅거리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소, 그만하기요. 중대장동무, 돌아가도 좋소. 가서 두무령의 방어를 강화하시오. 참호와 교통호를 더 깊이 파고 어제 날라간 나무로 엄폐호와 화점들을 더 튼튼하게 꾸리시오. 매복을 강화하고 항공에 조심하오.》

씩씩— 숨을 몰아쉬며 엄폐호밖에 나왔을 때 대우는 아래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꿈에 가위눌린것처럼 안타깝고 답답하다 못해 울분으로 하여 가슴은 금시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참모장과의 담화는 확실히 불쾌하였다. 그 무표정하고 싸늘한 얼굴이 어쩐 회의적인것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의 말 그대로 그는 전사들의 심정을 리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였다.

이때 우연히도 언젠가 참모장이 적기들에 대해 사격을 금지했다고 하던 고사기관총소대 하사관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고보면 그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인지도 모

른다.
흥분과 알수 없는 분노로 해서 몸이 화끈 달아오른 대우는 적의 포사격이 시작되였다는것도 꿈속에서처럼 어렴풋이 느끼며 월하봉을 넘어갔다.
앞뒤에서 련이어 포탄이 터졌으나 포격소리에 습관이 돼버린 그는 류다른것을 느끼지 못했고 흙기둥이 여기저기서 솟아올랐으나 그 역시 일상적인 일이라 그를 놀래우지 못하였다.
아직도 불완전한 교통호에 무의식중에 들어서기는 했으나 허리는 뻣뻣이 편채로 걸었다.
번쩍 눈앞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순간 그의 몸은 허양 두어메터나 앞으로 나가떨어졌다. 그제야 자기가 쏘구역을 지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젠장, 교통호가 또 마사졌군.》
혼자 두덜거리고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적의 포사격은 맹렬하였다. 어찌나 극성스러운지 정신을 차리고보니 도저히 더 전진할수 없다는것이 알려졌다.
그때 10메터쯤 앞에 있는 포탄구뎅이에 웬 군관복이 얼씬거렸다. 대우는 그리로 달려갔다. 사람이 달려오는것을 알자 포탄구뎅이에 엎드린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다. 혜경이였다.
대우는 흠칠하였으나 사방에서 포탄이 요란히 터졌으므로 더 생각할 겨를없이 그 구뎅이속으로 뛰여들었다.
혜경은 처음에 몹시 놀란 표정이더니 잠시후에는 수집게 웃고는 자기옆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들은 비좁은 포탄구뎅이에 나란히 엎드렸다.
혜경이를 보자 대우는 처음에는 얼결에 반가운 생각이 나더니 잠시후에는 웬일인지 불쾌해졌다.
《동무는 어딜 가는 길이요?》
대우는 불손하게 물었다. 혜경은 놀라서 대우의 마

뜩지않게 찌프려진 얼굴을 한참이나 돌아보았다. 군의소에서 나간후 처음 만나는것이였다. 그런데 말투가 그렇게 곱지 않는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정말 군의소에서 노하여 나간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퇴원직전에 그들의 관계는 상당히 호전되였었다. 그것은 대우가 여느 부상병보다 트집을 자주 잡았고 또 혜경이가 누구에게보다 잔소리를 심하게 하다나니 절로 말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런 가운데 정말 부상병들의 실없는 화제거리로 된 그런 미묘한 관계가 싹트기도 한것이였다.
대우의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그는 혜경이가 마음에 들었다. 자꾸 다투게 되면서도 그와 자주 만나서 말하는것이 즐거웠고 때로 그의 아름다움에 황홀해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못난이같이！》하고 자신을 비웃기도 하였다. 그런 때면 혜경이도 눈치빠르게 그것을 알아채고 열렬하게 지켜보고있던 그 지꿎고 사랑스러운 부상병으로부터 허둥지둥 눈길을 떨구는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오래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한 침묵은 좋았다. 그런 침묵은 한평생 가더라도 싫지 않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런데 오늘 대우는 뜻밖에도 혜경이가 참모장 구본수의 누이동생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그는 무슨 결함이라도 찾아내려는듯이 못미더워하는 시선으로 혜경이를 훑어보았다.
혜경이는 대우의 시선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한참이나 있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동무네 중대로 가요.》
《우리 중대에 동무가 무슨 볼 일이 있소？》
대우의 말투는 여전히 불손하고 지어 모멸적이였다.
혜경은 대우의 태도가 같은 불손한것이면서도 그전의 그의 태도와는 확실히 구별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지

금 대우의 눈길속에서는 정말 모멸적인것이 느껴졌다. 그런 불손하고 모욕적인것을 그냥 참고 듣는다는것은 우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볼일이 있어요. 전선에 재귀열이 돌고있어요. 간호병들이 벌써 갔어요.》
《재귀열? 예방주사 놓으러 가오? 흥, 우리 중대에는 재귀열따위에 걸릴 사람은 없소. 참모장동무한테나 놔주시오.》
혜경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미 그는 대우에게 모욕을 가할수 없을만큼 대우에게 끌려들고있었던것이다. 그의 두눈에는 분한나머지 핑 하고 눈물이 돌았다.
《오빠는 왜 건드리세요?》
혜경은 입술을 떨며 낮게 말하였다.
《흥, 오빠라고 마음 상할 필요는 없소. 본래 의심많고 겁많은 사람은 병에 잘 걸린다오.》
순간 혜경은 대우가 그처럼 자기에게 아프게 대하는 리유를 깨달았다. 련대지휘부에서 오는 모양인데 그러고보면 오빠와 다투었거나 욕을 먹고 그 밸풀이를 하는것이라고 짐작되였다. 그것을 안 이상 가만있을수 없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혜경은 잔뜩 입귀를 찡그리고있는 대우를 주의깊이 살폈다. 기분이 보통으로 상하지 않았다는것을 넉넉히 짐작할수 있었다.
《말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은 무슨 일. 그인 참모장이고 나의 상관이 아니요. 일이 무슨 일이 있단말이요.》
대우의 볼은 씰룩거렸으며 말속에는 력력히 심술이 풍겼다.
혜경은 참을수 없는 모욕을 느끼며 실눈을 짓고 미간

을 조프렸다. 그는 분하였다. 오빠에 대한 모욕은 자신에 대한 모욕보다도 더 아팠다. 그것은 혜경이가 자기보다도 오빠를 더 귀중히 생각하고 존경하기때문이였다. 어릴 때는 집에 있지 않아서 몰랐지만 두 부모가 돌아가신후의 오빠는 그에게 있어 오빠인 동시에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다. 사실 본수는 자신의 온갖 불편함도 돌보지 않고 모든것을 혜경이가 좋을대로 해주었다.

혜경은 오빠에게서 처음으로 조국을 사랑해야 되며 로동을 사랑해야 된다는것을 배웠고 혁명과 공산주의를 알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헌신성의 모범을 받았다. 혜경이에게 있어 오빠는 흠잡을데 없이 훌륭한 당원이고 공민이고 지휘관이였다. …

대우와 혜경은 로골적인 적의를 품고 그렇게 한동안 엎드려있다가 포사격이 좀 뜸해졌을 때 일어났다. 그들이 구뎅이를 막 빠져나오려고 할 때 불시에 바로 눈앞에 포탄이 터졌다. 두사람은 한꺼번에 흙벼락을 맞고 쓰러졌다.

잠시후 흙무지속에서 일어난 그들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불의의 포사격에 두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이 서로 그러안고 흙구뎅이에 묻혔던것이다.

2

대우가 돌아가고 련대장마저 대대들을 돌아보겠다고 엄페호를 나가버린 다음에도 구본수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이 준엄한 싸움에 자신이나 남이나간에 모든 사람이 온갖 정신적 육체적 력량을 투입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행동할것을 바랐다. 사실 이 싸움이 어

떤 싸움인가?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직접 맞서있지 않는가? 사소한 잘못이나 어떠한 경거망동도 용서할수 없는 죄악이며 어떤 사소한것도 결국은 조국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확신하였다. 성심성의 전술을 연구하고 구분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하며 모든 군무생활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어떤 개인영웅주의도 모험도 우선 도덕적으로 용서될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구본수는 련대장의 처사에 대해 여러가지로 의문을 느껴오는터이였다. 그처럼 오랜 전투에서 세련된 지휘관이 어째서 겉보기에 철없을 정도로 문제를 랑만적으로만 보려고 하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모든것이 엄격할것을 요구하는 이 전쟁환경에 전호굴설과 같은 화급한 일은 뒤로 젖혀놓고 끄아리를 옮겨심는따위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지지해나서는가 하면 조잡하고 무모한 중대장을 극구 찬양하고 그로 하여금 더욱 분별없이 날뛰게 부추기지 않는가? 리해할수 없는것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며칠전에는 적기의 맹폭에 희생을 덜 내기 위하여 공고한 방어시설이 되기전까지 일체 대공화력의 사격을 금지시킨 자기 조치를 취소시키고 더욱 적극적인 반항공화력전투를 전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런 련대장이 적들의 그처럼 맹렬한 포사격을 들쓰고도 포들을 은밀히 감추어두고 일체 반포투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좋을지 알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 본수에게는 련대장의 생각이 마치 미궁속을 헤매는것과도 같아서 도저히 갈피를 잡을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작 괘씸한것은 역시 박대우였다. 자신이 책임질만큼 상관앞에 허심히 자기 속을 털어놓고 자기가 말한것은 대가리가 열두쪼박이 나더라도 관철하고야마는 그런 솔직성과 견결성이 요구되는것이지 상부앞이라 해서 무턱대고 꽝포를 놓는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성실한 태도다. 어떻게 한개 중대가 두개 련대의 공격

을 막아낼수 있으며, 련대가 수량상으로 우세한 적의 요새화되다싶이한 고지를 공격할수 있단말인가?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단순한 상식으로써도 황당하다는것이 뻔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16개국의 무력침공자들과 싸운다고 하여 중대가 적의 련대와 대적해야 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는가? 혹 그러한 문제가 실제적으로 제기된다 해도 그것은 련대장이나 련대참모장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중대장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전선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라의 전반적인 전략을 장악하고있는 최고사령부가 있고 당중앙이 있지 않는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물어주신다면 전전선에 걸친 작전에서도 자기 의견을 말하겠다고?… 주제넘다구야… 도대체 사람이 성실하지 못해…)

구본수는 이러한 생각에 잠겨있다가 문득 종국이를 돌아보았다. 종국이는 사단에 보고할 문건을 작성하고있었다.

《현동무는 그 중대장을 그전부터 잘 아오?》

색연필로 여러가지 표식을 문건우에 기입해넣고있던 종국이는 벌떡 고개를 쳐들더니 빙그레 웃기부터 하였다.

《적후활동시기부터 알지요.》

《어떻소? 동무 보기에…》

본수는 종국이가 웃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내친김에 이렇게 물었다.

《글쎄요, 좀 건방지지요. 그리고 제 보기에는 전술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것 같아요. 턱없는 소리만 주어치니까요.》

《그렇소?…》

본수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종국이는 왜 참모장이 갑자기 박대우문제를 끄집어내는가 하는것을 인차 짐작할수 있었다.

종국이로 말하면 얼마전에 있었던 론쟁은 벌써 기억에서 희미해지려 하고있었다. 그는 본시가 그런 사람이였다. 처음에는 발끈해지기가 일쑤지만 얼마 안지나서 곧 잊어버렸고 아무 일에나 집착해서 마음속에 오래오래 품어두는 법이라고 없었다.

종국이 립장에서 볼 때 박대우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관심을 끌 존재로는 될수 없었다. 그런데 적후활동의 마지막무렵부터 박대우중대가 전투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자 일종의 경쟁심같은것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동료들이 박대우중대의 대담하고 용감한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면 자기 수완에 자신이 만만한 그는 곧잘 그 전투에서 잘된 점보다 잘 안된점을 찾아보려 하였고 자기같으면 더 좀 멋이 있게 했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심하군하였다. 물론 종국이자신은 그것을 어떤 나쁜 동기에서 그렇게 생각한것은 아니고 다만 지나치게 강한 자존심때문이였으며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뿐이지 자기 생각을 남에게 토설해본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거듭 쌓이게 되자 하나의 뚜렷한 인상이 형성되였는데 그것은 이렇다할 근거는 없으면서도 어쨌든 사람이 건방지고 대단치 않은 군공을 코에 걸고다니는치라는것이였다. 이런 생각은 최근 군의소에서 혜경이와 자주 한자리에 있군하는 대우를 보는데서 더욱 뚜렷이 박혀들었다. 그는 웬일인지 초조해졌으며 대우를 아니꼽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무엇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한사람의 별치않은 중대장에 대해 이처럼 관심이 많은가고 속편안찮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오늘 론쟁을 두고 말한다면 종국이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것은 대우의 의견이 의견이랄것도 없을 정도로 황당한것이며 리론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론증되였다고 확신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대우의 보잘것없는

군사지식의 바닥이 드러났다는것으로 하여 지어 통쾌하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그 통쾌감속에는 억지가 섞여있다는것을 스스로도 느끼지 않을수 없었고 론쟁과정에 자기가 어떤 모욕을 당한것만 같은 인상이 께름직하게 남아있었다. 그때문엔지 지금 참모장의 질문을 받고나자 다시 아니꼬운 생각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태연하고 대범한체해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확실히 성실성이 좀 부족한것 같아…》

구본수는 한참이나 침묵이 흐른뒤에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벌떡 일어났다. 대우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자 화선이 걱정스러웠고 어느 구석에선가 무엇이 잘못될것만 같은 불안이 그를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게 하였다.

《나 두무령에 나가보겠소. 련대장동무가 찾으면 그리로 갔다구 말해주오.》

본수는 총총히 엄페호를 빠져나갔다.

3

혜경이가 3대대에서 돌아와 막 병실 순회를 끝마쳤을 때 종국이가 나타났다.

종국이는 언제 보나 다름없이 단정하고 깨끗하였으며 일거일동이 정이 넘치게 은근하였다.

오늘 혜경은 극도로 지쳤었다. 쌍꺼풀진 눈은 한결 커보였고 입술에는 보풀이 일었다. 적탄이 비발치듯 날아오는 최전방의 참호와 참호사이를 돌아가는데도 힘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정신적고통이 더 심하였다. 대우와의 불쾌한 말다툼이 있은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혜경은 또다시 괴로운 장면에 부닥치게 되였다. 그것은 두무령정점에서였다. 혜경은 거기서 꼬아리에 물을 주고있는 전사들을 만났다. 적의 포사격과 폭격으로 높이가 낮아졌다는 고지정점에 기적처럼 뿌리박은 꼬아리도 감동적이였지만 그속에 깃들인 전사들의 사연이 더욱 가슴을 흔들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혜경은 무쇠도 휘여내는 오직 억세게만 보이는 전사들의 가슴에 그렇듯 아름답고 눈물겨운 인정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발견하고 눈물이 날만큼 기쁘고 반가왔었다.

그런데 번갈아 이야기를 하던 한 전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동무들, 내려갑세. 저기 참모장동무 오시네.》하고 속삭이며 황급히 진지로 내려갔다. 다른 전사가 야전밥통을 집어들며 친절하게 리유를 설명해주었다.

《참모장동무는 이런데 질색이랍니다. 전번에 옮겨심을 때도 여간 야단치지 않았대요.》

전사들은 뒤를 슬금슬금 돌아보며 고지를 내려갔다.

혜경이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누구에게 구원을 청하고싶도록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오빠가 그런 사람이였던가?)

그는 절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았다. 그처럼 그는 전사들과 먼거리에 있고 그처럼 그는 싸늘하고 랭담한 사람이였단말인가?

혜경은 오빠를 만난다는것이 갑자기 거북하게 생각되였다. 그래서 그자리를 피하고말았다.

군의소에 돌아오니 몸도 마음도 걷잡을수없이 노그라졌다. 오늘 하루가 더없이 지루하고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종국이의 방문이 시들하였으나 그의 재치있는 말에 어느덧 끌려들어 저도 모르게 웃음을 띄우게 되였다.

《나는 본래 녀성동무들이 전선에 나오는걸 반대했

습니다. 뭐 후방이라구 할 일이 없겠소. 그런데 전쟁 1년간에 나의 견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경은 미소를 띠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이야기란 뻔한것이기때문이였다. 그 뻔한것을 그렇게 요란스레 허두를 떼는데도 불쾌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이상스러웠다.

종국이는 한참이나 흰 위생모밑으로 들여다보이는 반듯한 혜경이의 가리마를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 녀성들에게 맡기지 못할 일이 없지요. 례를 들면 참모부사업부터도 얼마든지 맡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전만 해도 그렇고 정찰이나 통신도 다 그렇지요. 오히려 녀성들은 그 치밀한 사고와 섬세한 감각 그리고 남성들 즉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로 해서 더 훌륭하게 일할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혜경은 그만 소리내여 웃었다. 입에 발린 소리를 어쩌면 그렇게도 진지한 표정을 짓고 능청스럽게 해내는지 알수가 없었다.

《녀성 작전참모— 참, 아주 그럴듯하겠는데요. 호호호, 그렇지만 참모동무 말에는 모순이 많아요. 치밀성이나 섬세성이 어디 녀성들에게만 있는가요?》

혜경은 웬일인지 종국이와 만나면 어리석으리만큼 경박한 이런 이야기에 자기도 몰래 끌려들어서는 후에 스스로 자기의 어리석음에 놀라군하였다.

《녀성들에게 특히 많지요. 나는 그것만은 장담할수 있습니다. 대체로 남자들은 그런것을 그리 큰 우점으로 생각지 않거든요. 례를 들면 섬세한것보다는 오히려 좀 거칠거칠한게 남성적인 미라고 생각하는게 보통이지요. 그러나 참모부사업이야말로 섬세한것을 요구하거든요.》

《그거야 군인에게는 용감한것이 제일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참모부에도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겁쟁이가 아

무리 치밀하면 뭘해요.》

《용감성이란 모든 군인들에게 필요불가결한것이지요. 그러나 용감성만으로는 싸움을 할수 없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치밀한 과학적타산이 무엇보다도 필요한것입니다. 그것을 아예 부인할 생각을 마십시오. 우리 련대 형편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사한 사람을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안됐지만 그전 참모장동무는 너무 거칠었습니다. 그 사람은 확하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거든요. 이번 〈참모장고지〉전투때만 해도 참모장자신이 직접 대대를 끌고 돌격에 나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범은 그런걸 금지하고있습니다.》

《그 의견은 난 찬성할수 없어요. 그분은 훌륭한 지휘관이였어요. 참모장동지가 손수 돌격선에 나선것을 군사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인간으로서 존경해요.》

혜경이의 소박한 견해를 종국이는 너그러운 미소를 띄우고 들었다. 그러다가 부드럽고 은근한 목소리로 타이르듯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부대를 움직일수 없습니다. 참모일군은 오직 과학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휘관이 옳은 명령을 내리도록 방조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모들의 전투입니다. 참모부사업이란 보다 연구적이고 보다 리지적인 사업이지요.》

《난 알수 없군요. 참모부야말로 끓는 도가니속같아야 할줄 알았는데요… 생사의 판가리를 결정하는 싸움이 우선 참모부에서,지도우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

《옳습니다. 그러나 참모부란 그렇게 끓어서야 안되지요. 이것은 이제 리해하게 될것입니다. 례를 들면 지금 우리 련대 참모부는 참다운 참모장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벌써 첫날 사업에서 그분이 비범한 참모일군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모장동지는 오자마자 두무령

의 방어체계를 하나하나 캐며 따지는데 나도 땀을 뺐다니까요.》

혜경은 불시에 긴장되였다. 일반적으로 좀 거치른 전선의 말투와는 달리 종국이의 상냥하고 은근한 말투는 그 내용의 공허함을 가려내지 못하리만큼 혜경이를 솔깃하게 만들군하였으나 이제 오빠 구본수의 이야기가 나오고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혜경은 입을 뗄가말가 몇번이고 망설여졌으나 가슴속이 갑갑하도록 들어차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여 종내 입을 열었다.

《저, 참모동무, 오늘 참모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우리 오빠가 속상한 일이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종국이는 뜻밖이라는듯이 멍청해진 얼굴로 혜경이를 들여다보았다.

혜경은 낮에 대우와의 말다툼에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던것을 확인해보고싶었으나 어쩐지 그 이야기를 제입으로 꺼내놓기는 거북하였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다시 망설이는데 종국이가 입을 열었다.

《왜 그러십니까? 무엇이 느껴지는게 있습니까?》

종국이는 되도록이면 혜경이에게 무엇인가 생색을 내고싶었다. 혜경이가 가만있다 해도 제쪽에서 먼저 이러저러한 새소식을 전해주고싶은 생각이 간절하던 차인데 혜경이가 참모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묻는 지금 도저히 무관심해있을수가 없었다. 혜경이는 종국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바람에 괜한것을 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주춤해지는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무슨 언짢은 일이 있지나 않았나 해서 그래요. 그저 내 생각이지요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아 참, 오늘 그 박대우동무때문에 화를 좀 냈지, 그것때문인가?…》

혜경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아니, 박대우동무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이랄게야 뭐 있나요. 그 친구 못난소리 하다가 욕을 좀 얻어먹었지요.》
혜경은 이제는 어떻게나 그 내막을 알아내지 않고는 못배길 심정이였다. 단순히 알아보고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있는 그들 두 사람이 무엇때문에 어떻게 다투었는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 똑똑한 자기 견해를 가지지 않고는 안될것만 같았다. 만일 똑똑한 판단을 못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마음속으로 지지하지 못하게 될 때 자기는 천상 뭍에서도 살지 못하고 물에서도 살지 못할 외로운 남생이와 같이 되고말것 같았다.
혜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 그 이야기를 해줄수 없어요?》
《허 참, 별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그저 그 친구가 허튼 소릴 했지요. 두무령을 자기 중대만으로 넉넉히 방어할수 있다는겁니다. 그러니 련대 주력은 적을 공격하라구요. 허허허, 어처구니없는 소리지요.》
종국이는 아예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웃어넘기고말았다.
혜경은 이야기의 내용이 군사비밀과 관련되여있다는 것을 깨닫자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종국이가 한 그 한마디 말속에서 수많은 암시를 받은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이슥하도록 생각에 잠겨있던 혜경은 불시에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오빠가 일하시는게 마음에 들어요?》
혜경의 말속에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그 어떤 간절한 기대가 깃들어있기도 하였다. 그는 숨소리를 죽이고 무슨 선고라도 기다리듯이 종국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이는

아는게 많아요. 게다가 침착하고 빈틈이 없이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분이 하는 일에는 추호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여간 마음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빠는 창발성이 부족하지요? 모든것을 소극적으로, 교조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사물을 과학적으로 보는것과 교조적으로 보는것과는 다르지요.》

《아니예요. 그건 때때로 비슷해요. 흔히 교조주의자들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잘 쓸 따름이예요. 오빠는 새로운 현실을 보지 못하는것 같아요.》

《혜경동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어떻게 오빠를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까?》

혜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낮에 포탄구뎅이에서 대우와 다투던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언젠가 고사기관총 좌지에서 하던 대우의 말이 떠올랐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무슨 눈치놀음을 하자는겐가…》

그러고 보면 대우가 하고싶어하는 말을 자기 입으로 옮기고있는셈이였다. 그것을 깨달은 혜경은 주춤해서 입을 다물었다.

종국이가 돌아간후에도 혜경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는 소녀시절부터 오빠인 본수를 잘 알고있었다. 종국이가 말한대로 그는 박식하고 침착하였으며 빈틈이 없는 사람이였다.

그러면서도 혜경은 꿈많던 그 시절부터 오빠에 대해 딱히 짚어 말할수 없는 불만을 품어왔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그가 의대에 갈것을 희망했을 때 본수는 인차 찬성하였다. 그러나 그가 찬성한것은 혜경이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했기때문은 아니였다. 혜경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온갖것을 바치고싶었다. 그

래서 의학을 택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사업을 더없이 고귀한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때문에 자기의 결심에 스스로 대견하고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본수는 그러한 혜경의 심정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웃기까지 하였다. 그는 단지 의사가 보다 녀성적인 직업이고 흔히 처녀애들이 의대로 많이 간다는 범속한 타산으로써 혜경의 제기에 찬성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일은 생각해보면 그후에도 자주 있었다. 그때마다 혜경은 몹시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으나 인차 잊어버리군하였다. 그것은 그러한 생각자체가 전혀 심각한것이 못되는데다가 언제나 의견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오늘에 와서 대우의 그 모욕적이고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듣고보면 분하면서도 자기자신 오빠에 대해 은연중 그러한 불만을 품고있었다는것을 속일수가 없었다.

확실히 오빠는 사물을 랭담하게 대한다. 그때문에 그의 사고는 항상 따분하고 실무적이며 바로 그때문에 보다 중요한 내용의 본질적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젊고 소박한 전사들의 나래치는 생각을 리해하지 못하며 항상 달팽이처럼 자기의 보수적인 좁은 울타리속에서 스스로 엄격해지고 괴로와한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여직껏 그것을 몰랐을가? 그리고 그 동무는 어떻게 단번에 그의 마음속을 그렇게도 예리하게 찌를수 있었을가?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풀리지 않았다.

혹 그 동무자신이 모욕을 당했기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험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났으나 그 생각은 인차 지워버렸다. 비록 좀 과장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결코 자신의 문제때문에 남을 욕할 사람

은 아니라고 굳게 믿고싶었다. 고사기관총의 사격을 금지시킨것이 그 사람개인과 무슨 관련이 있단말인가? 아니다. 그는 걸치레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생각하는대로 지나치게 솔직히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때문에 때로 거칠고 모나게 보인다 해도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원쑤와의 싸움에서는 용감한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오빠의 결함을 인차 알아내지 못하고 제때에 도와드리지 못했을가?

혜경은 자신이 늘 그와 같이 생활했기때문에 어느새 습관이 되고 타성이 생긴것이라고 스스로 변명하려 하였다. 그런데 문득 종국이 생각이 떠올랐다. 종국이가 자기 참모장을 평가하는것은 얼마나 대우와 잘 대조되는가?

혜경은 무의식중에 오빠와 종국이를 한자리에 놓고 생각해보았다. 전혀 다른 측면이 있으면서도 또 얼마나 비슷한가?

종국이 대신 대우와 나란히 놓아보았다. 그러자 혜경은 소리칠번하도록 놀랐다.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서로 다른가?— 그것은 마치 물과 불 같았다. 두 사람은 한자리에 같이 있지 못할만큼 그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였다.

야릇한 흥미에 이끌린 혜경은 이번에는 종국이와 대우를 나란히 놓아보았다. 이 두사람은 비슷한데가 적었다.

혜경은 그들 세사람이 무엇으로 서로 비슷하고 서로 구별되는지 알수가 없었다. 인상적으로 되는 그러한 비교가 어처구니없는 노릇이긴 했지만 웬일인지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서로 구별되고 공통되는 점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 특징은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는 그런 특징들로써 서로 구별되고 공통되

는것이기때문에 이렇게나저렇게나 친근한 사람들인 그들에게서 애국심이며 성실성이며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특징들을 밝혀낸다는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모진것만 같았고 지어 무섭기까지 하였다. …

식당에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혜경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였다.

오빠를 만나자. 어찌하여 오빠에 대해서 이처럼 리해할수 없는 점이 많아졌는지 그것이 안타까왔다. 전쟁은 자기도 오빠도 변하게 하였다. 아니 혹시 변한것은 자기뿐이고 오빠는 그자리에 그대로 변하지 않고있는지 몰랐다. 그것이 자기들 오누이사이에 어떤 간격을 만들어놓은것이 아닌가? 하여튼 오빠와 만나 이야기해보자.

혜경은 이러한 생각에 잠겨 참모부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본수도 막 식사에서 돌아와 참모부옆에 쳐놓은 행군용 천막속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맨 흙바닥에 해진 노전을 갖다펴고 거기서 참모부 군관들이 류숙하고있었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탄피등잔이 가물거리고있었으나 공기창으로 새여드는 휘영청한 달빛때문에 있으나마나였다.

본수는 누이동생을 미소를 띄우고 반갑게 맞이하였다. 비록 같은 련대지휘부 언저리에서 사업하지만 서로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군모를 벗은 본수의 뒤머리에는 흰것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오빠, 늙으셨군요.》

창가에 붙어선 혜경은 어쩐지 측은한 생각이 들어 한숨섞인 소리로 속삭였다.

《응? 허허허, 흰것이 많아졌지? 이젠 늙는가보다.》

본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혜경은 울고싶도록 본수가 불쌍하게 생각되였다.
《오빠, 빨리 새 언니를 얻어야겠어요.》
《새 언니? 계집애가 못하는 소리 없구만.》
《롱담이 아니예요. 언니가 불쌍하긴 해도 이젠 벌써 이태가 넘지 않았어요?》
오빠를 동정하던 나머지 무심히 꺼낸 말이였는데 해놓고보니 왜 그런지 오빠의 재취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여서 이런 말까지 하였다.
본수의 얼굴은 흐려지고 등잔불 그늘에 더욱 침울하게 보였다. 그는 웅글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듣기 싫다. 내가 죽은 사람때문에 장가들지 않는줄 아니? 다 그만둬라. 지금은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렇긴 해요. 그래도…》
혜경은 말끝을 흐리여버렸다. 오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였다.
본수는 뻑뻑 담배를 빨았다.
한참이나 침묵이 흐른후에야 혜경은 겨우 새로운 이야기의 실머리를 풀었다.
《오빠, 저 3대대 1중대장동무 아세요?》
《응?》
침울한 생각에 잠겨있던 본수는 멀거니 혜경이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아무런 특별한 눈치도 엿보이지 않았으나 혜경은 웬일인지 당황해지는 자기를 억지로 누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저 박대우라는…》
《응, 그 사람? 알지…》
《그 동무 어떤 동무예요?》
그러자 본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건 왜 물어?》
《그저요. …》

《그저라니？》
본수는 날카롭게 다우쳐물었다. 누이동생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는 사랑하는 그만큼 엄격하기도 하였다.
《그 동무 우리 군의소에 입원해있지 않았어요？》
본수의 엄한 눈매를 느낀 혜경은 더욱 당황해서 고개를 떨구었다. 괜히 이야기를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본수는 붉게 물들여지는 혜경의 얼굴을 이윽히 살피다가 다시 권연을 붙여물고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군대에서는 특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
《아니예요. 그런게 아니예요. 내가 묻는것은…》
자기 말을 오빠가 오해했다는것을 깨달은 혜경은 더욱 얼굴이 새빨개져서 황망히 변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영 말에 씨가 먹지를 않았다. 본수는 당황해하는 혜경을 못미더운 눈매로 바라보다가 짐짓 엄격한 목소리로 타이르는것이였다.
《경망하게 굴지 말아라. 녀자란 어디서나 그렇지만 전선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 너는 전쟁이 끝나면 대학으로 돌아가야지？ 그 문제가 급하지는 않다.》
《아이 오빠, 아니래두 그래요.》
구본수는 다시금 누이동생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혜경은 안타깝게 발을 구르다가 본수와 마주앉아 열기띤 목소리로 말하였다.
《오빠, 내 말을 오해하시지 말고 또 성도 내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네？》
《…》
《저… 오늘 그 동무하구 다투었어요？》
《뭐야？》
갑자기 본수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혜경은 그만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는 얼굴이 해쓱해서 겁에 질

린 눈으로 본수의 준엄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이렇게 불호령이 떨어질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너 다투었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니?》
《아이 오빠,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듣긴 어디서 들어요? 정말 오빠는 왜 그래요? 내 짐작이 그래서 묻는건데… 오빠, 난 이때까지 오빠의 말이라면 다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 말도 한번 들어주세요. 성내지 말고. 네?》
《음— 그건 군사비밀이다. 말할수 없다.》
본수는 신음 비슷한 소리로 이렇게 잘라 말하고는 담배가 타들어가는것도 모르고 생각에 잠겼다.
(참모부에서 토의된 전술문제를 계집애에게 루설하다니… 내 그럴줄 알았지. 역시 성실하지 못하고 껄렁해. …)
본수의 심중을 헤아릴수 없는 혜경은 절절한 목소리로 호소하듯 말하였다.
《오빠, 나는 이때까지 오빠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존경해요. 그렇지만 난 마음에 안드는게 있어요.》
《어떻게 세상사람이 모두 네 마음에 들겠니?》
본수는 혜경의 말을 듣는둥마는둥 속빈 대꾸를 하였다.
《그야 다른 사람이라면 내 속이 이렇게 타겠어요? 그렇지만 오빤 나에게 한분밖에 없는 오빠가 아니예요? 그러니 난 괴로와요.》
《뭐냐, 네가 하고싶은 말이?》
본수는 힐끗 누이동생을 한번 돌아보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혜경의 눈에는 무뚝뚝한 본수의 성난 기색이 벌써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오빠가 있을뿐이였다.
《오빠, 오빠는 너무 싸늘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리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것도…》

혜경은 눈에 눈물이 글썽해서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진정한 사랑과 열정을 담은 절절한 목소리로 열렬하게 살고 열렬하게 사랑해야 하며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리해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였다.

어느덧 혜경의 뺨으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는 심장이 식었나봐요. 그러기에 젊은 전사들의 심정을 리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을 믿지 못하시는거예요. 그들의 뜨거운 심장이 가지는 힘은 수학적 방법으로는 계산하지 못해요. 오빠, 전사들은 심장으로 싸우는데 싸늘한 실무적인 머리로 그들을 대한다는것은 죄악이예요. 오빠, 만일 그런것이 있다면 고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사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돼요. …》

본수는 담배를 빽빽 빨며 말없이 누이동생의 말을 듣고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때문에 혜경은 자기의 절절하고 어떤 점에서는 좀 지나치리만큼 날카로운 그 말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것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였다. 그의 말로 해서 본수의 머리속에는 대우에 대한 또 한가지 나쁜 인상이 형성된것이였다. …

오누이가 그렇게 앉아있을 때 천막밖에서 련대장의 웃음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모장동무 있소?》

《네 — 여기 있습니다.》

본수는 서둘러 군모를 썼다.

《아, 이거 가정적분위기가 조성됐군요. 방해가 되겠는걸… 난 돌아가겠습니다.》

《별말씀을…》

본수는 급히 일어섰다.

《아니 그럴 필요없습니다. 무슨 긴한 일도 아닌데…

차라리 나도 한몫 이 판에 끼워주시지요. 어떻소? 혜경동무, 반대 없소?》
혜경은 눈물을 훔치노라, 군복매무시를 바로잡노라 두루 당황해있었으나 련대장의 언제 보나 다름없는 그 서글서글한 거동에 기분이 절로 가벼워져서 웃고말았다.
《아이, 련대장동무야 련대의 주인인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 이런, 이거야 련대가 아니지, 이거야 가정이지. 오빠가 있고 누이동생이 있고 그러니 가정이 아니요? 나야 기껏해서 손님격이지. 허허허, 이런 최전선에 가정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의의있고 훌륭한 일이요? 말하자면 온가정이 떨쳐나섰다는게 아니겠소.》
강표는 무엇인가 즐거운 생각을 더듬는지 혼자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활기를 띠며 말을 이었다.
《그래 불청객이 이렇게 왔는데 랭수나 한그릇 주겠소? 가정에서처럼말이요.》
《네.》
혜경은 급히 야전밥통을 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련대장의 너무나 대범하고 친근한 태도로 해서 혜경은 다시한번, 련대장이 몹시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러 왔다는것을 눈치도 채지 못하였다.
사실 강표는 이번 전투와 관련된 최종적인 토의를 하려고 참모장을 찾아온것이였는데 잠시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것은 이런 스산한 싸움판에 오누이가 모여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것과 같은 그런 즐거운 시간을 그들에게서 빼앗고싶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련대장은 밤 12시경에 자기에게로 와달라는 말을 본수에게만 귀띔하고 잠시 앉았다가 총총히 돌아갔다. 두 사람이 될수록 오래 앉아서 이야기하라는 부탁을 거듭거듭 되풀이하면서…

4

이튿날저녁—

9시가 가까와오자 련대장지휘감시소에는 벌써 빼곡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련대장들과 참모들, 대대장들과 포중대장들, 그밖에 련대직속 구분대장들 전원이 모였다.

여기저기서 날라온 쪽걸상들과 포탄상자들우에 더러는 앉고 더러는 서서 이야기들을 나누고있었다. 담배를 피우며 몇사람씩 모여서 모두 오늘회의에서 무슨 뜻밖의 문제가 제기될것인가에 대해 답답한 추측들을 하노라고 쑥덕거렸다.

현종국이가 벽에다 큼직한 작전지도를 붙이고있었다.

중대장으로는 박대우 한사람만이 불려왔다. 그는 무료하게 한쪽구석에 앉아 지도를 압정으로 찌르고있는 종국이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련대장과 참모장은 옆간에서 사단장의 전화를 받고있었다. 가끔 적정을 알리는 련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령이 떨어질모양이군. …》

키가 앙바틈한 3대대장이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무슨 명령말인가? 명령이야 이미 받고있지 않나?》

45미리포중대장이 더 좀 따끔한 이야기가 듣고싶어서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무슨 명령이겠나. 공격명령이지. 자네들 낮잠자는 꼴이 아니꼬와서 어디로 끌고가겠답네.》

《흥, 우린 낮잠은 고사하고 포신 닦고 진지 굴설할래기 신물이 날 지경이라네. 낮잠이야 아마 자네들이 더

잤을걸.》
《그럼,보병들이야 걷지 않으면 낮잠이나 잤지 뭘 하겠나? 자네들처럼 실속 없는 치장은 할줄 모른다네.》
《흥,이제 두고보게. 자네 내앞에 전화를 들고 제발 한번만 더 갈겨줍시오 하고 애걸복걸할 때가 있을테니… 그땐 지금 한 말 잊지 말게.》
…전화를 마친 련대장이 시계를 보며 잰걸음으로 걸어왔다. 뒤따라오던 구본수가 급히 련대장옆에 나란히 서더니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련대장동무,사전에 한가지만…》
강표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서서 참모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무령에다 작전참모동무를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만일을 위해서말입니다. 아무래도 작전참모동무가 정황을 판단하는데는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도록 하시오.》
강표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자리에 앉았다.
군관들도 저마끔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전투가방을 열고 지도를 꺼내는 바스락소리가 잠시동안 계속되였다.
참모장이 전투를 하게 됐다는것을 말하고 정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강표는 그 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들으면서 련대 지휘성원들의 얼굴을 죽 훑어보았다. 맨 구석에 침울한 얼굴을 하고 앉은 대우를 보자 가슴이 언짢아졌다.
《…웨더마이어의 타산은 아군이 전혀 포병장비를 못가졌거나 아주 보잘것없이 가졌으리라는데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자들은 우리 포병들이 반포투쟁을 하지 않는 사실을 매우 인상깊이 생각하고있는모양입니다. 여기로부터 이자는 포사격으로 두무령과 월하봉을 완전히 제압하고 5월 18일 즉 나흘후에 총공격을 들이댈것을 기도하고있습니다. 예견되는 공격방향과 병력은…》

구본수의 정황분석은 계속되고있었다. 그의 조리있고 빈틈 없는 이야기를 강표는 흡족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비록 구본수에게 이러저러한 결함이 있다 해도 강표는 그의 침착성과 랭철성 그리고 과학성과 정확성을 높이 사지 않을수 없었다.

(확실히 경구동무에게는 저런 점이 부족했지.… 그 대신 그에게는 또 다른 우점이 있고…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지.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우점만을 나타내야 할텐데… 하기는 이것이 지휘관의 일이지?)

강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채택한것은 오늘아침이였다.

어제밤에 그와 구본수사이에는 늦도록 심중한 론의가 진행되였고 때로 론쟁으로 번지기까지 하였다.

구본수는 두무령의 방어를 약화할수 없다는것을 고집하면서 련대의 기동에 대하여 끝까지 의문을 표시하였다.

《련대장동무, 내가 왜 련대의 성과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험을 할수는 없습니다. 련대가 공격을 위해 삼두봉 우익으로 우회한다는것은 그만큼 적의 공격에도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것이 아닙니까?》

구본수의 말은 전에없이 열을 띠였고 절절하였다. 그것으로써 강표는 그의 소극성, 우유부단성과 함께 진심으로 전투의 운명을 근심하는 그의 충직성과 책임성을 쉽사리 느낄수 있었다.

그러나 강표는 그러한 우유부단성이나 소심증때문에 련대를 앉은자리에서 야금야금 녹여내도록 방임할수는 없었다. 진지방어에로의 이동문제는 아직 누구에게나 비밀이니 젖혀두고라도 월하봉에서 앉아배기지 못할 이 마당에는 어떻게 하든지 삼두봉으로 방어선을 끌고감으로써만 적의 진출을 막아낼수 있는것이였다. 그래서 강

표도 본수 못지않게 절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참모장동무, 물론 적들로 말하면 한개 련대를 공격하는것보다 한개 중대를 공격하는것이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는것은 일면적입니다. 아마 미국놈들이 조선전쟁을 도발할 때 백악관에서 작성한 전략계획의 밑바탕에 바로 그런 타산이 깔려있었던게 아닐가요. 그런 부르죠아놈들의 엉터리없는 속구구가 얼마나 어리석은것인가 하는것을 놈들은 실지 전선에 와서 신물이 나도록 느꼈을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력량을 타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정치도덕적요인입니다. 우리는 학습을 할 때는 누구나 이 점을 강조하지만 막상 싸움판에 나서면 때때로 잊어버리군하지요. 내 생각에는 련대가 매개 전사들앞에 위력한 구호, 훌륭한 명령을 제때에 내릴줄 안다면 두무령의 방어가 절대적인 약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구본수는 나이 지숙하고 오랜 전투에서 세련된 련대장의 그런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천진한 이야기를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있었다.

강표는 말을 이었다.

《련대의 공격계획은 어찌보면 모험으로 보일는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요. 지금 우리 형편에서 그 어떤 모험도 없이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공중 뜬 생각이요. 3차전원회의에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쟁 6개월간을 총화하시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전투규정을 습득하여 각종 부동한 조건하에서와 각종 부동한 전술로써 싸움하는데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시였소. 만일 우리가 이 교시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대담하게 조선전선의 특수성, 적의 량적 기술적 우세와 산악전의 조건하에서 새로운 창발적인 전술을 생각해내야 하리라고 확신하오. 대담하게, 그러나 철저히 타산하고… 참모장동무, 우리는 그 어떤

〈안전한 작전〉을 통해서는 서울도 제주도도 해방시키지 못할것이요.》

강표는 구본수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많은 말을 하였다. 사실은 그가 련대의 유일관리자인 련대장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명령을 가지고 삶과 죽음,영광과 치욕이 나란히 놓인 그런곳으로 함께 가고 함께 싸워야 할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서로 모든것이 명백해지도록 하는것이 좋았고 필요하였다.

그러나 보매 구본수는 시원히 납득이 된것 같지 않았다. 다만 그는 련대장의 결심이 확고부동한것을 알자 별수없이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런데 두무령의 방어임무를 누구에게 위임하는가 하는데서 다시금 의견이 대치되였다.

구본수는 박대우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애원하다싶이 제기하였다. 그는 이번 전투가 그처럼 중대한 의의가 있고 결정적인것만큼 모든 점에서 심중해야 할터인데 허구많은 중대가운데서 하필 그런 성실성이 부족하고 조잡한 지휘관에게 두무령을 맡길수 없다는것이였다.

구본수는 온갖 론거를 다 끄집어냈다. 련대장에게서 들은 적후활동시기 이야기며 그 중대병사들의 정신상태며 그리고 이번 작전에서 중대장이 자기 중대의 힘겨운 전투는 돌아보지 않고 영예만 탐내는것 같은 불성실한 태도며 심지어 참모부에서 론의된 전술문제를 루설했다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냈다.

강표는 참모장이 박대우중대문제에 대해 그처럼 완강하게 나오는데 대해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술문제만 토의하고 헤여졌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강표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참모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것만큼 두무령방어

를 딴 구분대에 맡겨버리면 깨끗해질것이다. 그러나 량심을 속일수는 없었다. 피흘리며 목숨을 내대고 싸우는 그들을 믿지 못했다는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가. 만일 안전을 위하여 두무령방어를 딴 구분대에 인계시킨다면 박대우중대의 사기는 여지없이 떨어지고말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우수한 중대를 전투없이 잃어버린다는것과 같은것이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더욱 성실하게 더잘 싸우게 한다는것을 강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간곡한 교시와 수범을 통해 잘 알고있었고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보내는것이였다. 이 신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온갖 힘과 성의를 다하여 보답하였으며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다.

항일유격투쟁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지금 박대우중대에 대한 문제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준엄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강철의 령장이신 그이의 탁월한 지도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신임에 의하여 해결되였었다. 강표자신에게도 그런 심각한 체험이 있었다.

1935년 유격근거지에서였다. 소대장공작을 하고있던 강표는 당시 치렬하게 벌어졌던 반《민생단》투쟁과정에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걸려 억울하게 《민생단》으로 몰렸었다. 룡정에 와있던 강표의 먼 외척 한사람이 일본인회사에 사무원으로 취직했는데 강표가 《민생단》으로 몰린 리유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구금 당해서 곧 군중심판에 회부되게 되였다. 보초를 서던 대원이 소대장의 억울한 심정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 강표는 그때 비록 원쑤를 물리치고 광복된 조국땅에 개선은 못할망정 《민생단》의 루명을 쓰고 죽는다는것이 절통하여 피눈물이 고일지경이였으나 웃으며 그 대원에게 타일렀었다.

《동무, 우지 마오. 그러다 동무도 〈민생단〉으로 몰리겠소.》

사실 그때로 말하면 종파분자들의 책동이 그렇게도 악랄하였던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밤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부대에 내려오셨다. 그이께서는 강표와 함께 《민생단》으로 몰린 사람들을 친히 만나주셨다. 젊은 강표는 자기의 심정을 눈물을 뿌리면서 혁명의 수령에게 호소하였었다.

《장군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혁명을 위해 죽고싶습니다. 아버지가 왜놈에게 죽었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굶주리고있는데 내가 그들을 반역한 자로 죽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싸움에 내보내주십시오. 제일 위험한곳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지금도 강표는 그때의 수령님의 그 너그러운 웃음과 그 뜨거운 말씀을 잊을수가 없었다. 강표의 눈물에 얼룩진 얼굴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친히 그의 포승을 풀어주고 말씀하셨다.

《혁명가의 죽음이 그렇게 눅거리는 아니요. 나는 동무가 원쑤와의 싸움에서 용감했다는것을 믿으며 앞으로 더욱 용감하게 싸우리라는것을 믿소.》

강표는 그이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껴 울었었다. 금시 하늘이 손에 잡힐듯하였고 온 천지가 무한히 아름답고 즐거운것으로 가득찼었다. 그리고 자기몸에 기적같은 새힘이 용솟음쳐일어나며 어떠한 원쑤도 두려울것이 없다고 생각되였다.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이끄시는 대렬에 서있다면…

이것은 강표자신이 체험한 일이지만 그때로 말하면 수령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두터운 신임으로 해서 루명을 벗고 원쑤와의 싸움에서 천백배 용감했던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였다.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러한 교시와 수범을 생

각할 때 강표는 박대우문제를 다시 랭정하게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적후 천리길을 락오한 부상병들을 업고 지고 이끌고 눈덮인 산발과 집요한 적의 추격을 물리치면서 뚫고 온 그가 아닌가?

원쑤를 보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는 그 열정적인 청년을 과연 믿을수 없단말인가?

전사한 전우를 위하여 혈전의 고지에 꼬아리를 옮겨심는 전사들의 심정이 과연 나약한것이란말인가? 그러한 전사들이야말로 우리 당과 공화국의 든든한 초병이 아닌가?

물론 박대우에게는 결함이 있다. 《공산당선언》을 하루밤사이에 읽어치웠다는 그런 열정만으로 혁명의 위업을 성취할수는 없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격하면 리성을 잃어버린다. 아마 오늘 참모부에서 론의된 문제를 루설하고 상관에 대해서 뒤공론을 했다는것도 그런 약점이 발로된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엄중한 과오이며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를 싸움에서 떼낸다면 과연 원쑤와의 힘겨운 싸움에 마음놓고 내보낼수 있는 결함이 전무한 지휘관이 누구란말인가. …

강표는 새벽녘에 단연 두무령방어임무를 박대우중대에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결심이 이미 움직일수 없다는것을 알자 구본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괴로와하였다.

참모장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표는 미리 준비해둔 명령서를 들고 일어났다. 그는 지도를 짚으며 앙양되고 격동적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지휘관동무들, 련대는 적의 기도를 간파하고 이 월하분지를 미제 169련대와 37련대의 화장터로 만들자는것입니다. 지금 련대에는 월하봉전투이후 전혀 전투에

인입되지 않은 대부분의 보병대대와 포병을 가지고있으며 1개월분이상의 포탄예비를 축적하였습니다. 수리개와도 같은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은 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나는 적을 이 월하분지에다 유인해놓고 섬멸적인 타격을 주는 동시에 적의 방어선을 삼두봉으로부터 4키로지점인 이 룡화리계선까지 내몰것을 결심하였습니다. …》

강표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커다란 감동과 흥분의 빛이 떠돌았다. 그들의 눈은 빛났으며 어깨는 들먹거렸다. 어떤 사람은 긴장된 나머지 얼굴색이 창백해지기도 하였다. 강표는 말을 이었다.

《명령. 련대의 주력은 래일 밤까지 이 삼두봉 우익 820고지로 이동하여 18일 새벽까지 돌격선에 매복할것. 련대의 총공격은 18일 오전 7시. 련대의 전체 포병은 련포군을 형성하고 적의 총공격 반시간후인 18일 오전 6시반에 이미 확정된 삼두봉 적의 포진지와 두무령에 집결한 적에게 30분간의 집중적인 준비사격을 가할것. 정찰은 계속 적정을 료해장악하며 적의 포진지와 화점과 지휘부의 위치를 정확히 탐지할것.》

강표는 각 구분대와 각 병종들에게 각각 구체적인 임무와 전선경계, 기동로, 행군순서, 이동시의 주의사항 그리고 자기 감시소의 위치 등을 지적하고나서 두무령방어에 언급하였다.

《적은 월하봉을 돌파하려고 발악적으로 기도하고있소. 련대의 공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공격까지 두무령을 최소한도의 병력으로 견지하며 적을 계속 두무령으로 유인해야 할것이요. … 두무령방어임무를 3대대 1중대장에게 위임한다. 3대대장은 1중대의 편제인원을 전원보충하고 박격포중대와 중기소대를 두무령에 배속시킬것. 후방은 열흘분의 식량과 탄약 예비를 보장할것.

통신은 련대지휘감시소와 두무령과의 지휘통신을 보장할것.》
명령하달이 끝났을 때 감시소안은 갑자기 활기를 띠고 들끓기 시작하였다.
강표는 조용히 작전참모와 대우를 불렀다.
《두무령의 방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것을 동무들도 알것이요. 그래서 작전참모동무를 두무령에 파견하기로 하였소.》
《들었습니다.》
두사람은 동시에 대답하였다. 그러나 련대장은 그들의 말소리가 서로 다르게 울린다는것을 촉감하였다. 박대우의 상기된 얼굴만 봐도 그가 이 명령에 얼마나 흥분하고있다는것을 능히 알수 있었다. 그러나 현종국이로 말하면 다소 복잡하였다. 오랜 군관이라고는 하나 내내 참모부에서 일해왔던 그가 더없이 가렬한 전투가 예견되는 두무령의 참호속에 직접 나간다는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쉽게 짐작할수 없는 문제였다.
련대장의 옆에 서있던 구본수의 표정도 사뭇 복잡하였다. 그의 얼굴은 아까부터 어제부터 겪은 마음고생때문인지 몹시 초췌해보였다.

4. 기 발

1

먼동이 텄다. 멀리 저쪽 산발에는 아직도 밤의 흔적이 우중충하게 감돌고있는데 비죽비죽하게 예각을 이룬 동쪽산줄기를 타고 세찬 새벽기류가 줄달음쳐와서는 안개처럼 두텁게 어려있던 어둠을 밀어갔다. 그 기류의 뒤를 따라 액체와 같은 불기우리한 노을이 펴져왔다.

하늘은 처음엔 재빛으로, 다음엔 우중충한 보라빛으로, 나중엔 점점 푸른빛으로 변해갔다. 아직도 삼두봉의 포병들은 늦잠을 자는지 포소리는 잠잠하다. 이윽고 월하분지우에 감돌던 봄안개도 천천히 산기슭을 핥고 휘감으면서 어디론가 밀려가고 축축한 이슬에 젖은 풀밭과 모래밭과 포탄에 패운 웅뎅이 그리고 간밤 마지막 공격에 죽은 적들의 너저분한 시체를 드러내놓았다. 자루같이 쿨렁쿨렁한 풀색 군복을 입은 그 시체들은 마치 그렇게 죽은것이 팔자에 타고난 운명인것처럼 땅에 코를 틀어박고 셈평좋게 누워있었다.

시체옆에서는 모래판을 덮은 무성한 질경이며 억새며 능쟁이가 밤이슬을 머금고 활짝 고개를 쳐들었다.

날이 밝음에 따라 우뚝 솟은 삼두봉은 점점 손에 잡힐듯이 가깝게 다가섰다. 삼두봉 우익릉선으로 잇달린 820고지는 빽빽한 솔밭과 새벽노을을 등져서 아직도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겨있었다.

간밤에 배속된 박격포중대와 중기소대의 진지굴설은 밤새 계속되였다.

자정이 깊었을 때 《참모장고지》에서는 비상소집구령이 전파처럼 퍼지더니 벌써 동틀무렵에는 잠잠해졌다. 다만 포병들과 후방부 성원들만은 아직 이동을 못한듯 뚝딱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어둠을 타고 폭풍을 실은 기류와도 같이 들려오는 련대의 힘찬 움직임과 세찬 고동소리는 두무령을 하나의 불덩어리로 만들어놓았다.

참호보수작업과 중기화점작업을 돌아본 대우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두무령정점으로 올라갔다. 그는 지난 이틀동안 자기 신변에 벌어졌던 엄청나고 급격한 사변들때문에 머리가 팽팽 돌 지경이였다.

그저께 참모장과 전술문제로 론쟁하던 일, 포사격구역에서 혜경에게 화풀이하던 일, 그길로 바로 이자리에 와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일 그리고 간밤에 벼락같은 련대장의 명령을 받던 일— 이 모든 일들이 어찌도 그렇게 빨리 자기 신변에서 일어날수 있었는지 믿을수가 없었다. 가슴은 터져나갈듯한 흥분으로 뒤설레이고 있었다.

그는 밤중으로 중기소대장과 박격포중대장을 데리고 중기좌지와 박격포진지의 위치를 토의하였으며 그길로 중대전사들앞에서 새롭게 제기된 전투명령을 전달하였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있으며 무엇을 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놀랍게 빨리, 사소한 피로도 느끼지 않고 검질기게 해나갔던것이다. 마치 머리속에 그자신의 의지보다 훨씬 강한 다른 의지가 들어앉아서 사정없이 사업에로 내모는듯도 하였다.

밤새도록 참호와 참호, 소대와 소대, 중기화점과 포진지로 분주히 돌아갔고 무엇인가 요구를 제기하고 전사들과 롱담도 하였다. 중대내 군관들을 불러 새로 방어구역을 설정해주고 전호들을 더 고지아래쪽에 내려다 파

게 하였으며 정치부중대장과 함께 초급정치일군들과 하사관들을 만났다.

동이 터옴과 함께 대우는 자기가 몹시 피로했다는것을 느꼈다. 입안이 까칠하고 얼굴이 먼지와 땀으로 매닥질이 되여 끈적끈적하였다.

대우는 군모를 벗어 한옆에 놓고 어지러워진 손수건을 꺼내여 이마를 훔쳤다.

바위에 기대여앉으니 서늘한 촉감이 배속까지 찌르르하게 스며들었다. 가슴을 활짝 벌리고 심호흡을 하였다.

그의 가슴에는 행복감과 힘이 차고넘쳤다. 그저께 련대장의 질문에 대답하던 때 느꼈던 그런 불안도 주저도 온갖 착잡한 생각모두가 《명령》이라는 두글자앞에서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오직 그에게는 세상에 있는 온갖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집행》할 일만이 남았다. 모든 세포가 이 《집행》이라는 한가지 일을 위해 조직되고 운동하기나 하듯이 모든 전투원들이 《명령》만 받으면 그렇듯 무아의 경지에 잠기는것이였다. 대우자신이 련대장에게 말한바와 같이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것인지도 모른다. 대우는 지금 더없이 마음속이 편안하였고 약동하는 젊음의 힘을 자신이 느낄수 있었다.

서서히 걷히는 어둠속에서 최두령전사의 꼬아리가 아련한 모습을 드러냈다. 대우는 벌떡 일어나 그리로 갔다.

꼬아리는 아직도 실하지 못하였다. 최두령전사가 식물학계에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의 식물이라고까지 오해한 그 꼬아리는 확실히 잎이 좁고 끝이 뾰족뾰족하였으며 연록색 대는 구불구불 구부러져있었다.

연약한 꼬아리의 잎사귀를 억센 손길로 조심스럽게 매만지는 대우의 가슴에는 알수 없는 감격과 붙일데 없는 호소가 북받쳐오르고 꼬아리를 안고 딩굴고싶은 그런 격정에 사로잡히는것이였다. 그의 눈에는 최두령전

사의 희망과 청춘과 사랑이 마치 꼬아리로 변신하여 닥쳐올 혈전을 기다리며 이 고지우에 자기와 함께 서있는것처럼 느껴졌다.
대우는 주먹을 부르쥐고 일어섰다. 두무령의 정점, 매부리처럼 삐죽하게 솟은 거대한 현무암에 한팔을 짚고 삼두봉을 노려보았다.
—이 땅의 모든것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나의 모든것, 그 모든것의 행복을 위하여 원쑤에게 죽음을 주리라! 가자! 꼬아리야, 남해끝까지, 나와 함께 싸움의 길을 헤치고 가자.
대우가 그렇게 서있을 때 무선기의 전원함을 둘러멘 통신참모가 에르.베.엠을 멘 무선수와 함께 골짜기쪽에서 올라왔다. 무선수는 정숙이였다.
그는 두려운 눈매로 대우앞에 섰으나 실상 가슴은 흥분으로 해서 높이 뛰고있었다. 심지어 자기의 길지 않은 생애에 이처럼 큰 행복이 벌써 찾아왔다는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정숙이였다.
예견되는 격렬한 포사격과 지나치게 먼 거리를 고려하여 유선을 그만두고 무선수를 박대우중대에 보내기로 됐다는것을 알았을 때 정숙이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다시는 화선에 나갈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아무 주저도 없이 통신중대장을 찾아가 한사코 매달렸다. 응석을 부렸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런 정숙이를 처음 볼뿐만아니라 일상 참하고 얌전하던 그가 이렇게까지 나올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중대장은 저으기 놀랐다. 게다가 그는 정숙이가 련대장이 친딸과도 같이 생각하는 전우의 딸이라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중대장의 반승낙이나 받았을 때 이번에는 옹고집이 있고 휘뚝거리기를 잘하는 통신참모를 설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녀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를 설복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으리라고 짐작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뜻밖에도 통신참모는 선선히 말을 들어주었다. 갑자기 제기된 황급한 명령때문에 수많은 일을 앞에 두고 쩔쩔매고있던 통신참모는 보매 길게 따지고 캐고 할 겨를도 없이 얼결에 승낙해버린듯하였다. 그러나 승낙한 다음에는 그것이 명령으로서 집행되는것이다. 이리하여 그처럼 영예로운 싸움터—제일 힘들고 가렬한 참호속에서 싸우게 된것이다.

(아버지, 보세요, 난 화선에 나왔어요. 어머니가 알면 아마 기절할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칭찬하실줄 믿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신거예요.)

정숙이는 보지도 못한 아버지령전에 이렇게 속삭이였다.

《여보게 중대장동무, 무선수를 데려왔네. 바지 벗고 오줌싸는 군대야.》

입이 껄쭉한 통신참모는 옆에 누가 있거나말거나 입심을 부렸다. 통신중대에 와서 처녀들속에서 함부로 말을 하다가 처녀들의 총알같은 공격을 받고도 움쭉도 안하는 그였다. 원래가 몹시 내성적이고 더구나 녀자들앞에서는 수줍어서 어찌할바를 모르던 그는 군대에서 주로 처녀들을 상대로 사업하는 과정에 그만 수줍음을 파렴치성과 바꾸어버렸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업하기가 곤난했으며 아닌게아니라 최근에는 한결 일하기가 수월해진것도 같았다.

정숙이는 참모가 입담을 부리기 시작하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떨구고 좀 물러났다.

《자네 아예 군소리하지 말게. 통신중대는 원래 사내종자가 귀한곳이라네. 또 이젠 바꾸고 어쩌고 할 겨를이 없단말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처지에 처음부터 너나 잡도리로

나오는 통신참모의 키꼴이나 한 멀끔한 얼굴을 어이없이 바라보던 대우는 히죽이 웃었다.

(흥, 재미있는 친구로군. …)

이렇게 생각한 대우는 마주 허랑하게 대꾸를 하였다.

《그래 어찌라는건가? 홀애비살림에 어디 모실데가 있어야지.》

《이사람봐, 그래두 자네곁이 아니면 딱 안가겠다는거야. 질색이지. … 어디 정숙동무, 말해보우. 중대장동무앞에서…》

정숙이는 부끄러운나머지 그만 달아나고싶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것은 자기의 제의를 듣는둥마는둥 훌훌하다가 급작스레 데리고나온 통신참모가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빠치지 않고 다 귀담아들었으며 심중하게 모든것을 고려하였다는 점이였다. 사실 정숙이는 자기가 꼭 박대우중대에 남아야 한다는것을 얼마나 열렬하게 주장하였는지 모른다. 만일 그곳이 원쑤와 직접 맞서있는곳이고 조국을 위해 가장 잘 복무할수 있는곳이라면 정숙이는 어떤곳이라도 그렇게 찾아갈 결심이였다.

그러나 그런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도 통신참모의 입담앞에서는 질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가지도오지도 못하고 장난감같이 조그만 장화끝으로 애꿎은 바위돌만 걷어찼다.

《가자우.》

대우는 앞장서서 자기 감시소로 두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는 정숙이가 배치돼온것이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반가운지 언짢은지 자신도 똑똑치 않았다. 어쨌든 이것은 희귀한 일이며 비정상적이고 어딘가 좀 야릇한 일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문에 무엇인가 애를 먹게 될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이 떠올랐다.

통신참모는 대우와 나란히 걸으면서 무슨 은밀한 이

야기나 하는듯이, 그러면서도 옆사람에게 다 들리게 속삭였다.

《그래두 알짜야. 고추가 작아두 맵다지 않아? 여북하면 련대지휘부에다 붙박이로 잡아두었겠나. 자네 호박잡았네.》

보매 통신참모는 녀성무선수를 배치했다고 대우가 시비나 걸가봐 걱정인모양이다.

정숙이도 통신참모의 능청스러운 말소리를 들으며 중대의 전우들이 자기를 어떻게 맞이할가, 자기를 녀자라고 깔보지 않을가 하는 걱정때문에 시종 중대장의 표정에서 눈을 뗄수가 없었다.

통신참모는 감시소에 와서 암호조직을 다시 검토하고는 곧 돌아갔다.

정숙이가 중대에 배치된것을 제일 기뻐하고 제일 가슴아파한것은 한성호였다. 중대장을 만나러 왔다가 에르.베.엠의 오각별형 안테나를 세우고있는 정숙이를 본 성호는 자기의 모순되고 격동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하였다. 한참후에야 그는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정숙동무, 웬일이요?》

정숙이는 중대에 오면 자연 만나게 될 사람이였으나 전혀 뜻밖에 만난듯이 당황해졌다. 그는 괜히 전원함을 세워놨다 눕혀놨다 하면서 간신히 들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가라구 해서 왔어요.》

《하필 동무를? 그래 사내들은 없단말이요?》

성호의 노기찬 목소리에 정숙이는 정신이 번쩍 들어 얼굴을 들었다. 기름한 성호의 희고 선량해보이는 얼굴에 눈동자가 사랑과 분노로 해서 숯불처럼 타고있었다.

《여기가 어딘줄 아오? 저승과 접경지대란말이요.》

그는 계속 숨을 헐썩거렸다.

《여보게, 자네 뭐 그리 골이 나서 그러나?》 새로 타온 탄약과 수류탄 상자를 정리하고있던 특무장 김인철이가 엉거주춤 앉은채로 고개를 익살스럽게 돌려보며 말하였다. 《아무름 싸움판이 휴양소같겠나? 무선수동무, 마음 푹 놓소. 우리 중대 총각들은 다 례절이 바르고 처녀들을 우대할줄 아오. 우선 나부터도…》

미국제 박격포탄상자를 뜯어서 뚜드려맞춘 조잡한 탁자우에 지도를 펼쳐놓고 중대의 새로운 방어선을 그려넣고있던 대우가 그 말을 듣고있다가 우스운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하였다.

《여보 2소대장동무, 이리 오오. 중대전체가 절대 환영인데 동무 혼자 그래봐야 별수 있소? 아예 독점할 궁리랑 하지도 마오. 이제 보우, 저 무선수동무가 우리 중대에서 공주노릇을 하지 않나. 벌써 숭배자가 상당히 많소. 하하하.》

정숙이는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저도 몰래 엄폐호밖으로 획 뛰쳐나갔다.

이때 삼두봉릉선에서 번쩍 불길이 솟더니 휘유하고 이른아침 찬 공기를 째며 포탄이 날아왔다. 뒤이어 스르륵 쉭쉭—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눈앞에서 짜르릉짜르릉 요란한 폭음과 불기둥이 치솟았다. 적들의 아침참 일제사격이 시작된것이다.

정숙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귀를 틀어막고 교통호바닥에 엎드렸다.

×

거의 같은 시각, 환자후송사업과 이동준비때문에 눈코뜰새없이 돌아치고있는 련대군의소에 작전참모 현종국대위가 나타났다.

전투가방을 느직이 걸치고 권총과 쌍안경을 차고 그

우에 모포를 말아붙인 배낭을 둘러멘 그의 행장은 어마어마하게 보였다.
입원실토굴앞에서 부상병후송을 지휘하고있는 혜경이를 보자 위엄있는 큰소리로 찾았다.
혜경은 불룩해진 슴까를 둘러멘 간호병에게 무엇인가 지시를 주더니 종종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토굴옆에 나란히 앉았다.
《난 두무령에 남게 됐습니다.》
종국이가 한숨을 내쉬듯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래요?》
혜경은 눈을 크게 뜨고 그제사 종국이의 전에 없던 어마어마한 차림을 새삼스럽게 뜯어보았다.
《무엇때문엔지 나는 이번에 헤여지는것이 퍽 마음에 걸립니다.》
종국이는 엉겅퀴의 노란 햇잎을 뜯어서 굵은 톱날같은 가장자리를 손가락끝으로 문질러뜯어내며 침울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혜경이는 종국이의 심상치않은 거동을 근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종국이는 고개를 떨구더니 얼마간 짜증이 섞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뭐 그게야 하는수 없는 일이지요. 어쨌든 몸조심하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서글픈 표정이 떠돌았다. 피기를 잃은 그의 작은 입술은 가늘게 떨렸다. 그러면서 혜경이의 아름다운 얼굴을 속속들이 눈에 잡아두려는듯이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사흘후면 삼두봉에서 만나게 될터인데 뭘 그러세요?》
이런 식의 리별이 처음인 혜경은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딱했으나 잠시후에 항의나 하듯이 다급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사흘후요?》 종국이는 쓴웃음을 짓고 반문하더니 말하였다. 《물론 그럴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수도 있지요. 나는 이번 두무령방어가 얼마나 가혹하리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한개 중대로 놈들의 총공격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돌파당할수도 있지요. 련대의 공격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돌파당한다고 보는것이 아마 보다 건전한 추측일것입니다. 그때는 두무령의 방어자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혜경은 가슴이 섬찍하였다. 무서운 선고나 받은 사람처럼 겁에 질려 그 무서운 말을 남의 일처럼 태연하게 말하는 종국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얼른거리는 영상은 종국이가 아니라 이번에 두무령방어임무를 받았다는 박대우였다. 혜경은 바짝 마른 입술을 감빨아서 추기며 목에 걸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하세요. 네? 설마 련대장동지가 그것을 고려하시지 않았단말이예요?》

혜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종국이의 눈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서 어떤 진실을 찾아내려는듯이…

종국이는 여전히 서글픈 표정 그대로 쌀쌀하게 말하였다.

《고려하였지요.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야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전사의 영예이기도 하지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생각도 있지만 나 역시 영예를 위하여 죽을 각오입니다.》

혜경은 완전히 기가 꺾이여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는 자기가 무엇때문에 그처럼 열렬하게 종국이의 말을 부정하려고 했는지 알수 없었다. 종국이를 고무하기 위해서일가? 아마 그럴것이다. 사실 혜경은 종국이의 슬픈 여운이 떠도는 비장한 말에 감동되고말았다. 종국이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였다. 그는 은근하고 유쾌한 말을 많이 하였으나 대체로는 경박하고

속빈 말들이였다. 그러나 오늘 몇마디 안되는 그의 말은 가슴을 찌르듯이 그렇게도 심각하고 진지하게 울렸다.
실상 종국이는 지금 조금도 량심을 속이지 않고있었다. 그는 련대의 작전에 많은 위구심을 가지면서도 어려운 방어구역으로 나가는데 대해서 련대참모부 성원으로서의 참된 책임감을 느끼며 비장한 결심까지 가지고있었다.
오래동안 군무생활을 해왔고 전쟁 첫날부터 전투부대에서 공작해오면서도 심지어 적후활동시기에조차 직접 총을 잡고 전호에 나서본 일이 없는 그는 이번 두무령방어에 직접 참가하게 되자 스스로 자기의 비장한 결의에 감동되기까지 하였다.
종국이의 심정은 순박한 처녀의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다. 혜경은 심란한 생각에 잠겨 종국이의 말을 다소곳이 듣고있었다.
《짧은 기간이였지만 나는 혜경동무와의 우정을 깊이 간직하고싶습니다. 만약 후날 우리가 살아남아서 오늘을 회상할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더없이 고귀한 추억으로 될것입니다. …》
혜경은 이내 뭐라고 대답할 마음의 경황이 없었다. 그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있을뿐이였다.
이윽고 종국이는 두무령쪽을 초조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니 아쉬운듯이 무거운 엉덩이를 천천히 들고 일어났다. 굼뜬 동작으로 먼지를 털고난 그는 혜경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오래오래 놓지 않았다.
축축히 땀이 배인 종국이의 손이 점점 힘을 주는것을 느꼈으나 혜경은 그대로 멍하니 서있었다. …
밤이 들면 군의소도 이동할것이였다. 오전을 내내 경황없이 보낸 혜경은 지칠대로 지쳤다. 몸이 피로한데다 마음마저 산란하였다. 그의 생각은 하염없이 두무령으로 달렸다.

포연에 가리워 구리빛으로 둔중하게 보이는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 박대우중대의 위생지도원이 약을 타러 왔다.

혜경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가렬하리라는 싸움을 겪게 될 중대가 바로 박대우중대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두려운것을 피해 다니다가 외나무다리에서 용수없이 맞부딪친것과도 같은 심정이였다.

혜경이는 오늘 자기가 그처럼 허둥지둥한것이 현종국이와의 리별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박대우때문이였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불현듯 그 지꿏게 생긴 얼굴이 보고싶고 그리워졌다. 그저께 월하봉 남쪽릉선 포사격구역에서 화풀이를 해대던 모습이 안타깝게 떠올랐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주지 못한것이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넓은 이마, 세모진 눈, 약간 비뚤어진 입귀, 그 모든것은 개살구처럼 시고 털털하면서도 눈살이 찌그러질만큼 짜릿한 자극을 주는 불같은 정열의 도가니였다.

혜경은 저도 모르는 사이 그 낯익은 위생지도원을 불렀다.

《약타러 왔어요? 요즘 중대장동무 다리절지 않아요?》

괜히 이런 말부터 시작하였다.

《아－니요.》

계집애같이 해사한 얼굴을 한 나어린 위생지도원은 아름다운 상급준의의 얼굴을 호기심이 가득찬 눈으로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참 다행이군요. 바쁜 전투때 재발하면 어찌겠어요? 잘 봐드리세요.》

《네?…－》

위생지도원은 여전히 의아스런 눈매로 그를 지켜보

았다.

《거기는 언제나 전투가 치렬하지요?》

《그럼요, 이제는 더할것입니다. 련대의 방어구역을 우리 중대가 다 맡았으니까요.》

어린 전사는 가슴을 펴고 마치 중대 대표나 된듯이 점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 잠시 기다려주시겠어요? 내 좀 부탁할게 있어서 그래요.》

《네…》

위생지도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있다가 어깨에 메고있던 약보따리를 내려놓고 토굴출입구옆에 가앉았다.

혜경은 노트를 분주히 펴놓고 펜을 들었다. 그러나 막상 쓰자고 하니 그렇게도 하고싶던 말들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가장 요긴한 말들은 사실 처녀인 그로서는 도저히 적을수 없는 말들이였다. 펜대를 잘근잘근 씹으며 생각에 잠겨있던 혜경은 한참후에야 겨우 다음과 같이 몇줄 써나갔다.

중대장동지에게

두무령에 남게 되신다는 말을 듣고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동지를 노엽힌것이 몹시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와 저의 오빠에 대한 노염을 풀어주세요. 우리는 중대장동지의 열렬한 뜻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가렬한 전투속에 있을 두무령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중대장동지가 용감히 그리고 몸성히 싸우시기를 빌겠습니다. 다리의 상처가 념려됩니다. 몸조심하세요.

중대장동지의 건강은 우리모두에게 귀중하다는것을 항상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모장고지》를 떠나면서 혜경

혜경이가 쪽지를 접어가지고 나왔을 때 위생지도원은 대번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히쭉 웃었다. 해사한 얼굴때문엔지, 아니면 남의 일을 돌보기 좋아하는 그 삽삽한 성미때문엔지 어쨌든 이런 류의 심부름을 자주 하게 되는 그는 상급준의가 중대장이야기를 파고묻던 리유를 제깍 눈치챌수 있었던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상급준의의 편지를 받는 중대장을 가졌다는것은 그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히쭉히쭉 웃으며 신명이 나서 걸어갔다.

그러나 혜경은 어찌나 간절한 심정에 사로잡혀있었던지 위생지도원의 그런 거동에도 쑥스러운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위생지도원의 모습이 멀리 월하봉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혜경은 하염없는 눈길을 그리로 보내고있었다.

2

그날밤중으로 련대는 완전히 820고지로 이동해갔다.

밤이 깊었을 때 강표가 비옷을 걸치고 련락병과 함께 중대장감시소에 나타났다. 그는 작전참모와 대우를 데리고 새로 굴설한 참호들과 박격포며 중기화점들을 돌아보았다.

감시소로 돌아올 때는 두사람이 되였다. 작전참모는 박격포중대장과 아직도 채 완성되지 않은 포진지굴설을 지도하기 위하여 떨어졌다.

두무령꼭대기에 오른 강표는 대우를 힐끗 돌아보더니 넌지시 물었다.

《호젓하지 않소?》

대우는 어둠속이라 똑똑치 않은 련대장의 표정을 알

아보려고 하다가 빙그레 웃어버렸다.
《왜 말이 없소?》
《시험을 치는겁니까?》
두사람은 한꺼번에 껄껄 웃었다.
《대우동무, 내 이야기 듣소.》
잠시후 강표는 심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번 전투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거요. 동무자신이 잘 아니까.… 그렇지만 동무에게 터놓지 못한게 있소.》
《무슨 말씀인지요?》
《사실 이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해두는게 좋을듯하오.》
련대장이 거듭 전제를 두는바람에 대우는 더욱 긴장되여 귀를 기울였다.
《나는 이 힘든 전투에 동무네 중대만 남긴다는것이 상관으로서 너무 박절하다는것을 아오. 사실 여기다는 중대가 아니라 대대력량이라도 결코 많지 않을것이요. 내가 그렇게 안한것은… 단지 동무들을 믿는때문만은 아니요. 무엇때문인지 알겠소?》
《글쎄요.》
《아마 짐작은 할게요. 나는 그놈들이 미워죽겠소. 참을수 없이 밉소. 문제는 그놈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타격을 주자는것이요. 모든 힘을 타격에로! 나는 한사람의 전사, 한문의 포라도 아꼈다가 그놈들에게 더 많이 안기고싶소. 내 결심은 이것이요. 알겠소?》
《알만합니다.》
《이것을 리해하면 좋소.》
이때 대우는 무엇에 끌린듯 련대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 숨소리가 신음처럼 가쁘게 들려오고 어깨는 축 처져있었다.
언제나 클클한 목소리로 웃고 롱을 하고 그러다가도

명령을 줄 때는 뢰성을 몰아오듯하던 련대장이 이렇게 기진맥진한 모양으로 걸어가는것을 대우는 처음 보았다. 그는 방금 련대장이 말한 그 문제때문에 그가 얼마나 피로와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련대장동무, 념려 마십시오. 여기는 넉넉하진 못해도 견딜만큼은 다 있습니다. 두무령은 마음 푹 놓고 그 놈들 면상이나 본때있게 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표는 고개를 끄떡거렸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잠시후 강표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벌써 그의 어깨는 수리개처럼 높이 솟아있었다. 그는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무는 들으니 그저께 참모부에서 론의된것을 루설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대우는 흠칠하여 멈추어섰다. 대번에 그저께 일이 떠올랐다. 참모부에서 론의된것을 루설했다는것은 과장된것이지만 어쨌든 틀림없이 그것을 묻는다고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것이 어떻게 련대장 귀에 들어갔겠는가 생각해보느라고 우물거리다가 《네―》하고 힘없이 수긍하였다.

《그건 어째 그랬소?》

강표의 목소리는 준엄하였다. 대우는 어떤 무서운 질책이 떨어질지 모른다는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부르르 몸을 떨었다.

《나는 사실 그날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나빴는데 어쨌단말이요? 누구에게 말했소?》

강표는 숨쉴 틈을 주지 않고 다우쳐물었다.

대우는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숨을 헐썩거리며 가쁘게 대답하였다.

《저 군의소 상급준의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참모장동무의 누이동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론의된 내용은 전

혀 말한게 없습니다. 다만…》

《흥, 잘들 하는군. 화풀이를 했단말이지?》

《그런 셈입니다. 사실은 나도…》

《망태기로군. … 그래 어떻게 할 셈이요?》

대우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그는 웬일인지 혜경에 대한 불쾌한 생각조차도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그날 자기가 한 말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자기 오빠에게 일러바쳤으리라고 쉽게 추측할수 있는 일이였다. 그러나 지금 대우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칠겨를이 없었다. 자기가 참모장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었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한것만 틀림없지 않은가? 이렇게만 생각이 달렸고 그러자니 더욱 송구스러웠다. 그런차에 련대장의 엄격한 목소리가 그 생각마저 쑥 움츠러들게 하였다.

《이런 무규률적인 현상은 용서할수 없소. 강철같은 규률은 전투력의 원천이요. 자그마한 감정에 사로잡혀 상관을 모욕하는따위 행동을 묵과할수는 도저히 없소. 알겠소?》

《들었습니다.》

대우는 목덜미가 서늘한것을 느끼면서 필요이상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좋소. 전투를 총화하고보기요. 군공은 군공대로, 규률은 규률대로 따로따로 따지겠소. 동무는 내앞에서 규률을 위반한것이 두번째요. 기억하오?》

《기억합니다. 금화부근에서…》

《기억하면 좋소. 중대장동무, 이것을 잊지 마오. 우리가 한사람한사람이 싸우는것이 아니라 조선인민군대가,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이 싸운다는것을… 그러기때문에 여기엔 강철같은 규률과 철저한 복종체계가 필요한것이요. 동무가 아무리 날뛰여도 혼자서는 한개 소대도 잡을수 없소. 뭉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것이요. 동무에게는 기분주의와 개인영웅주의 비슷한게 있소. 더

좀 가라앉아서 랭정하게 세상을 내다보는 법을 배워야 하오. 동무의 모든 과오는 모두 제멋에 술덤벙물덤벙 날뛰다가 저지른것이요. 우리 지휘관에게, 특히 혁명가인 우리 로동당원에게 그따위 혈기는 필요치 않소. 내버리시오.》

《들었습니다.》

《좋소. 이젠 갑시다.》

강표는 걸음을 옮겨놓으며 웅글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간고한 싸움이요. 남해끝까지 가자면 많은 값을 치러야 하고 많은 피를 흘려야 할것이요. 지레 불붙기를 잘하는 가랑잎같은 얄팍한 가슴을 가지고는 견디지 못할것이요. 눈물은 진해서 말라버리고 가슴은 터지고 불씨도 다 꺼져서 재가 돼버릴것이요. 전쟁은 아이들놀음판이 아니요. 사나이의 눈물, 사나이의 분노, 사나이의 사랑— 이것은… 웅심깊어야 하오. 알겠소, 젊은 친구?》

그의 말은 여울물같이 잔잔하였다. 그러나 그속에 바다와 같이 웅웅한것이 느껴졌다.

따뜻한 정과 깊은 사랑 그리고 힘으로 충만된 강표의 말에 목메여오른 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들었습니다, 련대장동무.》

그들의 머리우 우중충하게 드리운 5월의 밤하늘에는 뭇별들이 귤빛으로 반짝이고있었다. 스산한 비구름이 몰켜있는 삼두봉너머에서 물기머금은 마파람이 불어왔다. 어디선가 풀벌레들이 흐릴 날씨를 예고하면서 찌르륵 찌르륵 구슬프게 울고있었다.

삼두봉꼭대기에서 소스라치듯 예광탄이 주르르 솟아오르더니 뒤이어 은은한 적 야간폭격기의 짓누르는듯한 폭음이 들려왔다.

3

5월 15일 아침은 맹수의 울부짖음과 같은 세찬 바람속에 밝았다.

어디서 불리여오는지 왕모래가 섞인 희뿌연 먼지는 산과 들을 자욱히 덮었다. 시꺼먼 구름장들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줄달음치듯 밀려가서는 서쪽 하늘을 연기처럼 우중충하게 가리워버렸다.

재개비와 가랑잎이 휘날리고 월하봉의 솔밭과 떡갈나무들은 구슬픈 소리를 지르며 휘여졌다.

삼두봉정수리가 휀해질무렵 굵직한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졌다. 비줄기는 점점 세차지더니 얼마후에는 하늘에 창이 난듯이 쏟아졌다. 구들내와 같은 매캐한 먼지냄새가 꽉 들어찼다.

삽시에 벌판과 산등성이는 담가놓은 빨래처럼 홈빡 물에 빠졌고 골짜기로 황토물이 콸콸 흘러내렸다.

한참을 그렇게 무슨 일이라도 낼듯이 담아붓더니 두어시간후에는 싱겁게도 멀끔하게 개여버렸다.

그러나 산변두리에는 아직도 거무칙칙한 묵중하게 보이는 비구름이 질은 안개처럼 막막하게 떠돌고있었다.

월하분지에 무지개가 섰다. 한끝은 가재봉에 박고 한끝은 삼두봉 저쪽으로 넘어갔다.

물참봉이 되여 참호벽에 기대앉아있던 전사들은 《야—》하고 아이들처럼 환성을 질렀다. 금년들어서 처음보는 무지개였다. 생각하면 이 몇해를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전혀 잊어버리고 살아온듯도 하였다. 전사들은 형언할수 없는 기쁨에 싸여 비물을 푸— 푸 불면서 벌떡벌떡 일어났다.

이때 쾅— 하고 포소리가 울려왔다. 잠잠하던 적들이 비가 들자 곧 포사격을 시작한것이다.

포소리에 놀라기나 한듯이 칠색령롱하던 무지개는 사라지고 그대신 전쟁이 가지는 그 굉장한 음향과 불길과 진흙더미, 마른 먼지, 마구 뒤엉킨 폭음으로 가득차버렸다.

전사들은 분노에 치를 떨며 참호바닥에다 마른 흙을 깔고 전투준비를 하였다. 후줄근히 젖은 바지가랭이며 옷소매들을 쥐여짜니 걸죽한 비물과 함께 곰팡내같은것이 풍겨났다.

《젠장, 날씨까지 성화로군. …》

누가 두덜거렸다.

삼두봉에서 적의 공격대대들이 풀려나왔다. 전에없이 대규모적이였다. 중대장감시소에서 쉴새없이 련락병들이 달음쳐 나왔다.

박대우중대 전사들은 분노와 함께 야릇한 흥분과 긴장에 휩싸였다. 련대가 떠나간후 중대 단독으로 싸우는 첫 전투였다. 그런데 적의 공격은 그 눈치를 채기라도 한듯 전에없이 대규모적이고 기세가 높았다. 전사들은 자주 포진지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박격포는 끝내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적의 공격서렬선두가 월하분지의 중간을 넘어서자 중기가 먼저 사격을 시작했다. 증강된 중기들까지 한꺼번에 불을 토하고보니 아군의 화력도 대단한것이였다. 그러나 적들은 집요하게 접근해왔다. 새까맣게 밀려드는것이 줄잡아도 두개대대는 착실하였다.

2소대 참호에 나와있던 정치부중대장 김의식은 손에 들고있던 펜을 휴지에 잘 닦아서 전투가방에 꽂고 먹즙이 담긴 페니실린병을 마개를 꽉 막아서 역시 전투가방에 매달았다. 밀려오는 적을 바라보며 조용히 옆에 놓인 기관단총을 끌어당겼다.

《부중대장동무, 오늘은 심상치 않은데요?》
한성호가 약간 근심스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많군. …》
김의식은 좀 뚝뚝하게 대꾸하였다.
적의 기총탄알이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며 머리우를 날아지나고 비에 젖은 바위에서 폴싹폴싹 마른 먼지가 피여올랐다.
《저놈들이 무슨 눈치를 챈게 아닐가요?》
《글쎄…》
의식은 역시 같은투로 받았다. 옆참호들을 돌아보았다. 잠잠하였다. 그는 당겨놓았던 격발기를 안전장치를 해서 어깨에 걸치고 교통호로 빠져나갔다.
옆참호들에는 긴장한 분위기가 떠돌고있었다. 모두 적의 공격이 전에없이 대규모적이라는데 다소 위압을 받은것이다. 전투직전에 기세를 돋구기 위하여 의례 있군하던 흥성한 롱담도 욕설도 들리지 않았다. 수걱수걱 보총과 기관단총들을 흉장에 내대고 긴장된 시선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살피고있었다. 중기만이 자지러지게 뚜루룩뚜루룩 불을 뿜고있다.
《왜 여기서는 초상난 집같이 잠잠하오? 좀 쏘아대보지?》
의식은 바로 린접한 참호로 끼여들어 슬쩍 한마디 하였다.
《사격구령이 없습니다.》
참호 한중간에서 광대뼈가 두드러진 전사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참 그렇던가? 그래두 저렇게 많이 밀려오는데 빨리빨리 잡아야지 언제 다 잡겠소?》
의식은 수북한 눈두덩을 푸들푸들하면서 능청을 떨었다.
《참, 부중대장동무도… 괜히 쏘기나 하면 뭘합니까?

겨우 락탄거리에 들어서나마나 한데요. …》

《그래두 어디 간이 말라서 견디겠소. 담배나 한대 주오.》

의식은 전사의 손에서 담배쌈지를 받아서 한대 큼직이 말았다. 이웃참호들에서는 정치부중대장의 거동에 시선을 집중하고있었다. 의식은 수많은 전사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또 입을 열었다.

《어때? 동무도 속이 좀 말째지? 말하자면 좀 떨리지 않아?》

의식은 깔대기모양으로 만 담배말지를 입술에 갖다대고 침을 바르며 눈을 찡긋하고는 자못 심중한 어조로 물었다. 그바람에 여기저기서 키득키득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하하, 정치부중대장동무 겁쟁이군요. 하하하.》

의식이와 같이 수작하던 광대뼈가 두드러진 전사가 무엇때문엔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놀려댔다.

의식은 성이 난 얼굴로 말하였다.

《사람두,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오? 그래 동무는 겁이 나지 않는단말이요?》

《내가 겁이 나요?》

광대뼈가 두드러진 전사는 발끈해서 대들었다.

《그럼 겁나지 않는게 왜 그렇게 꿔온 보리자루처럼 입만 씰룩거리고들 있소? 좀 노래랑 부르구 떠들지 않구…》

의식은 담배불을 붙이며 짐짓 엄한 눈매로 참호들을 둘러보았다.

또다시 웃음판이 터지고 웅성웅성하였다.

《참, 나원―》

의식과 맞섰던 광대뼈 두드러진 전사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고개를 내젓더니 약이 올랐는지 벌떡 일어나서 찌렁찌렁 울리는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

잠잠하고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걷어차기라도 하듯 우렁찬 노래소리가 폭발하였다. 노래소리는 전호로부터 전호로 퍼져갔다.

쓰러진 전우의 원한 씻으러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총소리를 제압하듯 노래소리가 두무령을 진감시켰을 때 의식은 입귀로 담배연기를 푸실푸실 흘리며 천천히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어쨌든 전투원들의 사기는 고무되였으나 자기의 세련되지 못한 방법에 여전한 불만을 느끼는 의식은 좀더 능숙하게 사업할수는 없겠는가 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2시가 지나서 전사들은 건빵으로 점심요기를 하였다. 돌덩이처럼 짝짝한것을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면서도 총은 그러안고있어야 하였다.

공격해오는놈을 물리치면 인차 포사격이 시작되고 귀가 멍멍하도록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철갑모를 뒤집어쓰고 전호바닥이나 엄페호속에 엎드려있노라면 어느사이 구렝이같이 꿈틀거리며 적의 공격서렬이 삼두봉릉선에서 빠져나오는것이였다. 언제 참호수리를 할새도 없이 새 탄창을 갈아대고 수류탄을 쌓아놓아야 하였다.

의식은 점점 가렬해지는 전투를 몸으로 느끼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집요하게 머리속을 감돌았으나 총소리와 포소리와 참호안에까지 파고드는 탄알, 포탄 파편에 헛갈려 생각을 수습할수가 없었다.

마침 중대장이 전호로 나오는것이 보였다. 의식은 반가이 그리로 달려갔다.

《중대장동무, 나 좀 봅시다.》

두사람은 기관단총을 가슴앞에다 걸고 전호벽에 나란히 기대앉았다.

《무엇이 필요할가요? 이런 때?》

의식은 대우의 자그마한 눈매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세모진 작은 눈에는 지혜가 넘치고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부럽기도 하였다.

그는 대우가 평화시기부터 민청사업을 했다는것을 알고있었고 실지 중대에서 정치사업을 하는데도 그가 큰 기둥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있었다. 대우는 의식이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있던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자진하여 제기하였다. 아무개전사의 전투사적을 속보로 내는게 어떠냐, 선동원들에게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담화를 하도록 조직하는게 어떠냐, 심지어 벽보원고까지도 손수 청해서 보고 의견을 주었다.

의식은 자기가 정치사업을 해본 경험이 적은것만큼 대우에게 허심히 배우며 될수록 자기에게 그런 의견을 많이 제기해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마음속으로는 박대우같은 사람이 정치군관으로 사업하면 아무데도 막힐데가 없으리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는 역시 더할나위없이 훌륭한 군사지휘관이기도 하였다.

물론 의식이도 대우의 결함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결함쯤은 옆에 다소라도 철든 사람이 있기만 하면 문제도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대우는 의식의 질문을 받고 한참 생각하더니 무거운 어조로 말하였다.

《생각했던것보다 전투가 가렬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겁니다. 동무들의 힘을 더 북

돌아야겠습니다. 지금은 명령만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프랑카드같은데 구호를 써놓고 끝머리에 큼직하게 힘주는 표를 찍듯이 말하자면 그런것이 필요할것 같아요.》

대우는 히죽이 웃었다.

《감탄부호말이지요?》

《네, 그 감탄부호말입니다.》

의식이도 따라웃었다.

그렇게 앉았으면 서로 마음이 든든하고 편하였다. 대우는 이 소박한 인간—정치부중대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자신보다 더 믿었고 귀중히 여겼다. 그는 한점 흐린데가 없고 항상 갓난애와 같이 순진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앞에, 당과 조국 앞에 벌거숭이 아이처럼 자기의 가슴속을 속속들이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였다. 대우는 그러한 인간의 힘을 알고있었다. 그러기에 힘겨울 때나 괴로울 때나 머리속이 흐리터분할 때 그와 마주앉아있으면 량심의 거울을 들여다보는것 같아서 모든것이 선명하고 환해졌다. 비록 그가 실무적인 면에서 다소 서툴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였다. 중대의 모든 전사들이 한결같이 조선로동당원인 김의식을 믿었고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존중할줄 알았다. 그들은 김의식의 눈을 통해 당의 눈을 느꼈고 자기의 량심을 그 눈을 통해 검열받으려 하였다. 김의식의 우둥퉁하고 수북한 눈두덩밑에 빛나는 검은 눈—언제나 거짓을 모르는 잔잔한 눈은 비겁과 동요를 가장 혐오스러운것으로 생각하는 깨끗한 전사의 량심의 거울이였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것이였다.

잠시후 의식이가 무릎을 세우며 말하였다.

《이런 어려운 때야말로 당원들이 앞장에 서야지요. 우리 로동당원들이말입니다.》

《그렇지요?…》

대우는 무슨 소리냐는듯이 의식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합시다. 공개당세포회의를 소집합시다. 거기서 말하자면 우리 당원들이 두무령방어를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것을 토의합시다. 당원들이 일어설겁니다. 우리 당원들이 일어서면 문제없지요.》

의식은 열정적으로 속삭이듯이 말하였다. 그의 수북한 눈두덩밑에서 검은동자가 보석처럼 반짝이고있었다. 주근깨가 닥지닥지한 얼굴은 홍조에 묻혀서 애돼보이기까지 하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녁에 세포회의를 가집시다. 그러면 우리 두무령방어임무의 중대성을 더욱 철저히 인식시킬수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중대장감시소에 린접한 참호속에서 의식은 당회의를 준비하였다. 그는 언제나, 또 무슨 일을 해도 전사들과 함께 참호에서 살고 그들속에서 자기 사업을 발견하군 했지만 특히 이번 당회의 준비는 싸우는 전사들과 같이 있지 않고는 아무 생각도 떠오를것 같지를 못해서 일부러 참호로 나온것이였다.

적은 다섯번째 쫓겨갔으나 미구에 또 밀려오려는지 다시금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폭풍이 확 밀려와서는 군모를 종이쪽처럼 벗겨놓고 그우에 단내가 풍기는 돌가루와 흙먼지를 주르르 끼얹었다.

의식은 퉤퉤 침을 내뱉으며 펜으로 먹을 꾹꾹 찍어서는 16절 규격지에다 결정서초안을 한자한자 박아썼다. 전투가방에 매달린 페니실린병이 대롱대롱 흔들렸다.

한참후에야 모자가 없다는 생각이 나서 폭풍에 날아난 군모를 집어서는 먼지채로 아무렇게나 뒤통수에 올려놓고 입안의 소리로 이미 써놓은 대목을 웅얼웅얼 읽어보았다.

그는 이 결정서초안이 전체 당원들과 전투원들을 두무령방어에 영웅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격문이 돼야 한

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격동적인 표현과 선동적인 말을 될수록 많이 써넣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런 일에 능하지 못한 그는 몹시 끙끙거렸다. 그는 한글자, 한구절에 돌을 쪼아 새기듯이 힘과 정성을 들였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불을 뿜는 적진을 노려보며 자신의 가슴을 생생한 적개심으로 불태웠다. 그러면 꽤 괜찮은 말이 떠오르군하였다.

재개비가 흩날리고 천지는 요란한 음향속에 휩싸였다. 고지는 지진을 겪듯이 사뭇 흔들거렸다. 그러나 의식은 그런것에는 이미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먹즙을 꾹꾹 찍었다.

겨우 기본내용은 다 되였다. 날자를 적어넣으려던 의식은 문득 끝머리에 알맞는 구호 하나를 써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났다.

당회의 결정서라 하지만 이런 전투를 앞두고 하는 회의니만큼 무슨 구체적인 분공이 있는것도 아닌, 하나의 호소문과도 같은것이였다. 따라서 그끝에 그럴듯한 구호가 박히기만 하면 그거야말로 《힘주는 표》를 꾹 찍는것과 같은것이 아니겠는가.

적당한 구호를 만든다는것은 더욱 힘드는 일이였다. 귀에 익은 구호들을 이것저것 입안에서 웅얼거려보았으나 대개 추상적이고 실정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 바로 두무령에 딱 들어맞는 그런 구체적이고 생동한 구호가 필요하였다.

의식은 눈을 감고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고 적의 포사격은 갈수록 극성스러워졌다. 참호 한모서리가 허물어지고 땅밑이 후들후들 떨렸다.

쾅! 쾨르릉—불기둥이 삼단같이 중천으로 솟아올랐다. 태양은 자욱한 포연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의식은 온몸이 원쑤에 대한 증오로 불탔다. 선량한 그

의 가슴은 악착스러우리만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가득찼다. 그는 어금이를 소리가 나도록 앙다물고 결정서초안 쥔 손을 후들후들 떨었다.

바로 10여메터앞, 드물게 다복솔이 아직도 붙어있는 바위코숭이에서 번쩍하더니 다음순간 꽝—하는 요란한 음향과 함께 바위도 다복솔도 간곳이 없어졌다. 순간 의식은 옆참호들을 돌아보았다. 미군포병들이 의례 삼각형으로 사격한다는것을 아는 의식은 다음 락탄지점이 바로 이 참호 언저리가 될것이라고 직감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참호속의 전사들은 고개를 뽑아들고 적진을 노려보며 주먹을 휘두르고있었다.

《엎드렷!》

의식은 황급히 소리쳤다. 전사들이 엎드리는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의식은 흑— 하고 가슴에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 다음순간 불기둥과 함께 요란한 폭음이 참호를 휩쓸었으나 의식이는 이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가 전사들을 념려하고있던 바로 그 순간에 눈앞에서 터진 포탄파편이 그의 가슴을 뚫었던것이다.

전우들이 달려왔을 때 의식이는 앞으로 푹 꼬꾸라져있었다. 그의 등줄기에는 자욱히 흙먼지가 덮여있었다. 황급히 안아일으켰다.

군복앞자락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지피가 걷잡을새없이 솟구쳐올랐다. 손에는 결정서초안이 쥐여져있었다. 선지피는 어느덧 결정서초안을 붉게 물들였다.

대우가 달려왔을 때 의식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때는 이미 개인붕대로 상처를 덮었으나 워낙 험한 상처여서 소용이 없었다.

대우의 가슴에 비스듬히 기대인 의식은 붉게 물들은 결정서초안을 보이며 조용히 말하였다.

《…구호를 써넣으려다가… 그만… 못쓰고 죽나보오. …》

의식은 힘없이 눈을 감았다가 잠시후 도로 떴다. 그

러나 벌써 망막은 흐려들고있었다.
의식은 안깐힘을 썼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다시금 눈앞이 밝아졌다. 매부리같은 현무암이 보이고 그앞에 파아란 점이 반뜩거렸다. 눈에 더욱 힘을 주어 쏘아보니 그 파아란 점은 꼬아리였다. 의식이는 히죽이 웃었다.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가슴우에 바위가 실린것처럼 답답해지고 발버둥을 치고싶도록 초조해졌다. 살고싶었다. 무엇인가 자기 심중의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이미 맥은 진하였다. 죽더라도 로동당원답게 죽자. ㅡ 이 한가지만이 그에게 가능하였다.
의식은 마지막 피방울이 자기의 몸에서 새나가는것을 의식하면서 련대기앞에서 최후의 피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리라고 군인선서를 하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는 안정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전우들의 피가 스민… 이 고지를… 끝까지 지켜주시오. …》
의식은 눈을 감았다. 영영 감았다. 사지가 맥을 놓고 고개는 푹 처졌다. 이마에서부터 서서히 피기가 가셔가고 다닥다닥한 다정스러운 주근깨가 두드러졌다.
《부중대장동무ㅡ》
전우들의 목메인 소리가 터지도록 그의 생명을 붙들어두려 하였으나 의식의 눈은 다시는 떠지지 않았다.

×

기관단총으로 세발의 조총을 발사하였다. 인철이가 꺾어온 향나무삭정이로 포탄깍지에 향불을 피웠다.
최두령전사의 무덤옆에 일어선 소박한 분묘ㅡ김의식중위의 묘비앞에 두무령의 방어자들이 깊이 머리를 숙

였다.
하늘은 다시금 부옇게 흐리고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렸다. 축축히 젖어드는 군복으로 랭기가 배여들고 부실부실 내리는 비는 뼈속까지 파고드는듯하였다.
잠시 비가 멈칫하더니 선들선들하고 마가을같은 찬바람이 불었다.
울음을 참노라고 가슴을 파도같이 들먹거리며 서있던 정숙이는 대우와 나란히 앞에 서있는 작전참모 현종국이가 끅끅하고 목메인 소리를 내자 마침내 흐느껴버렸다. 잘 알지도 못하는 처지였으나 의식전사는 그의 가슴에 그토록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고이 잠들라, 용감한 전우여! 당과 조국과 수령을 위하여 그대가 흘린 붉은 피는 이 땅우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날것이다… 그대가 묻힌 이 두무령을 목숨으로써 사수하리라. …원쑤들을 남해에 쓸어넣고야말리라…
고이 잠들라, 친근한 우리의 전우, 자랑스러운 로동당의 전사여! 잠들라, 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을 바라보며 고이고이 잠들라!》
한성호가 구슬픈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었다. 월하봉릉선을 타고넘는 바람소리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람들의 가슴은 빽빽이 죄여들었다. 코를 마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러나 소리내여 쿨쩍거리는 사람은 정숙이밖에 없었다. 눈물이 보이지 않는 사내들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고이고있었다.
추도식이 끝났을 때 그자리에 앉아서 공개세포회의를 가졌다.
보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었다.
세포위원장인 3소대 부소대장이 병풍같이 적진으로부터 회의장을 막아선 현무암앞에 나가서서 의식이가 남기고 간 결정서초안을 들고 말하였다.

《당원동무들, 정치부중대장동무는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충직한 당원인 김의식동지는 당원들을 두무령방어에로 궐기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붉은 피로 이 결정서초안을 썼습니다.

동무들, 그는 숨을 거두면서 이 초안에다 구호를 써넣으려다 못쓰고 죽는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우들의 피가 스민 이 두무령을 끝까지 지켜주시오.〉 하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원동무들! 나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구호로 써넣고 그 구호를 받들고 오늘 세포회의를 진행하자는것을 총회앞에 제의합니다.》

묵묵한 가운데 잠시가 지나갔다.

토론이 시작되였다. 맨 선참 나선것은 봉선이였다. 그는 격동되는 감정으로 해서 몇마디 웨치고는 그만 억이 막혀 주먹을 쥐고 가슴을 두드리다가 앉고말았다. 뒤따라 일어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의 말마디가 비록 똑똑치 않고 북받치는 격정으로 하여 몸부림치기만 한다 해도 그것으로 의사표시는 되고도 남았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에 사로잡혀있었기때문이다.

불같은 분노와 보복의 결의가 피력되였다. 마지막으로 세포위원장이 다시 결정서초안을 들고 일어났다. 그는 벌써 결정서초안내용을 횅하니 따로외우고있었다.

《본 세포(공개)총회는 두무령방어임무를 당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정치부중대장 김의식동지의 보고를 청취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과 당중앙위원회는 우리 1중대 전체 당원들과 전투원들에게 적의 어떠한 발악적인 포격과 공격 앞에서도 련대의 총공격시간까지 두무령을 사수할 신성한 과업을 주었다. 이 영예롭고 신성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보장하기 위하여…》

의식이가 그처럼 힘들여 쓴 그 결정서초안은 특별히 화려한것도 선동적인것도 못되였다. 전투를 앞둔 당회의들에서 의례 랑독되군하는 틀에 박힌 문장과 어휘들이 적혀있을뿐이였다.

그러나 불빛에 비쳐 바람에 펄럭이는 결정서는 그 붉은 색으로 하여 당원들과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달아주었다.

《…우리뒤에는 물러설 한치의 땅도 없다. 조국앞에 충성을 맹세한 신성한 군기가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있다. 조국의 땅덩어리를 그러안고 죽을망정 이 고지우에 원쑤들을 올려놓지 않을것을 당과 수령 앞에 맹세한다.

전우들의 피가 스민 두무령을 사수하라!

1951년 5월 15일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제○○○군부대 제3대대 제1중대 제○차 세포(공개)총회》

초안랑독이 끝났을 때 많은 주먹이 결정서를 지지하여 한꺼번에 쳐들렸다.

선혈로 물들여진 결정서는 무쇠같은 주먹에 옹위되여 산정에 휘날렸다. 영웅적인 싸움에로 불러일으키는 노래와도 같이, 기발과도 같이…

4

바람이 불다가 비가 뿌리다가 또다시 바람이 불다가…

이렇게 밤이 깊었다.

대우는 경계초소들과 엄폐호들을 돌아보았다. 전사들은 비물이 흘러들어 질쩍질쩍한 엄폐호바닥에 그대로 쓰러져서 새우잠을 자고있었다. 그래도 코고는 소

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섯！ 누구야！》
보초들의 낮으나 힘찬 구령소리가 적막을 깨뜨렸다. 눅눅한 밤공기는 건질건질하도록 온몸에 휘감겨돌았다.
싸움이 지나간 뒤의 이 적막—
대우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어디선가 비린내가 풍기는듯하였고 금시 짐승같은것이 앞을 막아설것만 같은 스산한 밤이였다.
먼 하늘 변두리에서는 간단없이 폭격소리와 우뢰소리가 서로 뒤섞여 와르릉와르릉하였고 자욱하게 흐린 하늘을 가르며 섬광이 번쩍번쩍 뻗쳐올랐다. 그때마다 막막하게 덮인 구름의 어수선한 무늬와 산줄기의 륜곽이 국부조명을 받은 무대처럼 환하게 드러났다.
대우는 기관단총의 부혁을 단단히 틀어쥐고 바위틈사리를 조심조심 걸어나갔다.
련일 계속된 전투에 지쳐 비물고인 엄페호바닥에 마구 쓰러져 자는 전사들을 보니 차라리 두텁게 흐린 하늘이 고마왔다. 비행기도 그들의 잠을 방해하지 못할 날씨였다. 쪽잠이 든 전사들이 이 밤은 달콤한 고향 꿈을 꿀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대우는 쓸쓸히 웃었다.
박격포진지에 들렸다가 김의식의 묘지앞을 지났다.
대우는 마치 제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천연스럽게 그 앞에 가 앉았다.
권연을 꺼내 붙여물었다. 무심히 참나무로 깎아세운 표말을 쓰다듬어보았다.
(가버렸구나…)
종일 참고있던 눈물이 건잡을새 없이 눈두덩을 넘어왔다. 입안으로 흘러드는 찝찔한것을 꿀꺽 삼키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눅눅하고 묵직한 밤공기는 들여마실수록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는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입귀를 씰룩거리며 한숨처럼 중얼거

렸다.
《좋은 친구였어. …》
부옇게 흐리는 눈을 닦을념도 않고 새삼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려보았다. 바로 옆에 최두령전사의 무덤이 있고 그앞에는 꼬아리가 비를 맞아 한결 싱싱해져서 하늘거리고있었다.
…1차진격으로부터 락동강계선까지… 붉게 흐려 노호하던 물결이며 꺼멓게 피가 배여들던 남해가까운 고지의 전호며… 적후활동시기의 무릎까지 치는 눈무지, 회오리바람에 휘날리는 눈보라… 이런 장면들이 아무런 련관없이 단편적으로 떠올랐다.
…불타는 대전거리에서, 무너져앉은 한강다리에서 그리고 일시적전략적후퇴와 적후활동시기에 본 그 수많은 인민들의 재난과 원쑤들의 만행…
불길에 휩싸이는 용마루, 아우성치며 우는 어린것들, 그 가슴을 잡아누르는 터럭손과 귀축같은 징그러운 웃음…
산산쪼각이 나서 나뒹구는 손때묻은 질그릇과 항아리들, 거리에 벗겨져서 재개비를 쓰고 앉은 외짝 고무신…
대우는 담배를 빨았다. 빨고 또 빨았다. 목구멍이 알싸해지고 눈물에 젖어 담배불은 꾸물거리기만 하였다.
못피우게 된 담배를 획 뿌리고 벌떡 일어났다. 눈에서는 이슬을 뚫고 불빛이 번뜩이는상싶었다.
《이놈들, 잊지 않을테다. 영원히 새겨둘테다. 그리고 백배 천배 아름답게 우리 살림을 꾸려놓을테다.》
대우는 어둠속에 아련히 하늘거리는 꼬아리와 전우들의 무덤을 몇번이고 되돌아보면서 감시소로 돌아왔다.
정숙이가 무선을 받고있었다. 특무장은 기관단총소제를 하면서 힐끔힐끔 정숙이를 올려다보고있었다. 아마 통신을 받기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된 모양이였다.
종국이와 련락병은 포탄상자, 탄약상자 등속을 포개

놓고 그우에 모포와 비옷을 깔고 드러누워 잠들어있었다.
《중대장동무, 련대장동무가 보낸 무선입니다.》
정숙이는 변신한 글쪽지를 내보였다. 정황을 묻는것이였다. 대우는 적정과 전투경과를 보고하고 정치부중대장이 전사했다는것을 알렸다.
련대와의 통신이 끝나자 엄페호안은 조용해졌다. 특무장은 미구에 도착한 화식병들을 데리고 래일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떠났다. 엄페호를 나서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은근히 말하였다.
《정숙동무, 좀 눈을 붙이오.》
정숙이는 방그레 웃고는 고개를 돌렸다. 잘 익은 꽈아리같이 물기를 머금었던 입술에는 피기가 사라지고 해쓱해졌다. 채양 없는 군모밑으로 빠져나와 이마우에 드리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두어오리 나붓거렸다. 탄피 등잔불에 비치인 수심어린 얼굴은 퍽 숙성해보였고 지어 늙어보이기까지 하였다.
정숙이는 오늘 영 잠들지 못할것 같았다.
눅눅한 밤공기가 통풍구로 스며들었다. 막막한 어둠을 뚫고 섬광이 번쩍번쩍 솟아올랐다. 그리고는 와르릉와르릉하는 천둥소리— 어딘가 먼 후방에서는 호우가 쏟아지든지 아니면 대폭격을 겪고있는모양…
정숙이는 몰래 대우를 돌아보았다.
엄페호벽에 기대앉아 노트를 펼쳐든 대우는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었다. 먼지가 끼여서 꽛꽛해진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넓은 이마를 가리우고 입은 억세게 다물어져서 홀쭉하게 꺼져들어간 두볼이 아래로 잡아당기듯이 켕겨져있었다.
그는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정신없이 써내려갔다.
정숙이는 웬 일인지 그가 무엇을 쓰고있다는것을 예리한 륙감으로 잡아낼것만 같았다. 자기의 조그마한 가슴이 무너지고 터져나갈듯이 그들먹이 들어차는 생각— 조

국, 사랑, 전우 그리고 삶과 청춘, 바로 이러한것들에 대해 쓰고있으리라고 믿어졌다.

정숙이는 호― 하고 한숨을 지었다. 이때까지 입으로 수도 없이 말하고 생각도 해왔으나 딱히 손에 잡히지 않던 조국이며 사랑이며 전우며 하는 개념들이 자기 몸 어느곳에선가 유기체의 일부분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손가락은 또다시 부호를 치기 시작하였다.

두무령, 두무령, 두무령…

대우는 계속 전투일기를 썼다. 종이를 찌를듯이 연필끝은 억세게 글자를 새겨나갔다. 밀물처럼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적어보았다.

1951년 5월 15일

오늘 나의 한쪽 나래죽지는 부러졌다. 의식이는 원쑤의 흉탄에 쓰러졌다. …

…

사람의 한평생은 길어야 70―태고로부터 이 세상에는 무수한 생명이 태여났고, 살았고, 또 죽었다. 몇천년, 몇만년의 인류력사가 흐르는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태여났고 또 죽어갔을것인가. 그 많은 생명중에 한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며 몇만년 인류력사에 인간의 한평생이 무엇이랴.

부귀영화와 만능 권세는 진토에 묻히고 끝없는 공명과 탐욕은 망각의 바다로 흘러갔다.

그러나 인류는 자기의 참된 아들딸들을 기억한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진리를 위하여 참되게 살아온 진정한 영웅과 천재와 성실한 인민들을 인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비록 그 생애가 짧고 비록 그 이름이 소박했어도 그 생애는 너절한 생이 퇴적한 버럭더미우에 찬연히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

깨끗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우리 시대가 낳은 영원한 력사의 아들딸들인 항일유격대의 영웅들처럼 살자. 그들로부터 시대에 대한 책임을 넘겨받은 우리들이 아니냐. 김창걸, 한계렬, 강호영 영웅들은 인간의 참된 생애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주었다. 그들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벗들, 최두령, 김의식, 리경구동지들처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청춘을 초개처럼 던진 나의 모든 전우들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열렬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의 모든 생애가 그들의 생애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고 투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되고 열렬해야 한다.

력사의 아들딸들인 그들의 생애는 래일의것이다. 미래의것이다. 전 인류의것이다.

아름다운 인류의 미래와 위대한 인민의 위업속에 그들의 삶은 영원히 꽃필것이다. 살아있을것이다.

…

5. 사랑과 증오

1

이튿날의 전투는 전에없이 가렬하였다. 첫 돌격이 너무나 대규모적인데 당황해난 종국이는 당장 박격포를 전투에 인입할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대우는 적들의 총공격때 단꺼번에 포문을 열게 할 생각으로 꾹 참고있었으나 종국이는 추상같이 다그쳐댔다. 아닌게아니라 적정이 급하기도 하였다. 결국 박격포들이 사격을 개시하였다. 포탄은 놈들의 산병선에 불벼락을 안겨놓았다.

적의 공격은 그것으로 꺾어놓을수 있었다. 그러나 후과는 피로써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첫 공격이 격퇴당하자 놈들은 대규모적인 포사격을 시작하였다. 뒤따라 적후방에서 경폭격기편대가 날아왔다. 폭탄과 포탄이 두무령을 들이문다져놓았다. 고지는 불길에 휩싸이고 초연이 지척을 분간 못하게 피여올랐다. 고지는 완연 하나의 불도가니로 화하고말았다. 훅훅 숨이 막히도록 고지는 달아올랐다. 나무도 흙도 심지어 돌도 불탔다. 참호,화점,엄페호,포진지,돌바위,마사질수 있는것은 깡그리 다 마사졌다.

지구덩어리가 몽땅 터져나가는듯한 대폭음이 거대한 메아리를 일으키면서 순시도 쉬지 않고 노도와 같이 밀려가고 밀려왔다. 천지는 온통 그 파멸적인 흉흉하고 어마어마한 음향으로 충만되고 불길은 지심으로까지 뚫고들어갔다. 전쟁이 가지는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음향

과 열이 이 조그마한 두무령에 일거에 밀려든듯하였다.
　중대장감시소는 허물어지고 포탄파편에 무선기도 마사졌다. 엄폐호뒤에 묻어두었던 예비탄약도 포탄을 맞고 여러 상자 터졌다.
　포사격소리가 좀 뜸해졌을 때 무너진 감시소어귀에 엎드려있던 종국이는 교통호로 빠져나왔다.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은 그와 정숙이밖에 없었다. 감시소엄페호가 무너지고 무선기마저 파괴되자 대우를 비롯한 중대지휘부성원들은 총을 잡고 소대에 나갔다.
　정숙이가 산산쪼각으로 파괴되여 달아난 무선기의 잔해들을 미친사람처럼 주어모으고있었다.
　찢어진 군복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디에 긁혔는지 왼쪽볼에 피줄이 죽 그어진 먼지투성이 얼굴로 허둥지둥 건전지 부스레기며 코이루토막들을 후벼내고있는것이 꼭 실성한 사람 같았다.
　종국이는 장화를 벗어서 그속에 하나가득 들어찬 흙을 주르르 쏟아버리고 연신 퉤퉤 침을 내뱉었다. 입안에 들어간 먼지와 함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전투의 쓰라린 패배감을 내뱉어버리고싶었다. 찝찔하고 알싸한 입안에는 수치감과 분노가 뭉친듯이 걸직한 침이 괴였다.
　종국이는 발싸개로 장화를 닦아신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것이 저로서도 화가 났다.
　처참한 싸움터를 돌아보았다. 어마어마한 페허가 예리한 창끝처럼 새삼스럽게 가슴을 찔렀다. 그의 커다란 눈에도 놀라움과 공포의 그림자가 여름밤의 황혼처럼 갑작스레 펴져갔다.
　《개새끼들！》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 욕설이 적에게 향한것인지, 박대우에게 향한것인지 아니면 이 끔찍한 결과를 직접 초래케 한 자신의 망발에 향한것인지 그것은 종국이자신에게도 똑똑치 않았다.
　두무령으로 넘어올 때부터 그림자처럼 머리에서 떠

나지 않던 무시무시한 예감이 이렇게도 급속히 현실로 되고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의 리성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종국이는 자기의 정확한 예감에 스스로 놀랍고 스스로 화가 났다.
 《개새끼!》 그는 다시한번 중얼거렸다. 머리는 주눅이 들어 혼란상태에 빠졌다. 벌써 두무령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것인가 하는 생각은 머리속에 떠오르지도 않았다.
 3소대 참호쪽에서 대우가 무엇인가 황급히 련락병에게 지시를 주고있는것이 보였다.
 《이제 5분내로! 알겠소?》
 련락병이 화살과 같이 달려나갔다.
 대우는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벌떡 일어났다. 종국이를 보자 급히 다가왔다.
 《그러지않아도 만나려던 참입니다. 사태가 급합니다. 전호수리도 할새가 없습니다. 비상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종국이는 대우의 흥분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그가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수 없었다. 이 마당에 그의 요구에 응할만한 그 무엇이 자기에게 남아있단말인가? 종국이는 지금 자기 머리가 텅 비여있다는것을 통절하게 느꼈다.
 《소대장들을 불렀습니다. 결사전에로 준비시켜야겠습니다.》
 《…》
 종국이는 묵묵히 고개를 떨구어버렸다. 고지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이때 다소라도 사태를 호전시킬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전사들의 몸에 잠재해있는 초인간적인 용감성과 희생성뿐이다. 그것을 불러일으킬수 있는것 역시 지휘관의 초인간적인 의지로써만 가능하다. 그런데 종국이자신에게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이윽고 소대장들과 박격포중대장 그리고 세포위원장이 거의 동시에 숨을 헐썩거리며 달려왔다.

대우는 그들을 둘러앉힌 다음 침착하게 말하였다.

《긴 이야기 할사이 없소. 적은 벌써 밀려들고있소. 두무령을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이번 공격을 물리치는가 못물리치는가에 달렸소. 우리는 전호수리도 못한채 싸워야 하오. 박격포도 중기도 대부분 마사지고 탄알상자도 포탄에 맞았소. 그러니 별수 없소. 적을 바싹 접근시킵시다. 100메터 이내로… 중대 일제사격은 나의 구령하에서만 해야 하오. 그리고는 육박전으로 넘어가야겠소. 동무들, 전사들을 결사전에로 준비시켜야겠소. …》

대우는 새롭게 설정한 구분대들의 경계와 방위목표를 대주고 인차 행동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런지 10분도 못지나 벌써 적들이 고지턱밑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고지는 숨소리 하나 없이 괴괴해있었다. 이번 대폭격과 포격에 정말 두무령의 인민군대가 전부 죽었다고 적들이 충분히 오해할수 있을만큼 고지는 기척없이 누워있었다.

적들은 무시무시한 고지의 정적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한편 그 어떤 기대에 사로잡혀 무엇에 끌리듯이 바득바득 기여올라왔다. 기연가미연가 하는 미타한 시선으로 앞뒤와 옆을 자주 돌아보며 어찌다 동료들보다 한걸음이라도 앞서면 용수철에 튕긴듯이 흠칠 물러서군하면서 그 늘씬한 허리를 엉거주춤하니 구부리고 건정건정 기여올랐다. 제1참호가 있는 지점까지 불과 200메터… 150메터… 100메터…

곽홍규는 사지가 와들와들 떨려났다. 수많은 격전을 치러왔고 두무령에서만도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이렇게 많은 적들을 이렇게 바투 접근시킨 전투

는 여직 없었다.

4렬 혹은 5렬로 산개해서 꽥꽥거리며 우르르 밀려드는 적들을 볼 때 삽시에 고지가 그놈들의 아가리에 삼켜져버리는것만 같은 환각이 일어나 눈앞이 아찔아찔하였다. 어느새 이마에서는 지렁이같은 식은땀이 수십줄기로 흘러내려 허물어진 참호의 흉장이며 어깨우에 뚝뚝 떨어졌다. 적들은 그래도 다가오기만 하였다. 80메터… 70메터… 껑충한 양키들의 형상이 마치 앞발을 쳐들고 벌떡 일어선 노한 호마만큼씩 어마어마하게 보였다.

사지가 떨리다 못해 총신이 후들후들 하였고 총구가 돌부스레기를 긁어댔다.

순간, 바로 지척에서인듯 중대장이 뚜루룩— 기관단총을 휘두르는것과 동시에 《중대 일제 쏘앗!》하고 힘찬 구령을 내렸다.

분노를 참고 또 참던 모든 총구에서 보복의 불줄기가 쏟아져나갔다. 살아남은 중기를 비롯하여 경기, 기관단총, 보총이 한꺼번에 화끈 달아올랐다.

이 불의의 일제사격에 질겁한 적의 산병선은 그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삑 돌따서서 내빼다가 꽁무니에 한대 얻어맞고 넘어지는놈, 기겁을 해서 고지로 미끄럼을 타며 굴러떨어지는놈, 바위짬을 엉금엉금 기는놈… 그런놈의 대부분이 몇걸음 움직이지도 못하고 《으악!》하는 야수적인 단말마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넘어졌다.

그러나 적들도 만만치 않았다. 불의의 타격에 질겁했던 한동안이 지나자 도로 산병선을 벌리고 불질을 해댔다. 수량상 엄청나게 우세한 적들이라 화력의 위력이 비교가 안되였다. 게다가 바투 접근한 근거리사격이기때문에 서로 희생이 많지 않을수 없었다.

홍규는 정신없이 쏘았다. 방아쇠를 마구 당기다가 절꺽 하고 격발기실에서 격침이 헛방을 치는 소리를 내

서야 얼뜬 알쌈을 갈아끼우고 다시 쏘았다.
《홍규동무！ 골을 쳐들어！》
옆에서 벼락같은 소리가 들렸다. 흠칠하여 돌아보니 바로 옆전호에 중대장 대우가 엎드린채 추상같이 엄한 눈매로 쏘아보고있었다. 그제야 자기가 골을 못쳐들고 마구 방아쇠를 당겼다는것을 깨달았다. 멍청해서 중대장을 바라보고있는데 또다시 벼락이 떨어졌다.
《앞을 보라구, 적을 똑똑히 보라구, 수류탄을 던져！》
홍규는 버쩍 정신을 차렸다. 눈확에 힘을 주고 쏘아보니 코앞에서 경기를 든놈을 중심으로 대여섯놈이 몰려오고있었다.
등줄기로 서늘한것이 흘러내리는것을 느끼며 얼른 수류탄을 던졌다. 그런데 웬일인지 수류탄은 튀지 않았다.
《빌어먹을！ 신관도 뽑지 않구…》
대우가 이렇게 웨치는것과 동시에 번쩍 몸을 솟구쳤다. 다음순간 집채같은 불길이 치솟았다. 짜르릉！ 코앞에 밀려들던놈들은 흔적도 없이 날아나고말았다.
《정신을 채려！ 떨떨해있다간 적탄이 찾아와！》
이런 소리를 남기고 대우는 또 어디론지 교통호를 기여갔다.
홍규는 그만 골이 띵해져서 처참한 전장을 살펴보았다. 적아의 거리는 더욱 박근되였다. 총소리, 총소리, 총소리…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아우성소리, 신음소리, 욕설소리… 홍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출수가 없어 쩔쩔맸다. 눈앞에서 희뜩희뜩하는것이 모두 적들이고 모두 적의 총구로만 생각되였다.
바로 이때 《중대 돌격 준비！》하는 힘찬 구령이 울려왔다. 홍규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세우고 총창을 꽂아 비껴들었다. 뒤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앞으로！》 하는 웨침과 함께 박대우가 총창을 휘두르며 앞으로 내달았다. 그러자 온 산이 뒤흔들리듯 《만세！》

소리를 지르며 전우들이 질풍과 같이 내달았다.

《만ㅡ세ㅡ》

《마ㅡㄴㅡ세ㅡ》

총창을 비껴들고 노도와 같이 내리쏟히는 영웅들의 반돌격에 적들은 넋을 잃고 풀떡풀떡 일어섰다.

사방에서 창격전이 벌어졌다.

홍규는 한걸음 뒤늦었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것을 깨닫고 내달았다. 마침 어느 바위틈에서 비루먹은 말새끼처럼 버쩍 마르고 군모도 못쓴 초라한놈이 엠완총을 겨누어들고 삐여져나왔다. 순간 홍규는 자기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그놈이 자기를 쏜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앞으로 나가넘어지듯이 몸을 뻗으며 총창을 힘껏 내질렀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놈은 고목처럼 나가넘어졌다. 그러나 언제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갈 경황도 없었다. 가슴에는 《내가 이겼다！》하는 쾌감이 꽉 차올랐다. 이때 봉선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의 앞을 가로질러 가더니 총탁판을 높이 쳐들고 힘껏 내리쳤다. 타다남은 다복솔그루터기옆에서 한놈이 홍규의 가슴을 겨누고있었던것을 홍규자신은 몰랐던것이다.

홍규는 사방에서 번쩍번쩍 날창을 휘두르는 동무들을 보았다. 저아래서 소대장 한성호가 표범처럼 날랜 동작으로 적들을 찔러눕히고있었다. 그의 옆으로 양키들이 쓸어들고있었다.

《아！ 개새끼들！》

홍규는 정신없이 《만세ㅡ》하고 웨치며 그리로 달려갔다. 되는대로 찌르고 치고 쓸어눕혔다. 어느사이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였다. 눈은 화경처럼 황황 불타올랐다. 원쑤를 찾아 내달리고 또 내달렸다.

…적이 너저분한 시체를 남기고 패주했을 때 전사들은 긴장이 풀려 그자리에 풀썩풀썩 쓰러져 앉아버렸다.

어떻게 전투가 시작되고 어떻게 전투가 끝났는지 알수 없었다.

중대의 손실은 파괴된 박격포와 중기와 무너진 방어시설만이 아니였다. 가장 뼈아픈 희생은 이번 전투에서 중대의 성원이 절반이나 줄었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였다.

아무데나 퍼더앉은 전사들을 돌아본 대우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섰더니 준엄한 표정이 되여 고개를 쳐들었다.

《누가 휴식하라고 했소? 30분내로 전호수리를 끝낼것！ 소대장동무들, 알아들었는가？》

《들었습니다.》

소대장들은 자신들도 어지간히 지쳐있었던만큼 심드렁하게 받았다. 그 맥없는 대답소리를 듣자 대우는 또다시 불쾌한 목소리로 버럭 소리쳤다.

《이건 뭣들인가？ 사민들같군, 젠장… 좋소, 30분내로 전호수리를 끝내지 못한 소대는 군사규률이 어떤것인지 개별적으로 가르쳐주겠소.》

그리고는 육박전때 빼앗은 피묻은 엠완총을 내려다보더니 침을 퉤－ 뱉으며 원쑤들의 시체우에 휙 내던져버렸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뻗치고있던 성호는 처음에는 중대장의 처사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다음순간 머리를 높이 쳐들고 걸어가는 그 중대장이 자기보다 더 지쳤으면 지쳤지 결코 헐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짐작하였으며 그가 무엇때문에 그처럼 강하게 요구를 제기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중대장의 추상같이 엄격한 눈길속에서 값싼 동정심따위는 비할수도 없이 웅숭깊은 지휘관의 참된 사랑을 감득하였다. 그는 힘찬 목소리로 자기 대원들에게 말하였다.

《즉시 전호수리에 착수할것！》

…30분후에 전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되였다. 전사들은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서 파김치처럼 녹초가 돼버렸다.

대우는 소대장들의 보고를 받으며 깊숙이 파진 전호들을 돌아보았으나 눈은 자꾸 허공으로 돌려지군하였다.

(자네들은 나를 원망할테지,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깊이 파야만 이 조국의 땅덩어리가 자네들 목숨을 지켜준다네. 내가 자네들을 동정하는 날이면 우리는 마지막이야. 놈들은 동정심이란 조금도 없는놈들이니까…)

대우는 이런 생각을 하며 전우들에게 더욱 엄격해지려 하였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강한 요구성과 엄격한 규률과 팽배된 긴장만이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승리자의 영예를 획득하게 할것이라고 자기를 타이르고 약해지려는 마음을 부추겼다. 그는 엄격한 표정으로 매 전호를 돌아보고 시간을 꼼꼼히 따졌다.

방어선을 다 돌아보고 두무령정점으로 돌아오니 최두령전사의 무덤앞에서 특무장 김인철이와 한성호 그리고 봉선이가 무슨 작업을 하고있었다. 그들은 방금까지의 전호작업에서 지칠대로 지쳐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대우는 말없이 걸음을 다우쳤다.

폭격에 꼬아리가 뿌리채 파 뒤집혀진것이였다. 다행히 상한데는 없으나 겨우 뿌리를 박았던 꼬아리는 허양 흙무지속에 나뒹굴고 바로 그옆에 손바닥만한 폭탄파편이 세개나 박혀있었다.

《개같은자식들! 그래 죽을줄 알았지? 어림도 없어! 개자식들!》

인철이는 연방 욕설을 퍼부어대며 바위구뎅이에다 흙을 펀펀히 옮겨놓고있었다.

대우는 폭격과 포격에 한절반 얼이 나가고 육박전에

서 다시 피투성이 되고 그우에 전호작업때문에 전신이 불타고 매닥질이 된 전우들의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보며 눈물이 나오도록 기쁘고 장한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참된 인간의 마음과 힘과 아름다움을 거기서 보는듯하였다.

대우는 말없이 엄페호로 돌아와서 야전밥통을 들고 두무렁뒤골짜기에 있는 박우물로 갔다. 물을 길어가지고 정점에 올라갔을 때 꼬아리는 다 심어져있었다. 물을 주었다. 그리고 네 전우는 꼬아리앞에 앉아 (살아남으라, 살아남으라.) 하는 간절한 념원을 마음속에서 외우며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

세번째 공격은 저녁때가 다 되여 시작되였다. 공격은 역시 대규모적이였으나 웬일인지 회수는 줄어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섯차례, 일곱차례 밀려오던것이 갑자기 세번으로 줄어든것이다. 수상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전투가 끝나자 곧 련락병을 련대로 올려보냈다. 무선이 파괴된것은 여간 큰 타격이 아니였다. 급한 정황속에서 련대의 목소리마저 듣지 못한다는것은 캄캄칠야에 등불을 꺼뜨린것과도 같았다.

적이 무슨 꿍꿍이를 하는지 조바심이 났다.

대우는 웨더마이어의 매부리코와 훌렁 벗어진 이마를 무심히 종이우에 그려놓고 그놈의 골속을 꿰뚫어보기라도 할것처럼 쏘아보았다.

단념한것인가? 아니다. 그럴수는 없다. 이놈이 필경 새로운 흉책을 꾸미고있는것이 분명하다.…

대우는 뾰족하게 깎은 연필끝으로 도적쾡이같은 눈깔을 그려넣었다. 그러고보니 상상으로 그린 만화지만

제법 그럴듯하였다. 그것이 더 화가 났다. 대우는 연필끝으로 그 눈깔을 쿡쿡 찔렀다.
《더러운놈, 남의 땅에 와서…》
마침내 결이 뻗쳐오른 그는 보기만 해도 밸이 동하는 그 대머리와 매부리코를 열십자로 벅 그어버렸다. 그러고도 성이 풀리지 않아서 종이를 꼬깃꼬깃 구겨서 갈가리 찢어버렸다.
늦은 봄날의 황혼이 서서히 밀려들었다. 황혼과 함께 재빛구름이 하늘을 가리웠다.
천장이 달아난 감시소안은 휑뎅그레하였다.
정숙이가 마사진 무선기를 주어모아놓고 시름없이 들여다보고있었다.
대우는 그것을 보니 또 짜증이 났다.
《동무, 그거 치워버리오.》
《네?》
정숙이는 놀라서 커다래진 눈으로 뒤돌아보았다.
겁에 질린듯한 처녀의 축축히 젖은 눈을 보자 대우는 소리를 지른것이 언짢아져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잠시후 입을 열었다.
《동무는 련대로 돌아가오.》
《네?》
정숙이는 또다시 놀란 소리를 지르며 이번에는 벌떡 일어나기까지 하였다.
《이제는 뭘 하겠소? 무선기가 저 모양이 됐으니… 돌아가오. 차라리 가서 중대의 형편을 동무 입으로 보고하오.》
대우는 외면한채 급한 고개길을 걷듯이 숨을 헐씩거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싫어요. 전 못가겠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하게 울렸던지 대우는 어리둥절해서 돌아보았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대우는 거기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두개의 불덩어리를 보는것 같았다.

《여기는 위험하오. …》

대우는 그 시선을 도저히 당하지 못하리라는것을 생각하면서 힘없이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금 외면해버렸다.

《저도 알아요.》

정숙이는 대우가 고개를 돌려버리자 웬일인지 울컥 하고 슬픔이 북받쳐 저도 고개를 떨구며 속삭이듯 말하였다.

《괜히 고집부리지 마오.》

《아니예요. 저도 여기 남아 싸우겠어요.》

대우는 힐끔 정숙이를 돌아보았다. 가슴이 뿌듯하였다. 그 글썽글썽한 눈물속에 황황히 빛나는 맑고 고운 두눈은 얼마나 많은것을 말해주고있는가.

대우는 대답을 잊어버리고 성난 사람처럼 급한 걸음걸이로 감시소를 나가버렸다.

정숙이는 대우가 나가자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난것처럼 두다리의 맥이 쭉 빠지는것을 느끼며 그자리에 꼬꾸라지듯이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그러나 다시는 가라는 소리를 못하겠지 하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몰랐다.

흥겨운 생각이 든 정숙이는 마사진 전건을 두드려보았다.

모란봉, 모란봉, 나는 진달래, 모란봉, 모란봉, 나는 진달래…

중대장이 나간지 얼마 안있어 한성호가 들어왔다.

《중대장동무 나갔소?》

《네, 방금…》

정숙이는 어리둥절해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성호의 깨끗하던 얼굴은 초연으로 엉망이 돼있었다. 군복옆구리가 한일자로 쭉 찢어지고 저고리단추가 두

개나 떨어져나갔다.
기워줄가 하는 생각이 났으나 쑥스러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긴 이 싸움판에 그럴 겨를이 있기나 한가.
《탄약이 부족하오. 특무장동무는 어디 갔소?》
성호는 초조한 기색으로 감시소안을 살펴보았다.
《특무장동무도 걱정을 하면서 나갔어요. 아마 탄약구하러 나갔을거예요.》
《젠장, 그건 미리 내줄것이지 쌓아두었다가 다 터뜨리다니…》
성호는 화가 나서 두덜거리더니 찌그러진 쪽걸상우에 털썩 걸터앉았다. 그는 담배를 붙여물고 빽빽 빨다가 입을 열었다.
《정숙동무는 어떻게 할 작정이요? 래일 하루를 더 견뎌야 하오. 그냥 있으라오? 중대장동무가…》
《가라구 해요. 그래도 난 안가겠어요.》
《아니 그건 왜?》
성호는 펄쩍 뛰다싶이 물었다.
《난 갈수 없어요. 동무들이 싸우는것을 보고 갈수는 없어요.》
성호의 눈에는 감출수 없는 기쁨과 긍지가 환히 떠올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성호는 감동으로 해서 사뭇 숨이 차오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기쁨은 서서히 근심으로 바뀌여졌다.
이윽고 성호의 맑은 눈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리워지고 나중에는 얼굴마저 흐려졌다.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열에 뜬것처럼 말하였다.
《안되오. 가야 하오. 두무령은 래일 운명적인 전투를 겪게 되오. 떠나야 하오. 떠나오. 두말 말고 떠나오.》
정숙이는 조용히 듣고있었다. 자기가 이 고지에 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다는것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기도 하였다. 한참후에 나지막하게, 그

러나 두부모를 자르듯이 또박또박 말하였다.
《나는 갈수 없어요.》
그 말소리는 자로 그은듯이 선명하고 꿋꿋하였다.
성호는 그 목소리에서 자기가 생각하고있는 그런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큰 사랑의 힘이 정숙이를 사로잡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 엄숙하고 감동적인 사랑이 이 경우 두사람의 운명에 끼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무서운 예감이 엄습해왔다. 그러나 성호는 정숙이의 결심을 아무도, 심지어 명령으로써도 움직이지 못하리라는것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그는 힘없이 감시소를 나갔다.
포사격에 탄약함을 떼운 특무장은 성이 나서 펄펄 뛰며 돌아가더니 해질무렵 전사들을 데리고 분지로 내려갔다.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그들은 적의 시체들을 뒤져서 엠완보총과 미식경기 등을 한짐씩 메고 미국제 탄알을 배낭에 가득가득 주어모아가지고 올라왔다.
그즈음 감시소에서는 어깨에 심한 부상을 당한 작전참모와 대우가 마주앉고있었다.
종국이는 오늘 마지막 전투때 직접 총을 잡고 전호에 나섰었다. 실은 두번째 전투때 그 치렬한 육박전을 목격하자 뗑했던 그의 머리엔 걷잡을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어났었다. 두무령방어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라든가 불안 같은것은 차후 문제요, 우선 눈앞에 피를 보고 날치는 승냥이보다 더 잔악한 원쑤가 있었고 그 원쑤를 앙가슴으로 맞받아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전사들이 있었다. 자그마한 의견차이나 어떤 개인적감정따위와는 비교도 안될 크나큰 공민의 의무감이 온몸을 휘여잡았을 때 종국이는 저도 모르는사이 그 격렬한 싸움판으로 뛰여들었던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앙가슴을 맞대고 싸운 그 판에서는 손톱자리 하나 나지 않았었는데 세번째 전투때 서뿔리 전호에서 몸을 솟구었다

가 그만 류탄이 쇄골밑을 꿰고 어깨박죽뒤로 빠져나갔다. 개인붕대로 간단히 처치를 하고는 전투중 내내 참호에서 전국을 살피다가 방금전에 위생지도원의 부축을 받아 감시소로 돌아온것이였다.

그는 힘에 겨운듯 귀틀벽에 기대앉아 대우의 엉망이 된 얼굴을 힐끗힐끗 올려다보며 뜨직뜨직 입을 열었다.

《중대장동무, 나는 이이상 동무와 론쟁을 하고싶지 않소. 그러나 나는 두무령이 래일까지 견디여내리라고 믿기가 곤난하오. 우리는 오늘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소. …》

대우는 침울한 눈매로 엄폐호밖 피비린내 풍기는 고지를 내다보더니 역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만합니다. 힘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령은 하나— 련대의 총공격때까지 두무령을 견지해야지요.》

《증원병력 없이?》

《련대도 아마 곤난할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떼줄 병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주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동무 생각을 리해할수가 없소. … 어떻게 돼먹은 사람이요?》

종국이는 중얼거리듯 이렇게 말끝을 흐리마리하더니 눈을 감아버렸다.

《몹시 힘듭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제 부상병들 후송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가시지요.》

《뭐요?》

종국이는 번쩍 눈을 떴다. 대우의 련민이 가득찬 선량한 눈매를 보자 다시 힘없이 스르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내 걱정은 마오. 나는 안갈테요. 고지를 견지할 궁리나 하오. 그러나 용감성만으로 고지가 견지되겠소?…》

무거운 침묵이 좁은 엄폐호를 하나가득 채웠다. 말없이 서로 마주앉아있는 두사람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불

심지처럼 바직바직 끓어올랐다. 종국이에게는 이제 경쟁심 같은것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다만 이 힘겨운 싸움판에 놀라운 힘으로 뻗치고 선 강한 의지의 소유자인 한 청년에게 허심하게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두무령방어에 대한 불안은 의연 누를길이 없었다. 믿고싶은 마음과 믿을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한데 엉켜 어깨의 상처보다도 더 사람을 볶았다.

대우 역시 종국이와 같은 불안이 없는것이 아니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종국이보다 더한 불안이 가슴을 허비고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참모장이나 작전참모가 처음부터 주장하던것이 옳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머리를 쳐들었다. 눈앞에서 포와 중기가 무참히 마사지고 참호가 무너지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던 전사들이 죽어갈 때 그의 이런 불안은 모래밭에 번지는 밀물처럼 삽시에 온몸을 사로잡는것이였다. 더구나 오늘의 희생은 예상도 못했으리만큼 컸다.

(과연 용감성만으로 고지를 견지할수 있단말인가?)

그럴수는 없다. 만일 필요하다면 내 가슴으로 두무령을 덮기라도 하리라. 그러나 그것으로 두무령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지는 못할것이 아닌가?

대우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둘렀다. 그리고 주먹을 틀어쥐였다.

아니다, 지켜야 한다. 그것은 명령이다. 방법은? 그것은 다음 문제다. 나에게 신심을 달라, 어떤 위협앞에서도 동요를 모르는 신심을 달라, 그러면 방법은 그속에서 스스로 태여날것이다. …

대우는 홱 머리를 내젓고 다시금 고지를 둘러보고 적진을 노려보았다.

이때 출입구앞에 한 전사가 나타났다.

《들어갈만 합니까?》

그는 곽홍규였다.

《들어오시오.》
그러나 대우의 목소리가 너무나 침울했기때문인지 홍규는 잠시동안 어설핀 동작으로 쭈밋거린 연후에야 엄페호안에 들어섰다.
《중대장동무, 제2소대 1분대 전사 곽홍규, 당신의 명령대로 왔습니다.》
《좋소, 거기 어디 앉소.》
대우는 골몰했던 생각을 털어버리고 급히 담배를 붙여물었다.
눈을 감고 자는듯이 앉아있던 종국이가 언뜻 눈을 떴으나 인차 아무것도 못본척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구레나룻이 꺼칠하게 좋아진 홍규는 작달막하나 살이 뚱실뚱실한 몸집을 주체하기 거북한듯 엄페호안을 두리번거리며 선채로 대우의 눈치를 살폈다.
대우는 시름없이 담배연기를 내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불렀는지 알겠소?》
《압니다.》
홍규는 그만 가련한 형상이 되여 고개를 떨구고 어린애처럼 발끝으로 엄페호바닥을 후볐다.
《안다니 좋소. 그래 생각해봤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도 뭔지 똑똑하지 않습니다.》
홍규는 한숨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내 생각에는 동무에게 증오가 부족한것 같소. 미국놈에 대한 증오말이요.》
《내가요?》
홍규는 감전된것처럼 흠칠하더니 대우의 눈을 면바로 바라보았다. 대우는 눈에 힘을 주었다. 한참이나 그렇게 바라보던 홍규는 이윽고 힘없이 눈길을 떨구었다. 그것을 본 대우는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원쑤를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골을 쓸어

박고 총질을 하는것을 나는 보지를 못했소. 적을 참말 미워한다면 어떻게 탄알을 공중에 날려보내겠소?》

그래도 홍규는 말이 없더니 잠시후에 안깐힘을 쓰듯이 힘들게 입을 열고 뜨직뜨직 말하기 시작하였다.

《비겁한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속담에 패장은 유구무언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나는 미국놈은 미워합니다. 나는 미국놈은 미워해요. 내가 처음 중대장동무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달밖에 안되는 피덩어리 같은 내 아들놈을 발로 밟아죽이는것을 내 이 눈으로 봤습니다요. 내가 그놈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니… 그건 너무합니다. 나는 그놈들을 미워해요. …》

대우는 숨을 씩씩거리는 홍규의 얼굴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담배연기를 슬슬 입귀로 흘렸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겨울 소백산부근에서 처음 홍규를 만나던 기억이 떠올랐다. 홍규는 그때 홑바지저고리를 입고 혼자 산속을 헤매고있었는데 마침 대우네 대렬과 맞다들린것이였다. 그의 말과 같이 작년 9월 불의에 홍규네 고향마을에 기여든 미국놈들은 그전부터 주구노릇을 하던 구장놈을 앞세우고 《빨갱이》들을 잡으러 나섰다. 홍규는 고향이 해방되자 새로 조직된 리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준비때문에 분주히 돌아갔었는데 전국의 급속한 변화를 미처 모르고있다가 불시에 들이닥친 미국놈들을 보자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놈들이 그의 집에 기여들었을 때는 마침 홍규는 몸을 피하였고 집에는 다섯달짜리 둘째아들이 재워논채로 잠자고있었다. 안해는 맏이를 업고 밖에 나간 뒤였다. 귀축같은놈들은 피덩어리나 다름없는 젖먹이를 군화발로 밟아 뭉개놓았다. 홍규는 그길로 일시적전략적후퇴의 길을 떠났다. 한하늘을 이고 살지 못할 원쑤를 똑똑히 보았으며 길은 오직 하나, 그놈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것을 사무치도록 깨달았다.

사실 그러한 홍규가 미국놈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대우는 담배를 방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끈 다음 조용히 말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때 없이 엄숙하게 울렸다.
《알만하오. 우는 소리 그만 하오. 그러나 그런 심정만으로 어떻게 원쑤를 진실로 미워한다고 할수 있겠소? 그리고 죽은 아이나 고향에 남아있는 아주머니와 아이를 참되게 사랑한다고 믿을수가 있겠소?》
깊이 고개를 떨구고있던 홍규는 소스라치듯 머리를 쳐들더니 파고들듯이 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물론 용감성의 밑바닥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적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것이요. 그런데 어째서 나라도 사랑하고 적도 미워할줄 아는 동무가 용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행동하는가?》
《중대장동무, 나도 답답합니다. 나도 나자신이 미워요. 왜 그렇습니까? 중대장동무, 그것을 대주십시오.》
홍규는 애원하듯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때 지그시 눈을 감고있던 종국이가 눈을 떴다. 그는 아픔으로 해서 정기가 풀어진 눈에 한가닥 호기심을 띠우고 대우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내 생각에는 동무가 적들을 미워한다면서도 그놈들을 무서워하는것 같소. 그렇지 않소? 동무는 광복직후부터 그놈들의 총과 자동차와 비행기와 그리고 그 너절한 쵸콜레트와 양담배를 수없이 보아왔을것이요. 그때문에 그만 주눅이 들어버린게 아니요?》
《네?》
홍규는 흠칠하여 소리치며 다급히 부정하려 하다가 그만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잠시후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바로 그거요. 그 생각을 뿌리빼야 하오. 그 하잘것없는 너절한놈들이 무슨 힘이 있겠소? 오늘 동무는 총창으로 그놈들을 찔러보았지? 그건 별게 아니라 비계덩어리에 불과하오. 날창으로 찌르면 푹 하고 들어가고 짚단처럼 쓰러지는 그깐놈들이 무슨 〈세계 최강〉이란말이요. 그건 다 허튼 나발이요. 그대신 우리 힘을 믿소. 자신과 자기 인민의 힘을 믿으란말이요. 자기 인민의 힘이 강대하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단말이요? 그것은 다 속빈 소리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소. 그러나 자기 조국의 힘을 볼줄 모르는자는 벌써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것이요. 조국의 힘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따위들이 조국을 위해서 뭘하겠소? 그래 조국을 〈동정〉할테란말이요? 홍규동무, 우리 힘을 믿소. 우리는 꼭 승리할것이요. 우리는 이 두무령을 영예롭게 고수할뿐아니라 놈들을 종국적으로 소멸할것이요.》
대우의 말은 벌써 홍규 한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였다. 그것은 우선 걷잡을수 없는 불안속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였고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을 다소라도 에누리하려는 온갖 경향에 대한 타협없는 투쟁의 선포이기도 하였다.
실상 그의 말은 홍규 한사람에게만 아니라 못듣는체하고 앉아있는 종국이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어쩐지 종국이에게는 자신과 대우의 견해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있는가 하는것이 희미하게나마 알려지는듯도 하였다.
잠시 묵묵히 서있던 홍규가 번쩍 고개를 쳐들고 결연한 태도로 말하였다.
《들었습니다. 중대장동무, 다시는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좋소. 사실은 홍규동무는 이미 육박전에서 용감하게 싸웠소. 그렇지만 자기 병집을 똑똑히 모르면 또 그 병이 도질수도 있기때문에 부른거요. 돌아가도 좋소.》

《돌아가겠습니다.》

《잠간… 동무 그 꼴이 뭐요? 수염을 깎으시오.》

《들었습니다.》

홍규는 밤송이 같은 구레나룻을 매만지더니 열적게 웃었다. 그리고는 힘차게 경례를 붙이고나서 규정대로 삑 돌아 정보로 엄폐호를 걸어나갔다.

홍규와 엇바뀌여 위생지도원이 들어왔다. 부상병을 후송할 준비가 다 됐다는것을 보고하였다.

대우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몇동무나 되오?》

《모두 12명입니다. 중한 동무는 두동무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제발로 걸을수 있는 동무들입니다.》

나이 어린 위생지도원은 야무진 소리로 대답하였다.

《좋소. 곧 떠나시오. 고개를 넘을 때 조심해야 하오. 담가를 앞세우고 가는것이 좋겠소.》

《들었습니다.》

위생지도원은 이렇게 대답은 해놓고 잠시 머뭇거리며 대우의 눈치를 슬슬 살폈다. 무엇인가 묻는듯한 표정이다.

대우는 그제야 그저께 그가 가져다주던 혜경의 편지생각이 났다. 지금도 그렇지만 편지를 받았을 당시도 경황이 없어 대충 훑어보고말았었다. 그런데 어제밤 일기를 쓰고나서 이 생각 저 생각 더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자 처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뜻이 숨어있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사실 대우는 포사격구역에서 약간의 언쟁을 한것을 확대해서 상부에 보고했다는것으로 혜경에게 좋지 않

은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그런 녀자가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니 다시 들여다볼 생각이 움츠러들었으나 다른 한편 야릇한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여 다시 구절구절을 따지며 읽어보았었다.

《…중대장동무의 건강은 우리모두에게 귀중하다는것을 항상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우는 몇번이고 되읽은 이러한 구절이 지금도 인상에 강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눈앞에 혜경이의 희고 맑은 두볼이며 오똑한 코, 검은 눈, 칠칠 땋아늘인 머리와 단정한 위생복의 균형잡힌 몸매가 떠올라서는 《나는 그런 녀자가 아니예요. 그것은 오해예요.》하고 절절하게 호소하는것만 같았다.

이런 생각은 몹시 기분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대우는 한껏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면서 《까짓것 그랬대야 뭐래나? 사실이 그랬는데…》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편지의 그 구절에서 《우리모두》라는 복수를 《나》라는 단수로 고쳐버렸으면 아주 썩 좋을것 같았다.

대우는 우선우선하며 벌떡 일어났다.

《어디 가보기요.》

위생지도원의 어깨를 툭 치고 엄폐호밖으로 나온 대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열적어하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 편지말이지… 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몸성히 잘 있다고 그렇게 그 동무에게 말하오…》

《들었습니다, 중대장동무！》

2

마지막 격전의 날은 밝았다.

아침부터 하늘은 두텁게 흐렸다. 무수한 물방울이 배회하듯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였다.

그렇거나 말거나 놈들은 포사격을 들이댔다.

전사들은 침착하게 적의 공격을 기다렸다. 밤새 분조회의들을 가지고, 선동원들이 담화를 하고 그리고 모든 전사들이 목숨으로써 두무령을 고수할것을 다시한번 맹세하였다. 적의 포사격이 아무리 어마어마한것이라 해도 벌써 전사들을 놀래울수는 없었다.

포연은 무거운 대기에 눌린듯 천천히 고지우를 감돌더니 그자리에서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러자 또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눈앞에 벌어졌다.

삼두봉으로부터 풀려나온 적의 산병선이 점차 접근해옴에 따라 그것이 이 전선에서 이미 낯익은 깜둥이도 양키도 아닌 《국군》이라는것이 알려졌다. 이 근방에 《국군》부대는 처음 나타나는것이다.

대우가 말리는것도 물리치고 두텁게 붕대를 한 팔을 어깨에 달아맨채 1소대참호에 나와있던 종국이는 삼두봉에 새로운 보충병력이 도착했다는것을 알자 이를 갈며 신경질적으로 부르짖었다.

《쏴! 쏴! 개새끼들 쏴!》

…두시간여에 걸치는 격전끝에 원쑤들은 쫓겨갔다. 또다시 스산한 바람과 초연과 재개비와 허탈에 가까운 피로…

대우는 화끈 달아오른 기관단총의 격발기를 얼른 닦아놓고 껄껄한 볼을 매만졌다. 광대뼈가 손에 잡혔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털어버리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나 신경은 곤두서서 자꾸 한가지 생각을 다몰아왔다.

(이놈들이 눈치를 챈게 틀림없다. 그래서 총공격계획을 버리고 새 부대들을 끌어들인게다.)

마침내 이런 생각이 다른 모든 생각을 누르고 그의 중추를 틀어쥐여버렸다.

어제부터 공격의 회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대신 정찰전이나 단순한 신경전으로는 믿기 어려울정도로 대규모적이고 집요한 공격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국군》부대가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 모든것은 틀림없이 웨더마이어란놈이 련대의 작전을 눈치채고 거기에 대처하여 딴 흉계를 꾸미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 아닌가?

련대작전의 파탄, 두무령방어의 붕괴…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이 박쥐의 그림자처럼 얼씬얼씬 머리속을 지나갔다.

대우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련대의 소식이 몹시도 궁금하였으나 무선은 파괴된채로 있고 웬일인지 간밤에 보낸 련락병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혹시 잘못되지나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로 식은땀이 흘렀다.

대우는 초연과 먼지때문에 수세미처럼 엉클어지고 꽛꽛해진 머리카락을 쥐여뜯듯이 벅벅 긁었다.

이때 탄알을 얻으러 나갔던 특무장 김인철이가 《국군》장교 한놈을 앞세우고 엄페호로 들어왔다.

《들어 갓!》하는 호통소리에 고개를 든 대우는 너무나 뜻밖의 일에 멍청해서 포로와 특무장을 바라보았다.

포로는 잠바같이 생긴 풀색군복을 입고 흰 뼁끼로 백골을 그린 미국제철갑모를 쓰고있었다. 어깨박죽에 꺼멓게 피가 내배였다.

대우는 그놈을 얼핏 보는 순간 흠칠 놀랐다.
희고 길쭉한 얼굴과 뾰족한 턱, 이마우에 드리운 노리께한 머리가 지주의 아들 김희연이와 너무도 비슷하였다.
대우는 무엇에 내질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는 얼른 바른손을 권총집에 가져갔다.
포로는 겁에 질린 퀭한 눈알을 정신나간놈처럼 디룩거리다가 대우의 무서운 형상을 보자 《악－》하고 질겁한 소리를 지르며 번쩍 손을 쳐들었다.
그제사 찬찬히 보니 무척 닮기는 했어도 김희연이는 아니였다. 대우는 슬그머니 권총집에서 손을 뗐다.
《어떻게 잡았소?》
도로 자리에 앉은 대우는 평소의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 한대 맞고 기절했던 모양입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멀쩡한놈이 〈이놈들아, 상관을 버리고 간단말인가!〉하고 넉두리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개자식, 상관 행세하는걸 좀 볼라구 끌고왔지요.》
대우는 살아있는 원쑤를 보니 불같은것이 가슴을 치밀었으나 저놈의 입을 벌리게 하면 혹 웨더마이어의 꿍꿍이속을 알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슴을 진정시키며 짐짓 심드렁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까짓건 끌고와서 뭘해? 밥축만 낼걸…》
《하긴 그렇기도 해요. 그렇다고 내버려둘수도 없고… 난처한데요. 도루 끌구갈가요?》
《아니, 잠간 있소.》
대우는 그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신통히도 김희연이를 닮았다. 퀭한 눈은 공포에 질려있고 얄팍한 입술은 학질앓는놈처럼 와들와들 떨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놈의 눈길은 미친사람처럼 확

퍼져서 자리를 못잡고 허둥거렸다. 눈섭은 푸들푸들 떨고 미간엔 살기가 어렸으며 입귀는 광란적으로 사납게 이지러졌다.
원쑤의 포악하고 비인간적인 상통이 더구나 김희연이를 닮은것으로 하여 대우의 증오를 참을수없이 촉발시켰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누르며 물었다.
《당신 고향이 어디요?》
물어놓고보니 하필 고향은 왜 물었는가싶었다.
괴뢰군장교는 대우의 얼굴을 보자 교활하고 사나운 표정이 되더니 별안간 발악적으로 접어들었다.
《날 죽이간? 죽여봐라!》
포로는 서북사투리로 뚱딴지같은 소리를 빽빽 질러댔다.
대우의 머리에는 확― 하고 피가 몰려들었다.
이때 마침 종국이가 들어왔다. 그는 출혈이 심했던데다 전투에서 오는 피로와 흥분때문에 얼굴이 양초같이 하얗게 질려있었다.
그는 특무장에게서 포로를 잡아온 경위를 묻더니 조급한 투로 심문을 시작하였다.
종국이는 탄약함을 일으켜세워놓고 쓰러지듯이 걸터앉으며 물었다.
《당신 직무가 뭐요?》
포로는 종국이의 견장과 해쓱해진 그의 얼굴이며 부상자국을 보더니 조소를 머금고 대답하였다.
《중대장이요.》
《부대는 언제 이리로 왔소? 당신네 부대는 어떤 명령을 받았소?》
《그건 난 모르오.》
포로는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뭐야!》

포로의 태도는 가뜩이나 흥분해있는 종국이의 신경을 아프도록 자극하였다. 그는 격분을 새기려고 숨을 헐썩거리며 입을 열었다.
《모르는가? 말하지 않겠단말인가?》
포로는 입을 씰룩거리며 마주 바라볼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말해!》
마침내 분통이 터진 종국이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순간 포로는 발작을 일으키고말았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포로는 미친듯이 악을 썼다. 그러지않아도 성이 머리끝까지 뻗쳤던 종국이는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말하지 않을테냐!》
그는 당장 요정을 낼듯이 주먹을 후들후들 떨었다.
그러자 포로는 엄살을 피우노라고 제풀에 픽 모자로 쓰러지면서 악을 썼다. 그바람에 백골이 그려진 철갑모가 땅바닥에 굴러났다.
《죽여라! 죽여라!》
종국이는 성을 새기지 못해 펄펄 날뛰였다.
《개새끼들! 그릴게 없어서 하필 백골을 그려! 이 인백정같은놈들!》
잠시 이를 갈며 숨을 몰아쉬고있던 대우가 가만 보아하니 잘못하다가는 종국이가 정말 포로에게 손을 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종국의 귀에 대고 말하였다.
《내가 심문해보겠습니다.》
《응?》
분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작전참모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우를 바라보았다.
대우는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로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 언제 삼두봉에 왔소?》

포로는 악이 나서 엄페호바닥에 뒹굴며 그냥 엄살을 피웠다.
《아이쿠— 난 죽는다, 아이쿠—》
《흥, 장교라는게 너절한 작자로군…》
대우는 조소를 던지며 담배를 붙여물었다.
《뭐야?》
포로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노르끼레한 머리카락을 산산이 헝클어뜨리고 승냥이처럼 이를 와득와득 갈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국군장교다. 몸은 죽어도 화랑뎡신은 강산에 필것이다.》
《그 장한걸. 어디 〈화랑뎡신〉이 피는것을 좀 볼가…》
대우는 슬그머니 권총집에 손을 갖다댔다. 그러자 그놈은 삽시에 《으악》 하고 소리치며 벌렁 나자빠졌다.
《어제 왔소, 어제. 직무는 평남 농강이요. …》
《정말이냐?》
《아니 그저께요. 정말이요. 그저께 왔소. 고향은 중대장이요.》
포로는 벌벌 떨며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흥, 〈화랑도〉가 훌륭하군. …》
대우는 쓰겁게 웃으며 손을 내리우고말았다. 그는 지금 포로가 극도의 공포로 해서 발광지경에 있다는것을 깨닫고 당장 심문할것을 단념하였다.
이때 종국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상처에서 오는 아픔을 참노라고 오만상을 찌프리고 목에 걸리는 쇠소리로 웨쳤다.
《흥! 어제요 그저께요 하면서 허튼소리만 치고있소. 특무장동무, 이놈을 끌고가기요. 인민군대가 점잖다니까 숙맥인줄 아는군?》
종국이는 이때 정말 포로를 혼을 내줄 생각이 났다.

그토록 그의 온몸에서는 증오가 끓어올랐다.
대우가 기겁해서 그앞을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참모동무, 참으십시오. 심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포로를 끌고나가는 특무장에게 급히 눈짓을 해서 내보냈다.
포로가 나가자 종국이는 엄폐호바닥에 픽 쓰러지고 말았다.
《아, 참모동무!》
대우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일으켰을 때 상처를 동여맨, 꺼멓게 피가 말라붙은 붕대우에 다시금 붉은피가 스며나오고있었다. 종국이는 신음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끙끙 안깐힘을 쓰고있었다.
《작전참모동무, 안되겠습니다. 이제 곧 후송돼야겠습니다.》
종국이는 아무말없이 눈을 감고 안깐힘을 썼다.
《간밤에 경한 동무들과 함께 갔어야 할걸… 여보, 거기 누가 없소? 위생지도원동무 부르오!》
그러자 종국이가 힘없이 손을 내저었다.
《아무도 부르지 마오. 내 혼자 가겠소. 가겠소…》
대우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괴로와하는 상관을 도와줄지 몰라 그저 쩔쩔매기만 하였다. 잠시후 종국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입술은 파랗게 피기를 잃고 볼따귀살이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키고있었다.
《중대장동무…》
종국이는 대우의 무릎을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힘껏 싸워주오. 저녁까지만 견지하오.》
《들었습니다.》
대우는 종국이의 절절한 부탁의 말을 듣자 가슴이 찡해졌다. 그는 종국이의 몸을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해

주려고 뒤로 부축해안았다.

《내가 련대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증강병력을 보내도록 제의해보겠소. 그때까지만 견지하오. …》

《…》

《나는 동무들의 용감성을 조금도 의심치 않소. 나하고 의견차이가 있었던것은 잊어주오. 그러나 사실 적은 너무나 우세하오. 내 심정도 리해해주오. …》

대우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거듭 침묵을 지켰다. 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는것은 아니였으나 후송돼가야 하는 그에게 힘이 들다고 맞장구를 칠수는 없었고 실상 힘들기는 하나 전쟁을 하는데 편안할수야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런 대우의 내속을 눈치챘는지 종국이도 입을 다물었다.

잠시후 그는 잊어버렸던 생각을 찾아내여 불쑥 입을 열었다.

《그놈 악질이요. 만일의 경우에는 조심하도록 하오. 그놈의 입에서는 기대할게 없소. 개같은자식들! 잘못하다간 고지가 위험할 때 동무들골통을 뒤에서 깔게요.》

《알겠습니다. 념려 말고 가십시오.》

대우가 위생지도원을 부르려 하였으나 종국이는 한사코 말리더니 기관단총에 의지해서 일어났다.

《고지에 사람이 모자라는데 한사람이라도 떼내서는 안되오. 내 걱정은 말고 부디 고지를 견지해주오.》

종국이는 대우의 손을 아귀차게 틀어쥐더니 거듭 부탁의 말을 되풀이하면서 홀로 월하봉을 넘어갔다.

3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나는 모란봉, 나는 모란봉, 진달래, 진달래…》

무선수는 끊임없이 박대우중대를 부르고있으나 어제부터 전파는 어느 허공을 헤매는지 반응이 없었다. 목구멍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고자리처럼 초조감이 가슴을 파먹었다. 그래도 무선수들은 번갈아대면서 검질기게 전건을 두드리고있었다.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나는모란봉, 나는모란봉…》

강표는 뒤짐을 지고 무겁게 감시소안을 거닐고있었다.

부석부석해진 눈두덩에는 피로가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서리고 넓은 이마에는 정맥이 손가락같이 두드러져 올랐다.

뚜벅, 뚜벅, 뚜벅… 침울한 발걸음소리가 조용한 엄폐호벽을 울리고 다시 심장에 와 부딪쳤다.

강표의 반석과 같은 체구는 더욱 무거워진듯하였고 꾹 다물어진 입은 빗장을 질러놓은것 같았다.

그는 모포로 간사이를 막은 통신실로 들어가서 전화수에게 일렀다.

《포병장을 찾소.》

전화수는 곧 레시바를 바로잡고 파수를 돌렸다.

《16번, 16번… 16번 동무십니까? 3번 동무의 전화입니다.》

송수화기를 받아쥔 강표는 무겁게 말하였다.

《포병장동무요? 나 3번이요. 포탄운반이 끝났소? 좋소. 사격준비가 완료되면 곧 나에게로 오시오.》

자기자리로 돌아온 강표는 감시창으로 멀리 월하분

지를 내다보았다.

820고지의 북쪽 릉선,빽빽한 송림속에 자리잡은 강표의 감시소에서는 삼두봉 우익과 두무령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이른아침부터 불바다속에 잠겼던 두무령은 포연이 엷어지자 막막하게 서린 초연의 안개속에 고도와 같이 솟아올랐다. 어제부터 상상할수 없으리만큼 치렬하던 적의 포사격과 폭격을 회상하자 벌써 그곳에 어떤 생명이 살아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어찌하여 적들은 저 죽음의 고도와 같은 조그마한 고지에 마음놓고 오르지 못하는가? 마음놓고 오르기는커녕 범접하기만 하면 마치 거대한 주먹에 내질린것처럼 산산쪼각이 나서 흩어지고 종당에는 허겁지겁 꽁무니를 사리고 내빼는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저 무인도같은 고지에 아직도 죽음을 타승한 우리 전사들이 살아있단말인가?

강표는 천천히 쌍안경을 눈에 가져갔다.

숭숭한 포탄구뎅이와 엉망으로 헤집어놓은 바위덩어리가 보일뿐 그리고 흩날리는 재개비와 안개처럼 산허리를 감도는 초연이 보일뿐 아무것도 시야에 들어오는것은 없었다.

강표는 힘없이 쌍안경을 내렸다.

출입문이 열리고 조심스러운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강표는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구본수임을 알수 있었다.

참모장은 유난히 두드러지는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강표곁으로 다가왔다.

강표는 감시창에 붙어선채 물었다.

《2대대는 출발진지를 차지했습니까?》

《네…》

구본수는 나지막하게 대답하였다.

강표는 다시 물었다.

《정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요?》
《네… 아마…》
구본수는 차마 말을 맺을수가 없었다. 맺지 못한 그 말끝을 강표가 받아 맺었다.
《잘못될수도 있지요. 웨더마이어라구 가만있겠소. …》
이야기의 실머리는 끊어지고 감시소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선에 깃들인 때아닌 정적이 위압하듯 온 방안을 지지눌렀다. 폭풍전야의 정적과도 같은 이런 기괴한 정적은 어제부터 한동안씩 계속되군하였다. 그에 따라서 감시소안도 가끔 이런 무거운 침묵속에 잠기군하였다.
통신실에서는 전건을 두드려대는 소리가 그냥 울려왔다.
…진달래, 진달래, 나는 모란봉, 나는 모란봉…
구본수는 몇번인가 조심스럽게 련대장의 기색을 살피다가 끝내 참을수가 없어 한발 앞으로 나섰다.
《련대장동무,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적이 몹시 두렵습니다.》
강표는 천천히 참모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때 구본수의 무표정하던 얼굴에는 전에없이 붉은 기운이 피여올랐다. 그런데 마치 그에게 자기의 온갖 다양하고 풍부하던 표정을 양보해주기나 한것처럼 강표의 얼굴은 무표정하였다.
구본수는 련대장의 그런 얼굴을 대하기가 민망스러웠으나 용기를 내여 말을 이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가요? 어제부터 놈들의 공격은 대규모적이고 그대신 공격회수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그것은 정찰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놈들의 작전이 변경되였다고 보는것이 옳지 않을가요?》
《그럴수도 있지요. …》

강표는 무뚝뚝하게 한마디 하고는 계속 구본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꼭 그럴것입니다. 그놈들의 정찰도 활동하고있습니다. 놈들은 우리 작전을 간파한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을 포기하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두무령을 공격하기 시작한것입니다. 어제 포사격을 보십시오. 그것은 정찰전이나 신경전으로 볼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강표는 심중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가끔 참모장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하듯이 감시창으로 두무령과 삼두봉을 바라보군하였다.

《련대장동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송돼온 부상병들의 말을 들으면 어제 두무령의 박격포는 몽땅 파괴된것이 틀림없습니다. 부상병들의 말이라 좀 산만하지만 희생자도 상당히 많은것으로 추측되고 무선도 파괴된것이라고 짐작됩니다. …》

《너무 일렀어. 더 좀 기다렸어야 할걸…》

강표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것은 박격포를 전투에 인입한것이 너무 일렀다는 말이였다.

구본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써도 련대장의 관심이 지금 자기가 제기하려는 문제에 있는것이 아니라 전혀 딴데—즉 이미 수립된 작전계획의 수행에 있다는것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그를 설복하고야말 일념으로 가득찬 본수는 검질기게 입을 열었다.

《련대장동무, 더는 기다릴것이 없습니다. 사태는 명백합니다. 얼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대책이라니？…》

강표는 놀란듯이 이렇게 되물었다. 그는 정말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구본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꼭 필요합니다. 한시라도 늦으면 두무령은 돌파당

합니다. 우선 한개 대대와 한개 포병 중대를 두무령으로 돌리도록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수는 두손을 맞잡고 애원하듯이 강표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한개 대대?… 나는 리해할수 없소. 무엇때문에 그것이 필요한지… 그것은 우리의 타격력량을 절반이나 줄인다는것을 의미하오. 무엇때문에 그놈들에게 그런 선심을 베풀어야 하겠소?》
강표는 덤덤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말하고는 또다시 감시창으로 눈을 가져갔다.
그래도 구본수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련대장동무, 웨더마이어의 생각이 달라진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두무령에 기대를 건다는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돌파당할것입니다. 련대장동무, 돌파당할것입니다.》
강표는 홱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번쩍거렸다. 마침내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돌파당하지 않소. 거기엔 영웅들이 있소!》
잠시후 강표는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었다.
《정찰을 다시 조직하시오. 어떻게 하든지 웨더마이어의 기도를 알아오게 하오. 총공격은 래일 오전 일곱시—그때까지 웨더마이어 참모부의 기도를 명백히 장악해야겠소. 중요한 대책은 이것이요. 나는 이것을 요구하오.》
《들었습니다.》
구본수는 힘없이 대답하였다.
강표는 선고라도 내리듯이 그렇게 말하고는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이때 갑자기 두무령을 사격하는 적의 포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강표는 이미 돌아도 보지 않았다.

구본수는 한참이나 두무령에 솟구쳐오르는 불기둥을 바라보며 그 불기둥이 마치 자기 가슴속에서 솟아나는듯한 환상에 사로잡혀 그만 눈을 감고말았다. 그러는데 강표의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모장동무, 우리 지휘관들이 자기 전사들을 믿지 못할 때, 그때야말로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는것이요. 당신이 두무령의 전사들을 믿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 전사들은 희생될수도 있고 돌파당할수도 있소. 반대로 지휘관이 끝없는 신임을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굳세게 살아남을것이며 명령을 완수할것이요. 나는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10여년동안 싸우는 과정에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였소.》

강표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어떻게 들으면 혼자말같이 낮고 부드러웠으나 웬일인지 본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것은 아마도 강표의 부드러운 말이 실은 본수의 머리를 하나가득 채우고있는 그 절박하고 긴장된 생각의 중심을 사정없이 찔렀기때문인지 모른다.

본수는 불의에 된매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다가 강표의 독촉하는듯한 기침소리가 울리는바람에 소스라쳐 통신실로 가서 정찰참모를 찾았다. …

작전참모 현종국대위가 두무령의 절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들어선것은 그로부터 10분도 못되여서였다.

×

종국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련대장 련락병의 부축을 받아서 감시소를 나왔다.

련대장의 뚫어질듯이 들여다보던 그 엄한 눈을 회상하자 가슴이 서늘해졌다. 발밑에 밟히는 대지가 어쩐지 살얼음판을 건너는것처럼 미덥지를 못하였다.

그가 피투성이 된 몸으로 감시소에 들어섰을 때 련대장은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듯이 반가와했었다. 손수 부축해서 걸상에 앉히고 상처를 들여다보며 혀를 차군 하였다.

그런데 종국이가 두무령의 형편을 보고하기 시작하자 점차 련대장의 표정은 굳어져갔다. 타격정도와 손실로 보아 오늘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말을 했을 때는 말한마디 없어졌다. 새로운 《국군》부대가 전투에 인입됐다는것을 말했을 때도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포로를 잡았다는 말의 허두를 떼자 련대장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놈은 어디 있소?》

《네? 저 포로말입니까?》

종국이는 당황하여 필요이상 큰소리로 반문하였다.

《끌고왔소?》

《아닙니다. 별로 쓸모가…》

련대장은 다우쳤다.

《어디 있소?》

《저 두무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종국이는 련대장의 질문에 위압이 되여 꺼져들어가는듯한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하였다. 자기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군사정보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못한것이 생각되자 목덜미까지 서늘해졌다.

《두무령에?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그럼 동무는 군의소에 가지 않고 뭣하러 왔소?》

련대장의 목소리는 준엄하였다. 참모장마저 당황하여 자기를 위해 무엇인가 발명해나서려는 눈치였으나 련대장은 한팔로 참모장을 제지하고 말했었다.

《두무령을 믿지 말라는것을 나에게 권고하러 왔단 말이요?》

이리하여 종국이는 증원병력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비

치지도 못하고말았다. 그러나 차마 그대로 발길을 돌릴수 없어 상처의 아픔도 잊고 한참이나 송구스럽게 앉아있었다.
련대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일어서더니 방안을 거닐면서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장교를 잡아오려고 어제 세명의 정찰병이 적후에 들어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있소. 필경 잘못됐을게요. 오늘 또 세동무가 들어갔소. 보매 당신은 신경이 병적으로 날카로와졌소. 언젠가 참모장동무는 나에게 말하기를 전쟁에서 무서운것은 희생이 아니라 신경쇠약에 걸리는것이라 하였소. 확실히 위험한 징조요. 군의소에 가서 상처도 치료받겠지만 진정제를 좀 달래서 먹고 푹 쉴 필요가 있소.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보시오. 련락병동무, 작전참모동무를 모시고 군의소로 가오. 조심해서…》
종국이가 감시소를 나오려 할 때 련대장은 즉시 정찰병을 두무령에 보내여 포로를 끌고오도록 하라고 참모장에게 일렀다.
종국이는 련대장이 하던 말들을 회상하면서 다리를 기계적으로 놀렸다. 련락병이 이끄는대로 허둥지둥 낯설은 숲속길을 걸었다. 서늘한 바람이 화끈 단 머리를 식혀주었다. 가슴에도 청신한 공기가 들어찼다. 점차 흐리터분하던 머리속이 훤히 밝아지는듯도 하였다. 문득 종국이는 남의 일처럼 허심하게 생각해보는것이였다.
(신경쇠약이라… 전쟁에서 무서운것은 희생이 아니라 신경쇠약이란말이지… 그럴듯해…)
혜경이를 만나 치료를 받으면서 종국이는 두무령의 가렬처절한 싸움과 그속에서 불사조처럼 싸우는 전사들의 이야기를 속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열정으로써 전달하여 마침내 혜경의 눈에 이슬이 맺히도록 하고말았다.
이야기가 진하였을 때 진정제를 청했다. 출혈이 심

했을뿐이지 상처는 대수롭지 않은것이였다. 2～3일 경과하면 능히 전투에 참가할수 있다는 말을 들은 종국이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서 브롬카리를 먹고 푹 잤다.

4

전선에 어둠이 깃들었다. 어둠은 삽시에 처참한 싸움터를 검은 장막으로 덮어버렸다. 대우의 가슴에는 밀물처럼 초조감이 밀려들었다.

세번째 공격을 치르고났을 때 중대에 남은것은 2문의 박격포와 2정의 중기 그리고 포를 망가먹고 보병참호로 내려온 포병들까지 합쳐야 한개 소대가 되나마나한 인원과 그들의 저격무기뿐이였다.

그러나 정작 대우를 괴롭히는것은 다른 문제였다.

련대의 총공격은 래일 이른아침이다. 그런데 그 시각에 적들이 총공격을 하지 않고 만약에 완강한 방어선을 펴놓고있다면… 더 나쁜 경우에는 면바로 820고지를 포로 갈길수도 있지 않는가?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생짜로 두개 련대가 들어배겨있는데 새로운 《국군》부대까지 합세하였으니 한개 련대의 병력으로 공격해서 소기의 결과를 가져오기는 곤난할것이다. 뿐만아니라 아주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련대는 치명적인 반타격을 받을것이고 두무령은 어차피 돌파당하여 적이 기도하는대로 현리계선으로 진출할것이다. 련합부대의 작전은 배후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을것이다.…

대우는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감았다. 머리는 무거운 생각에 지지눌리다 못해 마침내 천쪼각 만쪼각으로 터져나가는듯하였다.

작전참모가 갔으니 련대장이 모든것을 옳게 결심하고 명령할것이라고 위안을 해보았다. 사실 그러한 련대장이 실수할수야 없지 않은가.

그런데 혹시 작전참모가 사태를 그릇 반영했다면?… 그는 처음부터 두무령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가 련대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할지 어떻게 알랴. 첩경 두무령은 돌파당할 위험에 놓여있으며 련대의 기동은 무의미하고 지어 위험하다고 주장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련대가 공격계획을 포기하게라도 된다면… 그러면 이 두무령을 물들인 전우들의 피는 헛된것이 아닌가. 두무령으로 말하면 그들의 그 애국의 넋으로 하여 이처럼 견지하였으며 또 앞으로 견지할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련대가 서둘러 공격을 개시해서 실패한다면 사태는 더욱 나빠질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그야말로 만일에 두무령이 돌파라도 당하는 날이면 여기에 묻힌 전우들의 넋은 어떻게 될것인가?

또 자기자신은 어떻게 될것인가? 물론 그때는 살아있지도 않을것이지만 사람들은 박대우를 얼마나 경박하고 믿을수 없는 인간으로 치부할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그 개인의 문제는 의지와는 관계없이 괴로움을 갑절 더하게 하고 가슴을 지지눌렀다.

어느덧 그 생각은 모든 생각을 한곬으로 몰아넣었다.

그렇다. 영예는 죽음으로써도 지켜내지 못한다. 오직 혁명과 조국에 고귀한 기여를 했을 때만 영예는 쟁취되는것이다. 혁명과 조국에 해를 입히고 백번 죽은들 개죽음을 면치 못할것이다.

대우는 자기가 놓인 너무나 기막힌 립장을 생각하자 몸서리가 쳐졌다. 목숨을 내걸고도 혁명과 조국에 심대한 손실을 줄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바로 눈앞에 닥친

것이다.

혁명, 조국—생각하면 그것처럼 그에게 소중한것이 있었던가? 그의 모든 희망과 사고, 모든 행동이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것이 있었던가? 그는 자신이 조국을 사랑한다는것을 한번도 의식하지 못했으리만큼 그렇게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두무령의 전투여하에 따라서 자기공명때문에 조국의 리익을 배반한 더러운 인간이라는 락인이 찍힐지도 모른다.

죽음—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가장 두려운것이다. 죽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할 일이 많았으며 죽기에는 너무나 청춘이 아까왔다. 불타는 정열과 사랑에 대한 갈망, 끝없이 나래치는 아름다운 꿈은 삶을, 기쁨으로 충만된 삶을 검질기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민의 위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귀중한 목숨이라도 서슴없이 바칠것이다. 다만 죽어도 영광스러운 죽음, 빛나는 죽음을! 《혁명에 손실을 준자》로는 살수도 없었고 더구나 죽을수도 없었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김희연이의 해사한 얼굴이 떠올랐다. 싸늘하고 이지러진 미소… 모든 복잡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매듭에는 항상 그놈이 감겨돌기 마련이였다. 증오와 멸시에 찬 얼굴을 눈앞에 그리자 스스로 주먹이 쥐여졌으며 사지가 분노로 해서 떨려왔다.

시간은 쉼없이 흘렀다. 어느덧 보름 가까운 달이 중천에 높이 떠서 스산하게 파헤쳐진 고지를 내려다보았다.

커다란 집게로 꽉 물고 사정없이 조이듯이 대우의 가슴은 초조감과 불안에 볶였다. 그의 온몸은 아버지와 누이의 목을 눌러죽였으며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것들에게 참혹한 재난을 강요하고 자기를 이런 모욕과 정신적고통의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로 활활 불타올랐다.

대우는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벌떡 일어났다.

《용서하지 않을테다. 이놈들!》

그는 한달음에 두무령정점을 넘어 포로가 있는 포탄상자께로 갔다.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간다는것도 의식하지 못한채 걸었다. 그는 지금 온몸을 사로잡고있는 극도에 이른 증오심을 그냥은 묵새길 길이 도저히 없었다.

포로는 122미리 박격포탄 상자에 등을 붙이고 앉아있었다. 멀찌감치서 포중대 감시병이 그놈을 지켜보고있었다.

포로는 가슴에 대가리를 쓸어박고 죽은것처럼 꼼짝을 않고있더니 대우의 급한 발걸음소리를 듣자 전류가 통한것처럼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대우는 곧바로 그놈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포로의 얼굴을 말없이 노려보았다.

이때 대우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낼것처럼 그렇게 이글이글 타번지고있었다.

포로의 눈은 대번에 휘둥그래지고 안면의 근육은 보기 흉하게 이지러졌다. 그는 자기앞에 떡 버티고 선 인민군군관이 정말 자기를 죽이러 오지나 않았는가 더럭 겁이 났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는 전선부대에 배치받은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이외다. 다 말하겠습니다.…》

포로는 와들와들 떨며 두서없는 목소리로 애원하였다. 동정을 받기 위하여 가장 슬픈 목소리를 쥐여짜는 그자의 비인간적인 모양을 보자 대우는 더욱 격분이 치솟았으나 다른 한편 가슴이 섬찍해지기도 하였다. 포로가 모든것을 다 말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의 머리에는 번개같이 적후활동시기 금화부근에서 저지른 잘못이 떠올랐다. 흥분은 저절로 진정되였다. 이놈의 입을 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기 위하여 이놈을 어떻게 구슬려야겠다는 궁리가 떠올랐다.

대우는 자기 심중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냥 어마어마한 형상으로 소리쳤다.

《5분이다. 5분동안에 네가 알고있는것은 모두…》

대우는 조금도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하여 팔목시계를 그놈의 코앞에 내밀었다.

포로는 질겁하여 앉은자리에서 뒤마려운놈처럼 움찔움찔하며 쩔쩔맸다.

《말하가시요. 말하가시요. …》

포로는 대우의 무서운 눈길에서 조금이라도 빗서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와들와들 떨리는 목소리로 웨더마이어참모부가 기도하고있는것을 낱낱이 내놓았다.

적들은 월하봉과 두무령의 방어가 돌파하기 곤난할것을 예견하고 총공격 날자를 하루 연기하여 한개 《국군》대대와 땅크부대를 새로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땅크들은 오늘과 래일 어간에 도착할것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공격파도가 줄어든것도 이번 작전의 변경과 관련된 하나의 전술로서 역시 정찰전이며 신경전이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셈이니 그것때문에 많은 사람이 당황하고 의혹을 품고 지어 동요하기까지 했던것이다.

대우는 곧 감시소로 돌아와서 소대장들을 불렀다. 무겁던 머리는 말끔히 개이고 온몸에 힘과 정열이 약동하였다. 또 큰 실수를 저지를번한 순간에 우연히 이처럼 모든것이 훌륭하게 해명됐다고 생각하니 아슬아슬한 감도 있지만 어쩐지 유쾌해지기도 하였다.

소대장들이 모여왔을 때 대우는 절로 새여나오려는 웃음을 참고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포로가 실토한바를 전한 다음 말하였다.

《이 정보와 함께 곧 포로를 후송해야겠소. 하마트면 큰일날번했다니까… 련대의 공격시간을 늦구어야 하오. 한시가 급하오.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소？》

소대장들은 새로운 군사정보앞에 뗑해서 서로 수군거리느라고 미처 대답을 못하고있었다.

이때 무선기가 놓였던 탁자앞에 쪼크리고 앉았던 정숙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무선기를 잃어버린 뒤로는 내내 참호에서 기관단총을 들고 싸웠는데 그바람에 얼굴이며 군복이 흙검댕이로 해서 말아니게 어지러워졌다.

《중대장동무.》

전에없이 야무진 처녀의 목소리에 방안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다. 정숙이는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높이 쳐들고 말하였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중대에는 전투원들이 부족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정숙의 제의는 방안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처녀의 당돌한 말에 모두 어리뻥해서 잠시 잠자코들 있다가 좀 지나서 제마끔 한마디씩 하였다.

《동무 정신이 있소?》

《둘러리 서는것 하구는 좀 다르오.》

정숙은 입술을 깨물고 가만히 듣고만있었다.

그러자 한성호가 성이 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아무리 포로라 해도 그놈은 여간 악질이 아닙니다. 더구나 밤길에 녀자가 어떻게 간단말이요? 정숙동무, 쓸데없는 소리 말구 앉소. 우리 소대에서 한명 내겠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중대장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정숙이를 언짢은 눈길로 바라보며 단숨에 말하였다.

《2소대장동무 말이 옳소. 동무, 앉으라구…》

다른 소대장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대우는 처음부터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였으므로 소대장들의 얼굴만 번갈아보고있었다.

《그래 2소대에서 누구를 내겠소? 곧 준비를 시키오.》

그런데 뜻밖에도 정숙이의 태도는 강경하였다.
《저를 녀자라고 깔보지 마세요. 저도 조선인민군 중사입니다. 포로후송도 못한다면 제가 무슨 군인입니까?》
(자, 이것봐라…)
대우는 새삼스럽게 정숙이를 훑어보았다.
채양없는 군모밑으로 탐스러운 단발머리가 불룩이 뭉그러져나온 도리납작한 정숙이의 얼굴은 당돌한 말에 비해서는 너무나 애돼보였다. 그러나 입술은 어찌나 꾹 다물었던지 하얗게 질리고 눈은 어떤 힘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단단한 결심을 력력히 나타내고있었다.
이때 세포위원장인 3소대 부소대장이 나직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였다.
《자신있소? 그놈이 가다가 갑자기 달려들면 어찔테요?》
이 질문은 정숙이를 몹시 노엽혔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하였다.
《그놈은 절대로 그따위짓을 못할것입니다. 떠나기전에 미리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가지고 떠나겠습니다.》
《하하하.》
《그 대단한걸…》
《하긴 짐승들도 길만 잘 들이면 처녀들에게도 꼼짝 못하는 법이야. 그놈도 짐승이나 다를게 뭐 있나… 하하하.》
모두 유쾌한 목소리로 웃었다. 그러면서 한편 정숙이가 제기하는바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았다. 사실 지금 중대에는 전투원이 부족한데 그나마 태반이 부상당하였다. 그중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떼낸다는것은 어느 소대에나 아픈 일이 아닐수 없었다.
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무거운 어조로 물었다.
《정숙동무, 이 포로후송은 단순한것이 아니요. 동무도 듣다싶이 전 련대의 작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고리

가 여기에 걸려있소. 동무자신이 자기의 량심에 물어보오. 이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할수 있겠는가?》
대우의 엄하고 그러면서도 큰 신뢰가 담긴 눈을 보자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자기를 겨우 진정시키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중대장동무,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두무령에 와서 제가 한없이 강해졌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인간쓰레기는 몇십명이라도 끌고갈수 있습니다.》
대우는 정숙이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오름을 느꼈다. 가슴이 격동적으로 뛰였다. 대우는 눈을 감고 생각해보았다.
과연 그렇다. 오늘처럼 조선인민이 자기 힘의 강대성을 스스로 믿고 스스로 발휘한적이 있었던가?
아무도 이런 인민을 깔볼수 없다. 하물며 짐승만도 못한 인간쓰레기이랴.
대우가 말이 없자 정숙이는 원망스러운 눈매로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중대장동무, 왜 저를 믿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포로 한놈도 끌고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두무령은 두개 련대의 공격을 막아낼수 있습니까?》
《좋소!》
대우는 벌떡 일어났다.
《나는 동무를 믿소. 특무장동무, 밤길인것만큼 그놈을 끌고갈수 있도록 결박해주오. 그리고 정숙동무, 기관단총과 함께 정치부중대장동무의 권총을 차고가오. 그 총은 아마 동무에게 힘을 줄거요.》
《중대장동무—》
정숙이는 목메여 불렀다.…
…포로를 묶는동안 대우는 련대장앞으로 편지를 썼다.
정숙이는 자기 말대로 떠나기전에 단단히 버릇을 가르쳤는데 다만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가르쳤다. 그는 포

로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오히려 결박했던 포승을 풀어버렸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놈아, 걸엇！》하고 소리쳤다.

중대의 지휘관들은 그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임무를 틀림없이 완수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모장고지》를 넘어가는 그를 배웅하였다.

달빛을 맞받아가는 정숙이와 포로의 뒤모습은 노란 테를 두른 시루엣트와 같이 선명히 산정을 오르고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개를 끌고가는 포수와 흡사하게 보였다.

×

밤이 이슥하였을 때 2소대 엄폐호앞에서는 떠들썩한 소리가 울려나왔다. 포로가 모든것을 불었으며 그놈을 처녀무선수가 끌고갔다는 소문은 삽시에 퍼졌다. 이 이야기는 전사들을 몹시 흥분시켰다. 그래서 종일 계속된 전투의 피로도 잊어버리고 이야기판을 벌려놓았다가 지금은 이야기거리도 진하자 달빛아래 배를 깔고 누워 팔씨름판을 벌려놓은것이다.

패권은 단연 봉선이에게 있었다. 곽홍규가 분해서 손목을 홰홰 돌리며 힘을 돋궈서는 세차례나 접어들었지만 봉선이의 적수가 되기는 어림이 없었다. 씨름같으면 그냥 지다가도 어찌다 요행수로 이기는 수도 있다지만 팔씨름이란 원래가 한번 지기 시작하면 외수없이 지게만 마련이였다.

《이제는 또 없어？ 누가 또 접어들어보지…》

봉선이가 우쭐렁해서 상반신을 일으키고 그 아낙네 목소리같이 앵앵거리는 소리로 흰소리를 쳤다.

《여기 있소.》

어둠속 뒤전에 서있던 키큰 사나이가 불쑥 앞으로 나섰다.

《아, 중대장동무!》
누가 당황해서 낮게 부르짖었다. 대우는 시치미를 뻑 따고 봉선이와 마주 배를 깔고 엎디였다.
대우는 정숙이를 떠내보내고 걷잡을수 없는 마음의 앙양을 느끼며 늦도록 진지들을 돌아다니다가 떠들썩한 목소리에 이끌리여 이리로 왔었다. 래일의 전투를 생각해서라도 의례 전사들을 꾸짖고 곧 재워야겠으나 웬일인지 그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니 그자신이 우선 전사들과 함께 껴안고 뒹굴고 떠들고싶었다. 그래서 제잡담 봉선이의 손을 덥석 틀어쥐였다.
대우가 그러는바람에 팔씨름에는 흥미가 적어서 따로 이야기판을 벌려놓았거나 눈을 붙이려던 전사들도 모조리 모여들었다. 거인 전사 리봉선이와 중대장의 팔씨름은 과연 구경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이였다.
《중대장동무, 그만두십시오. 저자가 여간 뚝심군이 아닙니다.》
풍수가 은근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옳습니다. 그만두지오다.》
봉선이도 제사 사양하는체하였다.
《흥, 그렇게 자신이 있소? 그럼 내기를 하기요.》
대우는 우정 약이 오른체해보이며 대들었다.
《내기요?… 그만두지요. 중대장동무가 져서야 우선 위신문제가…》
《팔씨름에 지면 중대장 못했지 별수 있소? 좌우간 전쟁 끝나면 값을 단단히 내기요.》
《정말 하겠습니까?》
《정말이 아니구!》
《그렇지만 중대장동무, 팔씨름은 군대 직급과는 상관없지오다?》
봉선이는 자신이 만만했으므로 끝까지 이기죽거렸다.
《겁은 몹시도 많군. 이기기나 하오. 그러면 대렬앞

에서 감사라도 주지 않으리…》

두사람은 손을 마주잡았다. 아닌게아니라 봉선이의 팔목은 여느 사람 장딴지만큼이나 실하고 묵중하였다.

《그 만만치 않은데…》

대우는 손아귀를 틀어쥐여보고 혀를 내둘렀다.

《자아, 중대장동무, 이건 비겁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제끼면 되오다?》

고개를 지그시 수그렸던 봉선이가 맞잡힌 손회목을 왼쪽손으로 제쪽에 유리하게 밀어놓으며 두덜거렸다.

《거 꽤 노랭이군. 이만하면 됐소?》

서로 팔을 공평하게 쥐노라고 한참 싱갱이를 하는판에 특무장이 달려왔다.

《아니 이런 법이 있소? 특무장 몰래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인철이는 어떻게 팔씨름판을 알았는지 달려오면서부터 두덜거리더니 다짜고짜로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들었다.

《자, 내가 엠파이요. 내 구령에 따라서 쟈아 하나, 둘…》

인철의 심판으로 서로 불공평하다고 옥신각신하던것은 해결되였다.

힘이 서로 어상반해진 계제를 보아 인철은 《셋!》하고 구령을 쳤다. 순간 대우가 날쌔게 손회목을 안으로 잡아꺾었다. 제강소에서부터 팔씨름에는 자신이 있는데다 강철로동에서 굳어진 그의 팔힘 또한 대단한것이였다. 만만히 여기고 접어들었다가 주인 만난셈으로 봉선이가 땀을 빼게 되였다.

《야—》

사방에서 함성이 올랐다. 그러나 봉선이 역시 장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니만큼 회목이나 꺾였다고 해서 호

락호락 넘어갈 적수가 아니였다.
두사람은 군화 코끝으로 땅을 파며 돌밭을 실히 반바퀴는 돌았다. 고개를 쳐들었다 사려넣었다 하는 꼴이 여간 심각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까마귀떼처럼 떠들어대던 구경군들도 마감에는 같이 낑낑 용을 쓰며 돌아갔다.
결국 시작판에 회목을 꺾인것이 결정적인 타격이 되여 마침내 봉선이가 지고말았다. 다시금 환성이 일어났다.
《저런, 지다니… 인민군대가…》
《역시 중대장동무가 중대장동무지, 어림있나…》
《봉선이, 어디 코 좀 만져보라구…》
사방에서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그러지않아도 분한 봉선이는 후끈 달아서 팔을 부르걷고 다시 접어들었다. 그러나 대우는 딱 잡아뗐다. 다시 하면 자신이 없었던것이다.
《틀렸어, 봉선동무는 어머니 젖을 몇동이 더 먹구 와야겠어. 아직 생판 어린애구만…》
이렇게 약을 올려놓으니까 황소같은 거인이 어떻게 성이 나서 씨근거리는지 여간 구경거리가 아니였다.
밤이 이슥하도록 그렇게 앉아 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었다.
어찌다 인철이가 **김일성**장군님의 이야기를 꺼냈다.
중대에는 련대장에게서 들은 항일유격대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아가고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앉으면 몇번씩 들은 이야기를 물리지도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였는데 오늘은 인철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다. 그런걸 또 자기가 목격이나 한것처럼 그럴듯하게 번져놓았다.
《…함남도경찰부의 김경부가 빨찌산은 보지도 못하고 처단당한 이야기 들었소?》

인철이는 이렇게 허두를 뗐다.

《자- 또 허튼소리하는군… 보지도 못하고 처단당했다니 몰래 총살했단말이요?》

《그런게 아니요. 동무들, 이건 심중한 이야기요. 그땐 장군님 이름만 듣고도 꿋꿋해지는놈들이 있었다오.》

《설마…》

《그 누구요? 설마라니… 동무, 정신 똑똑히 차리고 내 이야기 듣소.》

인철이는 사뭇 서슬이 등등해서 한바탕 열을 내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김경부란놈은 조선사람으로 경부까지 된놈인만큼 한다 하는 《반공산주의투사》였다. 그런데 하루는 새로 빨찌산 《토벌대》를 조직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따져보니 첩경 자기도 걸려들 기미가 엿보였다. 그전에도 《토벌》을 갔다가 모가지없는 귀신이 돼서 돌아오는 동료들을 기수없이 보아온 김경부는 생각키를 가면 죽을것은 뻔한데 이거야말로 개죽음이 아닌가?… 궁리를 거듭한끝에 도립병원에 아는 의사를 찾아갔다. 남의 등을 쳐먹기에만 이골이 난 김경부였지만 죽음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술 한상쯤 교제하는것을 주저할 졸장부는 아니였다. 그는 도립병원의사를 고주가 되도록 먹여놓고 자기에게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병이라는 진단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다. 왜놈과장밑에서 조수나 다름없이 지내는 조선인 의사는 졸지에 눈이 퀭해졌다. 보매 인민의 고혈로 살이 쪄서 더할나위없이 건강한 그에게 그런 진단서를 뗀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그러나 경부의 술을 얻어먹었으니 모가지가 여벌이 없는 이상 그 청을 거절하지는 못하리라는것을 통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궁여지책을 내놓았다. 진단서는 과장이 쓰는만큼 과장을 속일만한 갑작병을 만들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괴롭더라도 간장 한병을 마시고 와서 기침이 나고 숨이 가쁘고 입맛이 없고 맥을 못추겠다고 엄살을 피우라는것이였다. 간장을 마시고 렌트겐사진을 찍으면 온통 새까매진다는것이다. 김경부는 흡족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새로 사온 왜간장이 통채로 있었는데 자기의 건장한 몸을 참작하여 든든히 하느라고 거의 반통이나 들이켰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굳이 진단서를 뗄 필요가 없게 되였다. 한것은 간장을 너무 먹어서 생각지도 않던 배탈을 만나 곧장 황천으로 떠나고말았던것이다. …

《하하하…》

《흐흐흐…》

이야기가 끝나자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하아 그것 참 신통한데. 정말 거짓말같이 신통하군.》

누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감탄하자

《거짓말같다니 그 뉘기요?》하고 인철이가 퉁방울같은 눈을 어둠속에 굴렸다. 그러자 또다시 와그르르 웃음집이 터졌다.

《정말 그래, 장군님 이름만 듣고도 벌벌 기는놈이 지금도 수두룩하거든…》

누가 또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어둠속에서 중얼거렸다.

전사들은 자기들이 그런 전설적인 강철의 령장을 모시고있는데 대해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며 끝없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떠들고싶었다.

잠시후 누가 은근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너무나 많이 불렀고 또 행진조로 불러야 하는 노래

였지만 이런 밤, 은근하고 서정적인 가락으로 불러보는 맛이란 각별히 차분하게 마음에 안겨왔다. 전사들은 서로 어깨를 겯고 몸을 물결치듯 이리 쉬고 저리 쉬고 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다.

김장군 애국전통 높이 받들고
하늘땅 우리 나라 피로 지키자

대우가 감시소에 돌아오니 뜻밖에도 련대정찰병 두 동무가 어제 련대로 올려보낸 련락병의 시체를 업고 막 감시소에 들어섰다. 련대장이 포로를 압송해오라고 보낸 사람들이였다. 정숙이와 길이 어긋난것이 이상하여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빨리 오기 위하여 가재봉으로부터 곧장 분지를 꿰여 두무령으로 왔다는것이다. 도중 분지 한 구석을 지나다가 적의 포사격구역에서 련락병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우는 자기가 련락병을 보내면서 미리 단속을 단단히 하지 못한것이 뼈아프게 뉘우쳐졌다. 련락병 역시 급히 보고를 가져가야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그 위험한 길을 택했다가 흉탄에 쓰러진것이였다. 몸조심하라고 일렀다 한들 그런 전사가 자기의 일신을 념려했으리라고는 생각할수 없었으나 그래도 막상 전우의 희생을 앞에 두고 볼 때 대우의 가슴은 저리도록 아팠다.

그는 이미 포로를 압송해보냈다는 말을 하고 정찰병들을 곧 돌려보냈다.

5

끊임없이 불러대던 전화도 밤이 깊어지자 잠잠해졌다. 포진지에 나가있는 군사부련대장으로부터 최종적인 련락이 온후로 감시소안은 조용하였다.

전투준비는 완전히 끝났다. 보병대대들은 밤중으로 매복지점에 나갔고 포병들은 목표들에 묘준까지 해놓았다. 두무령쪽으로 집결한 적의 배후를 공격하기 위하여 2대대는 820고지 북쪽 릉선에 매복시켰는데 거기서 조금전에 참모장이 돌아왔다. 이제는 날 밝기만 기다리는 판이였다. 그러나 적후에 들여보낸 정찰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는 사정없이 줄달음쳤다.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심장에다 정질을 하듯이 그렇게 크고 예리하게 제깍제깍하였다. 지금은 방안이 온통 시계소리로 가득찬듯싶었다.

강표는 적구 어느 험한 벼랑을 뛰여오고있을 정찰병들의 발자국소리를 들으려고 안타깝게 귀를 기울였다.

벌써 1시 16분—

그리고도 초침소리는 쉬임없이 귀청을 울리고 가슴을 울리고 방안을 울렸다.

달빛이 새여들어 방안은 휘푸렇다. 조용하였다.

찌르 찌르 찌르릉—

통신실에서 전화받는 소리가 들렸다.

《네,네,계십니다. 곧 바꾸겠습니다.》

강표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그 전화가 정찰소대에 나가있는 정찰참모로부터 온것임을 직감하였다. 후— 하고 안도의 숨이 나왔다.

《3번이요. 돌아왔소?》
저쪽에서 다급하게 보고하는 소리가 앵앵 울렸다. 강표의 낯은 대번에 찌프려졌다. 어두운 구름장이 순시에 얼굴을 덮었다.
《알겠소. …》
잠시후 그는 송수화기를 들고있기도 힘에 겨운듯 턱밑으로 처뜨리고 가까스로 자기 몸을 지탱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알겠소. 그 동무들에게 휴식을 시키시오. 그리고 가지고온 정보는 곧 군사부련대장동무에게 알려주오. 이젠 두무령에서 잡았다는놈이나 끌고오기를 기다려봅시다. 곧 올테지…》
강표는 송수화기를 놓고 힘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구본수의 초조해하는 얼굴을 보자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또 실패했소. 한 동무는 전사하고 한 동무는 부상당한것을 겨우 업고왔다오. 참모부의 동태는 미처 알아내지 못했고 〈국군〉의 배치정형과 포진지의 위치만 확인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공격을 하기는 할 모양이라오. 하긴 그것만해도 큰 성과지…》
자리에 가 앉은 그는 무겁게 숙어지는 머리를 두손으로 싸쥐였다. 군모가 떠들리고 그밑으로 은실같은 흰머리카락오리들이 눈에 띄게 반짝거렸다.
등잔에서 빠지직빠지직하고 심지가 타들어갔다.
구본수는 입을 열듯열듯하다가도 강표의 그렇게도 괴로와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만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머뭇거렸다.
주저주저하는 그의 눈치를 알아채고 강표는 설레설레 고개를 내저으며 미리 제지하였다.
《알만하오, 알만하오. 말하지 마시오. 좀 생각해봅시다.》

…그의 눈앞에는 매복선에 나가 명령만 기다리고있는 전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놈들이 정말 일거에 두무령을 공격할 기도를 버렸다면 삼두봉을 공격한다는것이 과연 무모한 일이 아니겠는가? 삼두봉 릉선을 톺아오르다가 돌격선에서 흉탄에 희생되는 전사들의 얼굴이 삼삼히 눈에 밟혔다.

련대의 공격이 실패한다면 적은 그길로 두무령을 공격할수 있을것이다. 두무령돌파는 시간문제로 남게 될것이다. 발견이 되기전에 매복한 대대들을 철수시킬것인가? 그러나 만일 놈들이 총공격을 들이대는데도 련대가 제때에 배후를 치지 않는다면 그때는 두무령은 두말할것도 없이 돌파당할것이며 적은 곧장 현리로 빠질것이다.

어느덧 강표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벌벌 솟아올랐다. 손가락사이로 땀줄기가 배여나왔다. 얼굴은 고열에 시달리듯이 화끈거렸다.

참모장은 지금이라도 월하봉으로 도로 철수하자는것을 요구할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수 없다. 월하봉에서 얼마를 견딘단말인가? 두무령에 력량을 보충해주면서 그렇게 앉아 배긴다는것은 밑빠진 독에 물 길어 붓기나 다름없다. 그렇게 하다가는 련대를 앉은자리에서 야금야금 전멸시키고말것이다. 더구나 차지한 계선에서 진지방어로 이전하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벌써 련락군관들이 명령서를 가지고 떠났는지 누가 알랴. 그뿐만이 아니다. 련대의 작전을 위하여 두무령에서 청춘의 목숨을 바친 전사들의 피값을 어디서 찾아낸단말인가.…

그러나 지금은 한시도 주저할수가 없다. 두무령의 포로에 기대를 건다는것도 허망한 일이다. 작전참모가 그처럼 강조하는것으로 보아 여간 악질이 아닌것만은 틀림없겠는데 이 촉박한 시간에 그놈의 입을 벌리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놈들이 예견된 총공격을 포기하고 그대로 소모전을 계속한다면 매복선의 대대들은 미구에 발각될것이고 삼두봉의 적 포병들은 곧 포구를 820고지로 돌려댈것이다.

사단에다 련락하자. 련합부대의 의견을 들어보자. … 공격시간을 연기하든지, 혹은… 아니다, 그렇게는 될수 없다.

구본수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련대장동무, 머지않아 날이 밝습니다. 련대의 공격시간을 늦출것을 예견해서라도 우선 두무령으로 3대대를 돌리는것이…》

순간 강표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어느정도 동요하고있었다는것을 깨닫고 반발적으로 책상을 툭 쳤다. 그리고 입술을 다물고 앞을 쏘아보았다.

그제야 구본수는 그의 얼굴에 함뿍 내밴 식은땀을 보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군인으로서 그이상 상관을 괴롭힐수는 없었던것이다. 그는 가슴을 압착당하는것 같은 무거운 생각을 가라앉혀보려고 조용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이때 출입구에서 《들어갈만 합니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시오.》 구본수가 대답하였다.

푸르죽죽한 미국제군복을 입은자가 굶주린 승냥이같이 부루루한 몰골로 비칠거리며 들어섰다. 뒤따라 심정숙이가 나타났다.

강표는 벌떡 일어나고 구본수는 그자리에 못박혀버렸다.

《정숙아, 네가 웬일이냐?》 강표의 입에서 들릴락말락 새여나온 말이다.

기관단총을 가슴앞에 틀어쥐고 정숙이가 강표앞에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함뿍 내배이고있었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입술을 감빨며 보고하였다.

《련대장동지, 통신중대 중사 심정숙, 박대우중대장의 명령으로 포로를 호송해왔습니다.》

《아니, 동무가?》

강표는 허둥지둥 정숙이가 내미는 편지를 받았다.

포로 심문내용과 그간 전투정황에 대한 보고를 단숨에 읽었다.

《…

…련대의 공격시간을 24시간 늦추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크들이 벌판으로 기여나왔을 때 쳐야 할것입니다.

두무령의 전사들은 련대의 승리를 위하여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한놈의 적도 고지에 올려놓지 않을것입니다.

우리의 참호뒤에는 사랑하는 전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

이러한 글줄이 살아있듯이 눈앞에 푸들푸들 뛰였다.

강표는 종이쪽지를 꼭 틀어쥐며 말하였다.

《그래 동무가 혼자서 저놈을 끌고왔단말이요?》

《그렇습니다.》

《장하오, 장하오. 빨찌산의 딸답소. 우리 련대 전체 전사들의 이름으로 동무에게 감사를 드리오.》

순간 정숙이의 아래도리가 비칠거렸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정숙이는 말을 마치기 바쁘게 픽 모로 쓰러졌다.

《정숙아!》

엉겁결에 강표의 입에서는 그전에 친딸처럼 부르던 그 이름이 튀여나왔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서 조심조심 처녀의 총을 벗겨내고 걸상우에 눕혔다. 정숙이의 얼굴에서는 피기가 하얗게 가시고있었다.

《너무 긴장했던것이요. 얼른 군의소에 전화를 좀 거

오. 얼른 오라고…》
구본수는 통신실로 나가려다가 말하였다.
《이자는 어떻게 할가요?》
《그자? 참모장동무가 만나보겠으면 만나보오. 나는 그자에게 볼일이 없소. 여기 중대장동무가 보낸 심문내용이 있소. 어서 전화나 거시오. 우리에겐 이런 용감한 동무들 일이 훨씬 급하오.》
…군의소에 전화를 걸고난 구본수는 멍하니 송수화기를 든채 생각에 잠겼다. 웬일인지 뒤통수가 욱신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뒤꼴을 무엇에 든든히 얻어맞은것만 같다. 정숙이의 출현은 자기딴의 확신으로 굳게 응결된 그의 머리에 된 타격을 주었다. 그는 정숙이가 포로를 무사히 끌고왔기에망정이지 이 문제가 사전에 토의되였다면 처녀에게 포로를 압송시키는따위 행동을 망발 이상의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리라는것을 량심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 처녀는 해내지 않았는가? 련대에 내려와있는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젖비린내나는 단발머리 무선수가 가렬처절한 화선에서 지휘통신을 보장했을뿐아니라 심지어는 승냥이보다 더 사나운 포로를 야밤중 산속길을 단독으로 끌고오지 않았는가?
본수는 그들 전사들의 힘을 자기가 똑똑히 모르고있는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었다. 문득 언젠가 혜경이가 우정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던 말구절들이 떠올랐다.
《오빠는 심장이 식었나봐요. 그러기에 젊은 전사들의 심정을 리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을 믿지 못하시는거예요. 뜨거운 심장이 가지는 힘은 수학적방법으로는 계산하지 못해요. 오빠, 전사들은 심장으로 싸우는데 싸늘한 실무적인 머리로 그들을 대한다는것은 죄악이예요. 오빠, 만일 오빠에게 그런것이 있다면 고쳐야 해

요. 그렇지 않으면 전사들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돼요. …》

정확히 어떻게 말했던지는 기억에 떠오르지 않으나 분명 그런 뜻이였다고 생각되였다.

본수는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두무령의 처참한 현상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꼭대기에 서있는 꾀아리가 선참 떠올랐다.

(그걸 그 꼭대기에서 피우겠다고 했지… 철들이 없어…)

무엇때문인지 그처럼 그를 괴롭히던 전투의 운명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런 왕청같은 생각을 해보았다.

잠시후 자기가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깨달은 본수는 강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목전에 다가온것만 같은 엄숙한 예감을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

매복지점에 나가있던 대대들은 날밝기전에 철수하였다. 련대의 공격시간은 24시간 연기되였다. 사단에서 린접한 포련대의 화력으로 삼두봉에 지원사격을 조직해주겠다는 련락이 왔다.

새벽녘에는 두무령으로 한개 반땅크총소대와 자동총소대가 탄알과 수류탄들을 가득가득 지고 떠나갔다.

이에 앞서 정숙이가 군의소에서 돌아왔었다.

강표는 그때 마침 박대우에게 보낼 편지를 다 써놓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었다. 방금 사단에서 련락군관이 새로운 명령서를 가져왔는데 그편에 사단정치부장의 쪽지편지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이미 추천한바 있는 외국류학생들을 오늘 오후 3시까지 사단으로 올려

보내라는 지시였다. 그 명단가운데는 한성호상사의 이름도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편지에다 쓸것인가 말것인가 주저하고있었던것이다.

방안에 들어서는 정숙을 보자 강표는 의식적으로 《아저씨》태를 내였다.

《너 벌써 일어났니?》

《이제는 일없습니다. 좀 놀랐기때문에…》

정숙은 련대장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것이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다.

《참모장동무가 심문해봤다는데 그놈이 도중에 오다가 갈갰다면?》

《한번 못되게 노는걸 혼을 내주었더니 그다음에는 일없어졌어요.》

《그놈이 너한테 너무 혼이 나서 처녀그림자만 얼씬해도 벌벌 떤대. 허허허,정숙이가 대단해졌는걸.》

강표는 오래간만에 유쾌하게 웃었다.

정숙은 잠시 쭈밋쭈밋하다가 련대장의 눈치를 살피며 말하였다.

《련대장동지,전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어디로?》

강표는 눈을 크게 떴다.

《중대장동무가 근심할것입니다. 저를 보내면서 여간 걱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허허허,그녀석 좀 걱정해도 싸지. 어떻게 돼먹은 머리기에 그런 승냥이를 처녀에게 끌려보낼 궁리가 났는지 모르겠어.》

《저 두무령의 무선기가 파괴되였습니다. 통신중대에 있는 예비를 보내주도록 말씀해주겠습니까?》

정숙이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자 강표도 어름어름할수가 없게 되였다. 그는 련대장의 립장으로 돌아가 따졌다.

《아니 동무가 정말 가겠단말이요?》

《전 가야 합니다.》

《안되오. 동무는 쉬여야 하오. 동무는 이미 장한 일을 많이 하였소.》

《련대장동지, 두무령의 전우들은 피를 흘리고있습니다. 전 가야 합니다. 본래 제 위치가 거깁니다. 전 가야 합니다.》

정숙은 열에 뜬 사람처럼 되뇌였다. 이에 대해 강표는 화난 사람처럼 언성을 높였다.

《안되오. 나는 보낼수 없소. 동무는 자기 중대에 가서 다음지시를 기다리는게 좋겠소.》

강표는 딱 잡아뗴였다.

《련대장동지, 아닙니다. 전 가야 합니다. 전 가야 합니다. 거기 동무들은 저를 기다리고있어요. 련대장동지, 전 가야 해요.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마침내 정숙이는 울먹이는 소리를 내였다.

강표의 얼굴은 긴장되였다. 그는 정숙의 표정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그렇게도 강한 힘으로 이 열아홉살의 처녀를 그 격전의 고지로 부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애된 처녀의 모습에서 용감하게 전사한 전우의 모습을 찾아본것이다. 전쟁속에서 굳어진 강표의 심장은 뻐개지듯 저려났고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참된 인민의 아들이였던 아버지의 고귀한 피는 그렇듯 그의 딸에게 고스란히 물려졌던것이다.

(심동무, 보시오. 저것이 당신의 딸이요. 그런데 나는 또다시 그를 험한 싸움판으로 내보내려오. 심동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요? 내가 당신의 외딸을 위험하기 짝없는 그 고지로 또 내보내려는것이말이요. 당신은 나를 원망하겠지요? 아니요. 나는 당신이 이 강표를 원망하지 않을것을 잘 알고있소. 정숙이는 내 딸

이나 다름없는 아이요. 그렇지만 나는 내보내려오. 나는 그를 막아낼 힘이 없구려. 아마 당신도… 아니 당신이야말로 더구나 막아내지 못했을것이요. 하는수 없지요. 우리가 걔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니…)
강표는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편지 끝에다 서슴없이 한성호상사를 오늘오후 세시까지 사단정치부로 올려보내라는 말을 적어넣었다.
강표는 편지를 접으며 말하였다.
《좋소, 가시오. 통신중대장에게 예비무선기를 보장해주도록 이르겠소.》
기뻐서 어찌할바를 모르며 감시소를 나가는 정숙의 뒤모습을 보며 강표의 입가에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야릇한 경련이 지나갔다.
보아라, 조국은 어떠한 아들딸들을 가지고있는가? 이러한 인민의 위대한 조국을 감히 어떤놈들이 건드린단 말인가?
정숙이가 숲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강표는 깊숙이 고개를 숙인채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정숙이는 이미 떠났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불러올수는 있다.
(친구의 외딸을… 친구의 외딸을…)
그는 집에 두고온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친구와 어디선가 딸의 안위를 걱정하여 잠 못이루고있을 정숙이 어머니를 생각하였다. 그들이 만일 자기 처지에 놓였다면 그 불같은 지향을 꺾을수 있단말인가?
《아니다, 그렇게는 아무도 할수 없을것이다.》
강표는 그 아무도 인민들의 그러한 지향을 막을수 없으며 막아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소리내여 홀로 중얼거렸다.

6. 열정의 봉우리

1

날이 밝기가 무섭게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대우는 눈을 감고 2소대 참호에 앉아있었다.
땅바닥이 후들후들 떨리고 재빛 흙먼지가 사정없이 들씌웠으나 그는 까딱도 않고 앉아있었다. 잠자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엇을 생각하는것도 아니였다. 지금 그의 가슴은 편안했고 지어 어떤 안온하고 평화스러움을 간직하고있었다. 오직 간절한 기다림만이 가슴에 가득하였으나 무엇을 기다리는지 똑똑치 않았다. 이윽고 그 기다림조차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어떤 환상적인 정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무한히 뻗어나간 밝은 길이 보였다. 오곡이 물결치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황금기와를 이은 집들이 있었다. 그리고 떠들썩한 노래소리가 울렸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어디선가 본듯한 그 벌판이며 집들이 어디에 있는것인지는 알수 없었다. 노래소리도 누가 부르는지 알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그의 생활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된 지금은 비록 초연에 가리워 그 형태를 가려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고 불완전하나 어딘가 그 튼튼한 뿌리가 박혀있는 그런 생활의 한토막임에 틀림이 없었다. 미구에 기억이 똑똑해졌다. 그것은 그가 1948년도 장마철에 군내의 가장 궁벽한 부락 민청회의를 지도하러 나갔다가 그 부락청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속의 마을이였다. 아니 그것은 이

야기속의 마을이 아니라 그때는 아직 가난하고 들쑹날쑹한 달구지길이 장마에 범벅이 되고 초가지붕으로 비물이 스며드는 그리고 계속되는 장마에 우울한 얼굴을 하고있는 바로 그 산골부락청년들이 몇해후에 살게 될 그들의 부락이며 그들의 길이며 그들의 노래소리였다.

젊은 군민청지도원은 그때 선전실 창문을 두드려부실듯이 담아붓는 장마비소리를 누르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실감있게 그 래일의 그들의 생활을 펼쳐보였던가? 청년들은 래일의 눈부신 생활화폭을 호우속에 내다보면서 오랜 장마에 가슴마저 곰팡이가 쓰는듯한 우울증을 털어버리고 바야흐로 범람하려는 강뚝을 헌신적으로 막았으며 《래일의 마을》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였다.

지금 그들의 마을은 어디로 갔는가? 《USA》의 인찍힌 폭탄은 그 선전실도 초가집도 한가닥 달구지길도 날려버렸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서 《래일의 마을》은 영원히 빼앗지 못할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금 어느 전선참호에 나처럼 이렇게 엎디여있을것이 아닌가?…

공상은 아무리 가렬한 싸움마당에서도 달콤하였다. 그것은 짜릿짜릿한 감미와 함께 향수와 같이 애틋하고 찹찹하게 감쳐도는 독특한 자극을 주었다.

대우는 눈을 감고 참호벽에 기대앉아서 삼두봉에서 풀려나오는 적의 공격서렬도, 어제 부상당한 왼팔과 이마의 상처에서 오는 아픔도 잊어버리고 그 달콤하고 짜릿짜릿한 공상의 세계를 덧없이 눈앞에 펼쳐놓았다.

문득 눈을 뜨니 특무장 김인철이가 옆에 와서 쭈밋쭈밋하고있다. 그리고 전사들의 시선은 인철이에게로 쏠렸다.

어느새 포사격은 멎은 모양, 흉흉한 메아리와 초연만 천지에 가득차있었다.

대우는 탄알과 수류탄이 부족하다는것을 직감적으로

상기하였다. 그는 인철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쾌활하고 어느 구석에서나 막히는것을 모르던 《중대의 어머니》인 그가 그처럼 가련한 모양을 하고 자기를 바라보기는 처음이였다. 대우는 아무데서도 탄알을 구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그렇게도 주변이 좋은 인철이가 그렇게 가련한 꼴을 하고 자기앞에 선것이다. 중대장인 자기에게 탄알을 내라는것이다.

《중대장동무…》

아니나다를가 인철이는 애원하듯 불렀다.

대우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좋소. 탄약을 공급하기요. 특무장동무, 고지뒤에 가서 갸들 박격포탄을 메여오시오.》

대우의 힘찬 명령은 대번에 특무장의 사기를 소생시켰다. 그는 왜 자기가 그것을 생각 못했던가싶었던지 뒤통수를 툭 치며 급히 물러갔다.

대우는 진지들을 돌아보았다. 최후의 격전을 앞두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고싶었고 주의도 주어야 할것만 같았다. 그러나 모두 그만두고말았다.

그들에게 어떻게 싸울것이며 왜 싸워야 한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는가? 싸울수 있도록 총을 주고 탄알을 주고 명령을 주기만 하면 불과 물 속이라도 뛰여들, 그들은 불덩어리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놈들이 우리를 죽인다는것은 어느 전사에게나 명백한것이다. 차라리 이럴 때는 모든것을 그들의 량심에 기대하는것이 나을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것을 매개 전사들이 피어린 싸움속에서 체득하였다. 더구나 그들이 어떤 전사들인가?

전사들을 데리고 고지 후면으로 갔던 인철이는 박격포탄을 한짐씩 메다가 참호마다 무득무득 쌓게 하더니 모두 신관들을 끼우라고 일렀다.

적들이 밀려들었다. 놈들은 두무령에 화력이 부족하

다는것을 눈치챘는지 서슴없이 고지에 달라붙었다.
그래도 경기와 중기들은 마음놓고 사격을 하지 못하였다. 탄알이 부족한것이다. 보총들과 기관총들도 조심조심 묘준사격을 하였다. 적들은 거침새 없이 밀려들었다. 탄알이 핑핑 참호 앞뒤에 와 박혔다.
적들이 고지 중턱까지 기여올랐을 때 본격적인 사격이 시작되였다. 중기,경기가 참았던 울분을 한꺼번에 터뜨리듯 세차게 불을 뿜어댔다.
아우성소리,총소리,폭발소리…
콩볶듯 자지러지는 중기소리,경기소리…
따쿵따쿵 핑 뚜루룩—
뽀얗게 재빛 초연이 피여오르고 붉은 피가 거멓게 흙을 물들였다.
대우는 옆구리에 섬찍한것을 느끼고 내려다보니 찢어진 군복우로 피가 배여나왔다. 피는 어느새 손바닥만한 넓이로 번지더니 인차 더 넓게 퍼져갔다.
다행히 옆구리를 스쳐나갔을뿐이라는것을 확인하고 곧 개인붕대로 동여맸다.
적들은 아직도 고지중턱에서 욱실거렸다. 대우는 확확 열을 뿜는 기관총을 다시 찾아들고 소리쳤다.
《쏘앗! 쏘앗!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아라!》
그의 구령에 응하듯이 옆 참호에서 인철이가 벌떡 몸을 솟구었다.
《이 새끼들아,쇠만두맛이나 봐라. 네놈들거다!》
이런 웨침소리와 함께 큼직한 미국제 122미리박격포탄을 공중 쳐들어 내던졌다. 포탄은 바위에 가 부딪치더니 짜르릉 하고 터졌다. 그 부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른 전사들도 제마끔 포탄을 던졌다. 바위우로 굴러간 포탄은 더러는 터지고 더러는 한두놈을 짓찧어놓았다. 사방에서 박격포탄이 날아갔다. 적진에는 혼란

이 일어났다. 산병선은 산산이 허물어졌다.
대우는 신이 나서 부르짖었다.
《쏘앗! 쏘앗! 쏘앗!》
전사들도 신명이 났다. 연신 시꺼먼 포탄이 굴러갔다. 우박처럼 굴러떨어지는 박격포탄에 혼비백산한놈들은 황망히 꽁무니를 빼버렸다.
적이 패주했을 때 아침해가 찬란히 비치는 두무령너머로 두개의 증원부대가 넘어왔다. 그 선두에는 정숙이가 서있었다. 그의 새 무전기는 반총소대 동무들이 지고왔다.
고지에는 함성이 터져올랐다. 사실 이런 상봉은 얼마나 좋은가? 오는 사람,맞는 사람 모두가 한동안은 말을 못하였다. 잠시후에야 서로 끼고 얼싸안고 돌아갔다. 더러는 구면친구도 있어 《자네 어떻게 왔나?》,《이 문둥아,아직 살아있구나. 응,이 문둥아!》
이렇게 껄껄거리며 사정없이 등을 두들겨대기도 하였다.
대렬을 인솔해온 반총소대장의 보고를 받고난 대우는 정숙이가 내미는 련대장의 편지를 쭉 훑어보았다. 잠시후 그는 참호들에 자기 대원들을 모아앉히고 한 중간에 가 섰다.
방금 피어린 격전을 치르고난 전사들의 얼굴은 긴장되였다.
대우는 심중한 눈매로 싸움에 지친 대원들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매는 우울해보이리만큼 심각하였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련대장동무가 우리들에게 감사를 보냈소. 이제 읽겠소.》
대우는 기침을 한번 깇고나서 엄숙한 목소리로 편지를 그대로 읽었다. 전사들은 자세를 바로잡고 침을 꿀꺽꿀꺽 삼켰다. 이름할수 없는 기대와 흥분으로 하여 그

들의 가슴은 들먹거렸다.

영웅적 박대우중대 전체 전투원들에게
련 사흘에 걸치는 적의 발악적인 맹폭격과 포격을 받으면서 불바다로 화한 고지에서 동무들은 20여차에 걸치는 적의 대규모적인 공격을 성과적으로 격퇴하였습니다.
전우들의 피로 물들여진 신성한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써 견지하고있는 동무들의 견인불발성은 련대의 전체 전투원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으며 고상한 모범으로 되였습니다.
동무들이 발휘한 영웅성과 용감성 그리고 동무들이 제공해준 중요한 군사정보에 의하여 련대의 승리는 이미 확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련대의 총공격이 진행될 때까지 동무들은 계속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두무령을 고수할것입니다.
나는 련대의 전체 하사관,군관들의 이름으로 영웅적인 박대우중대 전체 전투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1951년 5월 18일
부대장 강표

전사들은 참호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언할수없이 크고 엄숙한 감동과 눈물겨운 환희를 안고 그들은 소리높이 련대의 인사를 받았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 함—》
우렁찬 전사들의 조국에 보내는 인사는 메아리를 일으켜 두무령을 넘어갔다. 그 소박하고 감동적인 목소리는 그대로 월하봉을 지나 큰 산의 줄기를 타고가서 련대의 기발을 흔들며 나아가서 수도 평양에까

지,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귀전에까지 메아리쳐갈것만 같았다.

잠시후 대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련대장동무는 편지끝에 내앞으로 또 썼소. 그것도 마저 읽겠소.》

그는 편지를 움켜쥐고 한참이나 꿰뚫을듯이 들여다보더니 꽉 목이 잠긴 소리로 읽었다.

중대장동무에게

한성호상사를 오늘오후 세시까지 사단정치부로 올려보내시오. 그는 쏘련으로 류학을 가게 될것이요. 두무령의 형편으로 보아 특히 그 동무가 소대장공작을 하고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저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한성호상사의 소환이 결코 동무들의 사기를 떨구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하오. 그는 쏘련에서 제강기술을 배우게 될것이요. 그는 원쑤들이 재더미로 만들어놓은 우리 마을을 복구할것이요.

그리고 보다 훌륭한 생활을 이 땅우에 꽃피우게 될것이요.

가혹한 싸움을 하면서도 래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것을 당중앙과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결심하시였소. 시간이 늦지 않도록 보장하시오. 동무들이 만일 최고사령관동지와 당중앙의 깊은 뜻을 생각한다면 그 동무를 보내고도 더욱 잘 싸우리라는것을 나는 확신하는바이요.

이것은 기막히고 놀라운 사연이였다.

전사들은 얼빠진 사람들처럼 새삼스럽게 주위를 돌아보았다.

험한 산벼랑, 언젠가는 거기에 다복솔이며 자작나무도 우거지고 각색 들꽃이 아름답게 피여났을곳, 산짐승과 뭇

새들도 둥지틀고 노래불렀을 조국의 자그마한 산—지금은 그 매평마다에 수십수백의 강철과 납덩어리가 박히고 그우에 뒤집히고 파헤쳐지고 불에 타고 그슬렸다. 나무 한그루 없었다. 타다 남은 밑뿌리가 숯이 되여 아직도 푸실푸실 연기를 피우고 절묘하던 바위는 산산이 부서져서 재가루와 흙먼지가 하늘을 흐리게 하고있다. 수십번을 뒤집혀진 참호의 검은 얼룩이진곳마다에서 피비린내를 풍기고 붉게 물들어 찢어져나간 군복과 내의쪼박과 붕대토막들이 날리고있었다. 무득무득 쏟아져있는 탄피, 포탄, 파편, 땅속에 박힌 탄알, 부러진 날창, 휘여지고 불탄 놈들의 보총, 찌그러지고 구멍이 숭숭한 철갑모… 파괴되고 피를 머금은것이라면 그 무엇인들 없으랴. 그앞에는 징그러운 양키들의 시체가 뒹굴고있다.

그리고 꺼먼 현무암너머에는 사랑하는 전우들의 무덤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것이란 그들—불사조와 같은 전사들이 있을뿐이였다.

그런데 또 그들은 어떤가?

사실 살아남았다는 그들은 또 얼마나 지치고 엉망이 되였는가?

어지러운 붕대가 이마며 다리며 팔에 빠짐없이 동여졌고 군복은 찢어지고 불타고 매닥질이 되였다. 잠에 주리고 변변히 먹을짬도 없었던 그들은 모두가 광대뼈가 두드러졌으며 볼따귀는 훌쭉하니 꺼져들었다. 수염은 꺼칠하고 어지러웠으며 눈에는 피발이 서고 살기가 어리였다. 날마다 아침검사를 받던 단정하고 깨끗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싸움에 지친 그들에게는 경황이 없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도 《강대》함을 자랑하는 원쑤가 있으며 힘겨운 전투가 기다리고있다. 그런데 그들의 소대장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간단말인가? 전사들은 참혹한 싸움판을 돌아보고 전우들의 끔찍한 얼굴

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기들의 앞에 선 자기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중대장을 보았다.

어느덧 초연에 어지러워진 전사들의 두볼에는 주르륵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울었다. 서로 굶주린 사람처럼 지치고 상처받은 전우들을 그러안고 울었다. 친부모의 상보를 접하고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들이 가슴아프도록 뒤집히고 모욕당한 조국의 땅덩어리를 그러안고 울었다. 목메여 울었다.

위대한 조국을 생각하며 자기들을 그러한 영웅으로 길러낸 조국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소리내여 울었다. 일찌기 이처럼 가혹한 시련을 겪은 인민이 있었으며 이런 고난속에서 이런 찬란한 꿈을 가졌던 인민이 있었던가? 전사들은 자기 힘의 위대함을 새삼스럽게 느꼈으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고 존경을 표시해야 되리라는 그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눈앞에 그리며 사나이의 울음으로 목놓아울었다.

《위대한 우리 조국 만세!》

누군가가 마침내 감격을 참지 못하여 울음섞인 소리로 목터지게 웨쳤다. 그러자 모두 총을 쳐들고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만세!》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만세소리는 월하분지를 짓누르고 천지에 메아리를 일으켰다.

문득 대우는 자기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의식하였다. 눈물은 자꾸만 볼을 타고내렸다. 그의 머리속에는 언젠가 련대장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나이의 눈물, 사나이의 분노, 사나이의 사랑…

대우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보내야지, 아무렴 보내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운단말인가!)

눈물은 흐르고 또 흘러도 그들의 가슴에는 더욱 세찬 불길이 타오르고있었다.

2

두무령전투의 마지막 밤은 깊어갔다.

낮에 놈들은 다섯차례나 공격해왔으나 두무령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새로 두개 소대의 보충을 받은 뒤라 그들의 사기는 한개 사단이나 증강된듯 드높아졌다. 이것은 한성호소대장이 소환된데서 온것이였다.

성호는 련대장의 편지를 받고 모두 감격에 넘치던 그후 곧 떠났다. 그는 처음에 당황하여 어쩌지를 못하였다. 그는 대우에게 어떻게 전우들과 이 고지를 두고 떠나겠느냐고 애원하다싶이 하였었다. 그러나 대우는 말할것도 없고 전사들이 한사코 가야 한다고 우겨댔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적이 또 밀려오기전에 떠나라고 그의 등을 떠밀다싶이 하였다.

하는수없이 배낭을 둘러메고 나선 성호는 두무령 정점, 전우들의 무덤앞에서 모자를 벗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다. 배웅하러 나온 전우들도 그앞에 섰다. 그때 그들은 꼬아리꽃이 하얗게 핀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들을 무척도 기쁘게 하였다.

《꽃이 피였다!》

《이제 열매가 달리겠지…》

《그렇지, 열매가 달릴거야…》

이러한 말들을 주고받았다.

성호는 전우들과 작별인사를 하였다. 서로 부탁할 말

이 산더미같았으나 다만 건강을 비는것으로 모든 부탁을 대신하였다. 그 많은 부탁의 말을 제한된 시간에 도저히 다할수가 없었기때문이다.

정숙이와 성호는 오래도록 무엇인가 속삭였다.

정숙이는 낯을 붉히고 말하였다.

《알아요, 알아요. 말씀마세요.》

전우들은 그들의 유별난 작별을 관대하게 대하였으며 모른체하였다.

그렇게 하여 한성호는 두번째 공격이 시작되기전에 그들이 《참모장고지》라고 부르는 월하봉을 넘어갔던것이다. …

…래일아침 최후의 전투를 위하여 모든것이 준비되였다.

2소대 엄페호에서는 곽풍수가 자그마한 손가위로 수염을 깎고있었다.

《아니, 여보게 이사람,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새로 배속된 같은 나이또래의 전사가 집적거렸다.

홍규는 그 몸매 다부지게 생긴 전사를 곁눈질로 흘겨보면서 반문하였다.

《정신이 나가다니?》

《벌초는 해서 뭘하는가말야? 래일 전투를 끝내고 몸단장도 할노릇이지.》

《이 동무가 아직도 례절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수염을 밀고나야 대면을 하지… 그 양코 련대장말이다. 이것이 군인의 례절이거든.》

홍규는 중대장에게 지적을 받고 어제부터 면도칼이건 가위건 구하려고 몹시 애를 썼다는 눈치는 전혀 비치지 않고 능청만 떨었다.

두사람이 떠드는바람에 옆에서 잠들어있던 봉선이가 눈을 떴다.

《이 경상도 문둥아, 그래 웨더마이어에게 선을 뵈고

아주 장가들겠단말이지? 그거 잘 생각했는데… 총각도 면하고 또 그놈 비게가 져서 푹신푹신한게 좋을거야.》

《에라, 너는 잠이나 자빠져 자거라. 재수없게 장가는 어인 장간고?》

《그래두 총각인데 장가를 들어야 할게 안야? 내 풍수 중매설 일이 걱정이더니 잘됐는데…》

봉선이는 홍규의 총각을 까밝혀내려고 기회만 있으면 따지고판다. 그런판에 어수룩한 홍규가 또 담배주머니를 끄집어냈다. 이 담배주머니가 항상 말썽이였다. 공단천으로 정성들여 기운것인데 거기에는 어두운 등잔불밑에서 정성들여 바늘을 놀리고있는 시골아낙네의 얼굴이 그대로 그려지는듯하였다.

《여보게 총각, 이 주머니 누구에게서 받았다구?》

담배를 붙여문 봉선이가 또 걸고들었다.

《그건 와 또 묻노? 전선에서 어떤 처녀가 선물로 주더라는데…》

《에끼 뻔뻔스러운것, 자네 그 밤송이같은 수염 보구 줬겠나?》

《흥, 그래도 처녀들은 좋기만 하대.》

엄페호들에서는 닥쳐올 격전과는 너무나 인연이 먼 롱담들을 주고받으며 늦도록 잠들줄 몰랐다.

…중대장감시소에서는 특무장이 혼자 신명이 나서 소대들에 나누어줄 수류탄을 배낭에 꽁지고있었다.

《하아, 이제는 정말 회계를 보게 됐단말이지. 히히히, 그놈들한테 단단히 받아내야지. …》

그는 몸이 근질근질한지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어깨를 으쓱으쓱하는가 하면 혼자 무엇인가 자꾸 중얼거리더니 배낭을 둘러메고 나갔다.

정숙이는 지금 웬일인지 가슴이 산란하였다. 오만가지 생각이 갈피를 출수 없게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소대장동무는 무슨 말을 하고싶었을가? 설마 그 많은 사람들속에서… 그런데 난 또 무엇을 안다고 했을가?… 그 동무는 갔어. 머나먼곳으로… 이렇게 갑자기 헤여질줄 알았다면 너무 쌀쌀하게 굴지 않았을걸. 그래두 뭐 자기가 별스레 구니까 더 쌀쌀하게 되지.…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할가? 그 사람이 갔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야! 참 우습지? 내가 뭐라구…)

이렇게 생각하려니 생각은 나래를 펴고 하염없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정숙이는 그것을 뿌리칠념을 않고 그 끝없는 생각의 바다속에 몸을 잠갔다.

(거기는 폭격도 없을테니 몸걱정은 없을거야. 그래도 싸우는 조국을 뒤에 둔 그 동무의 마음이야 얼마나 괴로울가. 아마 공부가 잘 안될걸.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기만 해도 꼭꼭 3점짜리가 생기던데뭐. 허지만 그 동무는 배워야 돼. 5점을 맞아야 돼. 원쑤를 갚기 위해, 여기서 전사한 전우들의 피를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 잘 배워야 돼. 그게 그 동무의 전투야. 그래 나는 그 동무가 공부를 잘하도록 편지가 오거든 답장을 써주자. 그저 동무끼리 편지를 하는데 누가 뭐래.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그 동무가 마음놓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페허를 메꾸게 해야 돼. 껴안고 울고싶도록 상처받은 이 땅에 다시 꽃을 피워야 돼…)

…감시소 한쪽구석에 찌그러진 탁자를 마주하고 앉은 대우는 아까부터 말없이 노트를 뒤적이고있었다.

그는 오늘따라 명랑한 얼굴을 하고 다녔으나 웬일인지 적정이 잠잠해짐에 따라 그리고 전선에 어둠이 깃들고 푸른 달빛이 출입문으로 뻗쳐들면서부터 긴장되고 지어 준엄해졌다.

대우가 지금 뒤적이고있는것은 그가 군대에 나오던 때부터 쓰기 시작한 전투일기였다. 일기라고는 하지만 못쓴 날이 더 많았다. 간고한 행군과 치렬한 전투의 여

가에 짬짬이 쓰게 되는만큼 1년가까이 가지고 다니는데 아직도 얄팍한 노트 한권을 다 메꾸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속에는 그가 걸어온 이 1년간의 준엄한 로정이 적혀있었으며 거대한 정신적체험이 기록되여있었다.

오늘 일기를 써놓고나서 가렬하던 두무령전투도 이 밤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덧없이 더듬고있노라니 불현듯 일기를 들추어볼 생각이 떠올랐었다.

어느덧 노트를 뒤적거리던 손은 멎고 그대신 그의 머리에는 글로써는 표현할수 없었던 일들이 보다 완전하고 생동한 화폭으로 떠올랐다.

그는 이제 자기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는 자기가 무척 늙었다는것을 생각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스물일곱해— 그것은 결코 긴세월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 스물일곱해에 얼마나 다난하고 복잡한 체험을 하였는가를 생각할 때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주의 아들과도 함부로 섭쓸려 놀던 철부지시절, 김준도에게 쫓기여 제강소마을로 솔가도주하다싶이하던 소년시절… 그는 그때부터 시궁창물을 들이키듯이 가난과 천대의 맛을 보아왔었다. 그리고 폭풍같은 열정으로 충만된 1945년과 1946년— 그때는 얼마나 큰 포부가 가슴에 넘쳤던가? 지금 생각하면 그 시기의 자기는 너무나 열에 들떠서 어리석으리만치 당돌하고 건방진것 같았다. 물불을 모르던 나날이,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와 청소한 인민주권을 수립하는 과정이 선풍같이 흘러갔다. 민주기지를 강화하며 첫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앙양된 창조적로동의 나날— 그 나날이야말로 청년의 열정과 힘을 그것을 위해 바치려던 보람차고 환희로 충만된 나날이 아니였던가? 군민청의 단층사무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제강을 짜고 청년들의 집회를 조직하고 하면서 며칠을 안먹어도 배고픔을 몰랐

고 눈에 진물이 돌도록 잠을 못잤어도 오히려 몸에서는 새힘이 용솟음쳤었다. 그러나 희망과 정열이 약동하던 그러한 시기에 조국앞에는 준엄한 시련이 시작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우는 몇해간의 자기 생활을 스스로 총화했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온갖 개인적인것들과 깨끗이 작별하였다. 그는 조국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책임감에 자부심을 가졌으며 어느 누구도 그것만은 자기에게서 빼앗을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군대에 탄원해나오던 시기에 쓴 노트 첫머리 어디엔가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있었다.

《…

사랑은 힘이다.

열렬한 사랑만이 열렬한 증오를 낳는다.

나는 나의 귀중한 모든것을 열렬히 사랑할것이다. 동시에 나는 나의 온 정신과 육체를 증오로 불태울것이다. 원쑤들에 대한,미국놈과 리승만이와 그리고 김희연이 같은자들에 대한…

나는 사랑을 길량식으로 해서 미래에로 열린 길을 갈것이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간고해도…》

대우의 머리에는 이 한달남짓한동안에 자기 심정에는 또하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것처럼 생각되였다.

산정에 피는 꼬아리,기발처럼 휘날리는 피로 물든 당회의 결정서… 여기서 사랑하는 전우들의 청춘이 만발하였다. 두무령은 사랑과 증오로 얽혀진 열정의 봉우리였다. 또한 이 조그마한 고지는 그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그는 여기서 수많은 살뜰한 전우들과 상관들을 만났고 혜경이를 만났다.

대우는 혜경이라는 녀자가 어찌하여 자기의 생활에서 그처럼 큰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 스스로 놀라지 않

을수 없었다.

군의소에서 쓴 어느날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었다.

《…

오늘도 상급준의와 다투었다. 그와 만나면 매번 다투게 된다. 그러나 나는 웬일인지 그가 밉지 않다. 밉지 않으면서도 트집을 잡는것은 무슨 일인가?》

그의 일기에는 통털어 이런 대목이 몇군데 없었다. 모두다 준엄한 싸움과 엄혹한 시련, 조국의 운명에 대한 생각이 적혀있었는데 최근에 쓴 일기에는 그런 야릇한 대목들이 몇군데 껴들었다.

대우는 그것을 읽으니 저도 쑥스러운 생각이 나서 노트를 탁 접어버렸다.

심장은 뒤늦게사 높이 뛰였다. 금시 몸뚱이가 하늘을 날을것만 같았다. 지나온 간고한 길도, 닥쳐올 힘겨운 싸움도 아무것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였다.

대우의 풍선처럼 둥실 뜬 마음을 가라앉게 한것은 정숙이가 내쉬는 한숨소리였다.

대우는 번쩍 정신을 차리였다.

(저 동무는 왜 저렇게 침울해있을가? 아마 한성호동무가 떠나서? 사실 한성호는 저 동무를 사랑하는 눈치가 틀림없었지. … 나같이 둔감한게 다 느꼈을적에는…)

대우는 그들의 장래에 끝없는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런 용감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해야 하며 인류와 력사 앞에 행복하게 살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사실 정숙이는 얼마나 용감한 처녀인가? 그가 포로후송을 자원해나섰을 때의 그 눈물어린 두눈을 대우는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였다. 대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사랑스러운 처녀야, 너는 행복할것이다. 너는 행복을 쟁취하고야말것이다.)

대우는 천천히 무선대결으로 갔다.

《정숙동무.》

《네?》

정숙은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나는 동무가 돌아왔을 때 무척 반가왔소.》

《네?!》

처녀의 눈에는 삽시에 놀람과 환희가 넘쳐났다.

《동무가 떠나갔을 땐 아닌게아니라 걱정스러웠소. 그놈은 여기서 나한테도 마구 대들던놈이니까.… 그리고 동무가 또다시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소.》

대우는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사실 그것은 이미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가? 전쟁의 하루, 전쟁의 한시간, 전쟁의 한초는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단 한시간동안에 력사에 길이 남을 위훈도 세워지고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내에 한개 사단의 운명이라도 좌우될수 있다. 전쟁의 매초매초는 소용돌이와 같이 사람들의 머리를 휘저으면서 그속에서 참된것을 재빨리 골라내고 그리고 숨쉴틈도 없이 앞으로 내달리는것이다. 죽음의 시련을 수십번씩 되풀이해 맛보이면서…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가겠어요?》

정숙은 처음으로 그렇듯 살뜰하게 대우와 말하게 되는것이였다.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도 거북함도 수줍음도 없었다. 오직 죽음을 함께 타승한 진정한 전우들만이 가질수 있는 그런 미더움과 친근함이 있을뿐이였다.

《그러기말이요. 나는 동무를 잘 몰랐던것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푸른 달빛은 참담한 고지의 모

습을 더없이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만들어놓았다. 산도 분지도 먼 나무숲과 바위도 푸른 빛으로 은은하게 떠올랐다. 오늘따라 전선은 한없이 고요하였다.

정숙은 힐끗 대우를 돌아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물었다.

《중대장동무, 저 군의소의 상급준의동무를 아세요?》

몹시 수줍어하는 정숙의 태도만 보아도 대우의 얼굴은 후끈해졌다.

《그건 왜 묻소?》

《제가 어제 군의소에 갔는데 자꾸 중대장동무 이야기를 물어요. 고지형편이랑…》

대우는 잠자코 서서 달빛이 무르녹은 바깥세상을 내다보았다. 한껏 부드럽고 유연한 감정이 온몸에 꽉 찼다.

《몸조심하시라고…》

정숙은 수줍어서 그만 말을 못맺고만다.

《그래?》

대우는 아무 뜻없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웬일인지 구체적인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이나 말없이 생각에 잠겨 그렇게 서있었다.

《한성호동무는 지금쯤 아마 평양으로 달리고있겠지. …》

《…》

또다시 침묵이 계속되였다. 정숙은 대우의 이야기에서 무슨 암시라도 받은듯이 천천히 무선기의 주파수 조절기를 돌렸다. 그러자 형형색색의 전파와 무선수, 방송원의 목소리가 교차되더니 이윽고 평양방송이 들어왔다. 최고사령부의 보도는 이미 지나가고 무선기에서는 쨰릉쨰릉한 어린애의 목소리가 동요를 읊고있었다.

…

우리들은 자라요 무럭무럭 자라요
미국놈 비행기도 우리들은 못쏴요
우리들은 배워요 쉬지 않고 배워요
영웅조선 우리들은 래일의 주인

대우와 정숙은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환희와 감동이 끓어올랐다. 영웅적인 수도의 목소리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사무치도록 느끼게 하였다.

그렇다! 재더미와 불비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으며 배우고있다. 조선의 래일은, 미래는 그렇듯 믿음직하게, 씩씩하게 움트고있는것이다.

3

대우는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였다.

정확하게 6시부터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뒤따라 구라망편대가 두무령상공을 갈가마귀떼처럼 감돌며 폭탄과 기총알을 퍼부어댔다.

천장이 무너져서 전호나 다름없이 된 엄폐호벽에 기대인 대우의 심장은 터질듯이 긴장되였다.

(과연 밀려올것인가?)

포사격은 시작될 때와 같이 정확하게 6시반이 되자 딱 멎었다. 그러자 우릉우릉 무한궤도소리가 들려왔다.

대우는 후ㅡ 한숨을 내쉬였다. 적정을 살폈다. 딱정벌레같이 보이는 6대의 중땅크가 앞장을 서고 그뒤로 보병들이 새까맣게 풀려나오고있었다. 총공격이 틀림없었다.

《허ㅡ 굉장한걸. … 허허허.》

대우의 입에서는 부지중 너털웃음이 새여나왔다. 도무지

웃음집이 흔들거려서 참을수가 없었다. 오래간만에 송곳같은 덧이가 전진에 어지러워진 얼굴에 하얗게 드러났다.
멀끔히 면도를 한 곽홍규도 비죽이 웃으며 《봐라, 면도를 잘했지, 하하하.》 하고 너털거렸다.
딱정벌레같던 땅크는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집채만해졌다.
선두땅크가 월하분지 중간을 넘어서자부터 쾅쾅 포탄을 갈겨댔다.
《멋을 부리는군.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배때기에 창을 내놓을테니…》
전사들은 고개를 움츠러뜨리면서도 욕을 퍼붓는것은 잊지 않았다.
이윽고 땅크의 시창이 똑똑히 보이고 그뒤에 달려오는 검고 희고 누르고 한 오가잡탕 병졸들의 얼굴까지 가려볼수 있게 됐을 때 기척없이 앉아있던 820고지에서 태고의 침묵을 깨뜨리듯 위력한 지스뜨리의 일제사격소리가 천지를 진감시켰다. 뒤따라 삼두봉 좌익릉선에 대고 사단포련대의 지원사격이 시작되였다. 각종 구경의 일체 포들이 삼두봉과 월하분지에 집결된 적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들씌웠다.
보병들의 머리우에 짓누르듯 날아가는 지뢰탄, 땅크의 철갑을 파고드는 파갑탄…
짜르릉, 꽝, 짜르릉.
쉭쉭쉭— 피유—꽝, 짜르릉.
천지는 사무친 분노에 떨듯 뒤흔들렸고 삼두봉은 뿌리채 뽑혀나는듯하였다.
월하분지에 겹겹이 뭉쳐 달려나온 적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 불의의 불벼락에 놀라 심장들이 터진듯하였다. 산병선은 지리멸렬이 되고 불개미떼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육중한 땅크도 삑 방향을 돌리더니 저희네 병졸을 깔아뭉개며 뒤로 달아나는가 하면 어떤놈은 두무

령벼랑을 향해 선불맞은 메돼지처럼 달려들기도 하였다.
《하하하.》
《호호호.》
《전쟁도 할맛이 있는걸. 푸짐한데. … 어허허허.》
참호속에서는 허파가 흔들흔들하도록 통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두대의 땅크가 지스뜨리포탄에 명중되여 한놈은 불이 붙고 한놈은 무한궤도가 뭉청 끊어져서 쭈그러져앉고말았다.
그러나 미구에 적들도 정신을 수습하였다. 놈들은 두무령에 바싹 접근함으로써만 아군포화력을 피할수 있다는것을 간파하고 땅크를 선두로 발악적으로 두무령을 공격하였다.
4대의 땅크는 두무령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포탄을 갈겨댔다. 보병들은 땅크의 엄호를 받으며 고지 앞턱에 와붙었다.
땅크포가 정면으로 갈겨대기때문에 두무령은 아주 불리한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적이 바싹 두무령에 접근하자 이쪽으로 향했던 아군 포화력은 점차 삼두봉쪽으로 옮아가고 땅크를 위협하는것은 오직 두무령에 있는 반땅크총뿐이였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4대의 땅크를 제압하기는 너무나 아름이 찼다.
적은 마침내 고지에 붙었다. 살길을 찾아 놈들은 필사적으로 기여올랐다. 머지않아 등뒤로 죽음을 재촉하는 돌격소리가 울려오리라는것을 짐작하는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전에 두무령을 탈취할 심산이였다.
전사들은 땅크포의 집중적인 사격을 무릅쓰고 고지에 기여오른놈들을 향해 불을 퍼부었다. 중기의 방열통은 벌써부터 펄펄 끓어올랐다. 경기도 기관단총도 보총도 반총도 쉴새없이 불을 토하였다. 총신이 달아 빨갛게 익은 탄알이 발아래 주르륵 떨어지도록 쏘았다.

그러나 워낙 적은 수량상 비교가 안될만큼 우세한데다 땅크의 사격때문에 정세는 갈수록 불리해졌다.

대우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엄폐호 흉장에 기대서 고지 중턱까지 바라오른놈들을 내려다보았다.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는듯하였다. 고지턱밑에 바싹 붙은 4대의 땅크는 전후좌우로 마구 내달리면서 미친듯이 포구에서 불을 뿜어댔다.

대우는 사태가 위험하다는것을 느꼈다. 땅크를 진압해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하며 어떤 희생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적의 보병이 앞에서 득실거리는데 땅크파괴조를 보낼수도 없지 않는가? 그러나 어쨌든 결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불과 몇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어떤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는지 모른다. 결정적인 대책을…

이때 두무령 앞턱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친듯이 한대의 땅크가 달려오는데 그를 맞받아 한 전사가 수류탄묶음을 안고 달려들었다. 고지를 깔아뭉갤듯이 사납게 돌진해오던 땅크가 정면으로 달려오는 전사를 보자 흠칠 급정거를 하였다. 무한궤도가 와르릉 땅을 물어뜯고 몸체가 우직거렸다. 전사도 멎어섰다. 혼전이 벌어진 두무령 한끝에서 수십톤의 중량을 가진 육중한 대형땅크와 한사람의 전사가 결투를 하듯이 서로 노려보며 마주선것이다. 땅크가 뒤걸음질치기 시작하였다. 《셔만장군》이라고 위용을 뽐내는 중땅크가 《USA》라는 글자를 송구스럽게 옆으로 감추면서 꽁무니를 사리는것이다. 순간 전사는 수류탄묶음을 안고 내리덮치듯이 그놈의 배때기로 육박하였다.

쨔르릉!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이 일어났다. 다음순간 그자리에는 볼꼴없이 무너져앉은 땅크의 잔해가 활활 불타고있을뿐이였다. 전사의 모습은 간곳이 없었다.

《풍수야— 이 문둥아—》

숨죽이고있던 전호속에서 리봉선이가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의 손에는 곽홍규가 그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던 담배주머니가 쥐여져있었다.

《이봐라 봉선아, 사실은 우리 고향에 마누라도 있고 새끼들도 있다. 이담에 우리 고향을 해방시키거든 이 주머니를 우리 마누라 갖다줘라. 그러면 감도 얻어먹고 사과도 따다줄것이다.》

봉선이는 경황없는 싸움판이라 얼결에 그 소리를 들었던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대에서 제일 겁많던 홍규는 적의 땅크와 단둘이 맞서서 그렇게 죽었다. 깨끗이 면도까지 하고…

대우는 홍규의 장렬한 전사를 보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주먹을 부르쥐고 정숙이를 불렀다.

《련대장동무를 찾소, 전화로! 내가 직접 말하겠소. 얼른!》

대우는 송수화기를 틀어쥐자 소리쳤다.

《3번동무십니까? 지스뜨리포로 두무령을 사격해주십시오. 땅크에게 집중사격을 부탁합니다.》

련대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요? 동무들의 머리우에 포사격을 하란말이요? 안될말이요. 좀더 견디오. 조금만 더…》

《돌격이 시작되면 놈들은 기어코 올라올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크때문에 얼굴도 들수 없습니다. 포를 돌려주십시오.》

《동무들이 맞을수 있소. 그래서 놈들이 거기 바싹 붙은거요. 그냥 좀 견디오.》

《련대장동무, 그러기에 때려야 합니다. 지금은 한시도 주저할수 없습니다. 지금 땅크를 제압하지 않으면 보병들을 격퇴할수 없습니다.》

잠시 말이 끊어졌다.

《련대장동무, 련대장동무!》

그러나 의연히 수화기에서는 앵—하고 전류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뿐이였다. 대우는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기다렸다. 비록 짧은동안이지만 련대장이 얼마나 심각한 생각을 하고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사실 강표는 송수화기를 으스러뜨릴듯이 틀어쥐고 감시창너머로 두무령을 쏘아보고있었다.

(내 전사들 머리우에 포탄을 갈겨?)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죽 솟아났다. 거기엔 대우가 있고 정숙이가 있고 아마도 한평생 잊지 못할 사랑스럽고 용감한 전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머리우에 포사격을 퍼붓다니…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빌어먹을… 안된다, 그것만은 안된다. 적탄에 희생되는것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우리 포탄에 희생되는 전사가 생긴다면 그 절통함을 어디다 호소하랴! 두무령 턱밑에 딱정벌레처럼 들어붙어 번쩍번쩍 불을 토하고 있는 적땅크들이 보였다. 강표의 이마에서는 손가락같은 정맥이 두드러져올랐다.

(개같은놈들! 만일 내가 쏘지 않으면 저놈들이 우리 전사들을 쏠것이다.)

강표는 다시한번 송수화기를 힘있게 틀어쥐였다. 불과 일분도 안되는 짧은동안이였으나 강표의 머리에는 쏘자, 쏘아서는 안돼, 그렇지만… 이렇게 같은 생각들이 수십번도 더 자반뒤집기를 하였다.

이때 그의 생각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대우의 목소리가 수화기에 울려왔다.

《련대장동무, 저희들은 념려마십시오. 저희들은 어떻게나 살아남을것입니다. 련대장동무, 갈겨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쏘아주십시오.》

강표는 머리를 쳐들었다. 그렇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사랑인것이다.

《좋소, 알겠소. 곧 포를 돌리겠소. 대우동무, 모두 부

디… 아니, 곧 갈기겠소.》
강표가 송수화기를 놓고 돌아보니 어느새 들어왔는지 구본수가 옆에 서있었다.
강표는 곧 다른 전화로 포진지에 나가있는 군사부련대장을 불렀다.
《지스뜨리를 다시 두무령쪽으로 돌리시오. 파갑탄으로 적땅크를 묘준사격하시오. 10분이내로 소멸해야 하오!》
구본수가 소스라쳐 한걸음 앞으로 나선것과 동시에 수화기에서 당황한 군사부련대장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강표는 결연한 태도로 말하였다.
《〈그렇지만〉이 아니요. 사격하시오. 10분이내로 땅크를 제압하지 못하면 엄중하게 책임질줄 아시오! 묘준은 정확하게!》
송수화기를 꾹 눌러놓은 강표는 일순 힘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인차 수리개처럼 높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리고는 송구스럽게 서있는 구본수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본수는 웬일인지 더럭 무섬증이 났다. 그는 그처럼 단호하고 무자비한 련대장의 태도를 여직 본적이 없었다.
이때 강표가 불쑥 한장의 도면과 문건을 내놓았다.
《보시오!》
구본수가 얼른 문건을 펼쳐들었다.
그의 눈은 점점 커지고 입은 벌어졌다. 그것은 차지한 계선에서 적극적인 진지방어로 이전할데 대한 전선사령관의 명령서사본이였다. 그리고 도면은 강표가 사판에 의하여 손수 작성한 완전한 반전차대책과 지뢰, 철조망 등 공병적대책을 갖추었고 공고한 갱도식진지들을 예견한 삼두봉의 방어략도였다.
구본수는 퍼뜩 어제새벽에 사단으로부터 련락군관이 왔다간것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이번 작전이 자기가 생각한것처럼 단순히 전국을 호전시키기 위한 전술적공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전략적단계를 맞이하기 위하

여 신중하게 타산되고 준비된 진정한 작전이였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이제 전투의 운명은 결정되였소. 우리는 승리할것이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런 군사비밀도 없소. 수색전투가 끝나는 즉시로 방어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하시오.》

구본수의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어났다. 그의 머리에 오래동안 옹이처럼 응고되여있던 메마른 엄격성과 과학성의 성곽은 밑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강대한것은 인간의 힘,의지의 힘이다. 그의 머리는 이 너무나 큰 충격때문에 어질어질해졌다.

그러나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포소리는 더욱 높아가고있었다. 돌격의 시각이, 원쑤의 숨통에 죽음의 날창을 박을 시각이 박두하고있다.…

대우는 송수화기를 떨어뜨리고 엄페호 흉장에 엎드렸다. 이제 우리 포병들의 포사격권내에서 싸우게 될 전우들을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미여져올랐다. 동시에 진정한 영웅성의 그 비장함과 그 열렬함과 그 강력함에 스스로 감격되기도 하였다. 그는 힘찬 목소리로 련락병을 불렀다.

《소대장들에게 가오. 이제 곧 아군의 포사격이 시작되니 조심들 하라고…》

《꽝!》

이윽고 지스뜨리포가 적땅크를 겨누어 다시금 포문을 열었다.

꽝— 짜꽝!— 파갑탄이 적땅크주위에 마구 떨어졌다. 어떤 포탄은 고지중턱까지 기여오른 적보병의 머리우에도 떨어지고 오차가 심한것은 아군 전호앞에서도 터졌다. 그러나 대체로 포병들의 사격은 정확하였다. 전우들의 머리우를 쏘는 그들의 사격이 어찌 정확하지 않을수 있으랴!

꽝! 짜르릉! 짜꽝!

맹렬한 포사격이 두무령에 집중되자 땅크들은 당황실색하여 갈팡질팡하였다. 보병들은 더욱 발악적으로 기여올랐다.
대우는 엄페호 앞뒤에 와 떨어지는 위력한 우리 포병들의 사격소리를 들으며 히죽이 웃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인민의 참된 아들이 되였다는것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바로 이 순간 엄페호 바로 앞에서 적의 경기가 뚜루룩 뚜루룩 하고 울부짖었다. 대우는 신다리가 허공 쳐들리는것을 느꼈다.
《중대장동무！》
정신없이 기관단총을 두르고있던 정숙이가 달려들었다. 대우는 눈을 부릅떴다. 적탄은 대퇴로부터 하복부를 꿰고 나갔는데 너덜너덜하는 상처에서 걷잡을수없이 피가 솟구쳐올랐다.
대우를 쏜 경기는 아직도 불을 토하면서 접근해오고있었다. 《U. S. A.》라고 씌인 철갑모와 누런 미국제군복이 보였다.
《개새끼！》
대우는 이를 앙다물고 수류탄을 뽑아들었다. 유리눈같은 파란 동자, 노리께한 턱수염이 꺼칠한 뾰족한 턱, 칼날같이 날이 선 매부리코—원쑤의 형상이 똑똑히 보였다. 그놈이 경기를 쳐들고 한걸음 앞으로 기여나오려는 순간 대우는 온몸의 힘을 다해 수류탄을 쥐여뿌렸다.
《이놈들, 더는 못나온다！》
대우는 폭발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시간이 썩 지난 후에야 그는 아득히 꿈속에서처럼 천지를 뒤흔드는 돌격소리를 들었다. 가슴을 흔들어주는 저 나팔소리—
《만—세—》
《마—ㄴ—세—에—》
우렁찬 만세소리를 듣는 그의 두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

혀있었다. 의식은 다시 몽롱해지고 모든것이 캄캄해졌다.

4

숨가쁜 긴장이 흘렀다.

아직도 수술실에서는 기척이 없다.

구본수는 이 한시간나마 되는동안이 마치 지나온 반생만큼이나 길고 지루하게 생각되였다.

그는 두무령에서 수색전투가 끝나는 길로 련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곧 군의소로 달려왔던것이다. 그가 수술실에 들어섰을 때 대우의 수술을 끝마친 군의장이 손을 닦으며 나왔다. 치명상만도 세군데나 되는데 그우에 또 출혈이 심하고 하복부를 뚫고나간 탄알이 대장을 못쓰게 만들었다는것이였다.

복잡하긴 하나 수술은 괜찮게 되였는데 소생할는지 어떨는지 장담할수 없다면서 군의장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후로도 여러차례 수혈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의식은 회복되지 않는 모양,혜경은 벌써 몇시간째 수술실에서 나올줄 몰랐다.

구본수는 안절부절못하여 대기실안을 오락가락하다가 체면도 잊어버리고 수술실문에 귀를 갖다대고 동정을 엿듣기도 하였다.

오늘 전투는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6대의 땅크를 비롯하여 두무령쪽으로 밀렸던놈은 다 죽이거나 생포하였다. 삼두봉에 남아있던놈들도 거의 소멸되고 겨우 일부가 룡화리쪽으로 도망쳤다.

특기할 일로는 웨더마이어를 비롯한 적 참모부성원들이 전원 생포됐는데 이에 있어서 부상을 무릅쓰고 전투에 나선 작전참모 현종국이가 인솔한 참모부 기습조

원들의 역할이 특히 용감하고 눈부신바가 있었다.
아군의 손실은 두무령에서 곽홍규를 비롯한 여섯명의 전투원이 장렬한 전사를 했고 대우가 중상을 당했고 그밖에 10여명이 경상을 당했을뿐 전과에 비해서는 거의 없으나 다름없는 손실이였다.
이런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본수의 가슴은 답답하고 쓰라리였다. 그것은 이번 작전에 자기의 지혜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했고 지어 자기 고집때문에 일정하게 저해를 주기까지 하였다는때문만은 아니였다. 보다 중요한것은 조국방위에 나선 전사들의 순결한 량심과 그 불붙는 애국심을 리해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정신적힘의 강대성을 보지 못했다는것이였다.
특히 자기의 편협한 사고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했을 박대우가 지금 생사경을 헤매고있다는,정확히 말하면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다는것이 그의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지휘관의 신임이 약할 때 전사들은 죽어갈수 있다는 련대장의 말이 들을 때보다 몇갑절 더 예리하게 구본수의 가슴을 찔렀다.
어느덧 구본수는 대우를 그지경으로 만들어놓은것이 바로 자기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강박하기 시작하였다.
대우가 군사비밀을 루설했다고 생각한것도 오해라는 것을 현종국이가 밝혀놓았다. 오늘아침 총공격이 있기 직전에 군의소에서 뛰쳐나온 종국이는 이번 전투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있던 잘못된 생각을 낱낱이 다 털어놓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라도 제일 위험한곳으로 나가겠다고 간청하였다.
본수는 뼈저린 뉘우침을 맛보았다. 생활이 그에게 가져다준 교훈은 전쟁환경답게 준엄하고 명백하고 그만큼 아팠다. 그는 이 교훈을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간직할것이였다. 그리고 인간을 어떤 세속적인 자막대기로 재거나 당당한 사회주의조국의 인민을 식민지 반봉

건사회의 유물인 옹색한 결방살이시절의 척도로 판단하고 평가하는따위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였다. 우선 그는 참된 인간들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들을 온 심장으로써 믿어야 할것이였다.
(나의 심장은 식었다. 먼길을 가기에는 나의 심장은 너무나 작고 열이 없었다. 불태우자. 그들의 심장처럼… 조국이 요구한다면 규정도 교범도 서술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라도 만들어내고마는 그들 영웅들의 심장처럼… 불태우자, 활활 불타는 심장을 안고 뜨겁게, 열렬하게 살자. 혜경이가 언젠가 말한것이 바로 이것이였다. 뜨겁게, 열렬하게 살자고… 그래야만 영원한 청춘의 화신인 우리 당의 의지를 리해할수 있다. 그렇다! 내 심장이 불타오른다면 우리 오누이는 또 얼마나 더 잘 리해할수 있을것인가. …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우동무, 살아나오. 살아나주오. …)
군의소직일관이 전화가 왔다고 알렸다. 직일관실에 가서 전화를 받으니 련대장의 클클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참모장동무요? 그래 어떻소?》
《아직은…》
《군의장동무가 뭐라오?》
《수술도 하고 수혈도 했는데 고개를 기웃거립니다. 아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구본수는 갑자기 애원하다싶이, 또 련대장에게 무슨 특별한 힘이 있기나 한듯이 허둥거리며 말하였다.
《련대장동무, 어떻게 할수 없을가요? 아마 눈치가 희망이 없는 모양인데… 무슨 대책을 세울수 없을가요?》
《알겠소. 그러나 덤빌 필요는 없소. 그런 청년은 죽지 않을것이요.》
《네?》
《죽지 않을것이요. 그렇소. 죽지 않을것이요. 내

이제 그리로 가겠소.》
수화기를 놓고 구본수는 생각하였다.
(그렇다! 죽지 않을것이다. 죽지 않을것이다.)
이때 구본수는 련대장의 말이 아무도 꺾을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는 련대의 주인인 련대장이 아닌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까지 해보았다.
구본수가 대기실에 돌아왔을 때 수술실에서 혜경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대장동무, 중대장동무. 정신차려요, 중대장동무!》
구본수는 급히 수술실문을 살며시 비집고 들여다보았다.
혜경은 한참 그렇게 부르더니 환자가 다시 기척이 없는 모양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혜경이가 다시 그 다급한 소리를 지른것은 련대장의 웰리스소리가 군의소앞에서 울렸을 때였다.
대우는 마침내 눈을 떴다. 하얗게 피기가 가신 훌쭉한 얼굴에 작은 눈이 퀭하게 꺼져들어가서 더욱 깊어보였다. 그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혜경이며 구본수며 간호병들의 얼굴을 흐려드는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강표의 얼굴을 알아보자 얼굴에 한점 붉은 기운이 돌았다.
《련…대…》
그는 무엇인가 말하려고 애썼으나 되지 않았다. 강표는 그의 안타까와하는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하였다.
《좋소. 보고는 이다음에 받기요. 빨리 일어나오. 동무는 군의소에 다시 안오겠다더니…》
강표는 말소리가 떨리여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 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대우의 얼굴에는 가냘픈 미소가 떠오르면서 하얀 덧이가 다정하게 드러났다.
강표는 그 얼굴을 바라보더니 침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또 정신을 잃었군. 그러나 념려들 마오. 그는 죽지 않소!》

강표의 말이 어찌도 확신에 찼던지 구본수는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혜경이조차 이 방에서 의사는 자기가 아니라 련대장이기나 한것처럼 간절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것이였다.

×

5월 16일부터 3일간의 반타격전에서 적장병 1만 8천여명을 소멸하였으며 937대의 자동차, 전차, 장갑차, 386문의 각종 포를 파괴, 로획하는 거대한 전과를 거둔 5차2작전은 끝났다.

간고한 기동방어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 거대한 작전에 뒤이어 조중인민군부대는 최고사령부의 새로운 전략적방침에 의하여 차지한 유리한 계선에서 진지방어에로 이전하였다. 완전한 갱도식진지가 굴설되였으며 공고한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여기서 릿치웨이의 《하기 및 추기공세》에 대처하여 적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조국의 고지를 철옹성으로 만들었다.

《추기공세》가 끝나갈무렵 두무령에는 빨갛게 꼬아리가 무르익었다. 그것은 마치 영웅들이 흘린 선혈의 결정과도 같이 빨갛게 불탔다.

그 꼬아리앞에 전사들의 무덤이 있었다. 다만 곽홍규의 무덤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육신은 두무령의 온 땅덩어리우에 만발하듯 흩어지고만것이다.

전우들은 그의 전투사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두무령 꼭대기에 비를 세웠다. 구본수가 초를 잡은 그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었다.

전사 곽홍규
1951년 5월 19일
영웅적인 두무령방어전에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조국의 대지우에 꽃보라처럼 뿌리면서 장렬하게 전사한 애국의 넋은 영생불멸하리라.

두무령 정점에는 가렬한 싸움이 지나간후이면 의례히 전우들이 찾아왔다.

높이 개인 쪽빛 하늘에 흰구름이 둥둥 떠돌고 포화에 부스러졌던 두무령의 상처도 아물어가는 어느 가을날, 이 영웅들의 무덤앞에 새 군복을 입은 군관 한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그는 대우였다. 후방병원에서 3개월여에 걸치는 치료를 받고 이제사 련대로 돌아오는 길이였다.

그는 오래동안 숙이고있던 고개를 들었다. 볼이 좀 꺼지기는 했으나 지금도 그 희고 군살이 없는 얼굴이며 자그마한 눈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이마에 난 상처가 그의 외형을 다소 심각하게 만들어주었다.

대우는 최두령이며 김의식이며 곽홍규의 모습을 방불히 눈앞에 그리며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나는 전선으로 돌아왔네. 자네들 생각을 하면 죽을수가 있어야지. … 남해끝까지 가겠네. 조국을 통일하여 자네들의 원쑤를 갚고 이 땅우에 자네들의 소원을 성취시키겠네. 그러지 않고야 내가 어떻게 죽을수 있겠나. …》

남쪽하늘에서 은은히 포소리가 울려왔다. 대우는 포소리나는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벗들의 무덤에 다시한번 고개를 숙이고 빨갛게 무르익은 꼬아리를 한번 매만져보고나서 걸음을 옮겨놓았다. 힘차게 성큼성큼 걸어갔다. 포소리가 울리는쪽으로…

그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그리고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이 이룩될 그날까지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것이였다.

1960년 8월

중편소설 **전 사 들**

제 4 판

저　　자 석윤기 편집 박태수, 량남익
표지, 삽화 김경송, 최영석 교정 리정순
콤퓨터편성 고려전자출판물사 리순정, 주인길
낸　　곳 문학예술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61(1972)년 4월 20일
2판발행 주체67(1978)년 2월 20일
3판발행 주체75(1986)년 7월 30일
4판인쇄 주체94(2005)년 8월 1일
4판발행 주체94(2005)년 8월 5일

ㄱ—66306